

梨花語文學會 학술대회

2023년 이화어문학회 겨울학술대회
학문 후속세대 자유발표

일시: 2023년 1월 12일(목) 14:00 - 18:00

장소: 실시간 ZOOM

주최/주관: 이화어문학회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梨花語文學會 학술대회

“학문후속세대 자유발표”

- ▶ 방식 : 실시간 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
- ▶ 일시 : 2023년 1월 12일(목) 14:00 - 18:00
- ▶ 실시간 ZOOM 회의 [ID: 927 6060 9451]
- ▶ 진행 순서

-1부 : 국어학·고전문학-	
	* 사회: 박지현·한유진
[14:00 - 14:15]	장지영 “한국어 전문용어 형성과 유추 - 경제,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14:15 - 14:30]	권경녀 “전문용어에서 나타나는 파생어의 형태·의미적 특성 고찰”
[14:30 - 14:45]	신연수 “중세 한국어 보조사 ‘(이)샤’의 의미”
[14:45 - 15:00]	김지현 “월암(月巖) 이광려(李匡呂) 과체시(科體詩) 연구”
[15:00 - 15:15]	남혜경 “<육염기>와 <취미삼선록> 화소의 유사성 연구”
[15:15 - 15:30] 중간 휴식	
-2부 : 현대문학-	
	* 사회: 김민지
[15:30 - 15:45]	황경해 “유목적 주체로서 ‘되기’와 시적 카르토그래피 전략 - 김혜순, 허수경 작품을 중심으로”
[15:45 - 16:00]	김선빈 “박상수 시에 나타난 레즈비언-되기와 퀴어 정동”

[16:00 - 16:15] 윤혜정

“‘살 만한 삶’을 위한 수행적 실천의 흔적들
- 최은미의 『눈으로 만든 사람』을 중심으로”

[16:15 - 16:30] 천서운

“역사를 해체하는 말들과 수행성의 윤리
- 박솔피의 『미래 산책 연습』을 중심으로”

[16:30 - 16:45] 이지연

“1960~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식모 표상의 변화와 가족의 균열
- 손창섭과 최일남의 소설을 중심으로”

[16:45 - 17:00] 공라현

“‘가족’이라는 윤리의 폭력성과 전복의 정당성
- 황정은의 「파묘」(2019)와 강화길의 「음복(飲福)」(2019)을 중심으로”

[17:00 - 17:15] 중간 휴식

[17:15 - 18:00] 종합 토론

한유진(좌장) · 박지현 · 박소영 · 구선정 · 전청림

梨花語文學會長 홍혜원

美 眞 善

1945
W.H.A

1945
W.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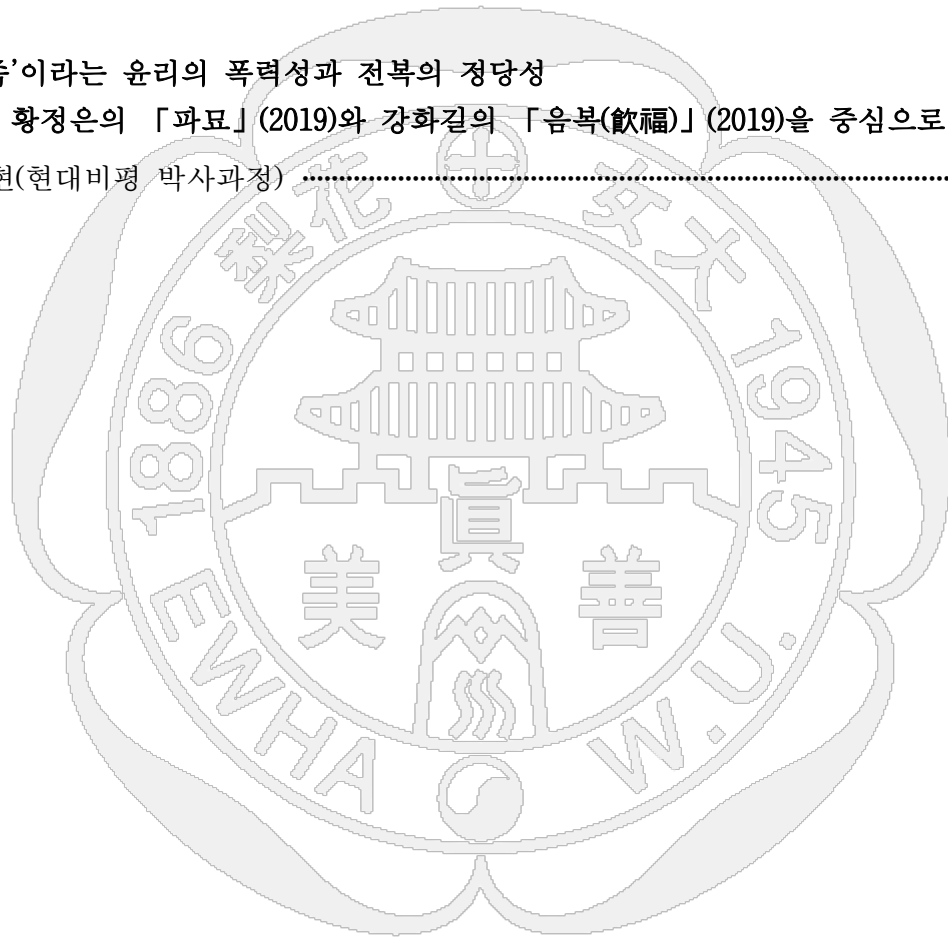
목 차

“한국어 전문용어 형성과 유추 - 경제,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장지영(형태론 박사수료)	1
“전문용어에서 나타나는 파생어의 형태·의미적 특성 고찰” 권경녀(형태론 박사과정)	21
“중세 한국어 보조사 ‘(이)샤’의 의미” 신연수(통사론 박사수료)	32
“월암(月巖) 이광려(李匡呂) 과체시(科體詩) 연구” 김지현(한문학 박사과정)	42
“<육염기>와 <취미삼선록> 화소의 유사성 연구” 남혜경(고전소설 박사수료)	54
“유목적 주체로서 ‘되기’와 시적 카르토그래피 전략 - 김혜순, 허수경 작품을 중심으로” 황경해(현대시 박사과정)	69
“박상수 시에 나타난 레즈비언-되기와 퀴어 정동” 김선빈(현대시 박사과정)	86
“‘살 만한 삶’을 위한 수행적 실천의 흔적들 - 최은미의 『눈으로 만든 사람』을 중심으로” 윤혜정(현대소설 박사과정)	97

“역사를 해체하는 말들과 수행성의 윤리
- 박솔뫼의 『미래 산책 연습』을 중심으로”
천서윤(현대소설 박사과정) 113

“1960~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식모 표상의 변화와 가족의 균열
- 손창섭과 최일남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지연(현대비평 박사수료) 128

“‘가족’이라는 윤리의 폭력성과 전복의 정당성
- 황정은의 「파묘」(2019)와 강화길의 「음복(飲福)」(2019)을 중심으로”
공라현(현대비평 박사과정) 145



한국어 전문용어 형성과 유추

- 경제,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장 지 영(형태론 박사수료)

차례

1. 서론
2. 전문 용어 형성의 방법
3. 전문 용어 형성 기제로서의 유추
4. 유추의 유형에 따른 전문 용어의 형성
 - 4.1. 표면 유추에 의한 전문 용어의 형성
 - 4.2. 유추의 틀에 의한 전문 용어의 형성
5. 결론

1. 서론

본고는 단어 형성 기제로서 작용하는 유추에 주목하여 전문 용어의 형성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단어 형성 기제로서의 유추는 어휘부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어와의 형식적, 의미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유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단어 형성 기제로서 부상하게 되었고 생산적이고 규칙적인 단어의 형성뿐만 아니라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의 형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형성 기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유추라는 단어 형성 기제는 신어를 대상으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¹⁾ 신어에는 문법 외적 형태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혼성이나 두음절화처럼 형식의 감소를 보이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어 보고서에는 《우리말샘》의 전문 용어 재분류 지침에 따라 전문 용어 여부를 구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전문 용어 또한 혼성이나 두음절화처럼 형식의 감소를 보이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문 용어 또한 유추라는 단어 형성 기제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1) 가. 맞벌이 → 겹벌이²⁾
나. 이코노미 → 일코노미³⁾
다. X코노미: 핏코노미⁴⁾, 혼코노미⁵⁾, 홈코노미⁶⁾, 폴리코노미⁷⁾

- 1) 신어의 형성을 유추로 설명한 논의로는 Mattiello(2017), 김혜지(2016, 2021, 2022), 최형용(2021), 최형용 외(2022) 등이 있다.
- 2) 『사회』 경제적인 목적이나 자아실현을 위하여,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일. 또는 그런 일이나 직업.
- 3) 『경제』 혼자서 경제생활을 꾸려 나가는 일.
- 4) 『경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을 이르는 말. 반려동물 전용 간식이나 영양제, 의류 따위의 각종 용품이나 유치원, 병원 따위의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을 말한다.
- 5) 『경제』 일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
- 6) 『경제』 집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이르는 말.

라. 미시스 커피족(2004)⁸⁾ → 미시스 주스족(2004)⁹⁾

(1)의 단어들 중에서 오른쪽에 제시된 단어들은 신어 보고서나 《우리말샘》에 제시된 단어들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들이 아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어들을 기반으로 형성된 전문 용어이다. (1가, 라)는 『사회 일반』(이하 『사회』) 분야의 전문 용어, (1나, 다)는 『경제』 분야의 전문 용어이다. (1가) ‘겉벌이’는 모형 단어 ‘맞벌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단어로 파생이라는 문법적 과정에 해당한다. (1나) ‘일코노미’의 경우 단일어인 ‘이코노미’를 재분석하여 ‘이’를 ‘일’로 대치하여 형성된 것이다. (1다)의 목표 단어들은 하나의 모형 단어가 아닌 유추의 틀에 의해 형성된 단어들로 ‘코노미’라는 고정요소를 공유한다. (1라)는 모형 단어와 목표 단어가 모두 구에 해당하는 전문 용어이다. 구 이상의 형식을 가지는 전문 용어는 외형적으로 단어가 아니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개념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단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특히, 전문 용어의 경우 명확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 이상의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 용어의 경우, 단어 내부의 요소가 고정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 단어 외부의 요소까지 고정요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표현론적 동기를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데, 이때 형성되는 단어는 대개 이미 어휘부에 존재하는 단어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또한 (1)에 제시된 단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신어 보고서에 실려있는 전문 용어는 비교적 분명한 출현 시기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모형 단어로 하여 목표 단어가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신어 보고서가 아닌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 전문 용어들은 신어 보고서에 실린 전문 용어들과는 달리 명확한 출현 시기를 가지지 않지만 용례를 통해서 어떤 단어를 모형 단어로 하여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전문 용어의 형성 기제를 유추로 설명하고 유추의 유형에 따라 전문 용어를 분류하고자 한다.

전문 용어란 전문가들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전문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일반어의 하위 범주인 어휘에 해당하는 개념이다.¹⁰⁾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서는 총 422,895개의 표제어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의 표제어가 전문 용어에 해당한다. 《표준》에서의 전문 용어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통해 전문 용어가 우리 생활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어 형성과 관련된 논의 대부분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어휘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문 용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들 중에서도 전문 용어의 형성과 관련된 논의보다는 전문 용어의 조어법을 분석하는 논의가 대부분이었다.¹¹⁾ 하지만 전문 용어도 한국어의 일부이므로 전문 용어의 형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 단어 형성의 다양한 총체를 좀 더 넓게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표준》에 등재되어 있는 전문 용어들은 총 67개의 분야로 구분되는데 전문 용어의 형성

7) 『경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말한다.

8) 『사회』 쇼핑을 하면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즐기는 결혼한 여성. 또는 그런 무리 (2014년 신어 보고서)

9) 『사회』 물이나 첨가물을 섞지 않은 생즙으로 만든 주스만 고집하는 결혼한 여성. 또는 그런 무리.

10) 전문 용어의 정의와 그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강현화(2000), 이현주(2013), 김한샘(2015), 엄태경·신중진(2017), 엄태경(2019) 등을 참고할 것.

11) 전문 용어의 조어법을 분석한 논의로는 배선미·시정곤(2004), 송영빈(2008), 김정우·김성원(2012), 이현주(2013), 신중진·엄태경(2016), 엄태경·신중진(2017)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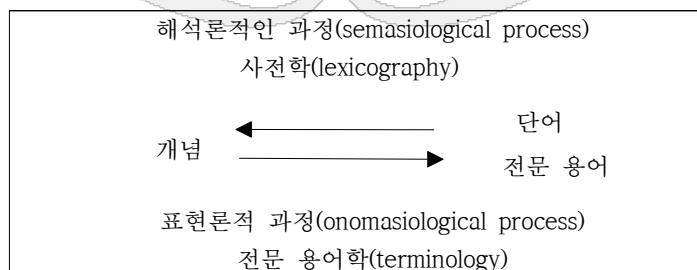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모든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 용어를 분석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분야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제』와 『사회』 분야에 한정하여 그 분야의 전문 용어의 형성을 유추로 설명하고자 한다. 『경제』와 『사회』 분야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특히 두 분야의 전문 용어가 일반 용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어 보고서에 제시된 전문 용어 중에서도 『경제』와 『사회』 분야의 전문 용어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 용어는 일반 용어와 구분되는 특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경제』와 『사회』 분야의 전문 용어들은 현대 국어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 특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용어들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다루는 전문 용어는 《표준》과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신어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2절에서는 전문 용어 형성 방법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고 전문 용어의 형성을 유추로 바라볼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전문 용어 형성 기제로서 유추의 유형을 제시한다. 4절에서는 실제 전문 용어들의 형성을 살펴보고 이들을 유추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문 용어의 형성을 유추로 설명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전문 용어의 형성을 살펴본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전문 용어 형성의 방법

전문 용어의 형성은 표현론적 접근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표현론적 접근은 해석론적 접근과 대립되는 것으로 Sager(1990), Cabré(1999)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 (2) 전통적 전문 용어학 이론에서는 개념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개념들의 이름을 찾는 ‘명명적’ 접근을 보이므로 ‘표현론적’이라고 한다. 반면, 사전학적 접근은 단어에서 시작하여 그 의미를 찾는 ‘의미적’ 접근을 보이므로 해석론적으로 부른다(Sager, 1990:56 엄태경 2019 재인용).
- (3) 전문 용어학은 개념으로부터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 표현론적 문제에 해당한다 (Cabré 1999: 7-8).



<그림 1> 해석론적인 과정과 표현론적 과정(Cabré: 1999: 38)

이들에 따르면, 표현론적 접근은 개념에서 시작하여 의미를 찾는 과정이며 이와 같은 관점이 전문 용어학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엄태경(2019)은 표현론적 접근에 기반을 두고 전문

용어 형성의 절차와 원리를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단계	형성 절차	영향 관계									
1단계	새로운 개념 발생 또는 의도적 명명	능동적 실천									
2단계	대상의 개념화	전문 지식 사회 관습 형성 동기									
3단계	언어 표현의 방법 선택										
	<table border="1"> <thead> <tr> <th>형식</th> <th>의미</th> <th>기능</th> </tr> </thead> <tbody> <tr> <td>- 결합</td> <td>- 전문 용어화</td> <td rowspan="3">전성</td> </tr> <tr> <td>- 절단</td> <td>- 분야 간 차용</td> </tr> <tr> <td></td> <td>- 의미 바꿈</td> </tr> </tbody> </table>	형식	의미	기능	- 결합	- 전문 용어화	전성	- 절단	- 분야 간 차용		- 의미 바꿈
형식	의미	기능									
- 결합	- 전문 용어화	전성									
- 절단	- 분야 간 차용										
	- 의미 바꿈										
4단계	<table border="1"> <thead> <tr> <th>용어 형성</th> </tr> </thead> <tbody> <tr> <td>- 단일 용어</td> </tr> <tr> <td>- 복합 용어</td> </tr> </tbody> </table>	용어 형성	- 단일 용어	- 복합 용어	생성 후 1단계로 회귀 가능						
용어 형성											
- 단일 용어											
- 복합 용어											

<그림 2> 전문 용어 형성의 절차와 원리(엄태경 2019:82)

1단계에서는 새로 발견한 개념의 명명 욕구 또는 의도적인 용어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개념화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 개념화의 과정에서는 언어 외적인 영향이 관여하게 되는데 따라서 개념화에 따른 개념 구조는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전문 분야별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3단계는 개념화 단계가 언어화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언어화의 방법으로는 ‘형식 차원’, ‘의미 차원’, ‘기능 차원’의 방법이 사용되며 이 방법들은 서로 교차될 수 있다. 이 방법들 중에서 형식 차원이 형태론적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식 차원에서 용어를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결합과 절단을 제시하였다. 결합은 다시 파생과 합성으로 나뉘고 절단은 단순히 뒷부분이 절단되어 형성된 전문 용어뿐만 아니라 두문자어, 두음절어의 전문 용어도 포함한다. 엄태경(2019)에서는 파생과 합성이라는 문법적인 과정뿐 아니라 두문자어, 두음절어와 같은 문법 외적인 과정으로도 전문용어가 형성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지만 이를 규칙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채현식(2003)¹²⁾에서 제시한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유추 또한 표현론적 과정에 해당하며 따라서 엄태경(2019)에서 제시한 전문 용어 형성 과정의 3단계에서 대처라는 방법이 사용되면 전문 용어의 형성을 유추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용어 형성 방법에 따른 결과가 도출된다. 엄태경(2019)은 전문 용어의 분석과 관련한 부분에 한정된 기존 논의들과 달리 전문 용어의 형성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형성에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Mattiello(2017)는 영어의 신어를 유추의 관점에서 바라본 논의로 사용 영역에 따라 유추를

12) 채현식 (2003: 117)에서 제시한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가. 표적(target)의 확인: 해결해야 할 표적을 확인한다.
- 나. 근거 단어(source words)의 탐색: 어휘부에서 표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거로 이용될 수 있는 단어(들)을 찾는다.
- 다. 근거 단어와 표적의 비교·정렬: 근거 단어와 표적을 비교·정렬해서 둘 사이의 공통성을 포착한다.
- 라. 근거 단어의 구조적 관계를 표적에 사상(寫象): 근거 단어에서 추상화된 구조적인 관계를 표적에 적용한다.

세분화하여 신어 가운데 전문 용어, 청소년 언어, 언론 용어, 문학 용어에서 나타나는 유추를 다루었다. 전문 용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 영역에 따라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의 형성을 유추로 바라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본고의 초석이 된다. 또한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 대부분이 영어에 해당하므로 Mattiello(2017)에 따르면 한국어의 경우에도 유추적 형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문 용어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Mattiello(2017)는 과학, 경제학, 정보 공학, 정치학, 법 분야에 주목하여 유추의 유형, 모형 단어의 유형과 그 관계, 유추에 의해 형성된 전문 용어의 기능과 분포를 살펴보았다.

(4) 가. FIFO [1966] → LIFO [1966]

나. [G-X_{num}] → G5 [1977], G7 [1986], G8 [1988], G10 [1980], G20 [1972]

유추의 유형을 크게 표면 유추와 틀에 의한 유추로 구분하였는데 (4가)는 표면 유추, (2나)는 틀에 의한 유추에 해당한다. 표면 유추와 틀에 의한 유추의 차이는 통시적인 것으로 초기에는 개별 단어와의 표면적 유사성에 기반하여 형성이 되었지만 동일한 형태를 가진 계열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유추의 틀이 형성되어 틀에 의한 유추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표면 유추와 틀에 의한 유추는 더 세분화가 가능하다. ‘순수 표면 유추’는 표면 유추의 전형으로 모형 단어와의 순수한 유사성이 중요하다. ‘확대/축소 표면 유추’는 형식적으로 모형 단어의 확대나 축소가 일어난 표면 유추에 해당한다. ‘고정항 결어 표면 유추’는 비전형적인 표면 유추의 유형으로 모형 단어와 목표 단어 간에 고정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마지막 ‘규칙 결합 표면 유추’는 모형 단어와 목표 단어 사이에 규칙이 개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를 통해 Mattiello(2017)는 유추를 규칙과 상호 배타적인 개념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틀에 의한 유추는 결합형에 의한 유추와 높은 빈도의 파편소에 의한 유추로 하위 분류된다. 즉 고정항의 지위를 기준으로 하위 유형이 구분되는 것이다.

최형용(2021)은 Mattiello(2017)의 논의 가운데 한국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신어 보고서가 전문 용어 여부를 구별하여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 영역의 관점에서 접근한 Mattiello(2017)의 전문 용어에서의 유추와 대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2019년 신어 보고서의 전문 용어 가운데 (5)의 세 가지 예시를 제시하여 유추로 그 형성을 설명한다.

(5) 가. 비저노믹스³⁾ ← 베지노믹스⁴⁾, 슬리포노믹스⁵⁾, 우머노믹스⁶⁾, 위미노믹스⁷⁾, 위키노믹스⁸⁾
;그린노믹스⁹⁾, 네코노믹스²⁰⁾, 베이비노믹스(2014)²¹⁾, 스타노믹스(2014)²²⁾,

-
- 13) 『경제』 식물성 음식으로만 식사하는 채식주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채식 시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일. (2019년 신어 보고서)
 - 14) 『경제』 점차 커지고 있는 채식 시장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르는 말.
 - 15) 『경제』 점차 커지고 있는 숙면 시장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르는 말.
 - 16) 『경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여성이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경제 현상.
 - 17) 『경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여성이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경제 현상.
 - 18) 『경제』 대중의 지혜와 지성으로 지배되는 경제 방식. 뛰어난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던 기존의 구조와 상반된 개념으로, 기업이 독점했던 정보를 공개하고 외부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협업 경제를 말한다.
 - 19) 『경제』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경제 개발 정책.

시니어노믹스²³⁾, 시티노믹스²⁴⁾, 컬처노믹스²⁵⁾

나. 슬로벌라이제이션²⁶⁾ ← 싱글라이제이션²⁷⁾

다. 내각 패싱²⁸⁾ ← 코리아 패싱²⁹⁾

(5가)는 하나의 모형 단어를 기반으로 형성된 목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틀에 의한 유추에 해당하며 (5나, 다)는 ‘싱글라이제이션’, ‘코리아 패싱’이라는 하나의 모형 단어에 기반하여 ‘슬로벌라이제이션’, ‘내각 패싱’이 형성된 것이므로 표면 유추에 해당한다. Mattiello(2017)에 따르면 (5가)의 단어들은 ‘노믹스’라는 동일한 고정요소를 가진다고 해서 모두 ‘비거노믹스’의 모형 단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거노믹스’는 선행요소의 뒷부분이 절단되고 후행요소의 앞부분이 절단된 점에서 혼성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린노믹스, 네코노믹스, 베이비노믹스, 스타노믹스, 시니어노믹스, 시티노믹스, 컬처노믹스’는 선행요소가 절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성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거노믹스’의 모형 단어는 ‘베지노믹스, 슬리포믹스, 우머노믹스, 위미노믹스, 위키노믹스’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고정요소의 지위가 변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이는 3장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한다. 최형용(2021)에서는 비록 세 단어밖에 없지만 이 세 단어들이 표면 유추, 틀에 의한 유추라는 유추의 유형뿐만 아니라 혼성이라는 문법 외적 과정, 합성의 방식이라는 문법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3. 전문 용어 형성 기제로서의 유추의 유형

전문 용어 중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와 음운론적, 의미론적, 형태론적 유사성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며 대부분이 기존 단어의 형태에서 일부 요소를 대치함으로 형성된다.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은 언제나 대치라는 조작을 수반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의 형성 과정에서 유추의 작용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문 용어 형성에 작용하는 단어 형성 기제로서의 유추에 주목하는 것이다.

유추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는 유추를 표면적 유사성에 기초한 유추와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한 유추로 구분해 왔다. 표면적 유사성에 기초한 유추는 다시 의미적 유사성과 음성적 유사성으로,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한 유추는 개별 단어들에 의한 유추와 유추의 틀에 의한 유추로 하위 분류된다.³⁰⁾ 그러나 표면적 유사성과 구조적 유사성을 구분하는 경계가 불분명하

20) 『경제』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

21) 『경제』 2013년 영국 왕실에서 왕세손 부부의 아기가 탄생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효과를 이르는 말.

22) 『경제』 스타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일.

23) 『경제』 노령 인구의 경제 활동으로 파생되는 경제 효과.

24) 『경제』 경제성·문화성·예술성·친환경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고루 갖추어야 도시가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도시 경제학.

25) 『경제』 문화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이르는 말.

26) 『경제』 세계화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 보호 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국가 간의 교역, 대출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세계 경제의 유기성이 약화된 데에서 비롯된 말이다. (2019년 신어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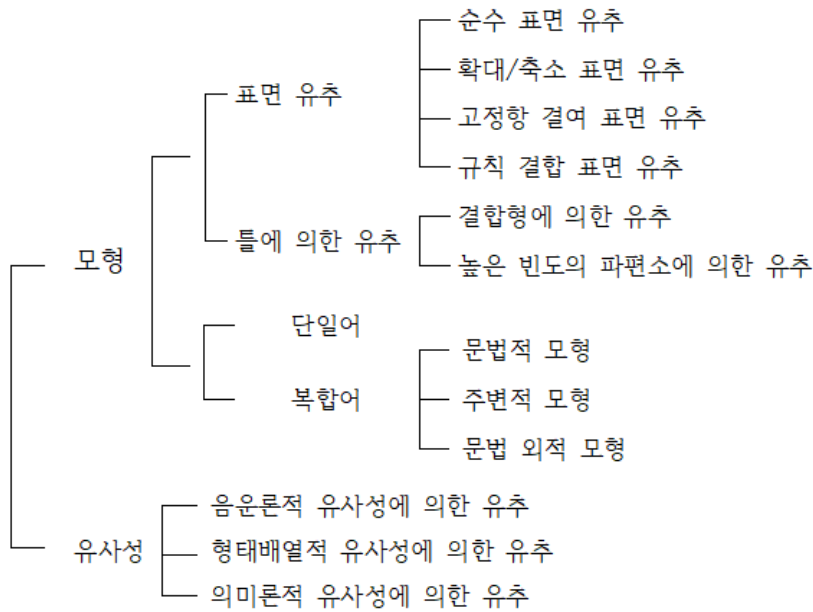
27) 『사회』 전 세계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

28) 『정치』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 합의 기관인 내각이 외교나 행정 따위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현상. (2019년 신어 보고서)

29) 『정치』 주요 이해 당사자인 한국이 국제 문제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현상.

다는 점, 표면적 유사성에 기초한 유추에 대해서는 유추의 틀에 의한 유추를 하위 분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기존 논의에서 제시한 유추 유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정한테로 2016, 최형용 2021, 최형용 외 2021, 김혜지 2021, 2022ㄱ, 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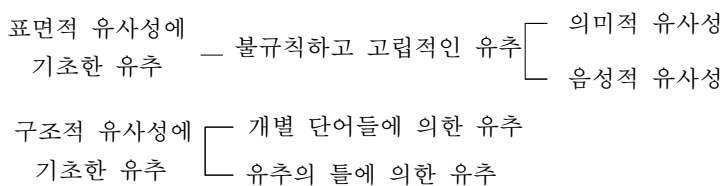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는 Mattiello(2017)와 김혜지(2022ㄱ)에서 제시한 유추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Mattiello(2017)에서 제시한 유추의 유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Mattiello(2017)의 유추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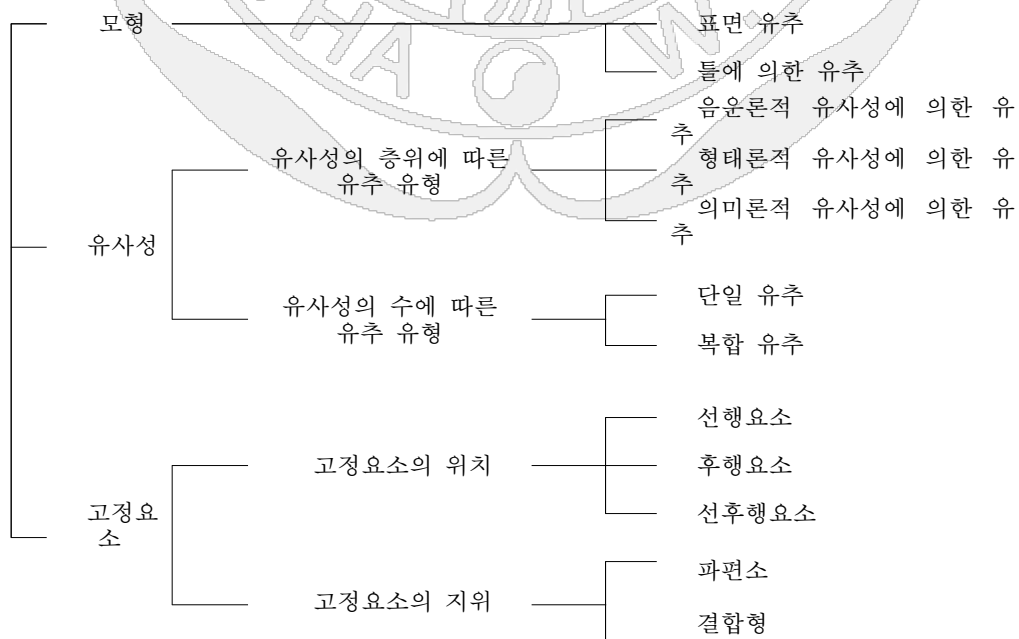
2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Mattiello(2017)는 모형 단어가 개별 단어냐 틀이냐에 따라 표면 유추와 틀에 의한 유추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을 또 하위 분류하였다. Mattiello(2017)는 모형 단어의 유형에 따라서도 유추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모형 단어가 단일어인 경우, 일정 요소가 대치되기 위해서는 재분석이 필요하다. 재분석(reanalysis)은 화자가 단어를 지닌 원래의 형태론적 구조를 인지하는 데 실패하여 다른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때 일어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Bauer 2004:89). 원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경계를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경계를 만드는 경우, 존재하는 경계를 없애는 경우 모두 재분석에 포함되지만 단일어에서의 재분석은 경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경계를 만드는 경우를 의미한다. 모형 단어가 복합어인 경우에는 다시 문법적 모형, 주변적 모형, 문법 외적 모형으로 나뉜다. 문법적 모형은 유추가 일어나는 모형이 파생어나 합성어의 구조와 일치하는 경우이고 주변적 모형은 유추가 일어나는 모형이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주변적

30) 채현식(2003ㄴ)에서 제시한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모형의 경우에도 모형 단어에서의 재분석이 발생한다. 이때의 재분석은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경계를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 경계를 없애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법 외적 모형은 혼성어, 두자어, 축약어, 절단어 등을 위한 것이다. 유사성에 따른 유추의 유형은 음운론적 유사성, 형태배열적 유사성, 의미론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형태배열적 유사성은 문법적이든 문법 외적이든 목표 단어와 모형 단어가 가지는 단어 형성 과정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현식(2003)에서 제시한 구조적 유사성과 김혜지(2022)의 형태론적 유사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Mattiello(2017)에서는 <그림 3>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목표 단어의 유형, 목표 단어와 모형 단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유추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본고에서 검토한 전문 용어들은 대부분 모형 단어와 목표 단어의 유형이 동일하고 목표 단어와 모형 단어 간의 거리는 한국어의 경우 말뭉치 자료의 한계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논외로 하고자 한다.

김혜지(2022)는 기존 논의들에서 제시한 유추의 유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형, 유사성, 고정요소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유추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김혜지(2022)에서 제시한 유추의 유형을 기본적으로 따르되, 고정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유형을 위치와 지위로 다시 세분하여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고정요소의 지위에 따른 분류는 Mattiello(2017)에서 틀에 의한 유추를 결합형에 의한 유추와 높은 빈도의 파편소에 의한 유추로 구분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김혜지(2022:120)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각각의 유형이 모두 같은 층위에서 다루어질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각각의 기준에 따른 유추의 유형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전문 용어가 표면 유추이면서 의미론적 유사성에 의한 유추, 단일 유추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질을 구분하여 전문 용어의 형성을 살펴보지 않고 크게 표면 유추와 틀에 의한 유추로 질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단어들이 다른 기준들에 따라 어떤 유추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의 유추의 유형을 제시하면 <그림 4>와 같으며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전문 용어의 유추적 형성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4. 유추의 유형에 따른 전문 용어의 형성

4.1. 표면 유추에 의한 전문 용어의 형성

표면 유추는 목표 단어를 형성하는 데 기반으로 작용하는 모형 단어가 개별 단어인 경우를 말한다.

- (6) 가. 신도불이 → 모험불이³¹⁾
 나. 위풍당당 → 노풍당당³²⁾
 다. 맞벌이 → 겹벌이³³⁾
 라. 배짱이족³⁴⁾ → 개미족³⁵⁾
 마. 오렌지족³⁶⁾ → 깡강족³⁷⁾
- (7) 가. 기리기 아빠³⁸⁾ → 독수리 아빠³⁹⁾, 펭귄 아빠⁴⁰⁾, 참새 아빠⁴¹⁾
 나. 삼포 세대⁴²⁾ → 사포 세대⁴³⁾, 오포 세대⁴⁴⁾, 칠포 세대⁴⁵⁾, 구포 세대⁴⁶⁾
 다. 식스 포켓⁴⁷⁾ → 에이트 포켓⁴⁸⁾, 텐 포켓⁴⁹⁾

31) 『경제』 모기업과 협력 업체는 돌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야 함을 ‘신도불이’에 빗대어 이르는 말. (2005년 신어보고서)

32) 『사회』 노인의 풍채가 당당함을 ‘위풍당당’에 빗대어 이르는 말. (2005년 신어보고서)

33) 『사회』 경제적인 목적이나 자아실현을 위하여,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일. 또는 그런 일이나 직업.

34) 『사회』 미래를 위한 계획이 없이 저축도 하지 않고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은 사람. 또는 그런 무리.

35) 젊었을 때부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저축과 절약을 생활화하며 사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36) 『사회』 19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반에 걸쳐, 자유분방하고 호화로운 소비문화를 즐기던 부유층 젊은이들을 이르는 말.

37) 『사회』 경제 능력도 안 되면서 오렌지족을 흉내 내어 행동하는 사람 또는 그 무리.

38) 『사회』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부인과 아이들을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생활하는 아빠.

39) 『사회』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외국으로 떠나보낸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아빠를 이르는 말.

40) 『사회』 아내와 함께 자녀를 유학 보낸 후, 경제적 여유가 없어 가족을 보러 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생활비만 보내는 아빠.

41) 『사회』 서울 강남 학원가에 소형 주택을 얻어 아내와 자녀만 유학을 보낸 아빠.

42) 『사회』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43) 『사회』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

44) 『사회』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연애, 결혼, 취업, 희망 등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45) 『사회』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 희망의 일곱 가지를 포기한 세대.

46) 『사회』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건강, 외모를 포기한 세대.

47) 『사회』 아이들에게 여섯 개의 주머니가 있다는 뜻으로,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외조부모까지 아이를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현상을 이르는 말.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1990년대에 일본에서 생긴 용어이다.

48) 『사회』 아이들에게 여덟 개의 주머니가 있다는 뜻으로, 식스 포켓에 삼촌과 고모 또는 이모까지 더하여 아이를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현상을 이르는 말.

49) 『사회』 아이들에게 열 개의 주머니가 있다는 뜻으로, 에이트 포켓에 지인까지 더하여 아이를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현상을 이르는 말.

라. 트로피 아내⁵⁰⁾ → 트로피 남편⁵¹⁾

마. 미시스 커피족(2004)⁵²⁾ → 미시스 주스족(2004)⁵³⁾

(6), (7)은 모두 모형 단어가 개별 단어인 표면 유추의 양상을 보여 준다. (6)은 모형 단어와 목표 단어가 단일어, 복합어 중에 파생어인 경우에 해당하며 (7)은 모형 단어와 목표 단어가 구 구성인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문 용어에서는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 구성의 용어들이 많으며 이들 또한 유추적 형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6가, 나)는 모형 단어가 사자성어인 단일어에 해당하는데⁵⁴⁾ (6가)의 ‘모협불이’는 ‘신토불이’와의 의미적 유사성과 형태론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단어이다. ‘신토불이’는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으로 몸과 땅에 해당하는 한자어 ‘신’, ‘토’를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처음절에 해당하는 ‘모’와 ‘협’으로 대치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 것이다. (6나)의 ‘노풍당당’의 경우에는 오직 의미론적 유사성만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단어라는 점에서 (6가)와 차이를 보인다. 즉 (6가)의 ‘모협불이’는 복합 유추에 해당하지만 (6나)의 ‘노풍당당’은 단일 유추에 해당한다. (6다, 라, 마)는 모형 단어와 목표 단어가 파생어로 단순히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서 형성되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모형 단어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일부 요소가 대치되었다고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이들은 Mattiello(2017)에서 제시한 모형 단어의 문법적 모형에 해당한다. (6다)의 ‘겉별이’는 ‘투잡’을 순화하기 위해 형성된 전문 용어로 모형 단어 ‘맞별이’와 의미론적 유사성, 형태론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6라, 마)는 접사 ‘-족’이 결합한 파생어로 ‘개미족’은 ‘베짱이족’을, ‘깡깡족’은 ‘오렌지족’을 모형 단어로 하여 의미론적 유사성과 형태론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단어이다. ‘개미족’과 ‘베짱이족’의 경우 대치된 요소 ‘개미’와 ‘베짱이’는 반의 관계를, ‘오렌지족’과 ‘깡깡족’의 경우 동위 관계를 나타낸다. ‘개미’와 ‘베짱이’가 가지는 반의 관계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따른 반의 관계가 아닌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획득된 의미에 따른 반의 관계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6다, 라, 마)는 복합 유추에 해당한다.

(7)은 구 구성의 전문 용어들로 합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Mattiello(2017)에서 제시한 모형 단어의 문법적 모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7가)의 목표 단어들은 ‘기러기 아빠’를 모형 단어로 하여 의미론적 유사성과 형태론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단어에 해당한다. (7나)의 목표 단어들은 ‘삼포 세대’와 의미론적 유사성, 형태론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삼’과 동위 관계에 있는 숫자들을 대치하여 형성한 단어이며 (7다)의 경우 영어라는 점을 제외하면 (7나)와 동일한 과정으로 형성된 전문 용어이다. (7라)의 ‘트로피 남편’은 모형 단어 ‘트로피 아내’에서 ‘아내’와 반의 관계에 있는 ‘남편’으로 대치하여 형성된 전문 용어이다. (7마)의 ‘미시스 주스족’도 ‘미시스 커피족’을 기반으로 ‘커피’가 ‘주스’로 대치되어 형성된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7)의 단어들은 모두 복합 유추 유형에 해당한다. (7마)를

50) 『사회』 능력과 재력을 갖춘 남성이 얻은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이르는 말. 트로피와 여성을 동일시한 표현이다.

51) 『사회』 사회적·경제적으로 성공한 아내를 대신하여 집안일을 하는 남편을 이르는 말.

52) 『사회』 쇼핑을 하면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즐기는 결혼한 여성. 또는 그런 무리 (2014년 신어 보고서)

53) 『사회』 물이나 첨가물을 섞지 않은 생즙으로 만든 주스만 고집하는 결혼한 여성. 또는 그런 무리.

54) 사자성어의 경우, 각각이 한자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복합어로 분류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단일어로 분류하였다.

제외한 (6), (7)의 단어들은 고정요소가 모두 후행요소인 유형에 해당하지만 (7마)의 경우에는 선후행요소가 고정요소인 유형에 해당한다. 구 구성의 경우 고정요소가 단어 내부의 요소가 아닌 단어 외부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 (8) 가. 우피족⁵⁵ → 푸피족⁵⁶
- 나. 포미족⁵⁷ → 포비족⁵⁸
- 다. 이코노미 → 미코노미⁵⁹
- 라. 이코노미 → 일코노미⁶⁰
- 마. 미코노미 → 위코노미⁶¹

(8)의 단어들도 모형 단어가 개별 단어인 표면 유추의 양상을 보여주는 예들이지만 (6), (7)과 달리 혼성이나, 두자어와 같은 문법 외적 과정에 해당한다. (8가)의 ‘푸피족’은 ‘우피족’과의 음운론적 유사성, 의미론적 유사성, 형태론적 유사성에 기반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우피’와 ‘푸피’는 두자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로 반의 관계를 나타낸다. (8나)의 ‘포비족’은 ‘포미족’을 기반으로 형성된 전문 용어로 ‘포미족’은 두자어에 해당하지만 ‘포비족’은 포미족의 ‘미’를 ‘베이비’을 절단한 ‘비’로 대체하여 형성한 전문 용어이다. ‘포미족’의 ‘포미’는 ‘for m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건강(for health), 싱글(one), 여가(recreation), 편의(more convenient), 고가(expensive)’의 앞 글자를 따온 말로 목표 단어 ‘포비족’과 형태론적 유사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운론적 유사성, 의미론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문 용어 ‘포비족’을 형성하였다고 설명이 가능하다. (8다)의 ‘미코노미’는 모형 단어 ‘이코노미’와의 음운론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전문 용어에 해당한다. ‘이코노미’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음운론적 유사성에 기반하여 ‘이’를 ‘미’로 대체한 것이다. (8라)의 ‘일코노미’ 또한 ‘이코노미’와의 음운론적 유사성과 의미론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전문 용어이다. 그러나 ‘일코노미’의 경우, ‘이코노미’의 ‘이’를 숫자 ‘이(2)’로 과도하게 분석한 후 동위 관계에 있는 숫자 ‘일(1)’로 대체해 형성한 경우로 음성적 유사성이 작용한 중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8마) ‘위코노미’는 모형 단어 ‘미코노미’와 의미적 유사성, 형태론적 유사성에 기반하여 형성된 전문 용어에 해당한다. (8다, 라)는 모형 단어와의 형태론적 유사성을 무시하고 음운론적 유사성, 의미론적 유사성에 기반하여 새로운 전문 용어를 형성한 복합 유추에 해당하지만 (8마)는 새롭게 형성된 ‘미코노미’와 동일한 형태론적 구조를 가지는 ‘위코노미’를 새롭게 형성하였으므로 이는 형태론적 유사성과 의미론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문 용어를 형성한 복합 유추에 해당한다.

-
- 55) 『사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이 든 세대를 의미하는 ‘well-off older people’에서 유래된 것으로 늙어서도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노인을 이르는 말이다.
 - 56) 『사회 일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노인. 또는 그런 무리. 구체적으로는 가처분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65세 이상의 가구주를 이른다.
 - 57) 『사회』 자기에게 가치 있고 만족을 주는 제품은 다소 비싸더라도 과감히 구매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건강(for health), 싱글(one), 여가(recreation), 편의(more convenient), 고가(expensive)의 머리글자를 따온 말이다.
 - 58) 『사회』 자신의 아이를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 59) 『경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이르는 말.
 - 60) 『경제』 혼자서 경제생활을 꾸려 나가는 일.
 - 61) 『경제』 개인이 중심인 전통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험적 모델을 이르는 말.

4.2. 유추의 틀에 의한 전문 용어의 형성

틀에 의한 유추는 개별 단어에 기반한 유추적 형성인 표면 유추와 달리 여러 단어들 이
루고 있는 계열체를 기반으로 한다.

- (9) 가. X포 세대: 삼포 세대, 사포 세대 오포 세대, 칠포 세대, 구포 세대, 엔포 세
대⁶²⁾, 다포 세대⁶³⁾, 축포 세대⁶⁴⁾, 노포 세대⁶⁵⁾
나. X 푸어: 소호 푸어⁶⁶⁾, 스튜던트 푸어⁶⁷⁾, 스펙 푸어⁶⁸⁾, 실버 푸어⁶⁹⁾, 워킹 푸어⁷⁰⁾, 웨
딩 푸어⁷¹⁾, 인포 푸어⁷²⁾, 칼리지 푸어⁷³⁾, 캠퍼스 푸어⁷⁴⁾, 펫 푸어⁷⁵⁾, 하우스
푸어⁷⁶⁾, 학자금 푸어⁷⁷⁾, 허니문 푸어⁷⁸⁾, 랜드 푸어⁷⁹⁾, 렌트 푸어⁸⁰⁾, 리타이
어 푸어⁸¹⁾, 메디 푸어⁸²⁾, 반퇴 푸어⁸³⁾, 베이비 푸어⁸⁴⁾

(9)는 구 구성의 전문 용어들로 합성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이다. (9가)의 경우 표면 유추에
서도 제시한 예에 해당하는데 ‘삼포 세대’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단어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자 ‘X포 세대’라는 틀이 형성되었고 이제는 모형 단어인 ‘삼포 세대’를 떠올려 ‘삼’을 다

- 62) 『사회』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연애, 결혼, 취업, 희망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
63) 『사회』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연애, 결혼, 취업, 희망 등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64) 『사회』 학자금 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버느라 저축을 포기한 이삼십대들을 이르는 말.
65) 『사회』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을 포기한 노인 세대.
66) 『사회』 은퇴 후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했으나 큰 수익은 없고 빚만 늘어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 또는 그런 계층.
67) 『사회』 학자금과 취업 준비 비용 따위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68) 『사회』 취업에 필요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올리기 위한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여 경
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69) 『사회』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 해, 퇴직 후 바로 빈곤층에 진입하는 사람. 또는 그런 세대.
70) 『사회』 직업의 불안정성과 소득의 불규칙성 따위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71) 『사회』 결혼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여 결혼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
72) 『사회』 정보화 사회에서 저소득층을 이르는 말. 이들은 정보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정보를 적게 갖는 계층이 된다.
73) 『사회』 고액의 대학 학자금을 내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74) 『사회』 등록금 낼 돈이 없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충당한 학생들로, 졸업을 해도 취직이 되
지 않아 빚만 남게 되고 그나마 취직을 해도 대출금을 갚고 나면 쓸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
75) 『사회』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76) 『사회』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만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 집값이 오를 때 저금리의 과도한 대출
로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중산층이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77) 『사회』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내고, 졸업 후 대출금을 갚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
람.
78) 『사회』 결혼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여 결혼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
79) 『사회』 땅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 토지 보상을 기대하고 과도한 대출로 땅을 구입하였으나 보상
지연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 겉으로는 중산층이지만 원리금 상환 부
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80) 『사회』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급등하는 전세 보증금 때문에 가난한 세입자.
81) 『사회』 자녀 교육 따위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은퇴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82) 『사회』 과다한 의료 비용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그런 계층.
83) 『사회』 노후 자금, 생활비 등이 부족해 퇴직 후에도 완전히 은퇴하지 못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
람.
84) 『사회』 결혼한 부부가 임신과 출산, 양육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가난해짐. 또는 그런 부부.

른 요소로 대치하는 것이 아닌 'X포 세대'라는 추상적인 틀을 가지고 'X' 자리에 다른 요소를 대치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다. 'X' 자리에는 포기한 것들의 수가 대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축포 세대, 노포 세대'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포기한 대상과 포기한 주체를 나타내는 단어의 첫음절로 대치하여 새로운 전문 용어를 형성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표면 유추와 유추의 틀은 통시적인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표면 유추에 제시되었던 예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통의 고정요소를 공유하는 계열체들이 증가하면 유추의 틀에 의한 유추적 형성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9나, 다)는 모형 단어를 특정 지을 수 없는 유추의 틀에 의한 전문 용어의 형성 양상을 보여준다. (9나)의 경우 'X 푸어'라는 추상적인 틀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문 용어들이 형성되는데 기존에는 'X' 자리에 영어가 오는 전문 용어가 대부분이었지만 '학자금 푸어, 반퇴 푸어'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한국어가 'X'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통해 'X 푸어'가 전문 용어를 형성하는 하나의 틀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전문 용어들이 형성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10) 가. X플레이션: 가스플레이션⁸⁵⁾, 데모크라플레이션⁸⁶⁾, 베지플레이션⁸⁷⁾, 애그플레이션⁸⁸⁾; 노플레이션⁸⁹⁾, 바이플레이션⁹⁰⁾, 뽕플레이션⁹¹⁾, 스크루플레이션⁹²⁾, 스테그플레이션⁹³⁾, 슬럼프플레이션⁹⁴⁾, 오일플레이션⁹⁵⁾, 차이나플레이션⁹⁶⁾, 칩플레이션⁹⁷⁾, 키드플레이션⁹⁸⁾, 택스플레이션⁹⁹⁾, 팬플레이션¹⁰⁰⁾, 푸드플레이션¹⁰¹⁾
 나. X코노미: 폴리코노미¹⁰²⁾, 혼코노미¹⁰³⁾; 펫코노미¹⁰⁴⁾, 홈코노미¹⁰⁵⁾
 다. X스탁 : 나스닥(NASDAQ)¹⁰⁶⁾, 이스탁(EASDAQ)¹⁰⁷⁾, 자스탁(JASDAQ)¹⁰⁸⁾, 차스탁

85) 『경제』 가스 가격의 상승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86) 『경제』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복지 및 임금 인상을 지나치게 요구함으로써 경제 규모 이상의 수요 팽창이 일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일.
 87) 『경제』 채소류의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 현상.
 88) 『경제』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89) 『경제』 통화 팽창도 통화 수축도 없는 상태.
 90) 『경제』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중국 등 신흥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다.
 91) 『경제』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92) 『경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체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물가 상승, 임금 감소, 주택 가격 하락 등이 원인이 되며,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
 93) 『경제』 경기 불황 중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
 94) 『경제』 경기가 후퇴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물가 상승.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스테그플레이션보다도 더 심한 상태를 이른다.
 95) 『경제』 석유 가격의 상승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96) 『경제』 중국의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각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97) 『경제』 반도체 칩 가격의 상승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98) 『경제』 어린이용 제품의 가격 상승이 전체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앞서는 현상.
 99) 『경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간접세가 오르면 그만큼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더욱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심리로 인해 생기는 인플레이션.
 100)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현상.
 101) 『경제』 식품 가격의 상승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102) 『경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말한다.
 103) 『경제』 일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
 104) 『경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을 이르는 말. 반려동물 전용 간식이나 영양제, 의류 따위의 각종 용품이나 유치원, 병원 따위의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을 말한다.
 105) 『경제』 집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이르는 말.
 106) 『경제』 미국의 장외 증권 시장. 1971년 시작하였으며 주로 벤처 기업이 중심이 된다.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CHASDAQ)¹⁰⁹, 코스닥(KOSDAQ)¹¹⁰; 스포스닥¹¹¹, 웹스닥¹¹²

라. X노믹스: 비저노믹스, 베지노믹스, 우머노믹스, 위미노믹스, 위키노믹스; 그린노믹스¹¹³, 네코노믹스¹¹⁴, 레이저노믹스¹¹⁵, 베이비노믹스(2014)¹¹⁶, 소프트노믹스¹¹⁷, 스타노믹스(2014), 118)스토리노믹스, 슬리포노믹스¹¹⁹, 시니어노믹스, 시코노믹스¹²⁰, 시티노믹스, 컬래보노믹스¹²¹, 컬처노믹스, 토크노믹스(2018)¹²², 프로즈노믹스(2014)¹²³, 프리코노믹스¹²⁴, 마가노믹스(2018)¹²⁵, 트위노믹스(2015)¹²⁶

(10)의 단어들은 혼성이라는 문법 외적 과정을 보여주는 유추의 틀에 의한 전문 용어 형성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일한 틀에 의해 형성된 단어들이라 할지라도 고정요소의 지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10가)의 ‘가스플레이션, 데모크라플레이션, 베지플레이션, 애그플레이션’은 선행요소의 뒷부분이 절단되고 후행요소의 앞부분이 절단된 전형적인 혼성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때의 고정요소 ‘플레이션’은 파편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 107) 『경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의 장외 주식 시장. 유럽 중소기업의 자본 조달을 돕고 첨단 기술주 거래를 주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108) 『경제』 일본의 장외 증권 시장. 주로 벤처 기업의 주식 거래가 중심이 되며, 우리나라의 코스닥, 미국의 나스닥과 성격이 유사하다.
- 109) 『경제』 중국의 제2 증권 거래소. 벤처 기업, 신규 창업 기업을 위한 장외 증권 시장이다.
- 110) 『경제』 우리나라의 장외 증권 시장.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장외 거래 주식을 매매하며, 증권 거래소 시장과는 달리 별도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주식 시장을 이룬다.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 111) 『경제』 스포츠 팀과 운동선수를 가상의 주식 시장에 상장하고 실시간으로 가상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시장.
- 112) 『경제』 인터넷상의 여러 웹사이트를 주식 가치로 평가하고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실제 주식 시장처럼 거래하는 웹 증권 시장.
- 113) 『경제』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경제 개발 정책.
- 114) 『경제』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
- 115) 『경제』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이 시행한 경제 정책. 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 재건을 목표로, 세출의 삭감·소득세의 인하·안정적인 금융 정책 따위를 실시하였다.
- 116) 『경제』 2013년 영국 왕실에서 왕세손 부부의 아기가 탄생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효과를 이르는 말.
- 117) 『경제』 경제의 탈공업화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고 경제와 사회의 소프트화가 진행되는 데에 맞추어 경제 정책이 취하여야 할 새로운 존재 방식.
- 118) 『경제』 스토리에 관한 경제학.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대표적인 스토리로 해리 포터 시리즈를 들 수 있다.
- 119) 『경제』 점차 커지고 있는 숙면 시장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르는 말.
- 120) 『경제』 한정적인 경제적 상황 아래에서도 알뜰하게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생활 습관을 갖춘 사람.
- 121) 『경제』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경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트너십.
- 122) 『경제』 가상 화폐를 수단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의 생태계. 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경제 시스템을 연구, 설계, 구현하는 일을 의미한다.
- 123) 『경제』 폭설과 한파에 의해 발생한 경기 둔화 현상을 이르는 말.
- 124) 『경제』 인프라가 세워지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원가가 신속하게 줄어들어 그것을 공짜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이론.
- 125) 『경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이르는 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내건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make America great again)’의 머리글자를 딴 ‘마가(MAGA)’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2018년 신어보고서)
- 126) 『경제』 쌍둥이와 관련된 경제 활동이나 전략. (2015년 신어보고서)

은 파편소에 의한 유추의 유형이다. 그러나 그 외의 전문 용어들은 선행요소가 절단되지 않고 절단된 후행요소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혼성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때의 고정요소 ‘플레이션’은 파편소가 아닌 결합형으로 결합형에 의한 유추의 유형에 해당한다. (10나, 다, 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파편소에 의한 유추의 양상을 보이다가 고정요소들을 공유하는 계열체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정요소들이 결합형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본고에서 다룬 전문 용어들의 유추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표 1> 과 같다.

	전문 용어	모형	유사성의 층위	유사성의 수	고정요소 의 위치	고정요소의 지위
(6)	모험불이		의미, 형태	복합	후행	
	노퍽당당		의미	단일	후행	
	겉벌이		의미, 형태	복합	후행	
	개미죽		의미, 형태	복합	후행	
	깡깡죽		의미, 형태	복합	후행	
(7)	독수리 아빠, 펭귄 아빠, 참새 아빠	표면 유추	의미, 형태	복합	후행	
	사포 세대, 오포 세대, 칠포 세대, 구포 세대		의미, 형태	복합	후행	
	에이트 포켓, 텐 포켓		의미, 형태	복합	후행	
	트로피 남편		의미, 형태	복합	후행	
	미시스 주스죽		의미, 형태	복합	선행	
(8)	푸피죽		음운, 의미, 형태	복합	후행	
	포비죽		음운, 의미	복합	후행	
	미코노미		음운, 의미	복합	후행	
	일코노미		음운, 의미	복합	후행	
	위코노미		의미, 형태	복합	후행	
(9)	X포 세대		의미, 형태	복합	후행	결합형
	X 푸어		의미, 형태	복합	후행	결합형
(10)	X플레이션	틀에 의한 유추	의미, 형태	복합	후행	파편소/결 합형
	X코노미		의미, 형태	복합	후행	파편소/결 합형
	X스닥		음운, 의미, 형태	복합	후행	파편소/결 합형
	X노믹스		의미, 형태	복합	후행	파편소/결 합형

<표 1> 『경제』, 『사회』 분야 전문 용어들의 유추의 유형

5. 결론

지금까지 단어 형성 기제 유추에 주목하여 전문 용어의 형성을 설명하고 유추의 유형에 따라 전문 용어의 형성을 살펴보았다. 본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란 화자에게 익숙한 기존의 단어에 기초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대부분의 논의에서 혼성어나 두음절어가 많은 신어를 대상으로 하여 유추적 형성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신어 보고서에는 전문 용어도 포함이 되며 전문 용어의 경우에도 형식의 감소를 보이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혼성어, 두음절어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문 용어 또한 유추라는 단어 형성 기제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 용어의 형성은 표현론적인 접근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과정 또한 표현론적 과정에 해당하며 따라서 전문 용어의 형성 과정에 있어 결합, 절단뿐 아니라 대치라는 형태론적 조작이 수반될 수 있으며, 대치라는 형태론적 조작이 수반되면 전문 용어의 형성을 유추로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기존 논의에서는 전문 용어의 형성 방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규칙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Mattiello(2017), 최형용(2021)은 전문 용어의 형성을 유추로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한 논의로 사용 영역에 따라 유추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Mattiello(2017)는 영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논의이며, 최형용(2021)은 Mattiello(2017)의 검토를 기반으로 한국어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문 용어의 유추적 형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존 논의의 한계점이 본 논의의 의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채현식(2003)에서의 표면적 유사성과 구조적 유사성을 구분하는 경계의 불분명함을 지적하며 Mattiello(2017)의 유추의 유형과 김혜지(2022)의 유추의 유형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김혜지(2022)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유추의 유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유추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김혜지(2022)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준에 따른 유추의 유형을 따르되 고정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유추의 유형을 위치와 지위로 다시 세분화하여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기준에 따른 유추의 유형들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절을 구분하여 전문 용어의 형성을 살펴보지 않고 모형을 기준으로 표면 유추와 틀에 의한 유추로만 구분하여 전문 용어의 형성을 분석하였다.

‘표면 유추’에 의한 전문 용어 형성은 개별 단어에 기반한 유추에 의해 형성된 전문 용어를 말하고 ‘유추의 틀’에 의한 전문 용어 형성은 동일한 고정요소를 공유하는 단어들이 이루고 있는 계열체를 기반으로 형성된 전문 용어를 말한다. 전문 용어를 제시할 때에는 모형 단어와 목표 단어가 문법적 과정을 나타내는지 문법 외적 과정을 나타내는지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전문 용어의 경우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외형적으로는 단어라 볼 수 없는 구 구성이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구 구성까지를 포함하여 전문 용어의 형성을 유추라는 단어 형성 기제로 설명하고자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신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와는 유추의 양상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표면 유추에 기반하여 형성된 전문 용어들은 대부분 의미론적 유사성, 형태론적 유사성에 의한 유추에 해당하며 둘 이상의 유사성이 작용한 복합 유추에 해당한다. 구 구성의 전문 용어는 기본적으로 형태론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의 유추적 형성은 단일 유추보다는 복합 유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 구성의 경우 선행단어와 후행단어의 후행요소가 고정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고정요소의 위치가 선행인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추의 틀에 의한 전문 용어의 형성은 고정요소의 지위에 따라 구분이 될 수 있다. 유추에서는 고정요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Mattiello(2017)는 고정요소의 지위가 파편소에서 결합형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초기에는 파편소에 의한 유추의 양상을 보이다가 고정요소들을 공유하는 계열체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정요소들이 결합형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본장에서는 단어 형성 기제로 작용하는 유추에 주목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세분화된 유추의 유형을 제시하여 전문 용어의 형성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

문 용어를 대상으로 유추적 형성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데 전문 용어의 분류에 있어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우리말샘》에 제시된 용례를 통해 어느 정도 모형 단어가 되는 전문 용어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형성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영어에 비해서는 유추적 형성에 의한 전문 용어의 예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 전문 용어의 유추적 형성과 관련된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더 나아가 유추 유형에 따른 전문 용어의 형성 양상을 계량적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1. 논저류

- 강현화(2000),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유형 분석」, 『전문용어연구』 2,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1-23쪽.
- 국립국어연구원, 『2000년 신어』.
- 국립국어연구원, 『2001년 신어』.
- 국립국어연구원, 『2002년 신어』.
- 국립국어연구원, 『2003년 신어』.
- 국립국어원, 『2004년 신어』.
- 국립국어원, 『2005년 신어』.
- 국립국어원, 『2008년 신어 자료집』.
- 국립국어원, 『2009년 신어 자료집』.
- 국립국어원, 『2010년 신어 자료집』.
- 국립국어원, 『2012년 신어 자료집』.
- 국립국어원, 『2013년 신어 기초 조사 자료』.
- 국립국어원, 『2014년 신어』.
- 국립국어원, 『2015년 신어』.
- 국립국어원, 『2016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기 조사』.
- 국립국어원, 『2017년 신어 조사』.
- 국립국어원, 『2018년 신어 조사』.
- 국립국어원, 『2019년 신어 조사』.
- 김정우·김성원(2012), 「전문용어 조어법 분석의 한 사례 -곤충 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3(2),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99-125쪽.
- 김한샘(2015), 「국어사전에 나타난 전문용어의 일상어화」, 『제42회 한말연구학회 발표요지』, 한말연구학회, 224-232쪽.
- 김혜지(2016), 「축약형 단어와 유추」, 『형태론』 18(2), 형태론, 183-216쪽.
- _____ (2021), 「단어 형성 기제로서의 유추에 대한 재고찰: 유추의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국어학』 99, 국어학회, 211-245쪽.
- _____ (2022-1), 「유추에 의한 신어 형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2-2), 「유추 유형에 따른 신어 형성 양상 -계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형태론』 24(1), 형태론, 113-149쪽.

- 나은미(2013), 「유추 기반 단어 형성 체계의 정립」, 『형태론』 15(2), 형태론, 225-241쪽.
- 노명희(2010), 「혼성어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국어학회, 255-281쪽.
- _____ (2020), 「한국어의 형태론적 재분석과 의미론적 재분석」, 『국어학』 95, 국어학회, 33-64쪽.
- 배선미·시정곤(2004), 「한국어 전문용어 조어분석에 대한 통계적 연구: 물리, 화학, 생물, 의학 용어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25, 한국어학회, 191-219쪽.
- 백경미·육영주·김태경(2022), 「정부 공공기관의 전문용어 사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학』 77, 한국언어문화학회, 103-142쪽.
- 송영빈(2008), 「조어적 관점에서 본 전문용어의 의미 투명도」, 『일본학보』 80, 한국일본학회, 13-25.
- 시정곤(1999), 「규칙은 과연 필요 없는가?」, 『형태론』 1, 형태론, 261-283쪽.
- 신중진·엄태경(2016), 「심화 전문용어의 조어분석과 그 실제-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0, 한국언어문화학회, 165-190.
- 엄상혁(2018), 「한국어의 재분석에 의한 단어 형성: 어휘적 재구조화와 역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81, 한국어학회, 197-244쪽.
- 엄태경(2019), 「한국어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태경·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분석과 통합-수학, 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어학』 82, 국어학회, 181-212쪽.
- 이현주(2013), 「전문용어 조어 및 번역 방법론에 대한 시론」, 『비교문화연구』 3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31-370.
- 정한테로(2015), 「신어의 형성과 빈도 변화에 대한 일고찰: 2004년 신어를 중심으로」, 『한글』 301, 한글학회, 171-204쪽.
- _____ (2016), 「규칙과 유추, 다시 생각하기」, 『어문연구』 4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9-126쪽.
- _____ (2019), 「의학 전문용어의 말 다듬기와 단어 형성」, 『언어와 정보 사회』 42,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37쪽.
- 조은경(2001), 전문용어의 어휘 형태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현식(2003^ㄱ), 「대치에 의한 단어 형성」, 『형태론』 5(1), 형태론, 1-21쪽.
- _____ (2003^ㄴ),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태학사.
- _____ (2012), 「계열관계에 기반한 단어 분석과 단어 형성」, 『형태론』 14(2), 형태론, 208-232쪽.
- 최형용(2004), 「단어 형성과 음절수」, 『국어국문학』 138, 국어국문학회, 183-205쪽.
- _____ (2015), 「광고 속에 나타난 언어적 유추의 유형과 상관성」, 『한중인문학연구』 48, 한중인문학회, 233-261쪽.
- _____ (2010), 「전문 용어의 형태론: 지침으로서의 전문 용어 형성 원칙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 31, 한중인문학회, 293-323쪽.
- _____ (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 _____ (2018), 『한국어 의미 관계 형태론』, 역락.
- _____ (2021), 「신어 형성에서 유추의 역할은 무엇인가-마티엘로(2017), *Analogy in Word-formation*을 중심으로-」, 『형태론』 23(2), 형태론, 171-215쪽.
- 최형용·박민희·김혜지·이찬영·김현아(2015), 『한국어 연구와 유추』, 역락

- 최형용·김혜지·리우 완잉·권경녀·강문영·장지영·박지현·왕사우(2022), 『한국어 신어 형성 연구』, 역락.
- 황화상(2010), 「단어형성 기제로서의 규칙에 대하여」, 『국어학』 58, 국어학회, 61-91쪽.
- _____ (2013), 「유추, 규칙의 대안인가?」, 『형태론』 15-2, 형태론, 204-224쪽.
- 홍희정(2007), 「국어사전에서의 전문용어 기술에 관한 연구 -경제 용어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2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5-27쪽.
- Bauer, L.(1983), *English Word-Form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bré, M. T.(1999), *Terminology: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Mattiello, E.(2017), *Analogy in Word-Form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 Langacker, Ronald W.(1977), Syntactic reanalysis. In Li, Charles N. (ed.) *Mechanisms of syntactic chang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pp. 57-139.
- Sager, J.(1990), *A Practical Course in Terminology Process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2. 사전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main>)





전문용어에서 나타나는 파생어의 형태·의미적 특성 고찰

권 경 녀(형태론 박사과정)

차례

1. 들어가며
2. 전문용어 접두사의 형태 및 의미적 특성
3. 전문용어 접미사의 형태 및 의미적 특성
4. 나가며

1. 들어가며

본고는 전문용어에서 나타나는 파생어를 형태·의미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전문용어 속 한자어 일음절의 특성과 그 양상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 (1) 가. 대-명사, 대-분수, 대-대감
나. 강국-기, 격투-기

(2) <표준국어대사전>

- 가. 대(大)-, 대(對)-; -기(氣), -기(記), -기(期), -기(器), -기(機)
나. 성(聖)-, 정(正)-, 종(從)-, 함(含)-; -가(價), -유(油)

(1)은 전문용어에서 나타나는 파생어를, (2)는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 등재되어 있는 접사의 목록이다. 그중 (2)는 접두사 '대-'와 접미사 '-기'에 한하여 <표준>에 등재된 접사이고, (2)는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접사이다. 그런데 (2)의 등재된 접사 목록만으로는 (1)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1)는 접두사 '대-'를 포함한 파생어인데, 이에 해당되는 한자어 '대'는 (2)에서 찾을 수 없으며, (1)의 접미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2)의 접사 목록을 추가한다고 하여도 그 수가 매우 한정적이므로, 사전의 접사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전문분야에서 나타나는 접두사와 접미사의 출현 빈도와 양상을 전수 조사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와 조사 대상이 되는 용어의 범위를 기술하고자 한다. 전문용어는 그간 선행 논의를 통해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중 강현화(2000), 조은경(2001), 엄태경(2019)에서 다루어진 정의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강현

화(2000)은 전문어를 전문 분야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전문어를 단순히 일반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도 쓰이는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로써 전문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은경(2001)은 전문용어를 (특정 분야의) 의미적 특수성, 개념 세분화, 표현의 경제성을 갖는 어휘 결합으로 보았고, 관습화된 표현의 형태를 갖는 개념 표현의 단위로 보았다. 이처럼 전문용어는 일반어와 유리되는 개념이 아닌, 어느 정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의미적 특수성, 개념 세분화, 표현의 경제성’과 같이 보다 특수화된 특징을 갖는 용어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엄태경(2019)에서는 전문용어를 특수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지시하고 전달하는 언어 단위의 집합으로 보았다. 세 논의에서 기술하는 전문용어의 의미는 하나로 일관될 수 있다. 즉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상하는 언어 내지는 개념 표현 단위의 집합’을 전문용어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전문용어는 일반어와 완전히 대립되기보다는 일부 공통 분야를 가지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전문용어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정하여 다루었다.

- (3) 가. 범위: <표준>의 전문 분야 용어 전체(137,748개)
- 나. 구분: ‘단어’로 한정
- 다. 조사 대상: 복합어의 최종 분석 단위의 경계 표시(‘-’)가 단어 처음절이나 끝의 일음절에 있는 단어 (예: 대-명사, 격투-기)
- 라. 빈도 수: 200회 이상 출현한 단어

(3)에서 ‘조사 대상’을 단어 처음절과 끝의 일음절로 한정된 것은 접두사와 접미사를 보다 용이하게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처음절과 끝의 일음절을 분석한다고 해서 이들이 반드시 접사가 되지는 않는다. 개중에는 일음절 명사이거나 어미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음절 요소가 200회 이상 출현한다고 해서 이에 포함되는 접두사나 접미사의 생산성이 반드시 상관관계에 있다고는 결론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속에 나타나는 파생어의 출현 정도나 규모 또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사 대상을 (3다)와 같이 한정할 것이다.

전문용어의 단어형성과 관련하여 특히 파생의 측면에서 본 논의로는 대표적으로 이현주(2013), 정한테로(2019)가 있다. 이현주(2013)에서는 유사한 접사 및 일음절 한자어에 대해 특정한 의미 중 각 분야별로 생산성이 높은 비자립적 요소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ISO의 규범집에서는 전문용어가 일반어에서의 파생법과 동일한 규칙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해당 논의에서 살펴본 한국어 전문용어 역시 ‘한자어 접사 첨가, 고유어 접사 첨가, 명사형 어미’와 같은 방식으로 대다수가 일반어의 파생법을 따른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전문용어에서 접사 ‘-기’의 문제나 일음절 한자어 ‘비’와 ‘을/를’이 혼재되어 쓰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를 통해 각 분야별로 생산성이 높은 비자립적 요소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특히 일음절 한

자어와 고유어 중 접사 내지는 접사화된 요소의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정한데로(2019)는 의학 전문용어에서의 단어형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논의인데, 이때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 중 고유어 접사보다는 한자 접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전문 분야 전체에서도 유지되는지 조사 대상을 분석하여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문용어 접두사의 형태 및 의미적 특성

접두사는 단어 첫음절의 빈도 수를 통해 그 생산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우선 단어 첫음절의 경우 200회 이상 출현하는 빈도 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어 첫음절	빈도 수
이-	513
김-	472
대-	318
정-	285
산-	222
큰-	212
신-	209
조-	204

이 중 자주 출현하는 ‘이’, ‘김’, ‘대’, ‘정’, ‘신’은 인명에서 성씨로 나타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李), 김(金), 대(戴), 정(鄭), 신(申)과 같은 성씨의 경우 접두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표의 빈도 수가 접두사의 생산성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와 ‘김’은 첫음절에 나타날 경우 주로 성씨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이’와 ‘김’ 다음으로 자주 출현하는 ‘대’의 경우 어떠한 접사가 나타나는지 분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 <표준국어대사전>

- 가. 대(大)- 18: [접사] ‘큰, 위대한, 훌륭한, 범위가 넓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나. 대(對)- 21: [접사] ‘그것을 상대로 한’ 또는 ‘그것에 대항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가. 대(大)-: 대가극, 대가섭, 대가야, 대가야극, 대가죽 ...

- 나. 대(對)-: 대간첩, 대마비, 대선율, 대음극, 대잠수함 ...
- 다. 대(代)-: 대경주인, 대그림씨, 대동사, 대명사, 대집행 ...
- 라. 대(帶)-: 대강판, 대그래프, 대금구, 대민어, 대분수 ...
- 마. 대(隊)-: 대대감
- 바. 대(待)-: 대사객
- 사. 대(臺)-: 대갑석

(1)은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 수록된 접사의 목록으로, ‘대(大)-’와 ‘대(對)-’의 두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용어에서 실제로 출현하는 한자 접사 ‘대’의 목록은 (2)와 같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2가~라)의 ‘대(大)-’, ‘대(對)-’, ‘대(代)-’, ‘대(帶)-’는 생산성을 보이는 접사이다. <표준>에 제시되지 않은 접사인 ‘대(代)-’와 ‘대(帶)-’ 역시도 그 사용례가 빈번하며 분야 또한 『공업』, 『수학』, 『법률』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마~사)의 경우 접사 ‘대(隊)-’, ‘대(待)-’, ‘대(臺)-’ 모두 사용례가 각각 하나만 나타나는 생산성이 낮은 접사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대(隊)-’, ‘대(待)-’, ‘대(臺)-’가 모두 한정된 분야에서만 출현한다는 것이다. (2마, 바)의 ‘대대감’과 ‘대사객’은 『역사』, (2사)의 ‘대갑석’은 『불교』로, 각각은 ‘인문’과 ‘종교’의 대분류에 속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의 중세, 근대의 생활상과 관련된 용어라는 점에서 현대국어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접사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어 첫음절이 한자 ‘대-’로 나타나는 경우는 위의 (2)뿐만 아니라 ‘대(戴)-’도 있는데(예: 대동원, 대안도, 대진(09), 대진(10), 대천구), 이때의 ‘대’는 성씨로 쓰여 모두 인명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경우의 ‘대(戴)-’는 접사로 볼 수 없다.

- (3) 대(고유어): 대-가닥, 대-가래, 대-게, 대-고동, 대-광대, 대-까지, 대-나물, 대-나방, 대-내리다, 대-넙이, 대-농갱이, 대-벌레, 대-송이풀, 대-잡이, 대-패랭이

(3)은 고유어 첫음절 ‘대’의 사용례이다. 고유어는 별도의 표기 정보가 없으므로 표기만을 기준으로 세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3)은 의미 정보까지 파악해야 그 단어형성법을 알 수 있다(아래 밑줄은 필자 표시).

고유어 명사	출처	전문 분야	뜻풀이	관련 어휘
대(01)	<두시-초>	[I]「5」『음악』	[I]「1」초본 <u>식물의 줄기</u> . [I]「2」가늘고 긴 <u>막대</u> . [I]「3」 <u>마음썸썸이나 의지</u> . [I]「4」 <u>담배를 피우는 데 쓰는</u> 기구. 담배통, 담배설대, 물부리로 이루어져 있다.	동의어(1): [I]「4」담뱃대 비슷한말(1): [I]「3」쫓대02 「2」(주대)

고유어 명사	출처	전문 분야	뜻풀이	관련 어휘
			[I]「5」음표의 머리에서 위아래로 붙는 수직선. [II]「1」화살 따위와 같이 가늘고 긴 물건을 세는 단위. [II]「2」갈비를 세는 단위. [II]「3」담배통에 채워 넣는 담배의 분량이나 담배를 피우는 횟수를 세는 단위. [II]「4」때리는 횟수를 세는 단위. [II]「5」주사를 놓는 횟수를 세는 단위.	
대(02)	<석상>	『식물』	벚과의 대나무속(屬)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높이는 30미터 정도로 벚과에서 가장 큰데 줄기는 꼳꼳하고 속이 비었으며 두드러진 마디가 있다. 드물게 황록색의 꽃이 피기도 하는데 꽃이 핀 후에는 말라 죽는다. 어린싹은 식용하고 줄기는 건축재, 가구재, 낚싯대 따위로 쓴다. 왕대, 솜대 따위가 있으며 아시아의 열대 지방에서 많이 자란다.	의미 동의어(1): 생죽(生竹)

위의 표는 <표준>에서 제공하는 전문 분야 중 고유어 명사 ‘대(01)’, ‘대(02)’에 대한 표기 정보이다. 우선 고유어 명사 ‘대(01)’은 다의어인데, 크게는 ‘줄기/막대/의지/기구/수직선/세는 단위’ 따위의 의미로 사용된다. ‘대(02)’는 식물의 일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합하자면 고유어 명사 ‘대’는 주로 전문 분야에서는 『음악』, 『식물』의 분야에서 쓰이고 ‘담뱃대’, ‘담배설대’와 같이 일상용어에서도 사용되나 주로 그 분포가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3)의 ‘대-’ 중 위의 표의 의미를 포괄하는 단어는 ‘대’가 접사가 아닌 명사로 쓰인 것이므로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이다. (3)에서 식물의 종 내지는 ‘막대/기구/담배설대’ 등의 의미를 포함한 단어를 제외하면 아래 표에 제시된 용례가 남는다.¹²⁷⁾

127) 위의 (3)의 단어 중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단어는 『동물』 분야의 ‘대게’, ‘대농갱이’가 있다. 여기서 ‘대게’는 ‘다리가 대나무 같은 게’라는 뜻으로 대나무를 뜻하는 고유어 ‘대’에서 의미추상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농갱이의 ‘대’는 형태 정보를 명확히 나타낸 곳은 없어 ‘대게’의 경우보다도 더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문에서 보다 자세히 후술하도록 한다.

어휘	전문 분야	뜻풀이
대게	『동물』	물맞이갯과의 하나. 등딱지의 길이는 22cm 정도이며, 갑각의 가장자리에 작은 가시가 있고 등면에는 돌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가운데 가장 크며 맛이 좋다. 한국 동해안과 일본, 알래스카 등지에 분포한다.
대-농갱이	『동물』	동자갯과의 민물고기. 몸의 길이는 30cm 정도이며, 어두운 갈색 바탕에 얼룩무늬가 있다. 주둥이 가장자리에 네 쌍의 수염이 있다. 모래와 진흙 바닥에서 사는데 대동강, 압록강, 한강 등지에 분포한다.

위의 표와 같이, 고유어 명사 ‘대(01)’과 ‘대(02)’가 들어간 단어를 제하고 남은 단어는 ‘대게’와 ‘대농갱이’뿐이다. ‘대게’는 ‘대나무’를 표상하는 고유어 ‘대’로, 고유어 명사 ‘대(02)’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는 은유적 의미로 접사화가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농갱이’는 몸이 길쭉한 민물고기로, 고유어 명사 ‘대(01)’의 ‘[1][2]’가늘고 긴 막대’로부터 의미추상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대’의 의미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인터넷 어휘사전 중 하나인 위키낱말사전(Wiktionary)에서는 ‘대농갱이’를 ‘대농-갱이’로, 어근 ‘대농-’과 지소 접미사(diminutive suffix) ‘-갱이’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대농갱이’는 ‘대-[농[-갱이]]’처럼 분석할 수 있고, 이는 ‘대’의 의미와 ‘갱이’의 성분 분석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검토를 위해 <고려대 한국어사전>(이하 <고려대>)과 <우리말샘>, <표준>을 비롯한 사전 정보를 통해 각 요소의 의미와 형태를 파악해 보자(아래 밑줄은 필자 표시).

(4) 대농갱이(학명: *Leiocassis ussuriensis*, 영명: *ussurian bullhead*)

가. <고려대> 농갱이: ‘대농갱이’의 방언(평북).

나. <우리말샘> 그령채, 쇠채: ‘대농갱이’의 방언(평북).

(5) 가. <표준> 그령: 벚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30~80cm이고, 잎은 선형(線形)이고 8~9월에 붉은 갈색 꽃이 원추(圓錐) 화서를 이룬다. 잎은 새끼의 대용으로 쓰며 한국,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쇠채2: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30~50cm이며 잎은 긴 버들잎 모양이고 끝이 뾰족하다. 여름에 노란 꽃이 줄기 끝에 피고 열매는 수과(瘦果)를 맺는다. 어린잎은 식용한다. 한국, 중국, 시베리아, 아무르, 우수리강 등지에 분포한다.

나. <우리말샘> 불헤드(bull head): 『식물』 기형으로 자란 장미의 꽃눈. 꽃잎 수는

정상보다 많지만 꽃잎이 짧고 폭이 넓으며 안쪽으로 굽어 소의 머리 모양처럼 생긴다. 고온기와 저온기에 주로 발생한다.

우선 ‘대’와 관련한 문제에서, 고유어 명사 ‘대(02)’에서 출발하여 의미추상화를 겪고 접사화된 요소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4나)에서 ‘그령채’나 ‘쇠채’가 대농갱이의 방언이라고 하였는데, <표준>에서는 (5가)와 같이 ‘그령’과 ‘쇠채’를 모두 식물의 일종으로 등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령채’는 경기, 충북, 강원에서는 ‘그령치’로도 사용되는데, 이때 ‘-치’를 생선의 일종인 ‘날치’와 같이 [접미사] 일정한 모양이나 형태, 속성 따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혹은 서술어의 어간 뒤에 붙어, 그러한 모양이나 형태, 속성 따위를 띠는 물고기임을 나타내는 말(<고려대>)로 분석한다면 ‘그령치, 그령채’는 ‘벗과의 여러해살이풀처럼 기다란 물고기’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때의 ‘대’는 고유어 명사 ‘대(02)’에서 출발한 요소임을 알 수 있고, ‘길쭉한, 기다란’으로 은유화되었다고 본다면 ‘대게’와 같은 고유어 접사화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대농갱이’의 영명인 ‘ussurian bullhead’는 ‘우수리 지방에 사는 머리가 큰 물고기’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때의 ‘대’는 한자어 접사 ‘대(大)-’로도 분석할 수 있다. 영어 ‘bullhead’는 ‘폐기’ 혹은 ‘머리가 큰 물고기’라는 의미이나, (5나)에서처럼 한국어에서는 ‘꽃잎 수가 기형적으로 많은 식물’의 뜻을 가지는 외래어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많은’의 의미를 가진 한자어 접두사 ‘대(大)-’로도 파악할 수 있다.¹²⁸⁾ 요약하자면, ‘대-[농[-갱이]]’에서 ‘-갱이’는 ‘-치’를 고려했을 때 접미사로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¹²⁹⁾ 또한 ‘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유어 명사 ‘대(02)’에서 ‘기다란’으로의 의미추상화가 일어난 접사화 요소이고, 두 번째는 생물의 생김새를 고려했을 때 ‘커다란’이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 접사 ‘대(大)-’의 가능성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대-’의 접사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 가. 한자어 접사: 대(大)-, 대(對)-, 대(代)-, 대(帶)-, 대(隊)-, 대(待), 대(臺)
나. 고유어 접사화 요소: 고유어 ‘대(02)’에서 접사화(예: 대게, 대농갱이)

3. 전문용어 접미사의 형태 및 의미적 특성

접미사의 경우 단어 끝 일음절의 빈도 수를 통해 그 생산성을 파악할 수 있다. 200회 이상 출현하는 일음절 빈도 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8) 그러나 (5나)에서처럼 ‘불 헤드’가 한국어에서는 식물의 일종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4)와 (5)의 의미적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는 고유어 접사화 요소로서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129) ‘-갱이’의 ‘지소 접미사’의 가능성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우선 ‘전갱이’나 ‘새갱이’(새우의 평안 방언)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는 ‘어린’이나 ‘작은’의 의미가 있지 않다. 또한 대농갱이의 경기, 충북, 강원 방언인 ‘빠가사리’의 경우 ‘사리’는 ‘국수, 새끼, 실 따위의 뭉치를 세는 단위’의 명사인데, 이때에도 지소의 의미보다는 ‘길쭉한, 기다란’으로의 의미추상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자면 ‘-갱이’의 지소사로서의 쓰임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나 ‘갱이’가 자립적으로 쓰이지는 않으므로 접미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단어 끝 일음절	빈도 수
-법	1204
-기	1169
-과	842
-산	783
-사	769
-성	739
-제	706
-선	625
-도	614
-관	594
-증	594
-계	529
-전	473
-군	393
-대	389
-화	371
-강	369
-병	367
-어	275
-장	272
-자	256
-학	256
-주	255
-가	229

이 중 빈도 수가 가장 높은 '법'은 모든 출현 단어의 해당 한자어가 '法'인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이 경우 '-법'의 의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고는 그다음으로 높은 빈도 수를 보이는 '기'를 중심으로 접미사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현주(2013)에서는 유사한 접사 및 일음절 한자어에 대해 특정한 의미 중 각 분야별로 생산성이 높은 비자립적 요소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접사 '-기'에 대한 예시를 들며, 기계공학에서 접사 '-기'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 쓰이는데, 주로 '그릇 기(器)'와 '틀 기(機)'로 나뉜다고 하였다. 본 절에서는 전체 전문용어 중 이러한 접미사 '-기'의 의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표준국어대사전>

- 가. -기(氣) 40: [접사] ‘기운’, ‘느낌’, ‘성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나. -기(記) 41: [접사] ‘기록’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다. -기(期) 42: [접사] ‘기운’, ‘느낌’, ‘성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라. -기(器) 43: [접사] ‘도구’ 또는 ‘기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그러한 활동을 위한 기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마. -기(機) 44: [접사] ‘그런 기능을 하는 기계 장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표준>에서 제시하는 접미사 ‘-기’의 경우 (1)에서와 같이 다섯 가지로 앞선 장에서 살펴본 접두사 ‘대-’에 비하여 그 수가 많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실제 출현하는 접미사 ‘-기’의 양상은 더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므로 다음의 (2)와 (3)으로 나누어 생산성이 있는 한자어 접미사와 없는 접미사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 (2) 가. -기(期): 간빙기, 감광기, 감소기, 감수기, 감온기 …
- 나. -기(記): 가락국기, 감합기, 계성기, 고공기, 고사기 …
- 다. -기(器): 가산기, 가속기, 가옥기, 각화문기, 간견기 …
- 라. -기(機): 가넷기, 감응기, 개면기, 개모기, 견절기 …
- 마. -기(旗): 가귀선인기, 가전기, 가후기, 가전패두기, 각단기 …
- 바. -기(伎): 강국기, 고구려기, 고려기(01), 고차기, 고창기 …
(민속, 음악, 무용, 예체능 일반, 인명)
- 사. -기(基): 관능기, 기능기, 니트로기, 다이아조기, 배위기 …
- 아. -기(紀): 고틀란드기, 권기, 테본기, 삼첩기, 석탄기 …
(역사, 지구, 천문, 문학, 불교, 식물)
- 자. -기(紀): 고틀란드기, 권기, 테본기, 삼첩기, 석탄기 …
- (3) 가. -기(氣): 저름기, 막외기, 매핵기, 수전기, 폭명기, 현훈기, 호흡기
- 나. -기(妓): 선상기, 수청기, 인무기
- 다. -기(忌): 개산기, 보화기
- 라. -기(技): 격투기, 고려기(02), 십일기, 이십사기
- 마. -기(晷): 부장기
- 바. -기(棋): 도전기, 사인기, 상담기

(2)는 생산성이 높은 한자어 접미사 ‘-기’의 목록과 그 사용례이며, (3)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자어 접미사 ‘-기’의 목록과 그 사용례이다. 이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되는데, 우선 생산성이 높은 접사 목록에서는 (2바)와 (2아)의 경우는 생산성이 높음에도 그 분야가 주로 한정되어 나타난다. (2바)는 주로 『민속』, 『음악』, 『무용』,

『예체능 일반』에서만 그 용례가 나타나는데, 『산업』, 『의학』 등의 분야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1. 사전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main>).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사전.

2. 논저류

강현화(2000), 「외래어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국어학적 분석」, 『어문연구』 10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3-55.

엄태경(2019), 「한국어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현주(2013), 「전문용어 조어 및 번역 방법론에 대한 시론」, 『비교문화연구』 31, 331-370.

정한데로(2019), 「의학 전문용어의 말 다듬기와 단어 형성」, 『언어와 정보 사회』 42,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37.

조은경(2001),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세 한국어 보조사 ‘(이)샤’의 의미

신 연 수(통사론 박사수료)

차례

1. 서론
2. 배제의 의미 관계
3. ‘(이)샤’와 배제 의미
 - 3.1. 소극적 배제
 - 3.2. 적극적 배제
4. ‘은/는’과 ‘(이)샤’의 대비
 - 4.1. 의미 차이
 - 4.2. 시기별 실현 양상
5. 결론

1. 서론

본고는 중세 한국어 보조사 ‘(이)샤’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샤’는 현대 한국어의 보조사 ‘야’로 발달하였는데 그 기능과 분포,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이현희 1995). 중세 한국어에서 ‘샤’는 조사와 어미의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부사, 격조사, 어말어미 뒤에서는 보조사로 쓰였으며, 용언 어간이나 선어말어미에 직접 결합하여 어미로 쓰이기도 하였다. 또 체언 뒤에서는 계사 ‘이-’와 어미 ‘-샤’가 결합한 ‘(이)샤’가 쓰였다.

한편 중세 한국어에서 ‘샤’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간의 논의에서는 ‘샤’의 의미를 ‘국한, 강조, 한정, 계기, 결과’ 등으로 파악하였고(허웅 1979, 이현희 1995),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샤’를 분석하기도 하였다(科林林 2014). 보조사는 세로관계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초점과 대안집합이 맺는 의미 관계를 표시하는데(임동훈 2012, 2015, 박진호 2015), 본고에서는 ‘(이)샤’의 배제 의미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로써 중세 한국어 ‘(이)샤’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 ‘야’를 포함하는 문법 요소의 의미나 문법화 과정 등을 살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보조사가 나타내는 의미 관계와 배제의 의미에 대해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이)샤’가 나타내는 배제 의미를 소극적 배제와 적극적 배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배제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보조사 ‘는’과 ‘(이)샤’가 대비되는 경우를 간략하게 검토한다.

2. 배제의 의미 관계¹³⁰⁾

보조사는 세로관계 표지로서, 문장에서 실현된 성분과 맥락상 이와 대조되는 요소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표시한다. 이때 대조 가능한 요소들의 집합을 대안집합이라 하고, 실현된 성분을 초점(세로초점)이라 한다. 문장에서 보조사가 표시하는 초점과 대안집합 요소들 간의

130) 보조사와 관련된 여러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는 임동훈(2015)를, 보조사 ‘(이)야’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민국(2022)를 참조하였다.

의미 관계는 첨가, 배제, 비교, 범위로 구분된다(임동훈 2015).

<표> 의미 관계에 따른 보조사의 분류(임동훈 2015: 348)

첨가의 보조사		‘도’, ‘까지’, ‘조차’, ‘마저’
배제의 보조사	배제함[소극적 배제]	‘은/는’, ‘(이)야/야’
	배제함[적극적 배제]	‘만, 뿐, 밖에’
	배제됨[배제의 결과]	‘(이)나’, ‘(이)나마’, ‘(이)라도’
비교의 보조사	차등 비교	‘보다’
	동등 비교	‘만큼’, ‘처럼’, ‘같이’, ‘대로’
범위의 보조사		‘부터’, ‘까지’

배제의 의미 관계는 초점과 대안집합이 배제 관계를 보이는 경우이다. 초점이 대안집합을 배제하는 경우, 배제의 정도에 따라 적극적 배제와 소극적 배제로 구분된다. 적극적 배제는 초점이 대안집합 요소를 적극적으로 배제하여, 초점 외의 요소는 선택되지 못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소극적 배제는 초점이 대안집합 요소를 적극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으나, 초점 외의 요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 (1) 가. 철수가 학교에만 갔다.
 나. 철수가 학교에는 갔다.
 다. 철수가 학교에야 갔다. [김민국(2022: 3-4) 예문 (5), (6)]

(1)은 모두 배제 보조사의 예이다. (1가)의 ‘만’은 적극적 배제를, (1나, 1다)은 소극적 배제를 나타낸다. ‘만’이 쓰인 경우 초점은 대안집합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여 ‘철수가 학교 외의 다른 장소에 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는’과 ‘야’가 쓰인 경우 초점이 대안집합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않아, 철수가 학교 외의 다른 장소에 갔는지 모르거나 관심이 없음을 나타낸다.¹³¹⁾ 이처럼 현대 한국어에서 ‘야’는 소극적 배제의 보조사로 쓰인다.

중세 한국어의 ‘(이)야’ 역시 배제의 의미 관계를 표시하였다. 다만 현대 한국어에서와 달리 소극적 배제와 적극적 배제를 모두 나타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가. 大王이 말씀미사 울켜신마른 내 브데 몬 마재이다 <월석 8:97a>
 나. Q: 天下는 內에 닐사 智慧 이시며 지죄 7자 太子는 스스로 드외려뇨
 A: 毗奢波蜜多羅 사 닛 어디니이다 <석상 3:7a>
 다. 太子는 저머 겨시니 닐 기르스브려뇨 오직 大愛道 사 기르스브리이다 <석상 3:3a-3b>

(2)는 모두 배제 보조사의 예이다. (2가)은 ‘대왕의 말씀이야 옳으시건마는 내 뜻에 못 맞

131) ‘는’과 ‘야’는 둘 다 소극적 배제를 나타내지만 차이가 존재한다. 임동훈(2015: 354-355)에서는 ‘(이)야’가 주제로 쓰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은/는’과 정보구조상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김민국(2022)에서는 ‘(이)야’가 ‘확실함/당연함’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은/는’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정보구조 측면에서 ‘(이)야’는 ‘은/는’과 마찬가지로 가로초점(정보초점)과 화제(주제)에 모두 쓰일 수 있다고 보았다.

습니다(맞지 않습니다)', (2ㄴ)은 '비사파밀다라(毗奢波蜜多羅)야말로 가장 어집니다.', (2ㄷ)은 '태자가 어리시니 누가 기르겠습니까? 오직 대애도(大愛道)라야 기를 것입니다.' 정도로 해석된다.¹³²⁾ 앞서 살펴본 배제의 의미 관계를 참고하면, (2ㄱ, ㄴ)은 소극적 배제의 의미를, (2ㄷ)은 적극적 배제의 의미를 나타내는 듯하다.¹³³⁾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샤'가 나타내는 배제의 의미를 소극적 배제와 적극적 배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이)샤'와 배제 의미

3.1. 소극적 배제

중세 한국어에서 '(이)샤'는 소극적 배제를 나타내는 데 쓰였다. 소극적 배제는 초점이 대안집합 요소를 적극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으나, 초점 외의 요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은 소극적 배제를 나타내는 '(이)샤'의 예이다.

- (3) ㄱ. 우리샤 부터를 좃츠바 듣좁고 이 이레 疑心 업거니와(我等어샤 從佛聞ᄃᆞᆫ 습고 於此事에 無疑커니와) <법화 5:121b>
 ㄴ. 大王샤 말쓰미샤 올켜신마른 내 브테 몬 마재이다 <월석 8:97a>
 ㄷ. Q: 네 사해 가 저그나 니천 잇느녀(到你那地面裏 也有些利錢麼)
 A: 귀샤 잇느니라(那的也中) <번노 상:13a>

(3ㄱ)은 부처의 설법을 듣는 자리에서 한 말로, '우리야 부처를 좃아 듣고 이 일[佛經]에 의심이 없거니와' 정도로 해석된다. '불경을 접한 사람들이 대안집합을 이룬다고 보면, '(이)샤'는 소극적 배제이므로 '우리 외의 다른 사람들이 불경을 의심하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ㄴ)에서는 대왕의 '말'이 지나는 여러 속성들이 다음과 같은 대안집합을 이룬다. { 옳다, 틀렸다, 논리적이다, 깊이가 있다, 나의 뜻과 맞는다, ... } 이때의 '(이)샤'도 소극적인 배제이다. 이어진 문장에 대안집합의 요소인 '(대왕의 말)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가 제시되어 대조를 이룬다.

(3ㄷ)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인데, 한 사람이 "당신 땅에 가서 적으나마 이익[利錢]이 있었는가?"라고 묻자 상대방이 "그야(이익이야) 있지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고향에 가서 장사하면서 있었던 여러 상황'이 대안집합을 이룬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이익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상황이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요소들을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이익 실현 여부'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¹³⁴⁾

소극적 배제를 나타내는 '(이)샤'는 일부 맥락에서 '최소한/적어도'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132) 중세 한국어에서 '(이)샤'는 현대 한국어의 '(이)야', '(이)야말로', '(이)라야'에 해당하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예문을 해석할 때 각 표현의 맥락을 고려하여 현대어 역을 제시하였으나, 중세 한국어의 '(이)샤'와 현대 한국어 표현들이 일대일로 대응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은 아니다.

133) 각 예문과 배제 의미에 대한 설명은 3장 각 부분에서 제시하였다.

134) 朴林林(2014: 180-181)에서는 (3ㄷ)의 '(이)샤'가 당연함을 동반한 화제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현대 한국어에서 '(이)야'의 의미에 '당연함/확실함'이 포함되기 때문에 '는'보다 유효적인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중세 한국어에서 '(이)샤'가 나타내는 배제 의미가 '당연함/확실함'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이)야'가 나타내는 '확실함/당연함'의 의미를 '(이)야'의 의미 관계와 관련지어 논의한 김민국(2002)를 참조할 수 있다.

- (4) ㄱ. 비록 드러도 그윗 官員의 겨집 ㄷ외요미샤 일티 아니헝리어니 엇데 우는다(雖沒入 將不失爲官人妻 何泣也) <삼강(열) 19b>
 ㄴ. 비록 드러도 구윗과 원의 겨지븐 일덩 될 거시니 엇씨 우는노 <삼강(열) 선조판 (동경대본) 19b>

(4)는 이미 혼인한 여인이 관청에 끌려가게 되어 슬퍼하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한 말로, ‘비록 (관청에) 들어가도 관원의 여자라는 지위야 잃지 아니할 것인데 왜 우는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이)샤’는 ‘(다른 것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관원의 여자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소극적 배제를 나타내는 ‘(이)샤’가 초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 (5) ㄱ. Q: 天下스 內에 ㄴ샤 智慧 이시며 지죄 ㄱ자 太子스 스스이 ㄷ외려노(今我化內誰最有智 誰具技能 種種悉通 堪爲太子作於師匠 教使學書及餘諸論)
 A: 毗奢波蜜多羅 ㄴ샤 ㄷ 어디나이다(今有毘奢婆蜜多羅 善知諸論 最勝最妙 如是大師 堪教太子種種書論) <석상 3:7a>
 ㄴ. 婆羅門이 그 말 듣고 고본 ㅅ ㄴ니노라 ㅎ야 빌머거 摩竭陀國 王舍城의 가니 그 城 안해 ㅎ 大臣 護彌라 호리 가수멸오 發心ㅎ더니 婆羅門이 그 지비 가 糧食 빈대 그 나랏 法에 布施호디 모로매 童女로 내야 주더니 그 짓 ㅅ리 ㅅ 가져 나오나 婆羅門이 보고 ㅅ거 이 각시샤 내 ㄴ니는 ㅅ스매 ㅅ도다 ㅎ야(諸婆羅門 便爲推覓 展轉行乞 到王舍城 城中有一大臣 名曰護彌 財富無量 信敬三寶 時婆羅門 到家從乞 國法施人 要令童女 持物布施 護彌長者 時有一女 威容端正 顏色殊妙 卽持食出 施婆羅門 婆羅門見 心大歡喜 我所覓者 今日見之) <석상 6:14a-14b>
 ㄷ. 如來 니르샤디 올ㅎ나라 大愛道 ㄴ샤 眞實로 ㅅㅎ ㅅ디 하며 내 그에도 恩惠 잇거니와 <월석 10:19a-19b>

(5ㄱA)는 ‘비사파밀다라(毗奢波蜜多羅)야말로 가장 어집니다.’, (5ㄴ)은 ‘이 각시야말로 나의 마음에 맞는다.’, (5ㄷ)은 ‘대애도야말로 진실로 선한 뜻이 많으며’ 정도로 해석된다. (5ㄱA)에서는 맥락상 ‘천하(天下) 안의 사람들’이 대안집합을 이루고, (5ㄴ, ㄷ)은 대안집합을 명확하게 상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5)에서는 모두 초점 외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나타나고, ‘비사파밀다라’, ‘각시’, ‘대애도’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소극적 배제는 초점이 대안집합 요소를 적극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으나, 초점 외의 요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선택 항목을 강조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⁵⁾

135) 박진호(2015: 421)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이)야’, ‘-(이)야말로’가 화자의 평가나 태도에 있어서 상반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야’는 선택된 요소를 평가 절하하고 중요하지 않게 평가한다는 해석을 곧잘 유발하는 반면에, ‘-(이)야말로’는 선택된 요소를 초점화/강조하고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해석을 유발한다”라고 하였다. 중세 한국어의 ‘(이)샤’에 대해서도 이러한 접근이 가능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2. 적극적 배제

중세 한국어에서 ‘(이)샤’는 적극적 배제를 나타내는 데도 쓰였다. 즉 ‘(이)샤’가 표시하는 초점이 대안집합 요소를 적극적으로 배제하여, 문장에 실현된 요소 이외에는 선택되지 못함을 나타낸다. (6)은 적극적 배제를 나타내는 ‘(이)샤’의 예이다.

- (5) 가. 훈 臣下 | 王의 슬보디 太子 | 저머 겨시니 뒤 기르스부려뇨 오직 大愛道 | 샤
기르스부려이다(或有說言 太子年幼 誰能養育 唯大愛道 能使長大耳) <석상 3:3a-b>
- 나. 오직 佛世尊이샤 能히 우리들히 기픈 므스미 本願을 아르시느니라(唯佛 世尊能知我等深心本願) <월석 15:4a>
- 나'. 오직 부터 世尊이샤 우리의 기픈 므스 本來스 願을 能히 아르시느니라(唯佛 世尊이샤 能知我等의 深心本願히시느니라) <법화 4:6a>
- 다. 오직 보빏 고디샤 眞實이 드외며(唯實所 | 샤 爲眞이며) <법화 3:177b>
- 르. 이 곁흔 因相은 오직 想이 다오니샤 能히 아는 전츠로(如是因相은 惟想盡者 | 샤 能知故로) <능엄 9:84b-85a>

(6가)은 ‘오직 대애도(大愛道)라야 (태자를) 기를 수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때 ‘(이)샤’는 적극적 배제로서 ‘대애도 외에는 태자를 기를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6나-르) 또한 각각 ‘부처[佛世尊] 외에는 우리의 본래 원(願)을 알지 못한다’, ‘보배의 땅 외에는 진실이 되지 못한다’, ‘상(想)이 다한 사람 외에는 인상(因相)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6)에서는 모두 ‘오직[唯/惟]’이라는 부사가 함께 쓰였는데, 이는 적극적 배제 의미를 잘 드러내 준다.

적극적 배제의 ‘(이)샤’는 [필요조건] 의미와 관련된다.¹³⁶⁾ ‘(이)샤’가 결합한 요소가 명제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7) 가. 法身은 本來 말 업서 報와 化와샤 비르서 말 겨시니(法身은 本無說이라 報化 | 샤 方有說히시니) <금삼 4:36a>
- 나. 結흔산 그랏 本디字는 未디字 | 샤 올흔니라 <능엄 10:9b>
- 다. Q1: 내 아들들흘 보라 나 업슨 後에 뒤 王 드외료(觀我諸子 於我滅後誰當作王)
A1: 이 中에 好乘 트니샤 王 드외리로소이다(此中若有好乘者 是人當作王)
Q2: 다시 보고라(願更爲觀之)
A2: 이 中에 第一座에 안즈니샤 王 드외리로소이다(此中有第一坐者 彼當作王)
Q3: 다시 보고라(更爲重觀)
A3: 이 中에 爲頭흔 그르세 爲頭흔 밥 먹느니샤 王 드외리로소이다(此中上器上食 此當得王) <월석 25:67b-71a>¹³⁷⁾

(7가)은 ‘법신(法身)은 말이 없고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이라야 말이 있으니’ 정도로 해석된다. 이때 ‘(이)샤’는 ‘보신’과 ‘화신’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해당 명제가 성립함을 나

136) 명사구에는 ‘(이)샤’, 동사구에는 연결어미 ‘-어’에 ‘샤’가 붙은 ‘-어샤’가 결합하여 필요조건을 나타낸다(박진호 2015: 423).

137) 이는 杜林林(2014: 184)에 제시된 예를 가져온 것이다.

타낸다. (7ㄴ)은 글의 오타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맺는 글의 ‘本’ 자가 ‘末’ 자여야 옳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末’ 자(로 쓰이는 것)”가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7ㄷ)의 (A1-3)에서는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이)샤’가 결합하였다.

중세 한국어에서는 ‘(이)샤’와 더불어 ‘(이)라샤’가 체언 뒤에 결합하여 필요조건 의미를 나타내었다. ‘이라샤’는 계사 어간 ‘이-’에 연결어미 ‘-라’, 보조사 ‘샤’가 결합된 형태이다.

- (8) ㄱ. 이 두 일후미라샤 쁘디 다 들릴씨 얹뒤헤 서르 니르니라(然此二名 方盡其義 是故文中 前後綺互言耳) <월석 11:73a>
 ㄴ. 그 나몬 三品은 모로매 佛地라샤 비르서 그츠리니(其餘三品은 必須佛地라샤 方斷호리니) <능엄 8:63a>
 ㄷ. 엇데 行호미라샤 能히 이 經을 널오디 시러 諸難이 업스리잇고(云何所行이라샤 乃能說是經호디 得無諸難호리잇고) <법화 5:4b-5a>

- (9) ㄱ. 므스미 木石 7튼 사르미샤 비릇 道 비홀 分 | 이시리라(心如木石者 | 샤 始有學道分호리라) <선가귀감 19b>
 ㄴ. 法에 親切히 返照홀 工夫를 두어 自家肯信호야 點頭홀 사르미라샤 비릇 말습닐을 分 | 이시리라(於法에 有親切返照之功호야 自肯點頭者 | 샤 始有語話分호리라) <선가귀감 19b>

(8)은 필요조건을 나타내는 ‘(이)라샤’의 예이고, (9)는 동일한 문헌에 나타난 ‘(이)샤’와 ‘(이)라샤’의 예이다.¹³⁸⁾ 특히 (9ㄴ)에서 구결문에는 ‘| 샤’로 쓰였으나, 언해문에는 ‘| 라샤’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샤’와 ‘(이)라샤’의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이현희 1995: 545).

이처럼 중세 한국어에서는 ‘(이)샤’가 적극적 배제를 표현할 수 있었다. 다만 현대 한국어의 보조사 ‘(이)야’는 소극적 배제를 나타내는 데만 쓰이며, 일부 격조사나 어미 뒤에 결합하는 ‘야’의 일부 예에서 적극적 배제 용법이 나타난다(임동훈 2015: 355-366).

- (10) ㄱ. 이 기계는 영하에서야 작동한다.
 ㄴ. 지금은 모르고 한참 후에야 알 수 있다.
 ㄷ. 석사학위 소지자야 지원할 수 있다.
 ㄹ. 이 꽃은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핀다.

[임동훈(2015: 356) 예문 (22), 각주 29]

(10)은 현대 한국어에서 보조사 ‘야’가 적극적 배제로 쓰인 예이다. (10ㄱ, ㄴ)에서는 조사 ‘에서’, ‘에’에, (10ㄷ, ㄹ)에서는 어미 ‘-어’, ‘-어서’에 각각 ‘야’가 결합하여 필요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138) (8)은 하귀녀(2005: 193)에, (9)는 이현희(1995: 544-545)에 제시된 예를 가져온 것이다.

4. ‘은/는’과 ‘(이)샤’의 대비¹³⁹⁾

4.1. 의미 차이

중세 한국어에서는 대조의 맥락에서 ‘은/는’과 ‘(이)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11) 가. 후에 나는 사르미 지조 흘 성이 늙두곤 더으니는 저프디 아니히고 오직 글 닐
구매 츠자 싱각하야 궁구하느니샤 저프니라(後生이 才性過人者는 不足畏오 惟讀
書尋思推究者는 爲可畏耳니라) <번소 8:37b>
- 나. 前잇 사름들히 일즉 닐오디 後生이 지질이 사름의게 넘은 이는 足히 두렵디 아
니히고 오직 글 넘우매 츠자 싱각하며 미러 궁구하느니 可히 두리우니라 하고
(前輩 | 嘗說 後生이 才性過人者는 不足畏오 惟讀書尋思推究者 | 爲可畏耳라
하고) <소언 5:115b-116a>
- 다. 人天이 드외야 衆生 調伏호몬 어렵디 아니커니와 畜生이 드외야 畜生 調伏호미
샤 어려브니라 <월석 23:18b>
- 라. 니건 햇 가난호몬 가난티 아니하더니 옴 가난이샤 實로 가난토다 니건 히는 솔
옷 셀 싸토 업더니 올히는 솔옷도 업도다 헝서니 <남명 상:8b>
- 리. Q: (須達이 무로디) 여섯 하느리 어늬샤 뭇 도하느릿가(問舍利弗 是六欲天何處最
樂)
A: (舍利弗이 닐오디) 아랫 세 하느른 煩惱 | 만하고 뭇 우히 두 하느른 너무 게
을이 便安하고 가온디 네 참 하느리샤 상네 一生補處菩薩이 그에 와 나샤 法
訓이 굿디 아니하느니라(舍利弗言 下三天中色欲深厚 上三天中憍逸自恣 第四
天中少欲知足 恒有一生補處菩薩 來生其中法訓不絕) <석상 6:35b-36a>
- 로. 오직 成佛에 갖가온 사르미샤 이 眞言을 듣고 成佛에 먼 사르몬 世世에 듣디
묻헝리라 <영험 7a>

(11)은 동일한 문장에 ‘은/는’과 ‘(이)샤’가 함께 나온 예이다. (11가-리)은 ‘-은/는 {-고, -커
니와, -니} -(이)샤’의 구조로, ‘은/는’이 먼저 제시되고, (11로)은 ‘-(이)샤 -고 -은/는’의 구조
로 ‘(이)샤’가 먼저 제시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은/는’과 ‘(이)샤’가 대비되는 맥락에서 ‘
(이)샤’의 한정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고 하였다(하귀녀 2005, 杜林林 2014). 이를 ‘(이)샤’가
나타내는 적극적 배제 의미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4.2. 시기별 실현 양상

동일한 원문이 시기별로 다르게 언해된 문헌에서 ‘(이)샤’가 후대에 ‘는’으로 바뀌어 표현
되는 경우가 있었다. 杜林林(2014: 181)에서는 ‘당연함’의 의미가 동반된 화제 표시 ‘샤’가
‘는’으로 바뀐 경우가 많으며, 이때 당연함의 의미가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
다.

- (13) A: (都弥의 거지비 樣子 | 곱고 節个 | 잇더니 盖婁王이 드르시고 都弥드려 니르샤

139) ‘은/는’과 ‘(이)샤’는 모두 소극적 배제를 나타내지만 세부적인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보조사의 의
미 관계와 정보구조 측면에서, 통시적 관점에서 두 형태를 비교하여 논의하면 각각의 의미를 더 세
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이 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예문들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디) 겨지비 현마 正ኳ야도 어드븐 디 이셔 工巧히 달애면 므몹 뤄우리라(都彌妻 美麗亦有節行 盖婁王聞之 語都彌曰 婦人雖貞 在幽昏處 誘以巧言 則動心矣)

B: (都彌 슬보디) 내 겨지비샤 현마 주거도 두 뜯 업스리이다(都彌曰 若臣妻雖死無 貳) <삼강(열) 30a> [15세기]

B'. (도미 슬오디) 내 겨지비야 현마 주거도 두 뜯 업스링이다 <삼강(열) 선조판(동 경대본) 30a> [16세기]

B". (도미 골오디) 신의 처는 죽어도 변치 아니헝리이다 <삼강(열) 영조판 30a> [18 세기]

[杜林林(2014: 181) 예문 (17나)]

(14) 가. 孔子ㅣ 드르시고 니르샤디 子路ㅣ샤 사랏거든 힘ᄃ장 孝道ᄃ고 죽거든 몸내 그 리는다 헝리로다(孔子聞之曰 由也可謂生事盡力 死事盡思者也) <삼강(효) 2a-2b> [15세기]

나. 공조 드르시고 니르샤디 조로는 사랏거든 힘ᄃ장 효도ᄃ고 죽거든 몸내 그리는 다 헝리로다 <삼강(효) 선조판(동경대본) 2a-2b> [16세기]

다. 공지 들으시고 골오샤디 조로는 가히 살아시매 힘을 다 ᄃ여 섬기고 죽으매 썩 아 싣각는다 닐으리로다 <삼강(효) 영조판 2a-2b> [18세기]

[杜林林(2014: 181) 예문 (17가)]

이에 대해서는 ‘샤’가 지니는 ‘당연함’의 의미나 정보구조 관점에서 ‘(이)샤’가 화제를 표시 하였는지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보조사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이)샤’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제 보조사는 초점과 대안집합 요소들이 배제 관계를 이루며, 배제의 정도에 따라 소극적 배제와 적극적 배제로 나뉜다. 둘째, ‘(이)샤’는 소극적 배제와 적극적 배제를 모두 나타낼 수 있었다. 그중 적극적 배제의 ‘(이)샤’는 필요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며, 현대 한국어에도 이러한 ‘야’의 적극적 배제 용법이 일부 남아 있다. 셋째, ‘은/는’과 ‘(이)샤’가 대조되는 맥락에서 의미 차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중세 한국어에서 ‘(이)샤’로 표현되었던 것이 후대에 ‘는’으로 바뀐 경우가 있다.

<참고 문헌>

- 김민국(2022), 보조사 ‘이(야)’의 의미와 화용, 《한말연구》 63-24, 한말연구학회, 1-18.
- 林林(2014), 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 조사 ‘-이’, ‘-는’, ‘-으랴’, ‘-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 73, 국어학회, 375-435.
- 이현희(1995), ‘-야’와 ‘-沙’, 《한일어학논총》, 국학자료원, 523-585.
- 임동훈(2012), ‘은/는’과 종횡의 의미 관계, 《국어학》 64, 국어학회, 217-271.
- 임동훈(2015), 보조사의 의미론, 《국어학》 73, 국어학회, 335-373.
- 하귀녀(2005), 국어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웅(1979),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월암(月巖) 이광려(李匡呂) 과체시(科體詩) 연구

김 지 현 (한문학 박사과정)

차례

1. 들어가며
2. 이광려 과체시의 수록 양상
3. 이광려 과체시의 분석 및 특징
4. 나가며

1. 들어가며

월암(月巖) 이광려(李匡呂, 1720~1783)는 정치적으로는 소론계, 학문적으로는 강화학파를 계승하고 있는 문인이자 학자로서 알려져 왔다. 그동안 이광려에 대한 학계의 연구 동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일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강화학파의 일원으로서 이광려의 사상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며, 다른 하나는 그의 시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학계의 접근이 그것이다. 양측의 지속적인 관심의 결과 현재 이광려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¹⁴⁰⁾이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이 가리키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광려가 18세기 소론계 학문과 지단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시인으로서 이광려의 당대적 위상은 18세기 시문선집 가운데 하나인 윤광심(尹光心)의 『병세집(并世集)』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병세집(并世集)』은 통시적인 배열 방식을 취하는 종래의 선집들과 달리 공시적 관점에서 당대 활동한 작가들에 한정하여 시문을 선별하고 있어, 수록된 작가들에 대한 당대적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병세집』 내 시 부분의 첫 타자로 이광려와 그의 시작품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특히 이광려 시의 수록 비중은 총 22편으로 시 부문에 수록된 작가 30인들과 비교¹⁴¹⁾해보면 약 7%를 웃도는 수치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병세집』의 체재와 수록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정황은, 특히 편찬자인 윤광심이 소론계 인물이라는 점까지 감안한

140) 이광려 시문학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심경호, 「강화학파의 문학사상」, 『조선 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과학연구부, 1991; 박윤정, 「李匡呂의 學問 傾向과 詩世界」,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정양완, 『江華學派의 文學과 思想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오수경, 「이광려의 실학사상과 현실주의 문학세계-소론계 문학지식층의 학문성향의 일단면-」, 『대동한문학』 5, 대동한문학회, 1993; 정양완, 『조선후기한문작가론』, 집문당, 1994; 김동하, 「이광려의 시문학 세계」, 『서강대논문집』 14, 서강정보대학, 1995; 이용훈, 「월암 이광려 한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이승용, 「조선후기 江華學派 漢詩 研究 - 全州李氏 德泉君派 八匹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41) 작가별 개별 수치에 대한 정보는 다음 논문에 자세하다.

이화진, 「윤광심의 『병세집』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9-30쪽).

다면 이광려의 당대적 위상이 비단 소론계뿐만 아니라 18세기 조선 시단을 대표할 만한 지위에까지 미쳐 있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광려의 시명이 동시대 활동했던 여타 진영의 인사들에게서도 긍정적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광려의 시를 당세의 제일이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꼽기도 했던 이덕무(李德懋)¹⁴², 그리고 노론계인 홍석주(洪奭周)¹⁴³의 언급이 대표적이다. 근기남인계인 이학규(李學逵)는 이광려와 대표적 노론계 명사인 박지원(朴趾源)을 일대의 명가¹⁴⁴로 나란히 언급한 바 있다. 이광려에게 주어진 이 같은 평가가 극심한 대립의 연속이었던 봉당 정국에서 이루어진 점은 매우 특기할 만하며, 따라서 그가 당파를 막론하여 당세에 인정받고 높은 시명을 얻었던 사실에 주목하여 그의 시가 동시대 문인들의 보편적인 호응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특징적인 요소들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전인들의 언급에서 구체적으로 지목되었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거의 주목되지 않았던 이광려의 과체시 작품들에 천착하여 논의를 개진하고자 한다.

동시대 문인들의 기록에는 이광려가 과체시 작성에 매우 능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화들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광려의 시작(詩作) 가운데 이처럼 시형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과체시가 유일한데, 동시대 이규상(李奎象)은 『병세재언록(并世才彥錄)』의 「고사록(高士錄)」과 「문원록(文苑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광려의 과체시 제작 능력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광려에 대해 “사람됨이 기이한 것을 좋아하고 옛것을 좋아했으며, 시를 잘 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과시(科詩)는 더욱 잘하여 입을 만하였다”¹⁴⁵고 하였으며, 그의 과시에 대해서는 “매양 고사체를 본떠 지었는데, 시를 제출하기만 하면 고관의 큰 칭찬을 들었다”¹⁴⁶고 하였다. 다른 노론계 문인인 심노승(沈魯崇)에게서도 이광려 과체시에 대한 애호가 확인된다. 한창 과거 공부에 매진했을 10대 무렵에 그는 이광려의 과체시 작품을 좋아하여 책으로 만들어 외울 정도 였으며, 이로 인해 어른들에게 주의를 받을 정도였다고¹⁴⁷ 밝힌 바 있다.

진사시 시험 과목 중 하나인 과체시는 시험용 답안이라는 특성상 엄격한 형식이 요구된다. 창작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된 양식이기에 과체시는 문학적 성과물이라기보다는 수단적인 글쓰기의 결과물로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형화된 양식성을 통해 신선한 미감을 창출하고 있다면, 이는 작자의 독특한 역량을 포착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광려의 과체시에 대한 동시대 문인들의 반응은 이광려 과체시의 특징적인 미감을 조명하는 데 중요한 핵심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이광려의 창작으로 현전하는 과체시 작품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당대 과체시 창작의 관행 안에서 개별 작품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기존 문인들의 비평적인 언급들을 참조하여 이광려의 과체시 창작의 특징적인 국면들이 기존에 알려진 이광려의 시세계 안에서 어떻게 해명될 수 있

142) 李進士 呂 〇字聖載 〇詩雅重深潔 〇名滿一國 〇或云 〇詩爲當世第一 〇이덕무, 『청장관전서』 34권 「李進士」

143) 近世詩人, 多推李參奉匡呂爲上乘. 其詩刻意陶煉, 絕不爲庸率語, 以故不能多作, 尤尠爲巨篇. 然至其匠心獨造, 亦往往不媿古人. 홍석주, 『鶴岡散筆』, 卷3

144) 近世詩文 〇當以李參奉, 朴燕庵 〇爲一代名家 〇但李詩猶有東人氣味 〇朴文不具大家手眼 〇爲可恨耳 〇蓋此兩先輩 〇胃中無一點黨心 〇口頭無一句黨議 〇所以成就得如許好詩文 〇이학규, 『洛下生集』 冊10, 「與」

145) 이규상 저,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병세재언록』, 창작과비평사, 1997, 40쪽.

146) 이규상 저,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1997), 위의 책, 68쪽.

147)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84쪽; 심노승 저, 안대회·김보성 외 옮김, 『자저실기』, 휴머니스트, 2014, 72쪽.

는지 또한 논의해보고자 한다. 소론계 시단 및 18세기 조선 시단을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이광려가 당대에 자리매김하게 된 과정과 관련하여, 본고의 논의가 그에 상응하는 문학적 실상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이광려 과체시의 수록 양상

이광려의 과체시는 현전하는 이광려의 문집인 목판본 『이참봉집』을 비롯한 여타의 이본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대신 과체시선집들 속에서 일부 발견이 된다. 현전하는 과시선집은 그 수효가 매우 많고 또 대부분 18-19세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여건상 기존에 학계에 소개되었던 일부 과체시선집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광려의 것으로 수록된 작품들을 모아보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번호	제 목	선 집	출 전	비 고
①	七十好奇計	『甘翎』	『資治通鑑綱目』	
②	圮橋授書期穀城山下	『甘翎』, 『東詩』, 용인 진주유씨소장본 ¹⁴⁸⁾	『史記』 「留侯世家」	
③	論三琴優劣憶夷陵無俗累	『東詩』	歐陽修, 『貴耳集』 卷下,	
④	數問夜如何	『科詩分韻』 ¹⁴⁹⁾	杜甫, 「春宿左省」	明朝有封事, 數問夜如何 ¹⁵⁰⁾
⑤	續成漢書	『科詩分韻』	『後漢書』 (재확인필요)	
⑥	蜀中見櫻桃憶大明宮舊事	『科詩分韻』 ¹⁵¹⁾	杜甫, 「野人送朱櫻」	
⑦	西湖聞參禪削髮爲尼	『東詩品彙補』	吳曾, 『能改齋漫錄』	
⑧	平順驛遇橫笛女	『東詩品彙補』	(확인중)	

학계에 비교적 알려진 선집들 가운데 수록된 원문의 확인이 가능했던 문헌은 『감령(甘翎)』, 『동시(東詩)』, 『과시분운(科詩分韻)』, 『동시품회보(東詩品彙補)』로, 각각에서 2~3편가량 총 8편에 해당하는 이광려의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절대적으로 많은 수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출사하지 않고 평생을 포의로 지냈던 이광려의 행보를 떠올린다면 결코 적다고도 할 수 없는 편수이다. 실제 그의 과거 이력은 22세에(1741, 영조17) 진사시 합격¹⁵²⁾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이후로 대과에 나아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조사 범위의 바깥에 있는 선집에 수록된 것들까지도 고려한다면 이 같은 자료의 양상은 이미 상당수의 이광려 과체시 작품들이 당대에 유통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이광려 과체시에 대한 동시대 문인들의 언급을 정황적으로 입증하기도 한다.

148) 개인 소장본으로 필자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아래 논문에서 제공된 목록을 통해 이광려의 작품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선집을 소개하고 있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 소인호, 「용인 지역에서 발견된 과체시집 2종에 대하여」, 『고전과 해석』 1, 고전문학한문학회, 2006

149) 1冊, 175쪽.

150) 이상욱(2005), 위의 논문, 66쪽.

151) 3冊, 139쪽.

152) “과거 및 취재 - 이광려(李匡呂)”, 2022년 12월 12일 접속,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여러 선집에 이광려의 이름으로 남아 있는 과체시의 흔적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상상해볼 수 있다. 먼저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된 시권이었을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8편 가운데 ②번 작품은 시험과 관련된 정보가 남아 있어 실제 이광려의 진사시 합격 시권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실제 시험장에서 제출되어 입격한 시권의 경우 시험에 대한 정보가 부기되어 있는 편인데, 이를테면 『동시(東詩)』나 『동시분운(科詩分韻)』의 경우 일부 입격작에 대해서는 시험의 종류, 성적 및 등급 등의 정보가 함께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②번 작품을 제외하고 이광려의 작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기된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입격 사실과 관련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다른 작품들이 모두 시험장 바깥에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광려는 진사시 때 첫 번째 등급(一等)의 3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격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여느 사대부가 자제들이 그랬듯 이광려에게도 과거 공부에 매진했던 시기가 있었고, 또 젊은 나이에 소과 입격을 통해 개인의 역량이 입증된 상태였다면, 이미 문과에도 여러 번 응시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출사를 그만두게 된 나중의 행보와는 별개로 과거를 준비했던 시기에 남게 된 작품이 쉬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다시 말해 어떤 작품들은 실제 이광려가 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낙방한 시권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시험장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 단순한 습작 내지는 후학들의 지도를 위해 본보기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드시 시험에 합격한 시권이 아니더라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수요에 따라 역대 본보기가 될만한 과체시 작품들이 선발되어 선집으로 유통되었던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고, 또 후대로 갈수록 문학적 욕구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과체시의 형식을 차용한 시작이 성행하기도¹⁵³⁾ 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광려의 과체시 작품이 현전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당대의 과시 학습이나 창작의 관습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상기 목록의 네 시선집은 모두 필사본으로, 앞서 확인하였듯 실제 시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권, 즉 시험에 입격한 시권과 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동시에 뒤섞여 있다는 점에서 공적인 목적이거나보다는 일종의 수험 참고서 역할을 했던 작품집에 가깝다. 특히 『감령』의 경우는 각 제목 위에 운부(韻府)를 표기하고 있어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한 체재¹⁵⁴⁾가 엿보이기도 한다. 남중현의 편저로 알려진 『동시품회보』에서는 그 서문을 통해 “배우는 자들이 동방의 선각자를 취하여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는 편찬 의도가 직접 드러나면서 당대의 과체시 명사로 김창협, 이사명, 신광수와 함께 이광려가 거론¹⁵⁵⁾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실들은 이광려의 과체시가 명사의 작품으로서 학습의 대상으로 애호되었던 양상을 살필 수 있게 해준다.

상기 여덟 편의 각 시제들은 그 출전이 각기 다양한데, 과체시제의 전통적인 출제 범위인 역사서에 기반한 것도 있지만 개인 문집에 수록된 문학 작품들을 출전으로 삼는 것들도 존재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각기 원전의 성격을 달리하는 모티프가 과체시 규범 안에서 어떻게 재현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이광려 과체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국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53) 허경진, 「『동시품회보(東時品彙補)』와 허균의 과체시(科體詩)」, 『열상고전연구』 14, 열상고전연구회, 2001, 105쪽.

154) 『감령(甘翎)』 디지털 장서각 해제 (집필자 : 배미정), <https://jsg.aks.ac.kr/> (열람일 : 2022.12.24.)

155) 남중현, 「東詩品彙目錄後序」, 『月巖文稿』

3. 이광려 과체시의 분석 및 특징

상기 목록 가운데 일부 작품들에 대해 실제적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이광려 과체시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체시의 형식은 조선 중기까지는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18운(韻) 36구(句)를 정격으로 본다. 이때 2구가 1장(章)을 이루고 3개의 장이 1조(組)를 이루므로 총 6조의 형태가 된다.¹⁵⁶⁾ 선집에 수록된 작품에 따라 구수의 차이가 있어 정격의 기준이 못 미치거나 그보다 상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에 반해 상기 이광려의 과체시 8편은 모두 정격의 형식을 준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②번 시, 「장량이 이교에서 병서를 받고 곡성산 아래에서 만나자 약속하였다. (圮橋授書期穀城山下)」의 체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組 章	원 문	해 석
1	丈人丹藜光照地 ●○○○○●●● 城陰古橋連淮渠 ○○●○○○○○	노인장이 붉은 명아주 지팡이 짚으니 그 빛이 땅을 환히 비추고 성 북쪽에 오래된 다리는[이교] 회수와 이어지네 [과제(破題) · 초구(初句)]
1	2 昨聞沙中大索賊 ●○○○●●●● 圮上少年安所如 ○●●○○●●○	어제 듣자니 사중(沙中)에서 크게 역적을 찾는다 하는데 저 이교 위의 소년은 어찌 하려는가 [대련(對聯) · 초구(初句)받침]
3	3 回眸一笑笑受履 ○○●●●●●● 老夫胸中函素書 ●○○○○●●○	노인이 한번 돌아보며 웃으매 장자방이 웃으며 신발을 주웠는데 노인의 가슴 속에는 병법서를 품고 있었지 [입제(入題 · 立題) · 본신(本身)]
4	4 人間難得可教者 ○○○●●●●● 喜君精高心不疏 ●○○○○●●○	인간 세상에 가르칠 만한 사람을 얻기 어려운데 그대가 정고(精高)하여 마음이 거칠지 않으니 기쁘구나 [원제(元題) · 포두(鋪頭)]
2	5 男兒欲圖天下事 ○○●○○●●● 安用小椎驚人車 ○●●○○○○○	남아가 천하의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어찌 작은 방망이로 수레를 놀래킴에 그치겠는가.
6	6 淮陽學禮尚諸生 ○○●●●○○○ 別有神書秦焰餘 ●●○○○○●○	회양에서 예를 배우니 제생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진나라의 분서갱유에서 살아남은 신서가 있다네
3	7 中宵對立不見人 ○○●●●●●○	한밤중에 마주 보고 서 있어도 볼 수가 없으니 흰 머리 막막하여 신령스러운 마음이 텅 비었구나

156) 남궁원, 조선시대 과체시(科體詩)의 문학적 탐구, 한문고전연구7(0), 한국한문고전학회, 2003, 187쪽.

과체시의 형식적인 범주를 가리키는 용어들의 채택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 본고의 장(章) 대신에 구(句)를, 조(組) 대신에 명(名)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장(章)과, 조(組)로 통일하여 지칭하고자 한다.

		素髮漠漠靈襟虛 ●●●●○○○	
	8	一篇交手野橋上 ●○○●●●● 蒼茫夜色迷青徐 ○○●●○○○	[태공]병서한 편을 다리 위에서 주고받으니 창망한 밤빛이 청(靑) 땅과 서(徐) 땅에 아득하네
	9	神方不向匪人傳 ○○●●●○○ 揣摩君能奇志攄 ●○○○○●○	신령한 방술은 알맞은 사람이 아니면 전해질 수 없는데 그대의 능력을 헤아려보니 기이한 뜻을 펴겠구나
4	10	東南聞有天子氣 ○○○●○○●● 出輔他時其汝敷 ●●○○●●○○	동남쪽에 듣자나 천자의 기운이 있다는데 훗날 나가서 보필할 자는 자네가 아니겠는가
	11	奄然稱遽辭不究 ●○○●○○●● 人散橋頭鷄唱初 ○●○○○○●○	어느덧 바쁘다 하고 말을 채 마치지 못하니 사람이 다리 위에서 사라짐에 닭이 한번 우는구나
	12	塵埃一見不浪許 ○○●●●●●● 後日留期何處於 ●●○○○○●○	속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데 훗날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하리까? [회제(回題)]
5	13	三晨踐期已識子 ○○●○○●●● 十年成功還見余 ●○○○○●○○	사흘 밤의 약속을 지킴에 이미 너를 알겠도다 (한나라) 십 년의 공을 세워 돌아와 나를 보러오거라
	14	不生不死黃一石 ●○○●○○●● 濟北穀城吾之居 ●●●○○○○	불생불사의 누런 돌 하나 제북 곡성산에 내가 있으리로다
	15	老人寧與後生戲 ●○○●○○●● 望夫化石傳仙墟 ●○○●○○○○	노인장은 어찌 후생과 농담을 하십니까 망부석처럼 신선의 터에 황석으로 전환단 말씀이십니까.
6	16	如此離合蓋有緣 ○●○○●●●○ 歸去風塵且勉諸 ○●○○●●●○	이처럼 만나고 헤어지는 데는 인연이 있으니 세속에 돌아가 열심히 힘쓰거라
	17	天時試看此何書 ○○●●●○○○ 也非孫武非穰苴 ●○○●○○○○	천시(天時)를 시험해 보니 이것을 보니 무슨 책인가. 또한 손무(孫武)도 아니요 사마양저(司馬穰苴)도 아닐세
	18	不從赤松從黃石 ●○○●○○○○	적송자를 따르지 않고 황석을 따랐으니 곡성산 아래에서 제사 지내고는 마을로 향했다네

		山下伏臘奔村間							
		○●●●○○○							

이 시에는 상기 8편 가운데 유일하게 시험과 관련된 정보가 남아 있는데, 『동시』에 수록된 이본에서 ‘會二下’라는 기록이 부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목 정보와 대조해보면 이는 1741년 (영조17)에 시행된 식년시의 회시(會試)에서 제출된 것이며, 이 시권에 매겨진 점수는 ‘二下’, 즉 6등급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 시권으로 이광려는 진사시의 합격권에 들 수 있었다.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된 답안이라는 점 때문인지 다른 작품들에 비해 여러 선집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만큼 필사를 통해 수험생들을 비롯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읽혔던 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동시』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③ 「세 거문고의 우열을 논하며 이릉에 부임했을 때 세속에 이끌리는 잘못이 없었음을 기억하다(論三琴優劣憶夷陵無俗累)」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기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는 이광려 과체시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장량이 이교에서 병서를 받고 곡성산 아래에서 만나자 약속하였다. (圮橋授書期穀城山下)」는 시제는 『사기(史記)』 「유후세가(留侯世家)」에 나오는 장량의 고사로 확인되는데, 장량이 진(秦)나라의 수색을 피해 하비(下邳)로 숨어들었을 때 흙다리(圮橋) 위에서 우연히 신비한 노인과 만나 병법서를 건네받았다는 이야기의 한 장면을 가져온 것이다. 원전에서는 장량이 황석(黃石) 노인에게서 받은 강태공의 병법서를 통해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복원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그 사이의 역사적 사건들의 전개가 서술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시제는 중심 사건에서 다소 벗어나 있으면서 신이성을 드러내는 황석공 일화에서 발췌되어, 이교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초점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시는 상평성의 ‘어(魚)자 운목으로 압운되어 있는데, 이는 운자(韻字)를 제목에서 취해야 한다는 과체시의 규정¹⁵⁷⁾에 따라 ‘서(書)’자가 속해 있는 운목이 선택된 것이다. 그런데 규정에 따르면 제목에서 취한 ‘書’자는 제4장 원제(元題)에서 동일한 글자로 압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書’자 압운은 제3장 입제(入題)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파격은 평측이나 대구에 이르면 더욱 확연하게 눈에 띈다. ‘이평삼측(二平三仄)-이측삼평(二仄三平)’으로 짝지어진 구가 대칭을 이루어야 하는 소리의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연속되는 소리 가운데 교체가 허용되는 일부를 고려하더라도 파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장(章)들이 확인된다. 과체시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대구도 이 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시상의 구성에 대한 규칙인 이른바 ‘포치(鋪置)’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동시』 수록본에는 비점과 권주 표기가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 위와 같은 형식의 파격에도 불구하고 합격점에 들 수 있었던 요인들을 추론해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채점 기준이 되는 것이 ‘입제(入題)’와 ‘회제(回題)’인데, 전자와 관련하여 제1·2장, 그리고 후자와 관련하여 제14·15장의 비점이 주목된다. 먼저 제1·2장은 입제로 진입하기 전에 제목에서 제시된 주제를 설명하고 앞으로 기술될 내용의 배경이나 초점을 기술¹⁵⁸⁾하는데, 환상성이 부

157) 과체시의 형식적인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논문들을 위주로 참조하였다. 그 외에 참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도록 한다. 남궁원(2003), 위의 논문, 187-189쪽 ; 이병혁(1986), 「한국과문연구-시(詩) 부를(賦) 중심으로-」, 『동양학』 16(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5-10쪽; 이상욱, 「한국 과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10-212쪽.
158) 이상욱(2015), 「한국 과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0쪽.

각된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신이한 존재와의 만남과 인연’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환기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 회제에 이르면, 우연한 인연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상기함으로써 주제를 다시 환기하면서도 ‘만남의 기약’이라는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제14·15장에 형상화된, 황석공과 장량이 서로 굳건한 기약을 주고받는 장면은 앞서 회제의 시상을 적절하게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제한된 규식 안에서 이렇듯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구성과 배치가 이 시권의 채점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④번 시 「밤이 얼마나 되었는지 여려번 묻다(數問夜如何)」를 보도록 한다. 이 시는 두보(杜甫)의 「봄에 좌성에서 숙직하다(春宿左省)」라는 5언 율시의 마지막 구를 그대로 시제로 취한 것이며, 전 편과 동일하게 과체시의 정격인 18운 36구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시는 현재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본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 시험에 제출된 작품이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이 수록된 『과시분운』에서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된 시권들은 시험 일시나, 장소, 성적 등의 부기된 정보가 비교적 자세한 편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 시대에 명편으로 유명했던 작품이 수록된 것인데¹⁵⁹⁾, 이광려의 이 시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과체시 체재에 따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組 章	원 문	해 석
1	洞門高閣靄沈沈 ●○○●●○○ 朝罷香烟曳滿裾 ○●○○●●●○	동문(洞門)의 고각에 구름이 어둑어둑한데 조화 마치나 향 연기가 궁문에 끌고 다니는 옷자락에 가득하네
	封章草就坐待朝 ○○●●●●○○ 五夜鍾漏知何如 ●●○○●○○○	봉장을 초하고 앉아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니 오경의 물시계 소리만이 얼마나 밤 깊었는지를 안다오
	羞言聖朝少闕事 ○○●○○●●● 衰晚西垣通籍初 ○●○○○●○○	부끄럽게도 (말해보네,) 성대한 조정엔 인재를 빠뜨린 일 없어서 노쇠한 나이로 서원(左省)에 처음으로 향시 출입하게 되었다네 〔입제(入題)·立題)·본신(本身)〕
2	生逢堯舜未忍訣 ○○○●●●●● 忝職箴規寧自疎 ●●○○○●○○	살면서 요순을 만나 차마 이별할 수 없으니 관직을 맡아 경계하여 바로잡기를 어찌 스스로 소홀히 하겠는가 〔원제(元題)·포두(鋪頭)〕
	朝來退食意遲回 ○○●●●○○○ 省舍無人封諫書 ●●○○○●○○	아침이 오거든 퇴청하여 밥 먹으러 가기 마음에 주저하고 관사에 사람이 없을 때를 살피 간하는 글을 써서 봉하였네
	言深意長草未竟 ○○●●●●●●	말은 깊고 뜻은 장구하여 초하기를 마치지 못했는데 도리어 이후에 궁궐문에 자물쇠가 채워졌지

159) 이상욱(2015), 위의 논문, 38쪽.

		却後天門收鑰魚 ●●○○○●○	
	7	絨成早囊獨怡悵 ○○●○●●● 直待明朝朝帝居 ●●○○○●○	검은 주머니에 상소를 봉합하고는 홀로 기뻐하고 슬퍼하다가 그저 내일 아침에 황제의 조회를 기다리네.
3	8	明朝投匭且御覽 ○○○●●●● 此夜和衣仍直廬 ●●○○○●○	내일 아침에 문서를 함에 던지면 황제께서 보시리니 이 밤에 옷 입은 채 숙직실에 있다오
	9	通宵耿耿不安寐 ○○●●●○● 幾時彤庭傳唱臚 ●○○○○●○	밤새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쉬이 잠들 수 없는데 어느 때에 궁궐에서 여창(臚唱) 소리 들려오려나
	10	千門萬戶正寂寥 ○○●●●●○ 手奉封函重卷舒 ●●○●●●○	대궐은 그야말로 고요한데 상소를 손수 올리면서 신중하게 두루마리를 말았네
4	11	蒼茫夜色屢顧人 ○○●●●●○ 為問更籌今幾餘 ○●○○○●○	창망한 밤빛에 여러 번 사람을 돌아보고는 지금은 얼마나 남았는지 경주(更籌)를 물었다오
	12	微微鼓柝度城闕 ○○●●●●● 歷歷星何低井閭 ●●○○○●○	복소리 미미해질 무렵 도성을 떠올려본다네 또렷한 별들은 마을에 얼마나 내려왔는가 [회제(回題)]
	13	宮門掌事報幾更 ○○○●●●○ 偏覺銅壺清漏徐 ○●○○○●○	궁문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리니 (궁문의 문지기가) 문득 깨닫네 구리 병에 맑은 물 떨어지는 것이 더딤을
5	14	徘徊此夕心耿耿 ○○●●○●● 庶幾微衷天聽虛 ●●○●○○○	이 밤을 배회함에 애타는 심사가 맺히니 어쩐지 나의 하찮은 충성을 하늘께서 허탄하게 들어주실 듯하네
	15	金爐燒盡午夜香 ○○○●●●○ 轉見桐陰傾玉除 ●●○○○●○	금로의 불이 밤중의 향을 남김없이 태우자 도리어 잘 드리나네, 오동나무 그림자 조정으로 드리워지는 모습.
6	16	天明擬追鶯行人 ○○●○○○● 攬衣獨立聊躊躇 ●○●●○○○	하늘이 밝아오니 저 벼슬아치 행렬을 따르고자 하는데 옷자락 걷어잡고 홀로 서서 그저 머뭇거릴 뿐
	17	知君最得諫臣體 ○○●●●○●	임금께서 간신(諫臣)의 체모 지닌 자 잘 얻으신 것을 알겠으니 충실하고 간절하게 정성을 다할 뿐 애써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네

	忠懇其誠非勉諸 ○●○○○●○	
18	不知封事有何語 ●○○●●●● 令我讀詩而歎歎 ○●●○○○●○	저 상소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겠으나 나로 하여금 시 읽으며 탄식하게 한다네

이 시는 ②번 시와 동일하게 상평성 ‘어(魚)’자 운목으로 압운하였는데, 과체시 작성 규정에 따라 제목의 한 글자인 ‘여(如)’를 취하여 해당 글자가 속해 있는 운목을 쓴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목에서 취한 바로 그 글자를 원제(元題)에서 압운해야 한다는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해당 글자인 ‘여(如)’는 포치 상 원제에 해당하는 제4장 대신에 초구(初句)받침에 해당하는 제2장에 배치되었다. 평측에 있어서 역시 제5장, 제12장 같은 경우는 ‘이평삼측(二平三仄)-이측삼평(二仄三平)’의 규정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장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일부 소리의 교체가 있더라도 서로 짝을 이루는 앞 구와 뒷 구에서 5번째 소리글자의 소리는 ‘측성-평성’으로 고정되어야 하는데, 이 원칙도 대부분은 지켜지고 있으나 제1장이나 제14장과 같이 부분적으로 파격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또한 대구는 확인되지 않는데, 3개의 장이 하나를 이루는 한 조 안에서 2번째 장은 대구로 써야 하지만, 6개의 조 가운데 해당 규칙이 적용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두보의 원시는 좌습유(左拾遺)로 복무하면서 숙직하는 날의 밤을 배경으로, 성실하게 복무하는 신하의 충직한 마음을 주제로 삼고 있는 오언율시의 작품이다. 시제로 선택된 ‘밤이 얼마나 되었는지 여러번 묻다(數問夜如何)’는 시의 가장 마지막 구로 시상이 가장 집약된 지점을 발췌한 것이다. 포치의 측면에서 보면, 입제에서는 시제가 환기하는 원시의 시상을 이어받으면서도 그것을 작자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엿보인다. 이를테면 원시에서는 화자가 직접적인 심사를 노출하는 대신 감각적인 이미지들을 동원해 궁궐에서 보내는 고요하고 적막한 밤의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제1·2장에서는 원시와 동일한 방식을 이용해 시상을 일으키고 있다면, 입제에서는 첫 출사라는 두보의 개인적인 행적을 끌어들이 화자의 사연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시상을 변주하고 있다. 이에 원시에서는 단편적인 시어로만 제시된 ‘봉사(封事)’의 장면이 구체화됨으로써 입제 이후의 시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 엿보인다.

장의 이동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경과되는 구성으로 인해 밤이 깊어질수록, 바꾸어 말하면 아침이 가까워올수록 화자의 심정이 점차 고조되는데, 이렇게 전개된 시상이 회제에서는 정확하게 시제를 다시 환기하면서 성공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새벽을 지나 아침으로 향하는 시간, 적막과 고요에서 점차 활기를 띠어가는 주변의 모습과 함께 애타고 초조한 마음에서 신하로서의 충정이 포개어지는 시상의 변화는 회제구 전후의 대비를 통해 원시의 주제를 더욱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도 역시 포치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 입제와 회제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시상이 점차 확대되거나 수렴할 수 있도록 포치를 안배하는 작자의 노련한 수법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본고는 18세기 소론계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왔던 월암 이광려의 당대적 위상을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그가 당파를 막론한 동시대 문인들에게 높은 시명을 얻었던 사실에 주

목하여 그의 시가 당대에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그 특질들을 해명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당대 여러 문인들에게서 수차례 언급된 바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광려의 과체시 작품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과체시는 본래 엄격한 형식성으로 인해 창작의 자율성이 제한되므로 문학성을 띠기 어렵다고 여겨져왔으나, 오히려 정형화된 양식성 안에서 신선한 미감을 창출하고 있다면 이는 작자만의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건상 기존에 소개되어 있는 과체시선집들을 중심으로 현전하는 이광려의 과체시 작품들을 개괄하고, 그 일부를 살펴보았다.

상기 두 시를 통해 잠정적으로 이광려 과체시의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체시 규식에 있어서 현재까지 확인된 작품들에 한해서는 18운 36구의 정격을 취하고 있으나, 살펴본 두 개별 작품을 통해 볼 때 과체시 작성에서 요구되는 규식들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지는 않았다. 특히 시어의 평측이나 대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합을 보여주고 있었다. 포치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입제와 회제의 형식이 기능적으로 알맞게 갖추어진 편이며 그에 따라 시상을 견인하는 각 장들이 긴밀한 관계에 놓이도록 안배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의 전개 과정에서는 시체에 초점화되어 있는 원전의 모티프를 수용하되 원전에는 상황이나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엿보였다. 구체화 방식은 개별 시제 및 원전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②번 작품에서는 대화체 형식을 통한 장면의 전개가 두드러졌으며, ④번 작품에서는 원시의 작자인 두보의 개인적인 행적을 끌어 들여 상황에 대한 맥락을 부여 및 확장해나가는 방식이 확인되었다. 두 방식의 공통점은 원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상을 통해 과체시 정식에 부합하는 형태로 내용을 재구성·재가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거나 인물을 직접 화자로 설정하여 주관적인 심사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다만 내용의 전개 과정에서 일반적인 과체시에서 흔히 발견되는 전고나 용사를 거의 끌어들이지 않았으며, 마지막에 통상 경계하는 주제로 마무리하는 과체시의 관습을 따르지도 않았다. 특히 ④번 작품의 마지막 장에서는 작자인 이광려의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색다른 여운을 남긴다. 전반적으로 이광려는 과체시 작성 시, 장르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식을 따르면서도 시체에 따른 주제적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를 보다 중시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형식에서 일부 벗어났다 하더라도 풍부한 의미와 일관된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는 점이 당대의 문인들에게는 참신하고 독특한 감각으로 와 닿았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육염기>와 <취미삼선록> 화소의 유사성 연구

남 혜 경(고전소설 박사수료)

차례

1. 들어가며
2. 인물 설정의 유사성
3. 공간 설정의 유사성
4. 풍유 장면의 유사성
5. 나가며

1. 들어가며

<취미삼선록>은 공주 세 자매가 '취미궁'이라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며 부마들의 무도함에 저항한다는 독특한 전개로 많은 연구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 왔다. 우선 소인호¹⁶⁰⁾는 학계에 <취미삼선록>을 가장 먼저 화두로 제시하며 <취미삼선록>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취미삼선록>의 여성 문학으로서의 의의와 한계를 밝혔다. 그는 논문 「<츄미궁성산녹>의 이본적 특성과 축양 양상」¹⁶¹⁾, 「<취미삼선록> 이본 연구」¹⁶²⁾를 통해 <취미삼선록>에 대한 서지 정보를 제시하기도 했다. 구선정¹⁶³⁾은 학위논문인 「'취미삼선록 연구」」¹⁶³⁾를 통해 <취미삼선록>의 서지, 갈등양상, 표현, 의식지향 등을 분석하며 그 작품세계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민주¹⁶⁴⁾는 「<취미삼선록(翠微三仙錄)> 연구 - 광후의 인물형상을 중심으로」¹⁶⁴⁾를 통해 <취미삼선록>에서 광후를 바라보는 공주들의 시선이 교차함을 지적하며 <취미삼선록>에 여성담론이 풍부하게 전개된 것에 주목했다.

<육환기봉> 연작으로서의 <취미삼선록>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이승복의 「<육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¹⁶⁵⁾과 「<육환기봉> 연작의 여성담론과 소설사적 의미」¹⁶⁶⁾, 임치균의 「<취미삼선록> 연구-<육환기봉>, <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¹⁶⁷⁾가 있다. 이들 논의는 <취미삼선록>이 <육환기봉>에

160) 소인호, 「<翠微三仙錄> 연구」,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회, 1995, 171-194면.

161) 소인호, 「<츄미궁성산녹>의 이본적 특성과 축양 양상」, 『청람어문교육』 38, 청람어문교육학회, 2008, 485-513면.

162) 소인호, 「<취미삼선록> 이본 연구」,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9, 133-159면.

163) 구선정, 「'취미삼선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4

164) 이민주, 「<취미삼선록(翠微三仙錄)> 연구 - 광후의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59,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69-106면.

165) 이승복, 「<육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159-191면.

166) 이승복, 「<육환기봉> 연작의 여성담론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283-322면.

167) 임치균, 「<취미삼선록> 연구-<육환기봉>, <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古典文學研究』

서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않았던 부마들에 대한 공주들의 반발의식을 다루며 <옥환기봉>에 대한 비판적 독서물의 역할을 수행함을 지적했다. 구선정은 <옥환기봉> 연작 중에서도 <취미삼선록>과 결이 비슷한 <도앵행>에 주목했다.¹⁶⁸⁾ <도앵행> 역시 <취미삼선록>처럼 공주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데, <도앵행>에는 가부장제 가족의 결속을 강하게 하기 위해 허상뿐인 명분을 들며 며느리인 영평공주를 배척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구선정은 두 작품에 나타나는 공주들의 타자의식을 고찰했다.

다음은 <취미삼선록>에 대한 소재적 접근이다. 전성운은 「장편국문소설에 나타난 몽유양식의 양상과 의미 : <현봉쌍의록> <현몽쌍룡기> <몽옥쌍봉연록> <쌍천기봉> <취미삼선록> 을 중심으로」¹⁶⁹⁾에서, <취미삼선록>에서는 천상계 화소를 통해 광무제의 입장과 광후의 입장이 서로 뒤바뀌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장면은 해결되지 않는 작품 내적 현실¹⁷⁰⁾을 한순간의 꿈을 통해 상상적 세계에서나마 해결하려는 자위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취미삼선록>에 대한 소재적 연구는 공간 연구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구선정¹⁷¹⁾은 취미궁이 은퇴와 보신처로서의 공간을 한다고 분석했다. 한길연¹⁷²⁾은 취미궁이 당시 여성들이 한시 등을 통해 상상 속에서 지향했던 신계 모습과 같으며, 이는 탈속적 자기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박은정¹⁷³⁾은 취미궁을 안팎 공간의 권력을 재배치하고 인물의 변화를 추동하는 역동적 공간으로 보았다. 박은정은 또 <취미삼선록>의 그림에 주목하며¹⁷⁴⁾ 이를 통해 문학치료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필자는 <취미삼선록>을 바라보는 선행 연구자들의 시각에 동의하며 다소 구체적인 차원에서 <취미삼선록>과 <육염기>를 비교하려고 한다. 선행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취미삼선록>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여성인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취미삼선록>이 광무제의 다섯 딸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처럼, <육염기>는 개국공신 서달의 여섯 딸을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취미삼선록>과 <육염기>에는 일치하는 구절이나 유사한 화소들이 다수 발견된다. 두 작품은 자매들을 부귀를 기준으로 '태평성대의 양신'과 '난세의 충신' 형으로 대비하였으며 여성인물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집을 그리워하거나 친정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장면을 그렸다. 이야기의 말미에는 여성인물이 꿈에 서왕모의 부름을 듣고 천상계의 잔치에 초대되어 친정 가족들을 만나고 남편과 함께 자매들의 사적을 기록하기도 한다. <육염기>와 <취미삼선록> 사이의 유사성은 단지 지엽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작품의 미감 및 의의에 밀접히 관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두 작품의 유사한 부분을 비교함으로써 조선 후기 소설의 상호텍스트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상호텍스트성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351-378면.

168) 구선정, 「공존과 일탈의 경계에 선 공주들의 타자의식 고찰 -<도앵행>과 <취미삼선록>에 등장하는 공주들의 시대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365-400면.

169) 전성운, 「장편국문소설에 나타난 몽유양식의 양상과 의미 : <현봉쌍의록> <현몽쌍룡기> <몽옥쌍봉연록> <쌍천기봉> <취미삼선록> 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8, 한국고소설학회 1999, 67-101면.

170) 광무제가 광후를 내친 것

171) 구선정, 「『종남산(終南山) 취미궁(翠微宮)』의 체험 양상과 그 의미 -『구운몽』과『취미삼선록』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24, 이화어문학회, 2007, 219-239면.

172) 한길연,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의 여주인공의 탈속적 자기공간 추구에 대한 비교 연구」, 『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149-185면.

173) 박은정,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공간의 기능과 의의」, 『한민족어문학』 60, 한민족어문학회, 2012, 85-124면.

174) 박은정,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그림의 기능과 의의」, 『어문학』 132, 한국어문학회, 2016, 77-109면.

이 조선 소설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기여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논의를 위해 두 작품의 등장인물의 서사를 짧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육염기>는 명나라 건국 때를 배경으로 하는 연의소설이며, 제목의 ‘육염’이란 서달의 여섯 딸을 의미한다. <육염기>에서 서달은 가장 뛰어난 개국공신으로 묘사되는데, 이에 따라 그의 딸들도 재능이 뛰어나 황태자비가 되거나 왕비가 되는 등 최상층의 삶을 살아간다. 여섯 자매 중 언니 세 명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동생 세 명은 간난고초를 겪는다.

일염	연왕비.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연왕에게 이를 타개할 계책을 알려 주며 연왕을 황제로 만듦.
명염	제왕비.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한 제왕이 목숨을 끊으려고 하자 목숨을 보전할 것을 당부하고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후 제왕이 다시 왕위에 복권할 수 있도록 도움.
광염	안남왕비. 대장군 목영과 결혼해서 그와 함께 안남으로 감. 목영이 안남왕에 봉해짐에 따라 안남왕비가 되어 남편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삶. 궁궐에 망향루를 지어 가족들의 그림과 조각을 놓고 고향을 그리워함. 만년에는 요지연에 참석해서 신선이 된 가족들을 만나고 <육염기>를 만들어 자매들의 일생과 요지에서서의 잔치를 기록함.
자염	방효유의 처. 연왕이 건문제에게서 황위를 찬탈했을 때 방효유가 죽었는데, 그의 주검을 수습한 다음 자결함.
기염	경칭의 처. 연왕이 건문제에게서 왕위를 찬탈했을 때 경칭이 죽자 두 딸과 함께 자결함.
월염	건문제의 비. 연왕이 건문제에게서 왕위를 찬탈했을 때 건문제와 함께 탈출하여 신하 정제의 도움을 받고 탈출하고 비구니가 되어 심산궁곡을 유람하다 우화등선함.

<취미삼선록>은 한나라 광무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광무제는 광후를 폐위하고 음후를 황비로 삼았는데, 광후 소생 공주로는 무양공주, 관도공주, 여읍공주가 있고 음후 소생 공주로는 날양공주, 연양공주가 있다. <취미삼선록>의 ‘삼선’이란 광후 소생의 세 공주를 의미하며 ‘취미’란 이 세 공주가 부마들을 피해 거처하는 취미궁을 의미한다. 광후 소생 공주와 음후 소생 공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무양공주	광후의 딸. 광무제가 양송이 바둑을 잘 둔다고 하여 무양공주와 그를 혼인시킴, 양송은 음탕무도한 성격이며 이미 허씨라는 부인이 있었음. 양송을 혐오하여 매우 반발했으며 나중에는 허씨와 화합하여 양송을 낫추치게 함.
관도공주	광후의 딸. 남편과 불화함.
여읍공주	광후의 딸. 부마와 불화하여 광무제에게 취미궁을 만들어 달라고 함. 취미궁에서 무양공주, 관도공주와 함께 생활하려고 하나 부마들과 날양공주, 연양공주가 들어오려고 하여 이들과 갈등을 빚음. 취미궁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광후의 화상을 그려 항상 그리워함. 이를 본 광무제가 폐위된 광후를 복원시킴.
날양공주	음후의 딸. 부귀영화를 누리며 남편인 두부마와 화락함. 어느 날 꿈에 요지연에서 가족들이 신선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남편과 함께 이를 기록함.
연양공주	음후의 딸. 부귀영화를 누리며 남편과 사이가 좋음.

2. 인물 설정의 유사성

두 작품에 등장하는 자매들의 설정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일엽, 명엽, 광엽	자엽, 기엽, 월엽
<육염기>	태평시대의 양신에 비유됨 유한정정한 성격 영웅호걸이 명주를 섬겨 입공하고 현달하는 것을 즐겨 논함 화려하고 변화한 것을 선호함 남편과 화합 자손이 번성함 *일엽은 남편과 사주가 같음	난세의 충신에 비유됨 단호하고 세찬 성격 남성에게는 충이 중요하고 여성에게는 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검소하고 간략한 것을 선호함 남편과 화합 자손이 번성하지 않음
	날양, 연양	무양, 관도, 여읍
<취미삼선록>	태평시대의 양신에 비유됨 유한정정한 성격 부귀 중에 살며 인간 낙사를 겸한 자 남편과 화합 자손이 비교적 번성하지 않음 둘째부인 소생 *날양은 남편과 사주가 같음	난세의 충신에 비유됨 단호하고 세찬 성격 남편을 잘못 만나 인간 낙사가 없으며 부귀를 꿈속에 부친 자 남편과 불화 자손이 번성함 첫째부인 소생

두 작품에서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방식이 유사한 대목을 뽑으면 다음과 같다.

서공(*서달, 여섯 자매의 아버지)이 말했다.

“태평지세의 양신과 난세의 충신 같아 품격이 다르니 서로 지는 것이 없겠다. 그러나 부덕은 유한정정함이 으뜸이다.”

이는 그 아우 세 명을 꺼리는 것이었다.¹⁷⁵⁾ <육염기>

영일루 세 명은 의복을 화려히 하며 진미를 많이 먹고 풍류와 변화한 기운을 숭상하니 시녀들도 모두 주인과 같았다. 영일루에서는 명월루의 주인과 시녀들이 모두 냉담하다고 비웃고 명월루의 시녀들은 영일루를 빈잡하다고 여겼다. 왕부인(*여섯 자매의 어머니)은 ‘각각 장점이 있으니 서로 지지 않겠으나 명월루는 복록이 두텁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았다.¹⁷⁶⁾ <육염기>

서공이 벽을 둘러싼 병풍을 내어 보였다. 중이 한 번 보더니 훑어앉으며 말했다.

“여기 태평천하의 국모 되실 상이 계십니다.”

서공은 막내딸 월엽을 일컫는가 하며 말했다. 그러나 승이 손으로 일엽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집니다. 다만 백성이 그 화를 입을 것입니다.”

서공이 놀라 둘째 명엽을 가리키니 말했다.

“일찍 왕비가 되어 부귀가 극하겠습니다. 십 년 후에는 큰 액이 있어 몇 년 동안 풍파를 겪을 것

175) 서공 왕 태평지세에 양신과 난세에 충신 고틀야 품격이 다르니 서로 디미 업스려니와 그러나 부덕은 유한정정함이 으뜸이라 하니 이로 그 아우 삼인을 새리미러라. <황명늑념기> 80면.

176) 영일루 삼인은 의복을 화려히 하며 진미를 만히 드리고 풍류와 변화한 기를 숭상하니 시녀 다 그러한디라. 명월루 상하를 다 냉담타 웃고 명월루 시녀는 영일루를 빈잡다 하니 왕부인 왕 각각 당체 이시니 서로 디미 업스려니와 명월루는 복록이 두텁디 아니타 하니 사람이 다 밋디 아니터라. 위의 책, 69면.

이지만 괜찮습니다.”

셋째 광염을 가리키니 말했다.

“내년이면 일국 왕후의 즐거움을 누리실 것입니다. 자손이 서로 이어 복록이 끊어 없겠습니까. 넷째 다섯째는 밝은 절개가 천하에 건줄 이 없으나 아깝습니다. 단명하고 선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월염을 가리키니 말했다.

“슬프다 부귀는 흐르는 물결을 좇아 가고 떨어질 몸은 도로에 유리하며 기갈을 면치 못할 것이다.”¹⁷⁷⁾

<육염기>

황제(*광무제, 다섯 자매의 아버지)가 탄식하며 말했다.

“태평지세의 양신과 난세의 충신열사 같으니 그 맑은 바가 다르고 다 각각 장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날양은 부귀할 관상이요 소치를 겸하여 원전지상이지만 여음은 맑고 고고하고 절을 지키고 압전하여 비록 깨끗함이 지극하나 끝내는 고초를 겪을 기상이다. 비유하건대 남자가 되었다면 날양은 이윤과 주공이 될 사람이요 여음은 백이와 숙제가 될 것이니 높고 맑은 기운이 만세에 전해 지나 길하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도를 이용하고 땅의 이익에 의거하여 도덕을 천하에 행하여 창생을 건지며 광화가 온 세상에 덮여 덕과 은혜로 이름을 만세도록 날리는 것은 날양일 것이다.¹⁷⁸⁾

<취미삼선록>

두 작품은 모두 여러 명의 자매들을 태평지세의 양신과 난세의 충신으로 나누었다. 전자의 인물들은 유한정정한 성격, 후자의 인물들은 세차고 맑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두 작품은 특정한 구절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미래가 각각 어떻게 전개될 것일지 예언하는 구체적인 장면도 유사하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육염기>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궤적을 가진 6명의 여성인물의 삶을 그려내었으며 <취미삼선록>은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하며 토론하는 여성인물들의 시각을 그려내었다.

<육염기>에서는 작품 속에서 언니 그룹과 동생 그룹의 비중이 거의 1대1을 이루고 있으며 대비되는 여성인물의 삶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섯 자매가 등장할 때부터 태몽을 통해 이들의 상반된 운명을 암시하는 구절도 삽입되었다. 반면에 <취미삼선록>에서는 여성인물들의 성격이 대비를 이루고는 있으나, 무양, 관도, 여음의 언니 측 인물들이 작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위 구절은 <육염기>에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육염기>의 일염과 월염의 경우 각각 ‘연왕비-> 황비’, ‘황태자비-> 황비-> 축출당함’의 길을 걷고 있어 ‘태평천하의 국모’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나 날양은 두부마와 혼인했을 뿐 왕비나 황비가 된 적이 없다. ‘하늘의 도를 이용하고 땅의 이익에 의거하여 도덕을 천하에 행하여 창생을 건지며 광화가 온 세상에 덮

177) 서공이 벽 좌우하고 병풍을 내녀 뵈니 등이 한 번 보더니 무려 7백오대 너기 태평천하 국모 되실 상이 계시니이다 서공은 말좌 쌀 월념을 일는가 하여 7백오대 오하니 그 뉘노 승이 손을 일념을 가라쳐 왈 어지다 다만 민니 그닥 화를 입으리로다 하니 서공이 놀나 다니 돌지 명념을 가라쳐 왈 일죽 왕비되어 부귀 극허려니와 십년 후면 큰 익이 이셔 오륙년 곳기대 불관이라 셋지 광념을 가라쳐 왈 명년이면 일국 왕후의 즐거움을 누리시리이다 조손이 서로 이어 복록일이 업고 넷지 다섯지는 명저리 천하의 밋초니 업스나 가히 앓갑도다 단명하고 선종치 못허리로다 월념을 가라쳐 왈 슬프다 부지는 흐른 물결을 조초 썩러질 몸은 도로의 유리하나 기갈을 면치 못허리로다. 위의 책, 41면.

178) 데 탄왕 티평지세의 양신과 난세의 충신 갖트녀 그 만난 비 다르고 다 각각 당체녀니와 날양은 진죽 부귀지상이요 소치를 겸허나 원전지상이로되 녀음은 청고절속허녀 비록 기결허미 지극허나 마춤니 곤초할 기상이라 비컨디 남조되는들 나량은 이눈주공 될 스람이요 녀음은 빅이숙제 되리니 고절청풍이 만디의 뉴전허는 힘치 못할도라 농천지도허며 인기디리허여 도덕을 천하의 힘허야 창생을 건즈며 광화 세상의 덩허 덕덕으로 유명만세허기는 나량이 당허리니 <취미삼선록> 65면.

여 덕과 은혜로 이름을 만세도록 날리는 것'은 작품의 실상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 수식인 것이다.

'맛이 셋은 모두 유화하여 삼동 눈이 다 녹는 것 같으되 아우 세 명은 가을 서리나 매서운 햇빛
같이 냉담하고 한아하니 성정이 매우 다릅니다. 누구를 낫다고 하겠습니까?'¹⁷⁹⁾ <육염기>

각설 위국공 서달의 장녀 일염은 안색은 연꽃이 이슬을 머금어 아침 햇살이 떨어지는 듯 두 눈은 한
쌍 별이 새벽빛을 띤 듯 하여 옥 같은 살빛이 경첩하고 홀륭하여 천하 절색이었다. 또한 지혜로움
이 남들보다 뛰어나니 재웅이 무쌍하고 아버지의 비서를 열어 보아 통하지 않을 데가 없어 천문지
리와 병서를 익히 알며 가슴 속에 천하 기틀을 감추었다. 단정히 앉았을 때는 가을 서리와 여름
햇빛 같고 한 번 웃고 말하면 삼동 눈이 다 녹는 듯하니 서공이 살아있을 때에 크게 일컬어 말하
기를 '이 아이가 남아라면 분명히 나를 능가하겠으나 여자로 태어나 불쌍하다.'고 했다.¹⁸⁰⁾

<육염기>

삼공주가 각각 시녀 셋씩을 따로 택하여 데리고 있으니 시녀들은 나이가 각각 스무 살이 되지 않
았으며 모두가 달 같은 얼굴에 맑은 눈동자, 흰 이를 가지고 있었다. 옥 같은 용모와 꽃 같은 태도
가 절세기이하여 맑은 눈과 고운 태도가 이목에 띠니 아홉 여자가 좌우로 뵈시니 연꽃이 아침 이
슬을 떨쳐 아침 햇살에 앞다투어 피는 듯 눈 내린 겨울에 매화가 만발하여 향기를 뿜는 듯하니 진
실로 나라를 기울게 하고 성을 기울게 할 외모였다. 그중 여음의 시녀는 옥과 얼음처럼 깨끗한 마
음이 더욱 절묘하고 시원해서 양성하체를 미혹할 빛이 있었으나 사람됨이 맑고 곧아 웃고 말하면
삼동의 눈이 녹을 듯했고 단정히 앉아 있으면 가을 서리나 매서운 햇빛 같았다.¹⁸¹⁾ <취미삼선록>

'맛이 셋은 모두 유화하여 삼동 눈이 다 녹는 것 같으되 아우 세 명은 가을 서리나 매서
운 햇빛 같이 냉담하고 한아하니 성정이 매우 다르다'는 구절은 <육염기>에서 처음 언니 그
룹과 동생 그룹을 비교하는 데 쓰였으나, 같은 작품에서 다시 한 번 쓰였을 때는 만언니 일
염 한 명의 성격과 외모를 묘사하는 데 쓰였다. 반면 <취미삼선록>에서 이 구절은 여음공주
의 시녀를 묘사하는 데 쓰였다. 이 구절 또한 <육염기>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야기의
큰 구도와 밀접히 관련 있는 구절이었으나 <취미삼선록>에서는 이야기의 큰 내용과 그다지
상관이 없는 구절이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취미삼선록>보다 <육염기>가 더 앞선 텍스트임
을 추측할 수 있다. <취미삼선록>이 <육염기>보다 먼저였다면 <육염기>에서 굳이 주인공도
아닌 시녀를 묘사하는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79) 므즈로 세흔 다 유화하야 삼동 눈이 다 녹는 듯하되 아우 삼 인은 다 추상널일갓하야 냉담하고
한아하니 성정이 니로흔디라 뉘기를 낫다 흐리잇고 <황명늑념기> 80면.

180) 위국공 서달의 장녀 일염이 안색은 부용화 이슬을 머금어 묘양의 썩틴 듯 두 눈은 흰 쌍 별이 새
배비출 뵈 듯 하여 옥 슷흔 살비치 경첩하고 표일하야 텃하 절색이오 또한 총혜하미 관인하니 지웅
이 무쌍하고 부친 비서를 녀어 보아 아니 통홀 대 업서 천문지리와 병서를 익이 알며 흉통의 텃하
기틀을 곱초하시니 단정히 안즈실 적은 추상 널일갓고 훌 번 웃고 말습하면 삼동 눈이 다 녹는 듯
하니 서공 지시에 크게 일?라 일오대 이 아히 남으런들 받드시 내게 지나리니 녀지된 줄 가석도다
하더라. 위의 책, 45면.

181) 습공주 각각 시녀 셋씩 별턱하녀 데리고 잇시니 시녀이 각각 이십이 못하고 기기이 초요월안의
명모호지라 옥용화되 절세기이하녀 맑은 눈과 고운 티되 이목의 뵈오니 구녀 좌우로 뵈시미 부용
화조로를 썰쳐 조양의 닛토오 쾨는 닛 남썩미화 만발하녀 향기를 뿜는 듯하니 실노 경성경국지식이
라 그 중 녀음의 시녀 옥호빙심이 더욱 절묘쇄락하여 양성하체를 미혹탈 비치 잇시되 위인이 청고
정덩하녀 웃고 말하면 습동의 눈이 녹을 듯하디 단정이 안자시면 추상널일 갓더라. <취미삼선록>
110-111면.

태조와 마황후가 낳은 연왕 주체와 동년 동월 동일 동시에 태어났으므로 (*그들이 일염을) 더욱 기특하게 여겨서 열세 살에 육례를 갖추어 성례하니 그 재주를 지극히 사랑했다.¹⁸²⁾ <육염기>

여음이 냉소하며 말했다. “형(*날양공주)은 두부마와 동년 동월 동일 동시에 태어나셨으니 그 태어난 것이 한 가지요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정이 있습니다. 훗날에는 한낱한시에 가려고 하실 것이니 우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행여라도 형을 거두어 데려갈까 놀라서 서로 붙들고 숨을 것입니다.
<취미삼선록>¹⁸³⁾

앞서 인물소개에서 제시했듯, <육염기>에서 연왕이 간신들의 모해를 물리치고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막후에 있던 일염의 조언 때문이었다. 이는 제왕이 불굴의 정신과 현명한 대처로 왕위를 보전했다는 서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육염기>에는 연왕과 일염의 사주가 같다는 내용이 2번 언급되었으며 일염과 명염은 각각 남편과 동년생이라는 내용이 한 번 언급되었다. <육염기>의 작가가 이러한 설정을 강조한 이유는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의 대등함을 표현하고 실존 남성인물이 세운 업적을 여성인물의 업적과 동일시하려는 강한 목적성 때문일 것이다.

<취미삼선록>에서 날양공주는 남편과 사주가 같은데, 날양공주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남편과 화락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육염기>의 일염, 명염과 같다. 그런데 <취미삼선록>에서는 사주가 같다는 설정이 ‘천생연분’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여음공주가 두 사람을 조롱하는 데에 쓰인다. 이 구절에서도 <취미삼선록>보다 <육염기>가 선행하는 텍스트라는 것이 짐작된다. <육염기>가 먼저고 <취미삼선록>이 나중일 경우 취미삼선록의 해당 구절은 권위를 무너뜨리는 패러디를 하여 독자들의 웃음을 유도한 것이지만, <취미삼선록>이 먼저고 <육염기>가 나중이었다면 작가가 굳이 <취미삼선록>에서 남을 조롱할 목적으로 쓰인 설정을 가져와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공간 설정의 유사성

구름이 드리운 아침과 달이 뜬 저녁에는 북녘을 바라보며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후원에 높은 누각 하나를 세워 북쪽을 향하게 하여 이름을 ‘망향루’라 했다. 망향루는 높이가 수십 길이며 주옥으로 꾸몄고 아득하여 신선의 누각 같았다. 꽃 피는 봄이며 잎 지는 가을과 달 밝은 밤이면 광염은 목영과 함께 이 누각에 올라 잔치를 하며 글을 지어 고향을 바라며 슬퍼했다. 오래지 않아 위국공(*광염의 아버지 서달)의 부음이 이르니 광염이 생전에 다시 보지 못하고 몸이 운남에 이름을 더욱 서러워해 음식을 먹지 않고 몸을 상하는 것이 예에 넘었다.¹⁸⁴⁾ <육염기>

“하루 세 번 태후께 문안하던 때면 절로 동녘을 향하여 눈물이 솟아나니 왕이 나를 위해 밖에 궁

182) 태조 마황후 느으신 연왕태와 동년 동월 동일 동시 나시므로 더욱 기특히 녀이샤 십삼의 늑녘를 7초아 성예하니 태조와 마황후 그 지조를 극히 사랑하시더라 <황명늑녘기> 45면.

183) 녀음이 냉소 왈 형은 두부마로 동년 동월 동시의 나 계시니 그 발원흠미 가지오 슈뉴불이히는 양경으로 타일 훗날 흠시의 가고자 하시리니 우리 올라가는 양 보면 형혀 거두쳐 다려갈가 놀느 서로 붙들고 숨으리니 <취미삼선록> 52면.

184) 도운석월의 북녘을 바라며 슬프물 이기디 못하야 후원의 흠 고루를 세워 북향하야 일흠을 망향루라 하야 늑희 수십 길이오 주옥을 꾸며시며 바라매 표묘하야 신선의 누각 같더라 곳 편 봄이며 넘디는 가을과 달 밝간 밤이면 목왕으로 더브러 이 누의 올라 잔치로 하며 글도 지어 고향을 부라고 슬허하더라 오라디 아나 위국공 부음이 니르니 광염이 생전의 다시 보디 못하야 이에 니르물 더욱 설위 죽음을 전폐하고 이훼하미 네에 넘은디라 <황명늑녘기> 92-93면.

궐을 바라보는 집을 지었으며 내 뜻을 보고 또 안쪽에 동녘을 바라보는 망운루를 지어 주었다. 이 후로 누각에 올라 태후전을 향하여 예를 차렸더니 홀연히 황상의 위태하신 기별이 와¹⁸⁵⁾ (...)”

〈취미삼선록〉

후원에 집 한 채를 지어 위국공 부부의 상을 만들어 평상시의 옷을 입혀 앉히고 두 형 휘조 중수의 상과 세 낭자 자염 기염 월염의 상을 만들어 채복을 입혀 좌우에 모시게 했으니 그 풍경이 완전히 옛날 미화항 위국공의 집에서 모든 형제가 넓은 당에 모셔질 적 같았다. 이를 대하니 더욱 서러워져 아침저녁으로 가 분향하고 제사하기를 극진히 하였다.¹⁸⁶⁾ 〈육염기〉

곽후의 화상을 그려 정전의 주벽에 걸고 (중략) 여음이 눈물을 흘리며 새로이 슬퍼하며 침식을 폐하고 때때로 흐느낌을 그치지 못하며 진짜 어머니가 아닌가 하며 슬퍼했다.¹⁸⁷⁾ 〈취미삼선록〉

〈육염기〉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운남왕비가 된 광염은 집 한 채와 누각(망향루)을 짓고 그 안에 부모, 형제, 자매의 그림을 만들어 가족들을 기린다. 〈취미삼선록〉에서도 〈육염기〉와 마찬가지로 건축물과 그림을 만들어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온다. 〈취미삼선록〉의 첫 번째 인용문은 광무제가 여자였던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전생에 가족을 그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누각(망향루)을 지었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 인용문은 여음공주가 취미궁 안에 어머니인 곽후의 그림을 놓고 폐위된 어머니를 그리워했다는 내용이다.

조선 시대 소설에서 그림이 종종 등장하기는 하지만 여성인물이 자신의 친정가족을 그리워하는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두 작품은 ‘집 한 채, 누각 하나, 그림’의 구성이 일치하며 그 건축물들이 고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고향과 떨어진 곳에서 부모의 부음을 듣는다는 점, 비통하게 슬퍼하는 정서 등 세부적인 사항에도 유사성이 많다. 〈육염기〉에서

그림 화소는 광염이 시간과 생사의 경계를 넘어 천상계에서 가족들과 재회하는 화소와 연결되었으며, 〈취미삼선록〉에서 그림 화소는 곽후의 명예가 복권되는 화소와 연결되었다.

4. 풍유 장면의 유사성

이제 금화진군이 여러 선인들을 거느려 가니 너는 마땅히 적덕 있는 집에 재자를 나게 하고 적악 있는 집에 재앙이 있게 하라.¹⁸⁸⁾ 〈육염기〉

“적덕 있는 집에 귀자와 복록을 접지하고 적악 있는 집은 재앙을 받아 하늘의 도가 밝음을 알게 하라.” 태후가 감당할 수 없다며 사양했다.¹⁸⁹⁾ 〈취미삼선록〉

185) 또 즈녀을 어더 쇼일흔녀 위회흔나 눈을 감으면 모친과 제즈 곶히 잇난 듯 잠을 씨면 쇼녀 품 속의 잇는 듯하며 흐로 삼시로 티후게 문안흔던 씨면 절노 동녘을 향흔녀 눈물이 쇼사느니 왕이 밧게 땅궐흔는 집을 지어떠니 니 뜻을 보고 또 안호로 동녘히 망운누을 지어 쥬거늘 이후로 누의 올라 티후전을 향흔녀 예흔더니 홀년 황상 병환이 위태하신 기별이 오미. 〈취미삼선록〉 133-134면.

186) 후원의 흘 집을 세워 위국공 낭위상을 횡날굴 사서 상시의 복을 넘혀 안치고 두 형휘 조중순의 상과 삼낭조 조염 기염 월염의 상을 멩그라 치복을 넘혀 좌우의 피섯게 하니 완전히 옛날 미화항 위국공 집의서 모든 형제 너른 당의 피셔실 적 곶툰디라 이를 디흐매 더욱 서워 도석으로 가 분향 하고 제스헝기를 극진이 흐야 그 효성을 일코라 곶특이 너기더라 위의 책, 94-95면.

187) 곽후의 화상을 그려 정던뉘벽의 걸고 (중략) 녀음이 읍읍히 슬허흐미 시로아 침식을 폐하고 썻디 늦기물 마지아니흐고 진본이 아인가 흐녀 슬허흐더라. 위의 책, 68-69면.

188) 이제 금화진군이 제션을 거느려 가니 네 마땅히 적덕 있는 집으로 지즈을 느끼 흐고 적악 있는 즈로 어율이 되게 흐라 〈황명늑염기〉 8면.

위 인용문은 원래 신선이었던 등장인물들이 인간계에 내려올 때의 원리이다. ‘적덕 있는 집에 귀자를, 적악 있는 집에 재앙을 받게’ 한다는 구절이 일치한다. <육염기>에서는 이 구절이 작품의 초반부에서 나타나는 반면 <취미삼선록>에서는 서사의 최후반에 나타난다. 즉 이 구절도 <취미삼선록> 이야기의 전반적인 전개와는 큰 관련을 갖지 않는다.

광염이 이때 난간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고 슬퍼서 ‘인생이 오히려 기러기만 같지 못하다’고 말하며 머리를 돌려 고국을 바라며 처연함을 마지않았다. 갑자기 서넛으로부터 오색 구름이 일어나며 향풍이 소소하게 점점 나아가 누대 밑에 이르렀다. 자하의를 입고 채봉관을 쓴 한 선녀가 바람처럼 이르러 누대 밑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왕모 낭님이 옥황상제의 칙지를 받아 요지에 큰 연회를 베풀어 세존과 노군을 청했습니다. 금화진군을 따라 인간세계에 내려간 이십팔수 성신과 십이신장이며 왕모 옥녀 육인과 나환과도 등이 거의 돌아와 인세의 영육을 아뢰니 누구는 먼저 오며 누구는 나중에 와 선후가 있어 옥제가 명하신 직분을 도입치 못하였습니다. 이제야 십주 삼도진군이 모두 모였습니다. 청하여 경하연을 지내고 각각 맡은 바 자리로 흠여질 것입니다. 낭님이 다만 진세의 인연이 진하지 않았으나 한번 모여서 구경했으면 합니다.” <육염기>

이때는 마황후의 기일이었는데, 날양공주가 궁궐 안에 들어갔다 백옥 난간에 기대 졸았다. 꿈에 마태후가 서왕모의 칙지를 이어 옥녀들과 함께 옥경에서 조회를 하여 구름과 학을 띄워 드높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때 옥황상제가 요지에 모임을 베풀어 세존과 삼십삼천 십주삼도진군과 사해부주회의 모든 신선들과 사해 용신을 다 부르시고 광무를 좇아 인간 세계에 내려갔던 이십팔수 십이신장을 다 맞아서 광무에게 하례했다.¹⁸⁹⁾ <취미삼선록>

날양을 가까이 불러 말했다. “네 수명이 비록 다하지 않았으나 오늘 큰 모임에 어찌 참여하지 않겠는가?”¹⁹¹⁾ <취미삼선록>

위 대목에서, <육염기>의 광염과 <취미삼선록>의 날양공주는 난간에 기대어 졸다가 서왕모와 옥황상제가 연 연회에 초대되었다. ‘낭님이 다만 진세의 인연이 진하지 않았으나 한번 모여서 구경했으면 합니다.’와 “네 수명이 비록 다하지 않았으나 오늘 큰 모임에 어찌 참여하지 않겠는가?”는 화자의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이 거의 같다.

한 선관이 자황표를 입고 충현관을 썼으니 위엄이 있어 바로 보지 못했다. 이는 태조 고향제였다. 청사표를 입은 사람은 위국공 서원수였으니 보니 슬프고 반가움을 헤아릴 수 없으나 말씀 통할 길이 없어 그저 바랄 따름이었다. (명태조, 서달, 건문제, 연왕, 방효유, 서자염, 서기염, 경칭 등장) 서왕모의 뒤에 있는 운무 병풍 가운데로부터 한 선녀가 조용히 걸어 나오니 옥안과 화기가 옛날 월염이었다. 양 미간에 근심하는 기색을 띄었으니 곱고 아리따움이 더욱 새로웠다.¹⁹²⁾ <육염기>

189) 적덕 잇난 집의 귀자와 복녹을 접지하고 적악 잇난 집의 화을 바다 명명쇼쇼호물 알게 허라. 후당치 못호물 사양하시더라. <취미삼선록>, 144-145면.

190) 잊씨 마황후 봉하시던 날 날양공주 디니의 드러갓더니 빅옥난간의 비겨 초오더니 꿈의 왕모 칙지를 이어 마티후 옥년을 시위하여 옥경의 조회할시 폐운니학을 띄여 의의히 상천을 향하여 올라가니 잊씨 옥데계오서 요지의 비회를 베퍼 세존과 삼십삼천과 십주삼도진군과 사해부주회의 제선과 사해용신을 다 부르시고 광무조차을 인간의 내려갓더 이십팔수 십이신장을 다 마져 광무를 허려호 실시 위의 책, 140-141면.

191) 날랑을 각가이 부르스 네 슈가 비록 진치 아녀시나 금일 디회의 웃지 춤네치 아니리오 위의 책, 145면.

이때 광무황제는 영허전에서 황후와 함께 머물러 신하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옥황상제에게 조회하려고 했다. 그는 황후와 함께 쾌락을 누리며 하계를 굽어보아 인간사를 알았으며 흑 탄식하기도 하고 흑 웃기도 하며 먼저 돌아온 자녀와 신하들을 거느리며 지냈다.¹⁹³⁾ <취미삼선록>

이때 운녀 네다섯 명이 반도복승아를 들어 왕모에게 나아가 각각 좌중에 내왔다. 이는 일엽 명엽 자엽 기엽 월엽이었다. 광엽이 반갑고 슬픔을 참지 못하나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함을 서러워하였다.¹⁹⁴⁾ <육엽기>

음후가 이날 자하의와 공작선으로 범복을 갖추고 태후를 뵈어 서로 반긴 후 백옥교 위에 나가니 음후를 시위하는 수십 선녀들이 제왕비와 공주 등이었다. 그중 다섯 옥녀가 가까이 모셨으니 이는 동해왕비 무양 관도 여읍 연양이고¹⁹⁵⁾

위 대목은 광엽과 날양공주가 천상계에서 먼저 신선이 된 가족들과 재회하는 장면이다. 전반적인 구도는 비슷하지만 <취미삼선록>의 광무제와 음후가 <육엽기>의 등장인물보다 더 위계가 높게 표현되어 있다. <육엽기>의 등장인물이 사후에 한 번 재회를 한 후 각자 맡은 자리로 떠나가는 것에 비해 <취미삼선록>의 광무제 일가는 천상계에서도 단란한 가정을 꾸린 것처럼 표현되었다. <육엽기>가 <취미삼선록>에 선행되는 텍스트라면 <육엽기>에서 나타났던 가족 재회에 대한 희망이 <취미삼선록>에서 보다 강조되어 재현된 것이다.

광엽이 꿈을 살살이 고하니 목왕이 붓과 연적을 내와 몽유 요지연을 기록했다. 광엽이 말했다. “이것만 기록하면 누가 우리 형제의 절행과 사적을 알겠습니까? 처음과 나중을 모두 쓸 것입니다.” 목왕이 옳다고 하고 드디어 <육엽기>를 다 써서 전후곡절을 쓰고 자손에게 주어 후세에 전했다. 그 후 십이 년이 지나 목왕과 광엽이 후원의 꽃밭에 꽃들이 만개한 것을 보고 삼월 십오일에 신하들을 거느려 망향루에 올랐다. 이 날 밤에 부부가 병 없이 죽었다.¹⁹⁶⁾ <육엽기>

날양 또한 반갑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수미를 기록했다. 두부마가 보고 기이히 여기되 자기

192) 점점 나와와 년을 브러 나오니 혼 선관이 차황표를 넘고 등현관을 써서니 엄위하야 바로 보디 못흐니 이는 태조 고향데러라. 경스표차는 이 위국공 서원슈니 보매 슬프고 반가오를 측냥티 못흐나 말슴 통홀 길히 엷디 혼갓 브를 따름이러나 (중략) 왕모의 뒤히 운무병 가운데로서 혼 선애 도용히 거러나오니 옥안 화기 넷날 월엽이로디 낭미간의 수식을 씩엿니 곱고 아리싸오미 더욱 새롭더라. <황명육엽기> 98-99면.

193) 잇씨 광무 영허전의 후로 더부러 혼 디 머무러 제신의 도라오를 기다려 옥데기 조회하러 흐실 시후와 혼가지로 쾌락을 누리시며 흐계를 구버보아 인간스를 이라시고 흑탄혹쇼흐시며 먼저 도라운 즈녀와 군신을 다시 위헤여 지니시더니 <취미삼선록> 140-141면.

194) 이새 운여 소오인이 반조를 드러 왕모의 나아가니 각각 좌동의 노호니 이는 일엽 명엽 자엽 기엽 월엽이러라 광엽이 반갑고 슬프를 덩티 못흐되 혼 말도 여디 못흐를 설위허더니 <황명육엽기> 101면.

195) 음후 이날 자하의와 공작선으로 범복을 갖추고 티후기 뵈와 서로 반기신 후 빅옥교 위의 나가시니 슈십 선녀 시위흐미 제왕비와 공주 등이며 그중 다섯 옥녀 각가이 피섯시니 이는 동해왕비 무양 관도 녀읍 연양이오 위의 책, 145면.

196) 광엽이 몽스를 스스치 고흐니 목왕이 필연을 나와 몽유 요지연을 기록할 시 광엽 왈 이만 기록하면 누 우리 형제의 절행과 사적을 알니잇고 처음과 나중을 다할 거시니이다 목왕이 옳타 흐고 드디어 육엽기를 다 누리 써 전후곡절을 써 즈손을 주어 후세에 던흐니라 그 후 십이 년의 목왕과 광엽이 후원니 화명이 빅해 난만흐를 보고 삼월 삭일의 신하를 거느려 망향누의 올랐더니 이 밤의 부뷔 병 업시 죽으니라. 서울대학교 소장본 <육엽기> 118-119면.

부부가 비록 인간 영화 부귀 극진하나 양수 진하는 날은 지여의 고역과 은하의 이별이 있을 줄 깨닫고 탄식을 마지않았다. 동평왕이 몽록 요지회 기록한 것을 보고 왕도 그날 자신이 꾸 꿈과 같음을 말하며 기이하다며 탄식했다.¹⁹⁷⁾ <취미삼선록>

위의 두 대목은 남편과 화락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던 광염과 날양공주가 몽유자가 되어 (친정) 가족들이 신선이 된 것을 보고, 꿈에서 깬 뒤 남편과 함께 그 수미를 모두 기록했다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일치한다. <육염기>에서의 요지연은 해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염, 방효유, 기염, 경청, 월염, 건문제는 인간 세계에서 고난을 당하여 요지연에서 원통한 노래를 불렀다. 비록 이번 생에서의 고생은 저번 생에서의 업보 때문이었지만, 다음 수천년 동안 끊임없는 윤회를 하면 지금 생에서 받은 인과응보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취미삼선록>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삼공주의 승리를 표현하고 있다. 무양, 관도, 여읍공주는 살아서는 부마로 인해 고초를 당했지만 사후에는 신선이 되어 영원한 삶을 누린다. 반면에 생전에 부부가 화락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날양공주와 두부마 등은 죽고 난 다음에는 함께할 수 없다.

<육염기>에서 광염이 자신이 선녀임을 깨닫는 것과 선계에서 먼저 죽은 가족들과 재회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의외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광염은 반가움과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린 것이다. 반면에 <취미삼선록>의 등장인물들은 자신이 선골이라는 사실을 이미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체험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술을 나누며 서왕모가 웃으며 말했다.

“한나라 황제와 그대가 인간 태평을 이루고 이어 돌아오니 공업이 높고 쾌한 일이네. 그대는 황제와 하루동안 이별하는 것을 3년이 지난 것처럼 여기더니 이제 연분이 다했으니 섭섭하다고 하라? 원통하다고 하라?”

황후가 맑게 웃으며 말했다.

“첩이 인간 세상에서 너무도 괴로워 오늘을 날마다 바랐습니다.”¹⁹⁸⁾

여읍이 말했다.

“그러나 도 닦는 사람이 신선이 되나 진토 부귀 중 사람이 신선이 되나 보리라.”

날양이 웃으며 말했다.

“네 비록 청고함을 자랑하나 우리 형제 한 골육으로 천가에서 성장한 것이 함께요 또 생각건대 한 뿌리 근원이요 한 나무에 핀 꽃 같아 같은 선골이네. 이렇듯이 모였으니 비수와 화수가 모두 동백산을 근원으로 하고 위수와 하수가 결국에는 창해로 돌아가는 물길이 견년을 벗기난다 각각 전생과 악의 경중으로 가려니와 규사를 벗고 백운을 타는 날 운로의 길이 다름이 없고 천추 만세 후 제후를 피서 옥경에 조회할 때 선후피차가 없을지라. 인간 세계에 내쳐온 김에 흥진부귀를 다하고 진연을 쾌히 그쳐 돌아가는 것이 어찌 쾌하지 않으랴? 하물며 유완이 기르던 닭과 개도 유완을 따

197) 날랑 또한 씨야 반갑고 슬픔을 니기지 못하야 슈미를 기록하더니 두부마 보고 기히이 역이되 조귀 부부 비록 인간 영화 부귀 극진하나 양수 진하는 날은 지여의 고역과 은하의 이별이 잇을 줄 씨닷고 탄식하물 마지아니하고 동평왕 몽록요지회 기록한 거슬 보고 왕도 그날 몽사 또한 이와 갓 트물 일으고 기히하물 츠탄하더라. <취미삼선록> 149-150면.

198) 슈비간의 왕모 쇼왈 한져와 현후 년간 티평을 일으고 이어 도라오니 가히 공업이 높고 쾌한 일리로되 흘 데후로서 일닐 이별을 삼슈가치 녀이더니 이제 년분이 진하니 가히 섭섭다 하라 신원타 하라 후 낭쇼왈 첩이 년간의셔 도져을 괴로워 금일을 날노 바라더니다 <취미삼선록> 146면.

라서 올라갔으니 형과 아우가 저 백운을 타고 승천할 때 골육 형제를 버리고 가라?“¹⁹⁹⁾

〈취미삼선록〉

위 인용문에서 광염은 자신이 선골인 것을 생전에 이미 알고 사후에 천상계로 돌아갈 것을 날마다 바랐다고 한다. 낙양공주 역시 자매들이 모두 선골이기 때문에 신선이 될 것이며 자신들이 황제와 황후를 모시고 옥경에서 다같이 조회를 하게 될 것을 강하게 믿고 있다. 〈육염기〉의 마지막 부분은 광염이 꿈에 요지연에 초대되어 자신이 전생에 선녀였음을 알고 먼저 세상을 떠나 선인이 된 가족들을 모두 만나는 것이다. 〈육염기〉의 일염은 필사본에 따라 서술 온도에 차이가 있는데, 일염이 연왕에게 지혜를 주어 연왕이 건문제를 내친 것에 대해 이본에 따라 ‘연왕은 원래 어진 임금이었는 데 일염이 그르쳤다’고 묘사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염기〉는 지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일염, 명염, 광염을 포함한 모든 자매를 선녀로 만들었다. 낙양공주가 자신 또한 마땅히 선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육염기〉의 위와 같은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선 인용문에서 여읍공주가 낙양공주에게 ‘두부마와 한날 한시에 가려고 할 것’이라고 조롱한 내용도 의미심장하다. 〈육염기〉의 광염은 〈취미삼선록〉의 낙양공주처럼 남편과 화락하다 풍유록을 기록하였는데, 그는 남편인 목영과 한날한시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즉 여읍공주가 조롱하는 내용은 〈육염기〉에서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지만 〈취미삼선록〉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매들이 선녀가 되어 시위하고 있는 장면에서, 〈취미삼선록〉에는 〈육염기〉와 달리 ‘시위하는 수십 선녀들이 제왕비와 공주 등이었다.’는 묘사가 추가되어 있다. 즉 〈취미삼선록〉의 작가는 제왕비와 공주 등이 늘어서 있는 기존의 세계관을 이미 경험하고 그 위에 자신의 서사를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5. 나가며

지금까지 〈육염기〉와 〈취미삼선록〉의 유사한 구절과 화소들을 비교하며 두 작품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을 살폈다. 〈육염기〉와 〈취미삼선록〉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육염기〉에서 상대적으로 더 줄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유사한 사건들이 〈육염기〉에서는 단독적으로, 〈취미삼선록〉에서는 기시감을 남기며 일어났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육염기〉가 〈취미삼선록〉보다 선행된 텍스트였을 것이다.

〈육염기〉가 〈취미삼선록〉의 줄거리에 끼친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상층 다인원 자매들을 부귀와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반씩 대비시켜 여성 인물들의 교차되는 삶과 시선을 그렸다는 것. 둘째, 여성인물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부모를 그리워하는 장면을 그렸다는 것. 셋째, 여성 풍유자가 죽어서 부모와 자매를 만나고 그들의 사적을 기록하는 장면을 그렸다는 것. 〈육염기〉와 〈취미삼선록〉은 이러한 특징을 통해 명실상부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한 서사를 전개했다. 두 작품은 모두 유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전유했다. 〈육염기〉의 작가는 결혼을 매개로 하여 남성인물의 업적과 부를 여성의 것으로 삼았다.

199) 여읍이 알 그러는 도 다는 사람이 신선이 되는 진토의 부귀중 스람이 신선이 되는 보리르 날냥이 쇼알 네 비록 청고흥를 주공흥는 우리 형제 흘 골육으로 천가의 심장흥미 일체오 또 심각건디 흘 쑤희 근원이오 한 나무 쑤 갖호녀 흥가지 선골일시 이러트시 모다시니 비슈와 화슈 흥가지 동빅산 근원이오 위슈와 하슈 필경 창히로 도라가는 물기리 건년을 벗기는다 각각 전심과 약의 경중으로 가려이와 규스를 벗고 빅운을 타는 날 운노의 길이 다름이 업고 천츄 만세 후 데후을 피셔 옥경의 조회할 디 선후피츠가 읍슬지라 년간의 니쳐온 김의 울 흥진부귀을 다흥고 진년을 쾌히 긋쳐 도라 가미 엇지 쾌치 아니허라 하물며 유완의계건도 싸라 올는갓는니 형과 아우 승피빅운할 적 골육형대를 버리고 가라 위의 책, 51-52면.

<취미삼선록>의 작가는 부덕을 지키려는 여성은 음흉무도한 남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여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유교 이데올로기를 오히려 무도한 남편을 배척하는 데 사용했다. 이처럼 두 작품은 다수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는 작품으로서 젠더를 사유하는 작가 또는 향유층의 다양한 의식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취미삼선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皇明六艷紀>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 <서씨녹여명행귀절록>
 연세대학교 소장본 <녹염기>
 영남대학교 소장본 <六艷紀>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 <녹염기>
 서울대학교 소장본 <녹염기>
- 구선정, 「'중남산(終南山) 취미궁(翠微宮)'의 체험 양상과 그 의미 - 『구운몽』 과 『취미삼선록』 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24, 이화어문학회, 2007, 219-239면.
- 구선정, 「'취미삼선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4
- 구선정, 「공존과 일탈의 경계에 선 공주들의 타자의식 고찰 -<도앵행>과 <취미삼선록>에 등장하는 공주들의 시대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365-400면.
- 남혜경, 「<육염기>에 나타난 여성인물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20
- 박은정,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그림의 기능과 의의」, 『어문학』 132, 한국어문학회, 2016, 77-109면.
- 박은정,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공간의 기능과 의의」, 『한민족어문학』 60, 한민족어문학회, 2012, 85-124면.
- 서정민, 「한글 대화소설 속 여성 그림 활동의 특징과 문화적 배경 -<소현성록>과 <유이양문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311-334면.
- 소인호, 「<翠微三仙錄> 연구」,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회, 1995, 171-194면.
- 소인호, 「<취미삼선록> 이본 연구」,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9, 133-159면.
- 소인호, 「<취미궁성산록>의 이본적 특성과 축양 양상」, 『청람어문교육』 38, 청람어문교육학회, 2008, 485-513면.
- 이민주, 「『도앵행(桃櫻杏)』의 장면전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7
- 이민주, 「<취미삼선록(翠微三仙錄)> 연구 - 광후의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59,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69-106면.
- 이승복, 「<육환기봉> 연작의 여성담론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283-322면.

이승복,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취미삼선록〉의 성격」, 『국문학연구』 6, 국문학
회, 2001, 159-19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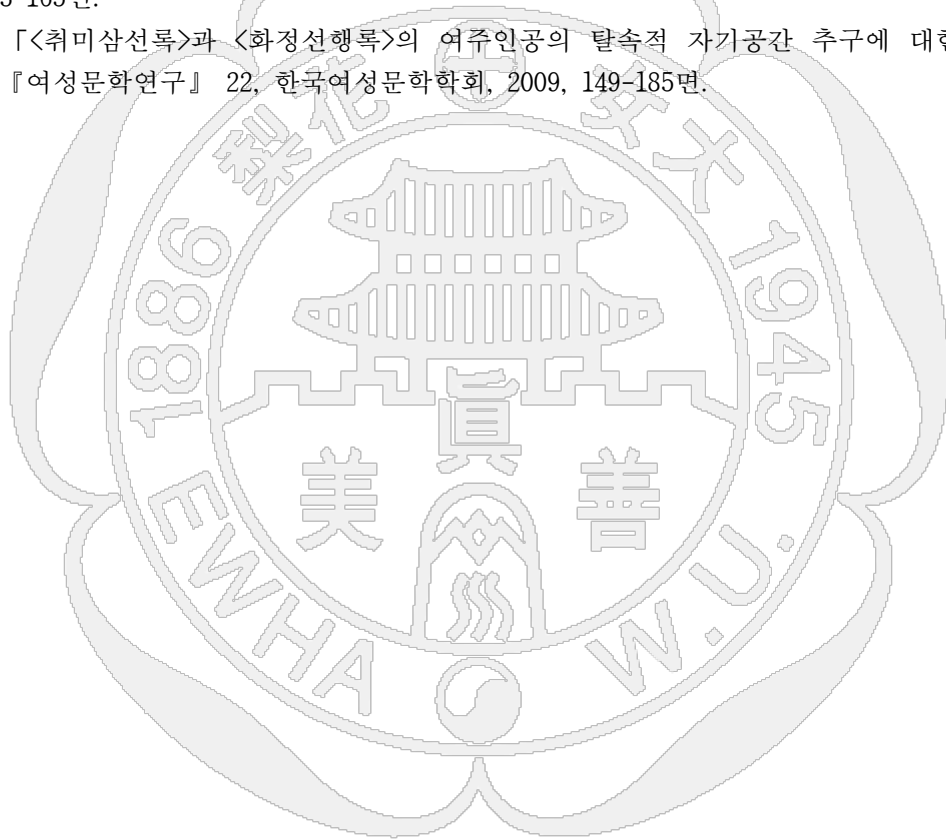
임치균, 「〈취미삼선록〉 연구-〈옥환기봉〉, 〈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古典文
學研究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351-378면.

전성운, 「장편국문소설에 나타난 몽유양식의 양상과 의미 : 〈현봉쌍의록〉 〈현몽쌍룡기
〉 〈몽옥쌍봉연록〉 〈쌍천기봉〉 〈취미삼선록〉 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8, 한국
고소설학회 1999, 67-101면.

채윤미,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선계(仙界) 형상 연구 - 여성인물의 선계 체험담을 중심
으로 -」, 『한국학논집』 8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1, 77-108면.

채윤미,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선도(仙道)를 수련하는 여성 형상 연구 -〈임화정연〉, 〈보
은기우록〉, 〈명행정의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133-165면.

한길연, 「〈취미삼선록〉과 〈화정선행록〉의 여주인공의 탈속적 자기공간 추구에 대한 비교
연구」, 『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149-185면.





유목적 주체로서 ‘되기’와 시적 카르토그래피 전략

- 김혜순, 허수경 작품을 중심으로

황 경 해(현대시 박사과정)

차례

1. 들어가며
2. 유목적 주체와 카르토그래피 개념의 상호교섭 양상
3. 김혜순 시 - 주체의 위치지움과 되기 전략
4. 허수경 시 - 유목적 삶의 궤적 탐색
5. 나가며

1. 들어가며

로지 브라이도티는 1994년에 출간된 『유목적 주체:우리 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로 잘 알려진 유럽의 여성 철학자이다. 유럽의 안과 밖에서 비주류로 성장했던 개인적 경험과 함께 유럽이 결코 단일한 실체가 아니며 개인의 주체 위치도 결코 단일하지 않다는 인식을 통해 이항대립적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타자들과 제휴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의 산출물이 바로 “유목적 주체(nomadic subjectss)”²⁰⁰이다. 후속 연구서로 집필된 『되기의 유물론적 이론』²⁰¹을 중심으로 브라이도티는 유목적 주체 개념과 이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및 위치 지움에 대한 관점을 펼침에 있어 ‘카르토그래피’ 개념을 차용한다. 브라이도티에게 ‘카르토그래피’는 위치에 대한 인식과 위치지움에 대한 발의이면서, 질문의 방식²⁰²이며, 철학적 유목주의를 포섭하고 인유하는 모든 탈경계적 사유의 교차점에서 핵심적 표지로 작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브라이도티는 체현된 유물론의 계보를 진술하며 이리가레와 들뢰즈로 이어지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포착하면서 주체에 대한 대안적 관점과 분석도구로서 활용하려는 의도를 명시하는데, 이는 들뢰즈의 되기 이론과 이리가레의 성차 이론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통해, 유목론과 성차 페미니즘의 상호보완적, 생산적 동맹으로 견인하는 근거 및 동력이 된다. 이러한 동력들-들뢰즈의 되기의 다중 주체들이나 이리가레의 ‘잠재적 여성성’-은 개념적으로 연동되면서 카르토그래피적 사유 안에서 의미망을 새롭게 확장시키고 생성시킨다.

200) 이경란,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포스트휴먼 주체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향하여」, 『탈경계인문학』 12(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9, 36쪽.

201) 로지 브라이도티, 『변신: 되기의 유물론』, 김은주 옮김, 꿈꾼문고, 2020.

202) 무엇이 적절한 새로운 형상화인가 하는 것은 집단 토론과 대면, 공개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개인 혼자만이 결정할 수 없다. 비판과 담론의 교환이 오늘날 비판 이론의 핵심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내가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카르토그래피적이다. 우리는 같은 세상에,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가? 당신이 사는 세상의 종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러한 카르토그래피를 그리는 것이 오늘날 철학적 대화의 시작이다. 위의 책, 23쪽.

이와 같이 이리가래의 성차이론과 들뢰즈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주체와 탈경계의 담론과 함께 형성되는 카르토그래피 개념은 시적 전략으로 전유되어 문학 비평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여성시인들의 미학적 특질을 탐색하는 시도로 부상된다는 관점이 본고에서 견지하고자 하는 주된 독법이 된다. 이 글에서는 카르토그래피적 사유로 포섭되는 주요 개념 및 분석소들을 중심으로 김혜순과 허수경의 작품 안에서 내재되고 발현되는 시적 상상력의 양상 및 전략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혜순 시인의 경우 들뢰즈의 ‘되기’이론을 적용한 논고²⁰³⁾ 및 초기 시집을 중심으로 주체의 양상을 분석한 본고²⁰⁴⁾와 시적 주체의 측면에서 무의식과 기억, 시간 구조를 분석의 틀로 삼은 논고²⁰⁵⁾들이 있으며 브라이도티의 유목적 주체 개념으로 상호교섭하는 카르토그래피 전략에 대해 구체화한 연구는 미진하다.

김혜순 시인은 초월적 상상력과 전복적 표현기법을 통해 남성중심적 ·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을 미학적으로 표출해온 대표적인 시인이다. 중심과 주변, 경계를 해체하는 인식이 ‘여행’을 통한 몸의 이동과 유목적 사유로 구체화되는 작품집 속에서 젠더에 대한 탈중심화, 인간과 동물에 대한 탈중심화에 대한 지향 및 지평들을 가로지르는 카르토그래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허수경 시인은 불우한 이웃과 세계를 감싸 안는 연민을 곱직한 가락으로 노래하면서 여성적 시 쓰기의 여정을 시작하여, 한국 여성 시의 한 계보를 형성시킬 만큼의 미학적 파장을 던진²⁰⁶⁾ 시인이다. 모국에서 가장 먼 곳에서 사유의 궤적을 이어나가겠다는 마음으로 떠났다는 독일에서의 이국적 삶은 시인의 지정학적 ‘위치지움’이라는 유목적 삶의 수행과 더불어, 시적 사유의 발현에 있어서도 뿌리내리지 않고 비상하고 유동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는 들뢰즈의 되기와 이리가래의 성차 개념을 포괄하는 유목적 주체로서의 카르토그래피를 통해 작품들의 미학이 어떻게 수렴되고, 형상화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유목적 주체와 카르토그래피 개념의 상호교섭 양상

2장에서는 카르토그래피 개념의 상호교섭적 의미에 있어서 유목적 주체, 들뢰즈의 되기, 이리가래의 성차이론 등을 전유하는 브라이도티의 논의와 함께 유기적 구조물로서 논의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브라이도티는 차이의 철학, 체현, 내재, 성차, 리즘, 기억과 지속과 같은 개념에 의해 영감을 얻음으로써 자신이 만든 유목민의 트랙을 지그재그로 걷는다고 비유하였다. 브라이도티의 유목적 주체의 개념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유목적 주체성²⁰⁷⁾에 연결되어 있다.

카르토그래피는 위치 지움과 이동성, 탈경계면에서의 떠돌이의 이미지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유목’의 이미지는 단순히 물리학적 거주 공간적 이미지, 장소의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사유 방식과 행동 방식에 안착하기를 거부하는 도전적인

203) 장은영, 「현대시의 동물 재현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0집, 2021.

204) 이주언, 「김혜순 시에 나타난 주체의 양상-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배달말』 54, 2014.

205) 오형엽, 「허수경 시의 구조화 원리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1집, 2020.

206) 위의 글, 161쪽.

207) 들뢰즈와 가타리의 공저 『천 개의 고원』에서 주체성을 정착적 주체성과 유목적 주체성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정착적 주체성은 사회의 지배적 질서를 내면화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며, 유목적 주체성이란 욕망의 탈주선을 따라 어떤 주어진 상태나 질서에 고정되지 않고, 경계들을 가로질러 끊임없이 변화하고 분열하며 새로운 대상과 가치를 창출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 유목적 주체성은 능동적인 소수자 되기에 의해 발생한다.

고, 가치 창출의 과정적 주체로서의 자발적 유목적성, 탈경계로의 비상을 추구하는 유목적성으로 볼 수 있다. 유목적 이동성은 늘 새로운 지도 그리기와 위치지움의 문제이다. 카르토그래피적 접근에 있어서 들뢰즈의 지도를 계보학적 기호로 들 수 있다. 『천 개의 고원』²⁰⁸⁾에서 ‘지도를 만들어라’라고 천명한 들뢰즈에게 ‘지도²⁰⁹⁾’란 은몸을 던져 실재에 관한 실험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작동 기체이다. 여기서 지도는 열려있음의 개방성, 그 자체로 ‘리즘’에 속하면서 모든 차원들 안에서 연결접속되며 ‘지도’에 함의된 다층적인 의미망은 연쇄적으로 작용된다. ‘리즘’은 하나의 중심으로 환원되는 수목형 뿌리가 아니라, 중심을 가지지 않은 채, 복수적으로 방사되는 그물망을 의미한다. 복수적 흐름을 통해서 하나의 기관을 해체하는 리즘은 동일성의 지평에 고착되지 않고 소수자의 분열적 흐름으로 바꾸는 에너지를 장착한 것으로서, 들뢰즈가 주창하는 개념 중 핵심적 요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리즘’의 개념을 보완하면, 리즘은 모든 종류의 ‘생성(-되기)’의 지향적 원리성이며, 동물, 식물, 세계, 정치, 자연물, 인공물과의 관계이다. 리즘²¹⁰⁾은 중간 지대이며, 리즘이 위치하는 속성은 ‘고원’들로 이루어진 시작이자 끝이 아닌 과정, 중간의 도정의 개념이 것이다. ‘흐름’의 이미지 속에서 ‘유유한 궤적’의 양태는 강물의 이미지처럼 현재진행형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흘러감의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는 ‘흐름’ 그 자체, 흐름 그 자체를 스스로 유인하며, 유목하는 끝없는 존재의 생성 과정인 것이다. ‘지도’의 개념에는 ‘리즘’의 개념이 용해되어 있고, 개방적이고 연결지향적 속성이 잘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브라이도티의 ‘카르토그래피’ 개념과 공명한다. 다음 장에서 논의되는 시 텍스트를 해독하는 열린 방법론이자, 그 자체로 지도의 여정이 된다.

여성시인들의 작품에서 ‘유목적 되기’의 의미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회로를 거쳐 형성되는 사유이자, 표현 양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들뢰즈의 ‘지도’ 개념과 연동되는 이미지를 경유하여, 여성 시인의 주체적 자아를 실현하고 정체성의 지도 그리기라는 상징적, 체현적 양상으로 의미를 확대하여, 카르토그래피의 시적 구현 및 이리가레의 성차 이론을 전유하는 여성 주체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이도티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새로운 주체로 ‘유목적 페미니스트 주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유목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차이’에 둘러붙어 있는 부정적인 의미와 폭력적인 종속화 양식을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도전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가레의 성차 이론이 시적 전략으로 전회될 수 있는 접점은 감각적 초월로서의 상상력과 차이를 포용하는 인식이다. 이리가레에게 있어 성차는 다른 차이들을 지우는 의미가 아니라, 감각적 초월을 의미한다. 시세계에서 감각적인 재현과 상상력의 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는데, 초월성과 육체적인 비물질성을 향해 비가역적으로 움직이는 역동성, 여성의 존재 방식에 상징적 인식을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다양성의 중요성을 주장²¹¹⁾한다.

또한, 카르토그래피적 사유는 들뢰즈의 ‘되기’와 해석적 개념으로 조우한다. 브라이도티는 변혁으로서 유목적 주체를 되기의 과정으로 정의²¹²⁾내리는데, 유목적성, 리즘, 잠재적 여성성에 있어서 새로운 지향으로서 인력(引力)은 ‘되기’를 위한 여정이 되기 때문이다. 브라이도티는 유목적 형상화란 유목적 되기이며 이는 과정 자체의 복잡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사유양

208)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주)새물결, 2001.

209) 위의 책, 30쪽.

210) 위의 책, 48쪽.

211) 로지 브라이도티, 『변신: 되기의 유물론』, 김은주 옮김, 꿈꾼문고, 2020, 119~120쪽.

212) 로지 브라이도티, 『트랜스포지션』, 박미선 옮김, 문학과학사, 2011, 20쪽.

식을 찾는 것이고, 로고스 중심주의의 인력에서 벗어나는 방법론이며 탈영토화와 리즘적 스타일은 그 자체로 되기의 필수 요소²¹³⁾라고 보았다. 들뢰즈는, 스피노자에 기대어 연결들의 다양화와 되기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자아의 풍부한 창조성을 강조²¹⁴⁾하였다. 무엇인가 그 다른 무엇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인 것, '항'이 존재하지 않는 '되기', 나름대로 그 자체로의 주체이고 '다르게 되기' 속에서만 포착되며 존재하는 '되기'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여성시의 시적 주체로서의 '-되기' 이를 수행성으로 적용하여 '-하기'의 미적 자질과 표상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존재는 창의적으로, 유목적으로, 과정과 생성을 통해 변용과 변이, 변주를 이룬다. 그 핵심이 '-되기(becoming)'이다. 되기는 자신과 이질적인 것과 결연하여 새로운 혼성적인 무엇이 되는 것²¹⁵⁾을 말한다. 김혜순과 허수경의 시에는 시적 주체의 다양한 변용 방식으로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들뢰즈의 '동물-되기'의 탐색 속에서 인간이 동물과 더불어 행하는 생성 못지 않은 강력한 생성의 양상 속에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포착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브라이도티가 방법론적으로 전유하는 '카르토그래피'는 유목적 주체성을 설명하는 방식에 의거하여 '유목적'과 접목되고, 유목적 주체는 '되기'의 과정으로 정의되며, 이 '되기'는 들뢰즈의 되기와 되기의 과정으로서 여성되기와 동물되기로 분화되며 '리즘'적 스타일로 연동되는 개념적 순환의 논리 속에 역동적으로 확장되며 교차됨을 알 수 있다.

이상 검토해본 주요 개념들을 바탕으로, 주체성의 다기능적 힘들, 체현된 주체로서의 '되기'의 시적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성시편들은 시대적 담론의 중력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을 바라보는, 여성이 바라보는, 타자의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환원되고, 수렴되면서 삶에 대한 탐색과 여성의 글쓰기는 구성되고 의미있는 반향들을 일으킨다. 글쓰는 주체는 항상 시대적 담론의 영향을 받고, 자기 시대의 영향 아래 '자아²¹⁶⁾' 의식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이다.

3. 김혜순 시 - 주체의 위치지움과 되기 전략

마치 광속도와도 같이 빠르고 무한 질주하는 상상력의 분출과 카니발적 블랙 유머를 보여 주는 시, 로고스 중심주의와 통사를 분쇄하는 운동성²¹⁷⁾으로 읽힌다고 평가받는 김혜순의 작품들은 브라이도티의 사유에 따라 탈주심주의, 탈영토화와 탈주적 분쇄로 재인식할 수 있다. 시와 산문의 경계를 횡단하는 형식미 속에 시공간을 횡단하는 유목적 자아를 탐색하는 작품집 『여자집승아시아하기』²¹⁸⁾에서 지정학적,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젠더적 위치 짓기

213) 로지 브라이도티(2020), 앞의 책, 25쪽.

214) 로지 브라이도티(2011), 앞의 책 411쪽.

215)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238쪽

216) 자아를 사회적 존재로 구성해 가는 과정은 거울 단계에서 시작되고 오이디푸스적 갈등의 해결과 함께 완료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거세 공포를 경험한 아이는 현실 원칙에 굴복하고 그 결과로 사회 질서에 진입하게 된다. 라캉에게 이것은 언어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기와 일치하며 언어 체계가 곧 상징 질서와 관계된다. 라캉은 언어를 곧 '상징 질서'라 부르며 상징 질서란 총체적 의미구조이고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되어' 있고 곧 무의식은 큰타자의 언술이기에 언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상징 질서 안으로 진입된다. 알튀세에 의하면 모든 시대인은 자기 시대의 교육이나 문화, 종교, 제도로(이념적 국가 장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데올로기가 길가에서 경찰이 '헤이, 너' 라고 호명하면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주체들이 부르기 때문에 주체의 주체화는 종속화가 된다. 김승희, 「상징 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시의 목소리, 그 전복의 전략들」, 『여성문학연구』, 제2호, 1999, 137쪽

217) 위의 글, 155쪽

218) 김혜순, 『여자집승아시아하기』, (주)문학과학지성사, 2019.

로서의 카르토그래피적 원리를 작동시킨다. 시인의 표현대로 시를 쓰는 동안 많은 쥐, 돼지, 새, 곰 등등과 여자로서 시 안에 기거²¹⁹⁾하고 있는 주체와 탈주체의 역동적 교섭이 치열하게 발산되고 분출된다.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 우리가 아시아인이라는 것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 우리가 짐승이라는 것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 우리가 끝끝내 여자라는 것²²⁰⁾

서문에 밝힌 문장들 속에 시인의 인식과 사유에 내장된 유목적 주체의 카르토그래피를 읽을 수 있다. 시인은 ‘아시아인, 짐승, 여자’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존재양식의 위치지움(카르토그래피)을 위한 지도를 설정하고 경계지움과 동시에 확고한 단언에 대해 역설적인 형식으로 환원시키며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임을 전제로 언술한다. 우리가 아시아인이라는 것은 지정학적, 세계사적 존재양식으로서 카르토그래피적 인식이다. 우리는 왜 짐승이면서 동시에 끝끝내 여자인 것인가에 문맥에 대한 답안을 브라이도티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타자’인 여성과 동물 간의 구조적 연결은 꼭 짜인 복잡한 연결망이며, 여성과 ‘타자’들은 동물과 인간 사이의 연속성을 인격화하게 된다는 위치성의 공유²²¹⁾이다. 그리고, ‘끝끝내’ 여자라는 여성성에 대한 인식, 젠더의 개념으로 정체성을 규정할 때 우리는 이 모두에 함의된 한 개체의, 주체의 ‘타자’에 대한 자기 선언으로 읽을 수 있다. 심대한, 원천적인 정체성으로서, 아시아인, 짐승, 여자라는 ‘단언’인가, 그것을 시인은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으로 규정한다.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데, 모르고 있는 것, 간과하는 것, 무지한 채로 임하는 것,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 위장하는 삶에 대한 폐부를 찌르는 인식을 논한다.

나는 아시아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내가 그 나라의 어떤 장소들에서 나의 시하기를 실제 나의 신체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다. 그 장소들은 ‘아시아’에 놓여 있으면서 텍스트상에서가 아니라 실제 장소 그 자체로 ‘여자하기짐승하기’를 생성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여행하는 아시아에서 서양에서 태어난 상상력이나 그들의 맥락, 그들의 텍스트 속에서 관찰되어 가상화된 현상이 아니라, 아시아의 장소들 스스로가 여자하기와 짐승하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그 ‘움직임의 궤적’을 기록하려고 시도했다.”²²²⁾ (밑줄 강조: 필자)

‘움직임의 궤적’은 김혜순의 시에 대한 카르토그래피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다. 움직임은 위치, 지정학적 이동이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움직임이라는 주체의 몸의 작동을 동반시킨다. 시인의 몸, 주체에 새겨져 온 개인의 역사와, 시대적 변곡, 여성적 주체로서의 질곡과 함성이 담지되어 있다. 이리가래는 차이가 내재된 존재론적 관점에 있어서, 몸의 움직임의 바탕이 되는 성차라는 것이, 몸의 차이를 너머 인간 주체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며, 신체에 의한 세계 내의 경험 차이와 의미작용을 포섭한다²²³⁾고 보았으며 브라이도티는 인간의 몸은 더 이상 ‘인류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 탈인간적 존재들이 모인 동물원²²⁴⁾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지에서 김혜순의 여성하기와 동물되기에 대한 전략적 시도는 같은 맥락에서

219) 위의 책, 9쪽.

220) 위의 책, 같은 쪽.

221) 로지 브라이도티(2011), 앞의 책, 193쪽.

222) 위의 책, 13쪽.

223) 이리가래,

224) 로지 브라이도티(2011). 92쪽.

읽어낼 수 있는 방법론이 된다. 김혜순은 성의 신체와 동물의 신체에 가해진 폭력을 고발함으로써 하위 주체를 억압하는 보편적 인간 주체에 저항하는 양상을 표출한다. 미결정체, 비결정체로서, 경계들을 가로지르는 분방한 시적 사유는 유목적 사유이며, 탈영토화를 시도하며 독창적인 여성성의 영역을 확보한다. 들뢰즈, 가타리의 ‘동물 되기’와 유사한 미학적 표출 양상으로서 “-하기”를 수행한다.

나는 내 열병을 문병가기로 한다. 땡볕에 구린내 지린내 칠갑한 낙타를 보러 가기로 한다.
 날마다 잠자고 일어나 문 밖을 나설 때마다 내 이생의 시간을 짊어지고 사막을 걸어나는 낙타 한 마리를 떠올렸다. 어쩌나 많이 떠올렸던지 이제 내 낙타는 늙고 나도 늙었다. 날마다 무거워지는 내 전 생애의 시간을 짊어지고 사막을 홀로 걸어나가느라 이제 고통과 짐에 절어버린 내 낙타. 나는 아무래도 낙타를 보고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

「낙타하다」 225) 부분

달에 살던 개를 안아 들고 기차를 탄다
 승객들이 마치 웹툰 속에 앉아 있는 듯 귀신같이 조용하고
 기차는 발사된 우주선처럼 너무 밝다
 나는 개의 하얀 털을 쓰다듬는다
 어떻게 달에서 떠나올 수 있었니
 조금 있다 보니 내 몸의 털들이 곳곳이 서고
내가 네 발로 서서 한 여자를 밟고 있다.

「리듬의 얼굴」 226)부분

김혜순은 하나의 신체에서 다른 신체로 이행하는 시적 주체의 발화를 구사함으로써 ‘짐승하기/동물 되기’를 시도하고 보편적 인간을 정점으로 젠더화된 위계질서와 인간중심주의를 해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동물과 관련된 이미지의 이접과 연접이 가져오는 효과는 동물을 기존의 표상이나 의미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유동적으로 변이하는 신체 이미지로 재구성²²⁷⁾하는 전략이 된다.

내가 쥐를 썼다고 해서 내가 쥐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 아닌 존재와의 모든 ‘하기’이다. 짐승하기는 정서적 유대이다. 나는 짐승하기를 통해 사람과 짐승 혹은 유령 사이의 어딘가에 있게 된다. 나와 짐승이 서로 흐릿해져서, 어떤 비인칭 지대를 만들고 다시 그곳을 우리가 통과해간다. 서로에게 서로를 조금씩 내어주는 다른 주파수의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비인칭 지대를 만들고 다시 그곳을 우리가 통과해간다.²²⁸⁾

이와 같은 김혜순의 진술은 ‘주체의 관계적 되기’를 의미하는 수평적 초월이자, 상호주체적, 연속적 관계와 결속을 전제하는 이리가래의 말을 환기시킨다. 서로를 통과해가는 상호

225) 위의 책, 163~173쪽.

226) 김혜순, 『날개 환상통』, 문학과 지성사, 2019, 265~292쪽.

227) 김혜순의 시에 나타나는 - 하기’ 전략은 궁극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보편적 정체성을 부여받은 인간 개념을 거부하고 소수자로서 여성과 동물의 자기 구원, 즉 해방으로 나아가는 점에서 미학적이면서 정치적 전략이다.

장은영, 「현대시의 동물 재현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0집, 2021,

228) 김혜순, 『여자짐승아시아하기』, 19쪽.

연결성의 발현은 유목적 주체에서 동반되는 윤리적 차원까지도 포섭시키는 요소²²⁹⁾가 된다. 김혜순의 카르토그래피적 기획은 ‘아시아’라는 지리적 위상과 주체의 유목적 여정 속에 특화됨으로써, 변방 지역으로 소외된, 주변부적인 장소들로의 이동과 감각적 탐색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인은 서구중심의 인식에서 타자화되는 ‘아시아’라는 지역성에 대해 주목하여, 탈중심화, 탈영토화를 시도한다. 그러한 재인식을 통해 ‘아시아’라는 정체성에 귀속되면서 동시에 유목하는 자아를 발견하고 탐색을 시도한다. ‘남성가부장제’ 사회의 틀 안에서 ‘여성’은 소외된 존재로 오랫동안 투쟁의 역사를 지낸다. 김혜순 시인은 여행 자체로 인식론적인, 존재론적인 유목과 더불어 타국인 ‘아시아국가’들을 유목적 자아 탐색의 도정을 그려나간다.

『여자집승아시아하기』에서 ‘붉은 빛’의 어머니가 여성성으로 현현하는 아브젝트처럼 작용하면서, 집단의 고통, 무의식, 허위와 허무의 이미지로 확장된다.

- ㉔ 흰 구름이 몰려오는가 했더니 하늘에서 붉은 팔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팔, 팔, 팔
(바닥엔 튀는 팔, 엄마가 한 다라이 붉은 발을 껴 담는다)

내 입술과 네 입술이 팔, 팔, 팔, 붙었다 떨어진다
(내바짓가랑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붉은 물)

해가 뜨자 환하게 밝아오는 창문 틈에 달라붙은 붉은 팔 몇 개
(방바닥에 떨어진 붉은 껍 몇 방울)

「붉은 팔」 230) 부분

- ㉕ 눈 쌓인 북쪽 초원 한가운데서 목동이 양을 잡고 있다.

모두 희고, 그의 옷만 거무튀튀하다. 그의 손놀림 아래서 양은 단 한 번에
먹이 따진다. 그는 작은 칼 하나로 털과 껍질을 다 벗겨버린다. 바닥에는
피 한 방울 없고, 그릇에는 양의 피 가득하다. 희디흰 눈 벌판 한가운데
붉은 피 한 그릇, 그리고 껍질이 다 벗겨지고도 떨어지지 않는 양 한 마리.

「붉은 내장」 231) 부분

- ㉖ ‘고백’이 가슴 속에 있다. 있는지도 모르는 데 있다. 가슴 속에 있는 그것은 말일까?

아니면, 외침일까? 불붙은 채 꺼지지 않는 눈물의 원석일까? 그 덩어리가 울화를 만든다.
어혈이 몽친다. 이 곳 사나이들의 얼굴에선 유독 눈이 불붙은 듯 이글거린다.

누군가 가족을 잃어본 사람의 얼굴이다. 저 호수에 풀어지는 노을처럼 자신의 몽쳐진 피를, 더러운 피를 밖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많은 노래가, 많은 문자가 이들의 어혈을 풀겠다며 애절하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줄 수가 없다.

「붉은 고백」 232) 부분

- ㉗ 한번은 이 나라가 오고, 한번은 저 나라가 왔다. 올 때마다 식솔을 죽이고, 곡식을 뺏어갔다.

이 나라에 부역하다 보면 질풍노도처럼 저 나라가 몰려왔고, 저 나라에 부역하다 보면, 이 나라가 도둑처럼 들이닥쳤다. 이 나라가 와서 딸을 데려가고, 저 나라가 와서 아들을 죽였다. 그러다 모두 가버리면 농사를 지었다. 오아시스의 삶이란 그런 것이다.

229) 로지 브라이도티, 『트랜스포지션 : 유목적 윤리학』, 265쪽

230) 김혜순, 『여자집승아시아하기』, (주)문학과학지성사, 2019, 156~157쪽

231) 위의 책, 185쪽

232) 위의 책, 215~216쪽

브라이도티가 포착하고자 했던 이리가레의 ‘되기로서의 여성’에서, 여성의 신체는 우리의 지식 안으로 편입되며 유동성의 언어를 구성²³⁴⁾하게 된다. 위 시편들에서 붉은 색이 함의하는 욕망과 부정성, 정신과 육체의 영역들에 대한 표상을 읽게 된다. 1차적으로 여성의 생리혈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 마음에 맺힌 (피맺힌) 절규적 목소리의 드높임, 나아가, 정치적 색깔을 떨 수 있고, 저항하는 목소리²³⁵⁾. 조상들은 양(陽)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팔을 통해 음(陰)의 기운인 잡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다. 액운을 쫓기 위해 붉은색 팔을 먹었다. 퍼담는 팔과, 흘러내리는 ‘붉은 피’가 교차되며, 「붉은 내장」에는 기독교에서 양의 희생제의적 피를 연상시킨다.

김혜순 시인이 초기작부터 펼쳐 보였던 여성으로서의 자기 모색, 탐구, 도저한 현실 인식의 역설적 표출 방식 등의 기조는 엄위하게 부상하리라 생각된다. 화자라는 이름의 전통 서정시의 시적 목소리에서 김혜순 시의 주체는 독특한 발화와 발성으로서,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부유하는 현대시의 주체들을 대표한다. 전통적으로 정형화된, 고착화된 절대적 목소리에서 탈피하여, 부유하는 목소리,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더욱 설득력있게 공명하는 목소리의 주체로 형상화됨으로써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성에 힘입어 유동하며 유목한다.

시간 속에 리듬이 현현하고, 리듬 속에 시간이 현현하는 듯한 이 시 속에는 시간의 구획을 넘어서는 ‘우주선’과 우주에 속한 ‘달’이라는 공간을 넘나드는 시공간의 전이가 발생한다.

나는 새 속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그 반대가 아니라
 나는 새 속에서 죽었다고 했다
 그 반대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죽었다고 했다 「새의 반복」 부분

‘새 속에서 태어나는 나’와 ‘새 속에서 죽는 나’ 그 반대가 아니라 이중부정을 통해, 생성과 동태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완 수축된다. ‘태어났다’와 ‘죽었다’를 반복하는 인용문 서사를 구성한다. ‘새’의 존재성과 ‘나’의 존재성이 환치되고, 교란된다. ‘그게 아니라’라고 말하면 선행 진술된 문장을 뒤집는 내용이겠지만, ‘그 반대가 아니라’는 반대의 반대, 즉 진술한 내용 자체를 다시 함축시킨다. ‘나는 새 속에서 태어났다고 했다’의 반대는 이원적으

233) 위의 책, 147~148쪽.

234) 되기로서의 여성은 원리와 구조, 규칙의 위부에서 이것에 대항하는 무질서한 것이다. 그녀의 분자들은 공생과 접성에 의해 퍼지는 강력한 전염병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여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논리와 유동성의 언어를 구성함으로써 탈병리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여성의 몸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토록 혐오스러운 말들, 즉 자궁, 외음부, 크리토리스, 질, 태반 또는 여성의 발광하는 신체 그 자체는 우리의 지식 안에 처음으로 들어올 수 있다.

로지 브라이도티, 『변신: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121쪽.

235)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혜화역 일대는 또다시 붉은 물결로 가득했다.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에 참가한 여성들은 주최 측이 정한 빨간색 옷과 소품을 갖춰 대학로를 찾았다. 빨간색은 여성들의 분노를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정한 색이다. 지난달 집회(주최측 추산 2만2000여명·경찰 추산 1만5000여명)보다 더 많은 3만여명(주최측 추산·경찰 추산 1만7000명)이 모였다. 머니투데이, 2018.07.08. 기사

로 해석되는 난점을 지니고 있다. ‘나는 새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를 의미할 수 있고, 새는 내 속에서 태어났다’고 부정문의 양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차에 오르는 순간
간, 머리는 땅에 떨어지고
몸만 떠나네.
문이 닫히고 발
차, 머리는 차를 따라오는데
스폰지처럼 몸만이 알코올에 스미네
어디로 가는 것인지. 「막차」²³⁶⁾ 부분

위 시에서 주체의 신체 기관이 이탈하고, 분해, 분절된다. 시의 행간이를 통해, 하나의 단어가 분해되는 형식적 기제와 동일한 양상으로, 신체의 형식을 지닌 머리, 발, 몸에 속한 기관의 각 요소들이 길로티적 상상력으로 발휘된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순/간’이 행간이가 됨으로써 ‘초’순간성을 획득한다. ‘발/차’가 행간이되면서 공간적 분이, 이동의 ‘초’이동성을 획득한다. 각각 ‘초’이탈성의 이미지를 갖는다. 신체의 분열은 자아의 분열에 따라 새로운 방향성을 지니고, 떠남, 분리, 이탈, 따라옴, 향해 감의 진술이 이어진다. 주체의 신체가 해체, 분열됨에 따라 하나의 통일된 욕망 또한 해체된다. “차에 오르는 순간 머리”는 타지 못한 채, “몸만 떠나”고, 차를 내릴 때도 “몸은 남고 / 두 발만” 내리는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서, 들뢰즈의 ‘기관없는 신체’²³⁷⁾기관의 개념에 따라 분해된, 이탈된 신체 기관은 각각의 향상으로 존립하게 된다. 분열 현상은 인간의 신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분열은 생산과 재생의 의미를 지닌다. 새로운 조합과 재구성이라는 단계로 나아가는 기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신체의 분열, 재조합의 원리이다.

다음 인용시인 「붉은 비단길」에서는 사막을 걷어가는 화자는, ‘모래의 달력이 펼쳐지고 모래비가 내리는’ 이질적인 지형과 비연속적 징후로서 기후의 변동을 형상화하며 유목적 사유를 펼친다.

모래의 달력이 펼쳐지고 모래비가 내린다.
모든 어제는 천국이었고 모든 내일은 지옥이었다.

기온 섭씨 45도 모래 온도 섭씨 70도
얼굴이 프라이팬처럼 달구어지는 사막을 걷어가다 말고
나는 어질어질 이상한 곳으로 간다
마치 **이 사막은 나의 삶의 시간들을 수평으로 다 펼쳐 놓은 것 같다**

만약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낸 시간들을**

236) 김혜순, 『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 1985, 문학과 지성사, 39쪽.

237) 들뢰즈는 헤겔의 유기체로서의 생명 개념 대신에 유기체의 구성에 의해 점령되지 않는 ‘기관 없는 신체’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작위적인 유기체의 구성에 의한 신체를 해방시켜 신체의 자유로운 흐름과 본 모습을 복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관없는 신체’에서 들뢰즈는 개별화의 논리가 아닌, 스피노자 식의 양태적 개체성을 시뮬동의 개체화의 원리(초개체성)에 도움을 받아 나타내고자 한다. 이러한 들뢰즈의 개체성은 횡단적인 개체성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연효숙, 「들뢰즈의 기관없는 신체와 개체성의 문제」, 『헤겔연구』 34권, 2013, 한국헤겔학회, 259쪽, 재인용)

서늘한 동굴같은 데
아니면 망각의 깊은 우물같은 데
차곡차곡 쌓지 않고
이리 펼쳐 놓았다면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
나는 오늘 산 채로 열탕 지옥을 간다

- 중략 -

나의 어제가 죽지 않고 나의 그저께도 죽지 않았다
모든 나날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리
펼쳐진 비단 한 펼쳐럼 잇대어 짜여 있다
나날이 붉은 비단 한 필 가득 수놓인 꽃송이 같다.

나는 나의 처녀 적에서 할머니 적으로, 또 그 반대로
화덕 위의 반죽처럼 옆드린 **모래의 달력 속을 걸어간다**

- 중략 -

공중으로 날린 모래알들이 비단 한 폭처럼 굽이쳐 날아간다
그녀가 짠 비단이 노을 진 사막 위로 굽이굽이 일렁인다

그 비단 금침 위에 달빛이 만 개의 바늘을 세워 수를 놓고
별들이 그 위에 발톱을 스치며 떨어진다

「붉은 비단길」²³⁸⁾ 부분

김혜순은 모래로 펼쳐진 사막 속에 자신이 살아낸 시간들이, 망각되지 않는 기억과 사유들이 무한의 수평으로 '펼쳐놓임'의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 속에서 자신의 처녀적 시간과 할머니로 상징되는 전대(前代) 조상들의 시간 또는 그 반대편의 오지 않은 시간의 대칭이 공존하는 시간들을 모래의 '달력'에 새겨져 있음을 자각하고 또한 그 달력 속을 오롯이 걸어간다. 브라이도티의 표현처럼, 유목민이 보이지 않는 지도들 혹은 바람 속에, 모래밭과 돌들 위에 식물들 속에 쓰인 지도들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을 제외하면, 유목민과 지도 작성자는 상황의 필요를 공유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나아간다²³⁹⁾고 한 맥락과 같이 읽을 수 있다.

스피노자를 전유하며 브라이도티는 카르토그래피적 '위치'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스피노자에 있어 인간 존재는 역량적으로 충돌하는 공동체들의 복합적 다양체에 속하며, 인간의 사회성은 내적, 감정적, 정서적 유대를 수반한다. 여기서 시간적 차원은 다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위치는 공간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이기 때문이다. 위치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하고, 미래로 흐르는 과거에 대한 감각과 기억의 공통적 공유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걸어감에 있어서 동선의 변화를 감지하며 이같은 과정의 이동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 속으로 체현되는 시간을 역동적으로 투과하는 주체가 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주체의 마음은 '자연의 부분'이라는 점에서 체현되고 탑재된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이며 역동적이다. 이 마음은 구조적으로 상호실행적이기에 윤리적이며 책임성을 담지한 것²⁴⁰⁾이며, 이질적이며 파편화된 시간의 연쇄를 동시화하는 양상의 재창출²⁴¹⁾이 된다. 죽지 않은 어제와 그저께, 함몰되지 않는 과거의 시간성, 모든 나날들이 사라지지 않음으로 재현되는

238) 김혜순, 207~212쪽

239) 로지 브라이도티, 『유목적 주체』, 박미선 옮김, 도서출판 여이언, 2004, 51쪽

240) 271쪽

241) 같은 쪽, 271

것은 '잇대어 짜여진 비단 한 필'이다. 날실과 씨실이 무한번주되듯 환영화된 시간은 '붉은 비단 한 필' 가득 수놓은 꽃송이와 같은 만화경이 되어, 모자이크되어 사막 위의 시간을 구축한다. 김혜순의 유목적 시간의 상상력은 '서늘한 동굴', '망각의 깊은 우물'으로 수직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모래사막의 수평적 무한지대로 펼쳐놓여진다.

'산 채로 열탕 지옥을 간다'는 것은 삶과 죽음을 가로지르는 경계에서, 타오르는 생애의 강렬한 모래 사막 / 살아있는 열기이면서 동시에 열탕 지옥으로의 가로지르기가 성립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4. 허수경 시 - 유목적 삶의 궤적 탐색

허수경의 시에서 여성 주체²⁴²⁾는 상호주체성을 포섭하고, 유연하게 성차를 복권해나가고자 하는 이리가래의 철학적 노정에서 유사한 맥락을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홀러감'의 유목성과 리즘적 인식의 확장에 있어, 브라이도티는 여성 페미니즘 1세대인 버지니아 울프의 상징적 문장을 인용하며 유목적 주체를 탐색하는 여정의 출발로 삼는다.

“나는 뿌리내려 있다. 하지만 나는 홀러간다.”

버지니아 울프, 『파도』, p.69²⁴³⁾

이 문장과 함께 역사와 연원을 지닌 시공간의 뿌리로부터 분기하는 존재와 포섭되어온 육체의 영토로부터 탈영토화하려는 자각과 탈주가 시작되는데, 버지니아 울프의 문장은 허수경의 시, 「그러나 어느 날 날아가는 나무도」와 접점을 지님을 발견할 수 있다. 뿌리내림의 시점 자체로부터 탈각하듯, 뿌리를 뽑고 날아가고 홀러가는 존재의 역설적이며 유목적 자아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편을 인용해 본다.

뿌리를 뽑고 날아가는 나무도
 공중에서 자라나는 뿌리마저
 제 손으로 자르며 날아가는 나무도
 별 달을 거쳐 수직도 수평도 아닌 채
 날아가는 나무도
 공중에 집을 이루고
 또 금방,
 집 아닌 줄 알고 날아가리라

「그러나 어느 날 날아가는 나무도」²⁴⁴⁾ 전문

허수경의 짧은 시편 속에 여성적 자아가 거쳐가는 육신의 허공과 시대의 질곡 속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표류하듯, 비행하듯 자신만의 등지를 탐색하는 초월적 분투가 하나의 단면과 같이 명징하게 형상화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여성이라는 존재, 여성의 공간성은 뿌리인가,

242) 이해원은 허수경의 시에서 여성주체는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남성에게 대한 사랑과 희망을 견지한다고 보면서, 이렇게 여성의 상처와 사랑을 노래하던 시인은 독일행을 선택한 이후 삶과 죽음, 주체와 타자, 인간과 자연의 경계가 무화되는 시를 꿈꾼다고 분석하였다. 이해원, 「나의 자각에서 '나들'의 발견까지-젠더 관점에서 보는 허수경과 김선우의 시」, 『서정시학』, 2017 겨울, 18~21쪽 재인용

243) 위의 책, 13쪽.

244) 허수경,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창작과비평사, 2001, 24쪽.

나무인가, 여성의 거처는 집인가, 날아가는 허공인가? 수직도 수평도 아닌 채, 그 자체로 생성이며 과정이며, 비상(飛翔)인, 유목성에 대한 사유를 펼치는 계기를 마련한다. 허수경 시인은 유구한 시적 족적 안에서 잔잔하면서도 강력한 자장을 형성시키는 작품들로 서정 세계의 아우라를 일구어왔다.

허수경의 시에서 카르토그래피적 유목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카프카 날씨 1」, 「푸른 들판에서 살고 있는 푸른 작은 벌레」가 있다. 들뢰즈에 의해 소수적인 문학으로 분석되는 카프카가 표제에 인용되며, 그의 작품 『변신』에 등장하는 벌레를 환기시키는 ‘벌레’가 공통분모로 등장하며 시공간의 계보가 전복되는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㉓ 이 거리 처음 본다

이 건물들 본 적 없다

이 사람들 모른다

그들은 내가 여기에서 이십여 년째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 곳을 처음 방문한 것 같다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속에
강도들과 테러리스트들이 끼어 있다고 했다 - 중략 -

그들은 천년 전에 지어진 수도원을

내가 어제 폭파했다고 했다

그 수도원에는 이 지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방언들을 모은 자료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들을 함께 폭파한 거라고 했다

나는 어제 집에만 있었는데

천 년을 살아도 낯선 내 그림자가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는데!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잠에서 깨어나면

투명한 벌레 한 마리가 될 날씨다.

종소리는 공중에서 유리 조각으로 흩어지고

잠이 덜 깬 잘 아는 얼굴은 황망히 도시를 떠난다

가방을 끄는 소리도 시끄러웠지

누군가 끌고 가는 바퀴가 다린 가방만큼

어릿하게 슬픈 세계는 없었다

「카프카 날씨 1」 245부분 (밑줄; 필자)

㉔ 바지에 묻어온 벌레를 털어내었다.

언젠가 누군가를 이렇게 털어낸 적이 있었다.

털리면서도 나의 바짓단을 누군가는 무작정 붙잡았다.

나는 더 모질게 털어내었다.

벌레여 이 바지까지 온 네 삶은 외로웠나

이렇게 말하는 건 나, 중심적임을 안다네,

245) 허수경 시집,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2016, 문학과지성사, 136~137쪽

사라져가는 생물들이 쉬는 마지막 숨을
적어본 적이 없고
모든 살았던 것들의 눈동자 역사를
적어본 적도 나는 없었으므로

-중략-

푸른 벌레가 점심 걱정을 하는 오후가 되어

들판이 점심 걱정을 하면서 푸르러지는 오후가 되어

벌레가 나를 벌레적으로 생각하며 푸르러지는 오후가 되어

「푸른 들판에서 살고 있는 푸른 작은 벌레」 246)부분 (밑줄; 필자)

위에 인용된 두 편의 시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 이론을 경유하는 사유를 촉발시킨다. 카프카의 『변신』에 대한 분석에서 탈영토화의 한 형태로서의 동물 되기는 연결, 동맹, 공생에 대한 질문이 되며, 다중성의 문제²⁴⁷⁾로 귀착된다. 이는 예기치 못하고 계획되지 않은 것을 향해 열리며 주체를 역전시키며 감각적인 것을 확장시키는 지각불가능한 것 되기²⁴⁸⁾의 연장선상에 위치지어지는 것이다. ②시에서 처음 보는 거리는 '이십여 년째' 내가 살아 있던 장소임과 동시에 '처음 방문한 것'같은 낯선 이질감을 주는 역설적 공간성을 갖는다. 이곳은 강도와 테러리스트들이 쉬어 있는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의 공간과 겹쳐진다. '어제의 시간에 집이라는 공간에만 있었던' 내가 '천 년 전에 지어진 수도원'을 어제 폭파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시는 줄곧, '공중에서 흩어지는', '떠난다', '가방을 끄는 소리'와 같이 떠남의 양태로 이미지화된다. '누군가 끌고 가는 바퀴가 달린 가방'은 이주와 이탈, 유목적 상황에 대한 상징적 표식이 된다.

등단 이후 두 편의 시집 상재 후, 독일에서 지적 사유의 영역을 넓혀나간 허수경 시에서는 유독, 낯선 도시, 이방인, 편위하는 공간, 낯선 타자로서의 자의식이 유명하고 있다. 허수경에 시 속에서 발현되는 글쓰기의 도정은 개인적 삶의 유목성으로 삶의 공간과, 내밀한 정서적 공간을 아우르며 나타나고 그러한 시공간성의 초월이 신체적 기호 및 '되기', '동물 되기'의 지적 변주로 나타난다. 「카프카 날씨 1」에서는 이십여 년째 살았는데 낯선 공간이 도시에서 카프카의 '변신' 텍스트가 자신에게 발생할 것이라는 상상의 영역을 구축한다. 「푸른 들판에서 살고 있는 푸른 작은 벌레」에서는 '벌레'처럼 떨구어냈던 타자에 대한 기억과, 그것이 벌레처럼 기억에 들러붙어 있는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연상작용처럼 교차되다가, 마침내 점심 걱정을 하는 자신이 '벌레'가 되는 환상을 유추하게 한다. '바지에 묻어온 벌레'는 실제적 생물학적 동물로서의 벌레이다. 점심 걱정을 하는 벌레는 전도된 주체가 의인화된 벌레이며, 마지막 시행의 대단원에서 벌레는 문장의 주어, 즉, 주체가 되고 '벌레적으로 생각하는' 사유의 방식으로 벌레 자체가 되는 최후적 장면으로 응축된다. 시인은 '나' 중심, 인간 중심에서 '모든 살았던 것들의 눈동자' 역사인 타자의 눈을 응시하며 변이하는 주체가 된다.

빛인가, 당신, 저 손등 아래 지는 당신, 봄빛인가 당신, 그래, 한 상징이었을지도 모를 당신, 뭉근, 손에 잡히는 600그램 돼지고기 같은, 시간, 저 육빛인 당신, 흙, 당신은 빛 아닌, 물인가, 저 발 아래 일렁이는 당신, 물 냄새가 당신, 그래, 한 기호였는지도 모를 당신, 덜컹, 발에 잡히는 영상 25도 물 온

246) 위의 책, 120~121쪽.

247) 로지 브라이도티(2011), 앞의 책, 458쪽.

248) 위의 책, 458쪽.

도 같은, 시간, 저 온탕인 당신, 혹 당신은 물 아닌 흙인가, 저 땅 아래 실은 꿩고 있는 바위 같은 당신, 아직 형태를 결정하지 못한, 망설이는 바위인가, 사방 100킬로 용암의 얼굴같은, 저 낮익은 당신

「낮익은 당신」 전문²⁴⁹⁾

‘당신/타자’가 재현되는 양상은 역설적으로 ‘시적 주체’ 자신을 의미하는, 상징적으로 연동되는 의미를 담지하는 시, 「낮익은 당신」에서 ‘빛’이라는 관념과 실제의 양가성을 지닌 상징성으로부터, 문득, 600g의 돼지고기 한근으로 물질화, 육화되는 ‘육빛’의 타자가 재현된다. 25도의 온도로 감지되는 체온의, 온도의, 물도 아닌, 흙도 아닌, 형태를 일구어내지 못한, 과정적인, 부유하는 대상의 형체는 막 꿩고 있으며 곧 지상으로 분출하여 부정형의 형태로 고착화될 과정의 잠재태 ‘용암’의 얼굴이 되고, 그 ‘용암’의 얼굴은 바로 낮익은 당신의 알 수 없는 형태, 형식화된 양태이다.

㉓ 나 태어났어

추위, 라고 말하면 정말 추워서 이 세상에 떠도는 모든 먼지들을 모아
옷을 만들고 싶었지
태어났을 뿐이었어, 누군가 나를 자라게 했어.

-중략-

매일 어디론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하늘에 있는 공들에게도 내 수유의 어머니
그 고깃덩어리가 걸린 정육점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주었으면 했어.
공들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까? - 중략 -
시간을 잘라 만든 혁대를 목에 감고 죽은 테러리스트가 살던 감방 안에서 자라던 작은 백합의 뿌리는 세계를 버티는 나무처럼 테리의 주검을 견뎌내고 있었어. -중략-

나, 태어났어

아파, 라고 말하면 너무나 아파서 세상의 밤을 떠도는 모든 안개를 엮어 붕대를 만들고 싶었지.
「거짓말의 기록」 250)부분

㉔ 나는 그렇게 있다 너의 눈 속에

꽃이여, 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너를 바라보던 내 눈 속에 너는 있다. -중략-
얼어붙은 명태들을 다 쏟아내고 나자빠져 있던 대형 화물차의
하늘로 향한 바퀴 속에 명태의 눈 안에
나는 있다

나는 그렇게 있다 미친 듯 타들어가던 도시 주변의 산림 속에
오래된 과거의 마을을 살아가던 내일이면 도살될 돼지의 검은 털 속에,
과일의 어미들 그 흔들거리던 혈관 속에
나는 있다. - 후략 -

「너의 눈 속에 나는 있다」 251) 부분

㉕ 자연을 과거시제로 노래하고 당신을 미래 시제로 잠재우며 이곳까지 왔네. 이국의 호텔에 방을 정하고

249) 허수경 시집,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문학과학지성사, 2005년, 37쪽.

250) 허수경 시집, 『벌어먹을, 차가운 심장』, 2011; 문학동네시인선 2002, 20~22쪽 .

251) 위의 책, 24~25쪽.

밤새 꾼 꾼 속에서 잃어버린 얼굴을 낮선 침대에 눅힌다. 그리고 얼굴에 켜지는 가로등을 다시 꺼내보
는 저녁 무렵 / 슬픔이라는 조금은 슬픈 단어는 호텔 방 서랍 안 성경 밑에 숨겨둔다.

〔이국의 호텔〕 252) 부분

허수경 시인의 '위치 지움'에 대한 카르토그래피적 시의 미학이 필자가 서두에서 밝혔 듯, 작품의 속에 주체적 자아를 실현하고 정체성의 지도 그리기라는 상징적, 체현적 양상의 미적 작용을 심리적, 정서적, 상징적, 공간적 의미로 층위를 다양하게 해석할 때, 내가 '위치해 있음', '존재함', 꿈이라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예각적 시선의 향방이 가능하다. ㉔에서 시인이 바라보는 위치성은 타자의 눈과 죽은 명태의 눈이라는 신체성과 육화된 동물성 안에 잠재해 있다. ㉕에서, '태어났어'라는 반복적 진술과 '테러리스트'가 살던 감방의 냉혹하고 위험한 곳에서 역설적으로 작은 백합의 뿌리는 생명력을 지니고 주검의 공간을 버티는 이미지를 통해, 비극적 세계 인식과 초극적 생명에 대한 긍정적 함의를 미시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㉖에서는 '잃어버린 얼굴'을 통해 '타자화된 주체'가 낮선 도시, 낮선 공간, 외부와 내부가 세부적인 영역의 감각으로 내재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국의 호텔은 들뜬 감성을 잠재우는 여행자의 위치가 아니라, 현실의 '슬픔'이 현존하고, 서랍에 넣어두는 감정의 반어적 표식으로 나타난다.

허수경 시인은 자신이 편위적으로 속해 있는 유동적 시공간, 유목적 잠재태의 시공간 속에서 자아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슬픔, 허무함의 서정의 이면에는 세계의 폭력성과 허구, 비애에 직면하여 이를 내면의 힘으로 승고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저력으로서의 슬픔의 미감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감각적이면서도 냉철한 자신의 위치지움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에서 구현된다고 볼 수 있겠다. 감각적 경험, 유대감에 대한 카르토그래피의 시적 구현과 시적 성취에 대한 논의를 브라이도티의 이리가레이를 경유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감각적인 것은 근접한 것이다. 경험의 가득 찬 현존도, 초월적 조건의 급진적인 선재도 아닌 감각적인 것은 내가 또 다른 형태의 존재로 인식하는 다른 신체로서, '구체적 보편'으로서 주어진다"²⁵³⁾

4. 나가며

본고에서는, 브라이도티의 유목적 주체 개념 및 철학적 유목적주의를 포섭하는 카르토그래피를 통해, 대표적 여성 시인인 김혜순과 허수경의 시적 전략을 파악하는 핵심적 표지로 작동시키는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브라이도티는 들뢰즈의 되기 이론과 이리가레의 성차 이론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통해, 유목적론과 성차 페미니즘의 상호보완적, 생산적 동맹으로 견인하는 근거로 삼는다. 탈주체와 탈경계의 담론과 함께 형성되는 카르토그래피 개념은 시적 전략으로 전유되어 문학 비평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여성시인들의 미학적 특질을 탐색하는 시도로 부상된다는 관점이 본고에서 견지하고자 하는 주된 독법이 된다. 2장에서는 카르토그래피 개념의 상호교섭적 의미에 있어서 유목적 주체, 들뢰즈의 되기, 이리가레의 성차이론 등을 전유하는 브라이도티의 지그재그적 트랙을 통해 개념의 교차적 상관성을 정리하였다. 유목적, 리즘, 잠재적 여성성에 있어서 새로운 지향으로서 인력(引力)은 '되기'를 위한 여정이 된다. 브라이도티는 유목적 형상화란 유목적 되기이며 이는 과정 자체의 복잡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사유양식을 찾는 것

252) 위의 책, 24~25쪽.

253) 로지 브라이도티, 120쪽.

이고, 로고스 중심주의의 인력에서 벗어나는 방법론이며 탈영토화와 리즘적 스타일은 그 자체로 되기의 필수 요소이며, 이리가레의 성차 이론이 시적 전략으로 전회될 수 있는 접점은 감각적 초월로서의 상상력과 차이를 포용하는 인식이다. 이리가레에게 있어 성차는 다른 차이들을 지우는 의미가 아니라, 감각적 초월을 의미한다.

3장에서는 김혜순 『여자짐승아시아하기』를 주요 텍스트로 하여 유목적 사유의 궤적을 카르토그래피적 전략으로 읽었다. 김혜순 시인은 산문과 시의 경계를 허무는 글쓰기 전략을 통해 여성되기와 동물하기를 시도하였고 아시아라는 지정학적 위치지움의 의미를 탈주체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기획하였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허수경의 시편들 속에 편재한 탈경계적 상상력의 발현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들뢰즈의 소수 문학적 접근과 함께 분석되는 카프카적 사유, 되기의 발현이 시편들 속에서 형상화되며, 시간에 대한 중첩과 해체의 서사 속에 포용적 세계 인식을 담아내는 양상들을 읽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접근을 통해서, 시인의 내적 인식의 지평을 넘어서 실제로 몸의 이동과 움직임, 탈경계적 비상으로 상상력이 점철되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유목적성에 대해 그 미학적 특질을 규명할 수 있으며, 카르토그래피적 전략이 극대화되는 지점과 조우하게 됨을 확인하게 된다. 브라이도티가 시도한 철학적 사유의 지그재그적 활보는 한국 여성 시인들이 내적 사유의 틀을 너머, 실제 삶의 자장 속에서 지정학적 물리적 삶의 경계를 변모해나가는 유목민의 여정과 닮아 있으며, 과정적 되기로서의 리즘적 사유양식을 추동하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시인들의 사유의 궤적은 리즘처럼 드넓은 뿌리를 드리우며 주체들의 개성적 세계 인식과 창의력 안에서 질적인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유목적 주체성은 그 자체로 지각 불가능한 것 되기의 과정이 되어 차이의 변위들을 시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하며 감각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박상수 시에 나타난 레즈비언-되기와 퀴어 정동

김 선 빈(현대시 박사과정)

차례

1. 들어가며
2. '소녀'들의 레즈비언-되기
3. 퀴어 화자의 정동적 정치 실천
4. 나가며

1. 들어가며

“어떤 시가 퀴어시인가?”라는 질문에 일차적으로 “퀴어의 입장에서 쓴 시”²⁵⁴ 혹은 “퀴어가 등장하는 시”라는 답변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퀴어시의 범위를 규명하려는 시도는 다소 협소하게 퀴어시를 파악하게 한다는 점과 더불어 퀴어를 단편적인 존재로 규정하려는 시도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물론 ‘퀴어하다’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감각이나 느낌, 감정 등은 분명 존재하지만 특정한 것을 ‘퀴어만의 느낌’으로 고정한다면 ‘퀴어’는 제한적으로 인식되고, 재현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도 결정되지 않으려 함으로써 정상성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해 저항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퀴어의 정체성²⁵⁵이라는 사실을 떠올려보았을 때 퀴어시를 협의의 차원에서 한정하는 시도는 일종의 ‘반-퀴어적’ 독해로 귀결될 수 있다.

사라 아메드는 ‘퀴어’(퀴어 정체성)를 스티커처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기호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²⁵⁶ 이처럼 퀴어라는 개념은 유동적이고 탄력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단 하나의 의미나 대상에 불박아 놓을 수 없다는 특성이 퀴어 이론 및 정치를 계속해서 ‘퀴어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어왔다는 것²⁵⁷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어떤 시가 퀴어시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시든 퀴어시일 수 있다”라는 답을 제출함으로써 그 범주의 외연을 확장하는 시도를 감행하고자 한다. 어떤 시든 퀴어시로 읽어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퀴어적 독해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가? 퀴어 정체성을 수행하는 화자를 중심으로 시를 읽는 작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퀴어 정체성을 수행하는 화자를 중심으로 박상수의 시를 퀴어시의 범주 안에서 새롭게

254) 퀴어의 입장에서 쓴 시를 퀴어시의 범위로 상정하는 것은 퀴어시의 범주를 협소하게 만드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을 배태하는데, 바로 시인의 커밍아웃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서 커밍아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커밍아웃을 한 시인이 쓴 시를 퀴어시로 한정하는 시도 역시 시인과 시적 화자를 손쉽게 동일시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255) 애너매리 야고스, 박이은실 역, 『퀴어이론 입문』, 도서출판 여이연, 2012, 158쪽.

256) Sara Ahmed,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New York: Routledge, 2004, p.166.

257) 전혜은, 『퀴어 이론 산책하기』, 도서출판여이연, 2021, 567쪽.

독해하고자 한다.

박상수는 그의 첫 시집인 『후루츠 캔디 버스』에서부터 이후 출간된 『숙녀의 기분』, 『오늘 같이 있어』, 『너를 혼잣말로 두지 않을게』 258)에 걸쳐 여성 화자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여학생’-되기, ‘여대생’-되기, 숙녀-되기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온 시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상수의 시는 남성(으로 패싱되는)시인²⁵⁹⁾이 여성 화자를 채택하여, 여성에 대한 혐오적 시선을 자아내는 발화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박상수의 시에서 시적 화자에게 씌워진 혐오적 시선 및 화자의 혐오 발화를 그 자체로 ‘정치적 올바름’의 심판대에 올려두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혐오 발언의 경우 혐오 발언의 재순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것의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²⁶⁰⁾과 여성 혐오 발화를 적극적으로 반복 인용할 때, 강화되는 것은 여성 혐오적 구조가 아니라 그것이 반복됨으로써 다르게 재맥락화, 재의미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상수 시의 시적 화자가 취하고 있는 태도와 진술 방식은 젠더 수행의 측면에서 읽어볼 여지가 생긴다.

나아가 박상수의 시를 레즈비언리즘의 자장 아래서 독해하는 작업은 화자와 시인 사이에는 자전적 동일시가 아니라 ‘상상적 동일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²⁶¹⁾에서부터 시 읽기에 앞서 시인의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를 함부로 추측 및 전제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을 사유하게 한다. 그리고 ‘시적 화자의 성별이 남/녀 이항분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과 시적 화자가 섹스-젠더-섹슈얼리티가 불일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²⁶²⁾을 숙고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박상수 시에 등장하는 여성 화자가 레즈비언-되기를 수행하는 양상²⁶³⁾에 주목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퀴어 정동을 살핌으로써 확장된 퀴어시 독해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2. 소녀들의 레즈비언-되기

전술하였듯 박상수의 시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여성 화자의 전면화라고 할

258) 박상수, 『후루츠 캔디 버스』, 천년의시작, 2006.

_____, 『숙녀의 기분』, 문학동네, 2013.

_____, 『오늘 같이 있어』, 문학동네, 2018.

_____, 『너를 혼잣말로 두지 않을게』, 현대문학, 2022.

259) 헤테로섹슈얼의 남성으로서 살아가며 익숙해졌을 자아 속 젠더 경계를 허물어 내며 타자의 목소리를 통해 세계에 틈을 내는 ‘여성적 글쓰기’로서의 시작 방식인 것이다. ‘여성적’이라는 용어를 생물학적 여성을 뜻하는 female이란 의미에서가 아닌, feminine이란 의미에서 사용할 때는 글 쓰는 주체가 여성이나 남성이나라는 성별 기준이 아니라 글이 지니는 속성을 지칭할 수 있다. (강석희, 「글하지 않는 여성 화자의 세계-박상수론」, 『청어람어문교육』 85, 청어람어문교육학회, 2022, 212쪽.)

260) 주디스 버틀러, 『혐오발언』, 알랩, 2016, 79쪽.

261) 정끝별, 「현대시 화자(persona)교육에 관한 시학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3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171-172쪽.

262) 이는 섹스-젠더-섹슈얼리티의 일치가 당연시되는 환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이 퀴어적 독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나리, 「이브 코소프스키 세즈워의 퀴어 인식론으로 한국 현대시 읽기: 박상수의 숙녀의 기분을 중심으로」, 『여성이론』 37, 도서출판여이연, 2017, 167-168쪽 참고.)

263) 박상수의 시에는 남성과 연애하거나 실패하는, 혹은 남성과의 로맨틱한 긴장 관계를 즐기고 욕망하는 여성 화자가 다수 등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박상수 시에 드러나는 레즈비언-되기를 수행하는 여성 화자의 존재 불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박상수의 시에는 이성애적 욕망을 지닌 여성 화자와 더불어 동성애적 욕망을 지닌 여성 화자 또한 등장한다고 보는 편이 적합할 것이다.

수 있다. 박상수는 ‘여학생’, ‘여대생’, 숙녀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젊은 여성들이 감각하고, 체험해온 바를 시적 현실로 구현한다. 이때 각 시편의 화자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각자가 꿈꾸는 ‘여학생’, ‘여대생’, 숙녀의 표상을 좇는다. 지금까지 박상수 시에 드러나는 여성 화자의 면모를 살피는 작업 및 이와 관련된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박상수의 시적 화자가 수행하는 ‘-되기’는 성적 지향성의 차원까지 확장되어 있음에도 그의 시에 드러나는 여성 화자들 사이에 유동하는 섹슈얼리티와 로맨스의 양상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본 장에서는 박상수 시의 화자가 ‘여학생’-되기, ‘여대생’-되기, 숙녀-되기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날은 종일 스텐드에 앉아 운동부 애들이 뺏다 맞는 것을 보았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막혀 있었다 철문 앞에 쪼그려앉아 담배를 피우고 담배가 떨어지면 문밖의 바람 소릴 생각했다 나비로 핀을 꽃은 숏커트의 여자애가 머리를 기댔다 사라졌다

등나무 벤치, 오고가는 말들에 파묻혀 있으면 구름이 내려와 어지러웠다 땅에 발을 딛고 있을 피워올리는 애들이 많았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엔 언제나 부서진 걸상과 깨진 창문틀, 폐지가 있었고 믿는 건 세계의 일부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바람이 심한 날에는 코스모스도 괜찮았고 다리를 떠는 여자애도 좋았다

경박하게 나는, 옥상에 대해 생각했다 바람에 빠진 배구공과 줄이 끊어진 고무동력기, 항상 고여 있을 썩은 물, 나는 히히덕거리며 옥상으로 돌을 던졌다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강아지 흥내를 내었다 차꾸만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의 소리가 들렸다.

- 「18세」 264)전문

위의 시는 “종일 스텐드에 앉아 운동부 애들이 뺏다 맞는 것을 보았다”라는 화자의 진술로 시작이 된다. 화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막혀 있었”기에 닫힌 옥상의 철문 앞에서 “쪼그려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문밖의 바람 소릴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화자에게 “나비로 핀을 꽃은 숏커트의 여자애가 머리를 기댔다 사라”지는데, 누군가에게 머리를 기대는 행위는 상대를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므로 화자는 시적 대상에게 심리적인 안식을 제공하는 존재라는 점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자 역시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자가 감각하고 있는 시적 세계는 “부서지”고 “깨진” 세계이며, “폐지”처럼 이미 쓸모가 없어진 것이 가득한 불안정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런 세계에서 “등나무 벤치”에 앉아 “오고가는 말들에 파묻혀” 어지러움을 느끼는 화자가 유일하게 “믿는 건 세계의 일부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이며, “바람이 심한” 혼란스러운 세계를 감지하는 화자가 유일하게 “좋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다리를 떠는 여자애”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미루어보았을 때, 이 시에는 불안하고, 유동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사춘기 소녀가 성적 지향성을 탐구하는 과정이 발견된다. “숏커트의 여자애”와의 의지적 관계가 암시되고, “다리를 떠는 여자애도 좋았다”고 호감을 표현하는 부분이 등장한다는 점과 이러한 시적 사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의 소리”가 들리는 상황 속에 제시된다는 점에

264) 『후르츠 캔디 버스』, 15쪽.

서 “18세” 여학생 화자가 성적 지향성을 탐구하는 과정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박상수의 시적 화자는 ‘여학생’-되기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성적 지향성까지를 탐구한다. 한편 이러한 성적 지향성에 대한 탐구는 ‘여학생’ 사이에 유동하는 섹슈얼리티와 결합할 때 더욱 또렷해지는데, 아래의 시를 통해 박상수의 시에서 섹슈얼리티의 관계가 그려지는 방식과 그 의미를 살펴보자.

우린 이불을 뒤집어썼다 손전등을 켜놓고 열이 나는 뺨을 핥기도 했다 난 도마뱀, 달아나는, 너 나를 보면서 귓불을 만지는 애였다.//초경의 여자애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열은 내릴 줄을 몰랐다 거웃이 무성한 아이들을 따라 몰려다녔고 도망치는 녀석들을 밟기도 했다.

- 「첫사랑」 265)부분

위의 시에서 “우리”로 상징된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은 함께 “이불을 뒤집어”쓰고, “손전등을 켜”놓은 채 은밀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열이 나는 뺨”을 핥고 있다. 이때 “나”는 모종의 부끄러움을 느낀 듯 “도마뱀”처럼 달아나기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너”는 그런 “나”를 보면서 귓불을 만지고 있다. 이러한 장면의 진행은 ‘여학생’들이 서로 섹슈얼한 행위를 주고받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이들이 성애적 관계 안에 놓여 있음을 상상하게 한다. 이불 속에 은밀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의 “열이 나는 뺨”을 핥던 “나”와 “너”의 관계는 “초경의 여자애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열은 내릴 줄 몰랐다”는 진술로 인해 여성 간의 관계로 특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의 뺨을 데우는 것은 다름 아닌 “초경의 여자애들”이었고, 계속해서 열이 나는 “나”가 “거웃이 무성한 아이들을 따라 몰려다녔”다는 진술과 더불어 시의 제목이 “첫사랑”이라는 점을 종합해보았을 때 시적 화자의 레즈비언-되기가 시도되는 과정을 포착해낼 수 있다.

나는 너의 팔짱을 낀다 우린 지독한 교리문답에 너무 오래 시달렸잖니, 오늘은 조금만 사랑하자[...]언제까지 교과서 사이에 편지를 숨겨 읽어야 할까?[...]우린 지우개를 줍다 서로의 아랫도리 냄새를 맡았던 일에 대해 말한다. 조금씩 더러워지는 일, 치맛자락에 묻어 지워지지 않는 얼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그래 미워하지 말자 너무 멋있다고 말해주지도 말자 그렇지만 이 깨끗한 눈을 너와 나누어 먹고 싶어, 단지 그것뿐/네 이름표는 되돌려주고 싶지만 영원히 그러지 않기로 했어[...]나는 껴안는다 비단 보료 위에서 알몸으로 깨어난 우리/// 아이들이 욕한다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워지는 걸까? 응? 응?

- 「교환일기」 266)부분

앞서 살펴본 시들에서 발견된 시적 화자의 퀴어 정체성의 탐구는 「교환일기」에 드러난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 좀 더 구체화 된다. 이 시에서 “나”는 “너”에게 팔짱을 끼며, “오늘은 조금만 사랑하자”고 말한다. 이러한 제안은 시적 정황상 “우리”가 그동안 “지독한 교리문답에 너무 오래 시달렸”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교리문답이란 종교의 원리나 이치를 서로 묻고 답하는 일을 뜻한다는 점에서 화자와 대상은 서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묻고 답하

265) 『후르츠 캔디 버스』, 16쪽.

266) 『숙녀의 기분』, 84쪽.

고 확인하는 일을 “교환일기”를 통해 진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늘은 조금만 사랑 하자”는 다짐은 여전히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점에서 “너”와 “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렇듯 긴밀한 관계에 놓인 “우리”는 “교과서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으며 “숨겨 읽”으면서 은밀한 대화를 이어간다. 물론 교과서 사이에 편지를 끼워서 주고받거나 교환일기를 쓰는 행위는 확장된 형태의 ‘수다’라는 점에서 흔히 확장시절 여학생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우정의 표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시가 여학생들의 정서적인 교류를 묘사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와 “너”는 “지우개를 줍다 서로의 아랫도리 냄새를 맡”았던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아랫도리 냄새”를 맡았던 기억을 각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너”와 “나”의 관계는 섹슈얼한 구도 안에 새롭게 배치된다. “나”의 진술에 따르면, “서로의 아랫도리 냄새”를 맡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씩 더러워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치맛자락에 묻어 지워지지 않는 얼룩”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흔적이라 할 수 있는 “얼룩”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시적 화자와 대상의 관계는 섹슈얼한 차원에서 일종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동반한 채 한층 깊어진다. 하지만 화자는 끝이어서 “그렇지만 이 깨끗한 눈을 너와 나누어 먹고 싶”다고 말한다. “깨끗한 눈”은 앞서 제시된 “더러워지는 일”, “얼룩” 등과 대비되는 이미지를 환기하며 죄책감과 수치심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화자가 그것을 “너와 나누어 먹고 싶”다고 고백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의지와 더불어 “나”와 “너”의 섹슈얼한 관계가 한층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됨을 짐작해볼 수 있다.

시의 후반부에 이르러 “나”는 “네 이름표는 되돌려주고 싶지만 영원히” 되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네 이름표”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은 “너”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진 “우리”의 관계는 “너”를 껴안는 “나”, “비단 보료 위에서 알몸으로 깨어난 우리”라는 묘사를 통해 육체적인 사랑을 나눈 관계라는 것이 암시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친밀함을 넘어 육체적인 사랑 차원에서의 긴밀함까지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우리”의 관계를 두고, “나”는 “아이들이 욕한다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워지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물음으로 이 시가 마무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시선 즉, 혐오와 배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동성애 관계를 이어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할 뿐 아니라, 아이들의 비난에 굴하지 않는 “나”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방어적 수사를 동반한 “나”의 질문은 “우리”의 긴밀한 관계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외부)의 승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장치로 읽힐 뿐이다. “나”는 “아이들”이 욕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이미 아름답다고 여기며 적극적으로 레즈비언-되기를 수행하는 화자로서 시에 전면화된다.

이처럼 박상수의 시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소녀’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관계 안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탐구하고, 되묻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랑을 주고받는다. 박상수의 시에 드러나는 ‘소녀’들의 레즈비언-되기를 살펴보는 작업은 시에서 쿼어 정체성을 수행하는 화자를 발견하고, 이러한 화자의 발화와 시적 태도를 의미화해봄으로써 쿼어적 독해를 실천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혐오의 차원 안에서 파악되어왔던 쿼어시 범주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게 한다.

3. 퀴어 화자의 정동적 정치 실천

그간의 현대 레즈비언 시에 “‘퀴어-되기’의 과정이 거세되어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던 것²⁶⁷⁾과는 달리, 박상수의 시에서 레즈비언-되기를 수행하는 화자를 통해 ‘퀴어-되기’의 과정이 시에 드러나는 양상을 짚어낼 수 있었다. 그의 시는 “레즈비언의 사랑이 더 온화하고, 서로에게 더 잘 대해준다는 기존의 시선을 넘어서는 개성적인 성 정체성과 현실인식, 정치성, 섹슈얼리티 등을 확보”²⁶⁸⁾해야 한다는 요청에 응답하는 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 역시 퀴어적 화자를 중심으로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박상수 시에 드러나는 퀴어 화자는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 지금까지 문학 작품에서 퀴어는 주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불행한 존재로 재현되어왔다.²⁶⁹⁾ 퀴어의 존재가 부정적인 정동과 더불어 낙인 찍혀왔듯이 퀴어의 삶이 손쉽게 불행하기만 한 삶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한 퀴어는 불행하다고 읽는 세상에 의해 불행해”²⁷⁰⁾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⁷¹⁾ 박상수의 시는 그러한 현실의 시선을 정확히 겨누고 있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레즈비언 ‘소녀’들은 불행하기만 한 존재이거나 이성애 규범성에 애착을 지닌 존재로 구현되지 않으며,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정동의 집합체로서 현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상수의 시에는 퀴어 정동의 정치가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퀴어 정동 정치’란 “주체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던 나/우리의 잔여물을 나/우리를 구성하는 하나의 직물로 엮어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재전유하고, 자신들을 둘러싼 감정들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²⁷²⁾ 이러한 ‘퀴어 정동 정치’는 “규범을 밀어내려 할 때조차도 여전히 공격 인정이나 규범적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드러난다.²⁷³⁾ 다시 말해, ‘퀴어 정동 정치’는 “퀴어정치를 정동적으로 구현하는 실천”이며, “서로 모순된 정동을 감각하는 것 또한 세계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화된 정치와 정치에 대한 규범적 규정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²⁷⁴⁾ 본 장에서는 박상수 시의 퀴어 화자에게서 발견되는 정동을 중심으로 퀴어 정동 정치가 구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67) 정끝별, 「한국 현대시, 퀴어링으로 횡단하기」, 『이화어문논집』 50, 이화어문학회, 2020, 37쪽.

268) 위의 논문, 37-38쪽 참고.

269) 이는 주로 퀴어가 느끼는 수치심이 “규범적 실존에 대한 각본을 따르지 않으면 치러야 하는 서적 대가”(Sara Ahmed; 2004, p.107)의 측면에서 이해되어 온 것과 연관된다.

270) 사라 아메드, 「행복한 대상」, 펠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위스 편저, 『정동이론』, 갈무리, 2015, 82쪽.

271) 퀴어는 ‘정체성의 정치’의 차원에서 그 존재가 인식되곤 하는데 “정체성 정치가 동원하는 고통과 상처의 논리는, 복수가 성공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 복수의 대상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원망하는 ‘르상티망(ressentiment)’의 정동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적이다. 정체성의 정치를 기반으로 탄생하는 “주체는 상처에 대한 정동적 애착에 사로잡혀 복수를 회구하면서도 고통을 호소하는 데 그치는 반동적 행위자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허성원a, 「정치를 새롭게 읽어내는 퀴어정동정치: 한국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7, 한국문화사회학회, 2019, 13쪽 참고.)

272) 허성원b, 「페미니즘의 퀴어정동정치를 향하여:독해실천으로서의 퀴어정동이론」, 『한국여성학』 35, 한국여성학회, 2019, 93쪽.

273) 허성원a, 위의 논문, 39쪽. (성소수자로서 “법을 전복하고 있다는 쾌감과 법에 복속되어 버렸다는 굴욕감”, 자긍심 더불어 군중 속에서 익명화되어 있다는 안도감, 혹은 안도감을 느낀다는 사실이 촉발하는 부끄러움, 즐거움, 수치심, 성소수자 사이에서도 소외당하는 외로움, 불안 등 우리가 언제나 마주하고 있는 정동적 삶의 혼란과 모순을 포기하지 않는 감각적 실천이야말로 퀴어정동정치를 구현한다.” 같은 논문, 40쪽.)

274) 허성원b, 위의 논문, 40쪽.

곤따는 세발자전거 언니/흑설탕을 주는구나 언니는/언니가 올 때까지 그림을 그려야지/창문을 열어놓아야지/언니는 어쩌면 왕관을 쓰고 나타나/ 뺨 헛바닥 피리를 불어줄까?! 그래도 언니는 부드러운 털// 언니를 위해 흰밥과 생선을 오렸어/많이 먹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언니는 많이 웃는 언니/나는 친구들과 빛나면서/바람을 내일 저녁으로 안내하는 창문에 걸터앉아 /선물을 받지//다정히 사랑해주세요//언니가 건네준 맛있는 흑설탕 추잉 껌/예쁜 언니는 명랑한 언니/예쁜 언니 곤따(웃음)

- 「슈가 마블」 275)전문

위의 시 「슈가 마블」 276)에서 일본어로 장난꾸러기 혹은 개구쟁이라는 뜻의 “곤따”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언니”는 “나”에게 달콤한 “흑설탕을 주는” 사람이자 “부드러운 털”의 이미지를 가진, “많이 웃는” 존재로 그려진다. “나”는 “창문을 열어놓”고 “어쩌면 왕관을 쓰고 나타나”날 언니를 기다린다. 계속해서 “나”가 “언니”를 위해 밥상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에 응답하듯, “언니” 역시 “나”에게 “선물(흑설탕 추잉 껌)”을 건넨다. 시적 화자가 대상을 “언니”로 호명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성별이 모두 여성임이 특정된다. 정황상 이들은 “흑설탕”과 “흰밥과 생선”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때 여성 퀴어 화자는 불행, 수치심, 죄책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나”는 언니에게 “다정히 사랑해”줄 것을 요청하고, “예쁜 언니는 명랑한 언니/ 예쁜 언니 곤따(웃음)”라고 부르며 이 시는 마무리될 뿐이다. 이처럼 박상수 시의 퀴어 화자는 퀴어가 사랑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행한 존재로만 재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이성애 규범성에 대한 정체성의 정치, 고통과 상처의 논리에 기대지 않고 퀴어 존재가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는 천변을 걷다가 마지막 심정으로 전화를 걸어 언니, 여긴 사람이 많아요 팔을 흔들거나 난간에 종아리를 문지르는 사람들, 돌아갈 곳이 있어서 좋아 보이는 사람들, 누군가에게는 나도 그렇게 보이겠죠 약은 잘 먹지 않고 밥은 더 잘 먹지 못해요[...]그랬구나 응응, 그래서 거기까지 혼자 걸어갔구나 괜찮아 계단을 내려가면 거기 버려진 농구 코트가 있고 더 내려가면 바다에 반쯤 잠긴 벤치, 거기 너를 기다리는 내가 앉아 있을 거야 떠올려봐, 색깔이 바랜 벤치에 앉아 내가 너를 기다릴게[...]언니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지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나기도 한단다, 내겐 부리밖에 남지 않았지만 나의 부리로 네 깃털을 가다듬고 윤을 내어줄게,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도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나기도 하는 거니까, 그 일들이 너를 미워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까, 이제 너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제상을 벌주려 하지 말아, 울겨울에는 연탄난로 곁에서 같이 얼린 홍시를 나눠 먹어야지.

-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나기도 하지」 277)부분

275) 『후르츠 캔디 버스』, 73쪽.

276) 한편 이 시에서는 “S언니의 세계”에 대한 지향 역시 더불어 드러난다. 특정 여성 사이의 관계를 지칭할 때 동원되었던 ‘S’라는 용어는 주로 S언니/S동생으로 사용되었으며, 1910년대 중반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여학교를 중심으로 선배와 후배 여학생들 사이에서 혹은 여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관계를 지칭하기 위한 명칭이었다. 이 명칭이 탄생했다는 것은 “여성들이 ‘학교’나 ‘직장’과 같은 근대적 공간에 진입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여성들 사이의 관계를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 공간을 통해 맺어진 새로운 관계였기에 ‘S’라는 개념을 통해 여성 간 친밀성을 ‘낭만적 사랑’이라는 감정의 형식으로 인식하고 명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현실문화, 2018, 231-234쪽 참고.)

277) 『너를 혼잣말로 두지 않을게』, 58쪽.

한편 위의 시를 통해 퀴어 화자의 부정적 정동의 재전유 과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퀴어 정동 정치의 실천 양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 시에서는 위로를 건네고, 위로를 받는 “언니”와 “나”의 관계가 그려지며 우울과 절망의 정동이 점차 축소되고, 위안의 정동이 발현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화자는 지친 마음으로 “천변을 걷다가 마지막 심정으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고, “언니”는 절망과 외로움을 느끼는 “나”에게 “너를 기다리는 내가 앉아 있을 거야”, “내가 너를 기다릴게”하고 말해준다. “언니” 역시 “부리밖에 남지 않”은 모습이지만, “부리로 네 깃털을 가다듬고 운을 내어”주겠다고 선언하며 화자를 위로한다. 나아가 “그 일들이 너를 미워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까, 이제 너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세상을 별 주려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나기도 하지”라는 시의 제목을 떠올려보았을 때, 화자가 경험하는 절망, 슬픔, 외로움 등이 화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감정도 진공의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며, 감정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맥락과 분위기는 분명 존재한다. 수많은 혐오와 배제, 그리고 위협에 쉽게 노출되곤 하는 퀴어는 비-퀴어 존재에 비해 부정적인 정동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의 시에서 “나”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주며, 존재 자체를 긍정해주는 “언니”와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잔여물을 하나의 직물로 엮어나가는” 퀴어 정동 정치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이 시는 “연탄난로 곁에서 같이 얼린 홍시를 나누어 먹”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된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 곁에서 차갑지만 달콤한 “홍시”를 나누어 먹는 “언니”와 “나”는 자신들을 둘러싼 감정들을 재구성하는 퀴어 정동 정치의 주체로 존립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먹었지 목살이랑 삼겹살이랑, 계속 가져다 먹었어 먹자골목에서 네가 짝은 집, 구두 벗고 들어가기 싫다니까 깔깔깔 네가 하이파이브를 해줬지//[...]털보 언니가 미소 지으며 다운 패딩 입혀주는 느낌, 그래 난 좀비 언니들이 떼로 와서 기모 레깅스랑 펠트 워머를 같이 입혀주나봐//[...]너는 젓가락을 덜덜 떨며 말했다 못살아, 왜 이것밖에 못 먹는 거야……[...]모공들이 다 열려버려서, 우린 기름종이를 나누어 가졌지 립밤도 다시 발랐어 그래도 한 정겨장쯤은 걸을까? 미안해 애들아, 천국에 못 간 돼지들, 개네들이 아직도 붙어 있나봐, 밤거리를 걸었지만 숨이 차서, 반 정겨장도 못 걸었지, 포기하자 다 포기하고, 택시를 잡아타자//불빛 찬란한 밤거리이렇게 달릴 때가 제일 빛나지/다들 걸어가는데 우리만 달려가니까/우리만 앞으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내릴 때가 되니까 네가 붙어 앉았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뭐라고 속삭였고 분홍색 면봉이 콧바퀴를 들락달락, 근데 무슨 말인지 안 들리잖아, 내 손을 잡고, 빨리 보면서, 네 입술이 움직였지//가자 마/오늘/같이 있어.

- 「무한리필」 278)부분

위의 시 「무한리필」에서는 퀴어 화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재전유하고, 감정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정동 정치를 실천하는 양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무한리필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 “우리”는 살이 쪼를 걱정하면서도, “왜 이것밖에 못 먹는 거야”라고 불평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숨기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좀비 언니들이 떼로 와서 기모 레깅스랑 펠트 워머”를 입혀주는 듯한 불쾌한 감각을 느끼는 와중에도 “우리”는 고기를 먹는다. 이윽고 “우리”는 “기름종이를 나누어 가지고 립밤도” 함께 바르고, 밤거리를 걷는다. “천국에 못 간 돼지들”이 “우리”의 몸에 “아직도 붙어 있”다고 느끼면서, 숨이 차게 밤거리를 걷

278) 『오늘 같이 있어』, 100쪽.

는다. 하지만 이내 걷기를 포기하고 “택시를 잡아”타고, “다들 걸어가는데 우리만 달려가니까/ 우리만 앞으로 나가는 거 같”다며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 택시를 타는 과정까지 불쾌감과 죄책감, 수치심 등을 느끼지만 “택시”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들을 둘러싼 감정들을 재구성하게 된다. “택시” 안에서 “우리만 앞으로 나가는 거 같”은 감각을 느끼며 부정적인 정동을 재전유하는 것이다.

한편 택시에서 내릴 때쯤, “너”는 “나”에게 “붙어 앓”아 “내 손을 잡고, 뺨히 보면서”, “가지 마/오늘/같이 있자”고 속삭인다. “너”의 속삭임에 “나”는 “분홍색 면봉이 콧바퀴를 들락날락”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데, 이때 성적 긴장감이 표출되고 “우리”가 오늘 밤에 함께 있을 것이 암시됨으로써 ‘너’와 ‘나’의 관계가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다. 시에 등장하는 두 여성의 관계가 ‘로맨스’의 차원에서 재배치되는 양상은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부정적인 정동을 감당하기 위해 “걷기”를 실천하는 과정을 필수로 경유하게 된다. 이때의 “걷기”는 살이 쪼갤 것에 대한 불쾌함과 살육에 대한 모종의 죄책감을 떨치기 위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얼마 안 가서 “걷기”를 포기한다는 사실이다. “걷기”를 포기한 이들은 “택시”를 타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선택을 통해 비로소 자신들을 압박하던 정동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이처럼 “나”와 “너”는 “택시”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복합적인 정동의 집합체로 탄생하게 된다. 다소 위악적인 것처럼 보이는 화자와 대상의 목소리로 구성된 위의 시에서 “나”와 “너”의 관계가 여성 간 로맨스의 차원에서 재정립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시 전반에 내재한 퀴어 정동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퀴어 존재가 서로 모순된 정동을 감각하는 것 자체가 세계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실천의 일부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퀴어 정동 정치의 양상 또한 짚어낼 수 있다.

4. 나가며

퀴어를 중심으로 현대시를 독해하는 작업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바로 “어떤 시가 퀴어시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퀴어시의 범주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퀴어시를 한정하려는 시도는 그것을 하나의 장르로 주변화하고, 고착시키는 시도와 다르지 않으며 이는 퀴어가 지닌 본연의 정치성을 간과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어떤 시든 퀴어시로 읽어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으며,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퀴어적 화자 즉, 퀴어 정체성을 수행하는 화자를 중심으로 시 읽기를 시도해보았다. 구체적으로 박상수 시에 드러난 레즈비언-되기와 퀴어 정동의 정치를 살펴봄으로써 퀴어시 읽기의 방식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박상수 시에서 ‘-되기’의 가능성이 시적 화자의 성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차원에 머물렀다면, 본고는 이를 ‘레즈비언-되기’의 가능성으로 확장하여 시적 화자의 성적 지향성의 차원까지 확대해보았다. 그럼으로써 ‘여학생’-되기를 수행하는 화자가 ‘레즈비언 소녀-되기’를 수행하는 지점까지 발견해볼 수 있었다. 나아가 그동안 부정적인 정동을 기반으로 불행한 감정의 표상으로 해석되어온 퀴어 존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음을 확인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퀴어 정동 정치’를 중심으로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정동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인 감정을 재구성하는 퀴어 화자의 면모를 의미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퀴어적 화자의 진술과 시적 태도에 주목하였을 때 그로부터 구체화 되는 이미지와 표상, 시적 정황을 ‘퀴어하게’ 읽어볼 수 있었고, “어떤 시든 퀴어시로 읽어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상수, 『후르츠 캔디 버스』, 천년의시작, 2006.
_____, 『숙녀의 기분』, 문학동네, 2013.
_____, 『오늘 같이 있어』, 문학동네, 2018.
_____, 『너를 혼잣말로 두지 않을게』, 현대문학, 2022.

2. 국내·외 단행본

-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정동이론』, 갈무리, 2015.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현실문화, 2018.
애너매리 야고스, 박이은실 역, 『퀴어이론 입문』, 도서출판 여이연, 2012.
전혜은, 『퀴어 이론 산책하기』, 도서출판여이연, 2021.
주디스 버틀러, 『혐오발언』, 알렙, 2016.
Sara Ahmed,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New York: Routledge, 2004.

3. 소논문 및 평론

- 강석희, 「굴하지 않는 여성 화자의 세계-박상수론」, 『청어람어문교육』 85, 청어람어문교육학회, 2022.
신나리, 「이브 코스프스키 세즈윅의 퀴어 인식론으로 한국 현대시 읽기: 박상수의 숙녀의 기분을 중심으로」, 『여성이론』 37, 도서출판여이연, 2017.
정끝별, 「한국 현대시, 퀴어링으로 횡단하기」, 『이화어문논집』 50, 이화어문학회, 2020.
_____, 「현대시 화자(persona)교육에 관한 시학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3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허성원, 「페미니즘의 퀴어정동정치를 향하여: 독해실천으로서의 퀴어정동이론」, 『한국여성학』 35, 한국여성학회, 2019.
_____, 「정치를 새롭게 읽어내는 퀴어정동정치: 한국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7, 한국문화사회학회, 2019.



‘살 만한 삶’을 위한 수행적 실천의 흔적들

- 최은미의 『눈으로 만든 사람』 279)을 중심으로

윤혜정(현대소설 박사과정)

차례

1. 들어가며
2. 물질화된 몸과 담론의 개방성
 - 2.1. 규범에의 종속과 구성적 외부의 산출
 - 2.2. 비순수한 젠더주체와 탈인용의 정치
3. 재현불가능한 ‘얼굴’과 ‘박탈’의 양가성
 - 3.1. 동일성의 폭력과 타자의 비인간화
 - 3.2. 상호의존적 관계와 책임의 윤리
4. 나가며

1. 들어가며

2008년 『현대문학』 신인상에 「울고 간다」가 당선되며 등단한 최은미는 비극적인 인간의 삶을 “사실적이면서도 환상적으로 그려”내는 작가로 평가받아 왔다.²⁸⁰⁾ 이러한 최은미의 소설들은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기보다는 “다른 가능성이 실현될 가능성 따위는 없”는 ‘아비지옥’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²⁸¹⁾ 특히, 『너무 아름다운 꿈』과 『목련정전』에 수록된, 현실과 신화적 공간을 넘나드는 작가의 초창기 소설들은 엄마로부터 딸에게로 대물림되는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최은미의 작품은 지상 바깥에 놓인 “모성 공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오기도 했다.²⁸²⁾

그런데 최은미의 세 번째 소설집 『눈으로 만든 사람』에서는 작가의 시선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지희에 따르면 『눈으로 만든 사람』은 “지옥의 알레고리”를 통해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냉혹한 인식을 보여준 이전 소설과는 달리, 그것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상의 공간에서 발견한다.²⁸³⁾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은 그간 작가가 주목해왔던 혐오적 대상으로서의 “이질성의 형상”²⁸⁴⁾을 다루면서도 “현실적 상상력”²⁸⁵⁾을

279) 최은미, 『눈으로 만든 사람』, 문학동네, 2021. 이하 인용은 본문에 괄호 안 쪽수로 표기한다.

280) 김수지·김미영, 「젠더지리학을 통해 본 소설의 공간과 장소: 최은미의 「근린」, 「백 일 동안」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83, 2020, 59쪽.

281) 김형중, 「미리 결정된 지옥에서: 최은미의 『목련정전』에 대하여」, 『후르비네크의 혀』, 문학과학사, 2016, 342쪽.

282) 신수정, 「가시덤불 아래에서: 최은미의 소설과 고딕 엄마」, 『문학동네』 28(3), 문학동네, 2021.

283) 강지희, 「파열하며 새겨지는 사랑의 탄성」, 『파토스의 그림자』, 문학동네, 2022, 272쪽 참조.

284) 최은미 소설 속 “이질성의 형상”에 주목하는 최정우의 글은 최은미의 「여기 우리 마주」에 드러난 ‘우리’와 ‘우리가 아닌 이들’ 사이의 경계를 가르는 배제의 메커니즘을 살피면서 소설에서 ‘적’의 형상으로 드러난 얼굴들이 어떻게 비가시화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정우, 「얼굴과 마스크, 상처와 가면들: 최은미 「여기 우리 마주」의 (비)가시적 얼굴들, 정체성을 (탈)구성하는 이질성의 형상들」, 『문학들』 65, 심미안, 2021, 253쪽.)

285) 박동익 외, 「이 계절에 주목할 신간들」, 『창작과비평』 49(3), 창작과비평, 2021, 421쪽.

토대로 기존 질서에 저항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또한 이 소설집에 수록된 최은미의 작품들은 대부분 잃어버린 존재들을 상기시키는 “상실의 감각”²⁸⁶⁾을 다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소설 속 인물들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상처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상처를 들춰냄으로써 체제 바깥이 아닌, 체제 내에서 폭력에 대항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²⁸⁷⁾

그런데 이렇게 배제의 메커니즘이 지닌 폭력성을 고발하면서 그로부터 현실을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최은미의 소설은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젠더 트러블』을 통해 젠더 계보학을 표면화하는 작업을 실천한 주디스 버틀러는 전기의 저작들에서 ‘수행성’ 이론을 구체화시켜나갔는데 이러한 버틀러의 작업은 “지배질서 전복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도출”²⁸⁸⁾했다. 이후 버틀러는 기존의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할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해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그가 주목한 것이 바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폭력의 양상들이었다. 특히 9·11 사건은 버틀러에게 몸을 가진 이들이 모두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그는 관계에 관한 사유의 필요성을 보다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버틀러의 변화는 “수행성”에서 “복수적 수행성”으로의 전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버틀러에 따르면 몸은 의미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물질적인데, 이는 곧 육체가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말과 같다. 여기서 문제는 몸에 의미가 새겨지는 과정에서 정상과 비정상, 즉 주체와 타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몸에 새겨진 규범은 반복·인용되면서 그것을 작동하는 권력을 은폐시키는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사회의 여러 규범들을 고정 불변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지점에서 버틀러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구성적 외부’를 발견하는 일이다. 이 존재들의 ‘급진적 인용’은 주체의 한계와 경계를 밝혀줌으로써 기존의 체계를 위협하는 동시에 이들을 해방의 길로 이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버틀러의 관심사가 “주체의 속성”에서 “사회적 관계의 속성”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수행성 이론에 ‘복수성’의 개념이 더해지게 되는데 이때 주목할 개념이 바로 ‘취약성’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를 알지 못하며, 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취약성’이라는 특성을 공유한다.²⁸⁹⁾ 이는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상호의존적’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버틀러가 보기엔 이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이 사회적 유대관계의 불가피한 속성”²⁹⁰⁾이다. 물론 이것은 주체가 ‘박탈’당한 존재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체를 위협에 빠뜨린다. 그러나 버틀러는 박탈된 주체를 드러냄으로써 상호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단일한 주체의 개념에 도전하는 동시에 국가적 폭력에 대항할 수 있다고 말한다.²⁹¹⁾

286) 강지희, 앞의 책, 273쪽.

287) 전승민은 최은미의 『눈으로 만든 사람』에 수록된 작가의 소설들이 폭력의 피해자성에 대해 다루면서도 그것에서 “고통의 승화나 치유, 혹은 고립이나 은폐와 같은 단어를 배격”하고 있음을 짚어내면서 ‘흔적’으로 남아있는 이들의 기록이 최은미의 소설에서 현재화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전승민, 「원한과 사랑 사이의 두 여자(들)」, 『문학동네』, 문학동네, 2021, 300쪽.)

288) 김혜령, 「레비나스 얼굴 윤리학의 진보적 수용」, 『레비나스 철학의 맥락들』, 그린비, 2017, 237쪽.

289) 윤조원, 「“살 만한 삶”을 향해: 『젠더 트러블』에서 『비폭력의 힘』까지」, 『인문과학논총』 40(4),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25쪽 참조.

290) 주디스 버틀러, 『비폭력의 힘』, 김정아 역, 문학동네, 2021a, 258쪽.

이렇듯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은 사회적 규범뿐만 아니라 타자의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의 불안정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영향 관계를 바탕으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저항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만든 사람』에 수록된 최은미의 소설들에서도 이러한 지점들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의 2장은 규범에 종속되었지만 동시에 이를 전복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물들의 물질화된 몸을 중심으로 최은미의 소설을 분석할 것이며, 3장은 취약한 인간의 재현되지 않는 얼굴과 이들이 맺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최은미의 소설들을 살피고자 한다. 1절은 배제와 소외를 만들어내는 사회의 폭력성을, 2절은 그러한 사회에 대항하는 인물들의 저항적 측면을 다룰 것이다.

2. 물질화된 몸과 담론의 개방성

2.1. 규범에의 종속과 구성적 외부의 산출

최은미의 소설들은 다양한 여성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이들의 몸에 강제적으로 새겨진 여러 규범들이 이 여성들의 삶을 얼마나 옥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그려내고 있다. 이는 작가의 이전 작품들에서도 발견되는 여성들의 속박된 삶에 대한 관심이 이 소설집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가 통제되는 상황은 친족 성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 「눈으로 만든 사람」(2016)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소설에서 가해자인 삼촌 ‘강중식’은 아픈 아들 ‘강민서’를 윤희에게 맡기고 또 윤희에게 “손가락밖에는 안 넣었다”(125)고 말하며 과거의 일을 변명할 정도로 뻔뻔한 인물로 그려진다.

한편 성폭력의 피해자인 ‘강윤희’는 어린 시절 생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딸의 몸에도 강박을 가지는 모습을 보인다. 시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성호르몬제를 맞고 번식을 반복한 초식동물들의 고기”(108)를 먹고 자란 윤희의 딸 아영은 ‘성조숙증’ 증상을 겪게 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아영은 8살 때부터 “초경을 늦춰준다는 한약”(104)을 먹기 시작한다. 이미 몸에 대한 강박을 지니고 있었던 윤희는 아영의 발육이 남들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딸의 몸을 더 심하게 통제하려 하는데 이러한 몸의 통제는 몸을 넘어 아영의 삶 전체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진다.

강윤희는 백아영이 하는 것들을 사사건건 금지시켰다. 심심하면 먹던 우유와 두유도 못 먹게 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시켜 먹던 치킨, 피자도 끊었다. 환경호르몬 덩어리라는 플라스틱 장난감도 다 내버렸고 성조숙증 유발 성분이 들어 있다는 화장품이나 매니큐어는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 성적 자극을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같이 보던 인기 드라마에서 불시에 키스 신이 나왔을 때는 백아영을 방으로 쫓아버렸다. 학원 앞에서 친구 엄마에게 닭강정을 사달라고 조르는 백아영을 본 날, 강윤희는 주방 구석에 백아영을 몰아넣은 채 다그치고 닦달했다. 강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백아영은 두 손바닥을 비비면서 강윤희에게 빌기 시작했다.(108)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윤희는 아영이 하려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자 한다. 윤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 궁극적인 원인이 삼촌 중식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희는 가족의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윤희에게 쌓인 분노의 화살이 향한 곳은 바로 자신과 아영의 몸이었다. 소설에서 윤희는 아영의 조숙한 몸뿐만 아니라 피

291) 버틀러는 박탈이 양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박탈은 자족성을 한계지음에 따라 우리를 관계적이고도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확정지을 수 있게 하는 반면, 박탈은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과 시민권을 잃어버리거나 법적 폭력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때 생겨나는 현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아네타 아타나시오우, 『박탈』, 김웅산 역, 자음과모음, 2016, 21-22쪽 참조.)

임을 위해 남편과의 성관계 또한 강하게 거부하는데, 이는 육체성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에 대한 윤희의 강한 적대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육체에 의미가 새겨지는 과정에서 비천한 몸들이 끊임없이 생산된다는 것이다. 육체성에 관한 버틀러의 분석은 무엇보다 “물질을 ‘타자’로서 거부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춘”추고 있는데 버틀러가 보기엔 이러한 ‘거부’가 주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²⁹²⁾ 버틀러에 따르면 “성 정체성이 권력 담론에 의해 생산된다고 할 때,” 이 담론은 특정 정체성만 포획하고 “그 외의 것들은 배제하는 이중의 의미화 작용을 수행”한다.²⁹³⁾ 그리고 이때 배제의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을 버틀러는 담론의 ‘구성적 외부’로 칭한다. 우리 사회에서 비천한 것으로 여겨지는 신체들은 적절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방당하거나 교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데²⁹⁴⁾, 최은미의 소설에서 여성의 몸이 바로 구성적 외부로서 비체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최은미의 이전 소설을 비롯하여 많은 여성작가들의 작품에서 구성적 외부로서 여성의 비천한 몸은 가부장제의 폭력성 고발하는 장치로 이용되어왔는데, 작가의 이번 소설집에 수록된 또 다른 작품인 「운내」(2019)는 이러한 도식을 따르면서도 그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확장된 차원을 제시한다. 열세 살 소녀인 ‘나’와 승미가 ‘기와유리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룬 소설 「운내」에서 이 소녀들은 “남성 친족의 악의적인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와유리집’에 추방되듯 보내진다.²⁹⁵⁾ 기와유리집은 도시에서 벗어난 공간이지만 여전히 가부장제의 규범과 함께 이성애의 규범이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배체제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 그리고 이곳으로 보내진 사람들은 수련방에서 “살아온 과거를 시간순으로 떠올리며 과거를 시각화”한 후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모두 차례차례 지구에 버리는 것을 훈련받는다.(162) 이 수련법의 목적은 더러운 피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을 위한 치료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곧 이곳으로 추방된 이들이 사회에서 배제됨에 따라 비체화된 영역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나’와 승미 역시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병리적 상태를 진단받고 이곳으로 보내진 인물들이다. 승미는 ‘까진’적이 있으며, ‘나’에게는 계속 ‘트웃’이 찾아온다. 이 현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소설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망과 두려움을 담고 나를 보던”(164) 엄마의 눈빛이 말해주듯 이들의 증상은 이 세계에서 문제적인 것으로 취급당한다. 물론 ‘나’에게도 “자신은 사실 열한 살이라고”(174) 고백하는 승미는 이 세계의 질서로는 이해될 수 없는 아이이다. 때로는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 질환으로, 또 때로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으로 이 소녀들을 규정하는 말들은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기제로 이용된다.

나는 나무 속으로 숨어든다. 달린다. 나무들이 다 듣도록 뺨어버린다. 나는 니가 내 감지에 뿔

292) 비키 커비, 『주디스 버틀러』, 조고은 역, 책세상, 2022, 119쪽.

293) 고원, 「육체와 주체: 미셸 푸코에서 주디스 버틀러까지」, 『역사와 문화』 10, 문화사학회, 2005, 116쪽.

294) 구성적 외부로서의 비천한 신체를 이야기할 때 버틀러는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논의를 참조한다. 크리스테바는 어머니의 존재가 사회에서 더럽고 친한 것을 의미하는 ‘비체’로 여겨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생리현과 출산의 경험을 지닌 어머니의 몸이 오염된 육체를 표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정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버틀러는 이러한 크리스테바의 비체 이론으로부터 ‘나’와 다른 것을 외부로 축출하면서 주체와 타자를 구분하고, 고정된 정체성을 상정하는 배제의 메커니즘을 발견한다. 물론 버틀러에게 비체의 구성 방식은 비단 어머니의 몸을 축출하는 방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섹스, 섹슈얼리티, 인종을 배제하는 방식과도 일치한다.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b, 336쪽 참조.)

295) 강지희, 앞의 책, 228쪽.

썼는지 다 알아. 너는 흰 종이엔 못 쓰지. 감지에만 쓰지. 너는 소반에 딱풀을 세워놓고 찢덕한 왕자 놀이를 했어. 너는 까졌어. 나는 누가 널 깎는지 다 알아. 그래도 넌 사랑한다고 쓰지. 너는 구걸을 해. 너는 까졌어. 니 몸은 더러운 피가 가득해.

나는 내가 내뱉는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에 얼어붙는 건 승미가 아니라 나다. 그 소리에 다치는 건 승미가 아니라 나다. 나는 숨을 꺾꺾거리며 나한테서 튀어나오는 트웃을 듣는다. 목련나무들이 내 소리를 먹었다가 몇 배로 부풀려 뱉어낸다.(189)

너는 까졌고 니 몸은 더러운 피가 가득하다는 인용문의 말들은 사회에서 승미와 같은 이들이 '거부'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정가를 '정까'가 아닌 '정가'로 읽는 승미는 엄마가 심어주는 죄책감을 이해했던 과거의 '나'의 기준에서는 '멍청한' 아이라 할 수 있다. 깨끗한 피를 지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잘 시각화되어야 하는데, 명료하게 설명되지 않는 승미의 행동들은 주체의 "구성적인 자기동일화 과정"²⁹⁶⁾에 의해 항상 부인된다. 물론 여기서 핵심은 '나'가 승미를 도구로 삼아 다시 태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타자를 상처 주는 말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알고 있는 '나'에게 승미를 향한 혐오의 말들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최은미의 소설은 이렇게 구성적 외부가 산출되는 과정을 그려냄으로써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주체 구성의 방식을 은폐하지 않고,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비순수한 젠더주체와 탈인용의 정치

버틀러는 그리스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²⁹⁷⁾에 등장하는 안티고네의 "고유의 재현 기능 그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며 안티고네를 "미결정의 주체"로 분석한다.²⁹⁸⁾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기존 학자들이 안티고네를 국가법에 대항하는 친족법을 대표하는 여성인물로 보거나, 순수하고 영웅적인 주체로 격상시킨 것과 달리, 버틀러는 그녀를 "그 어떤 동일시도 불가능한 모호하면서도 비순수한 주체"²⁹⁹⁾로 본다는 것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젠더 규범을 교란시키는 인물인 안티고네는 "남정보다도 무모한 용기의 과잉을 보여주어 젠더 역할을 전복"³⁰⁰⁾한다. 또한 버틀러에게 "안티고네는 더 이상 순수하지도 영웅적이지도 못하며," 애도에 실패하여 오빠를 자기 안에 합체하고 있는 '우울증 환자'로 묘사된다.³⁰¹⁾

296) 주디스 버틀러,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김윤상 역, 인간사랑, 2003c, 215쪽.

297)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 안티고네는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매장을 금하는 왕이자 삼촌인 크레온의 명을 어기는데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산채로 동굴에 넣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강미라, 「친족과 국가 밖의 안티고네: 버틀러의 『안티고네』 해석」, 『철학과 문화』 20, 한국의국어대학교 철학문화연구소, 2010, 2쪽 참조.)

298) 주디스 버틀러, 『안티고네의 주장: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친족 관계』, 조현순 역, 동문선, 2005d, 14;156쪽.

299) 김미현, 「오정희 소설의 우울증적 여성언어: 『저녁의 게임』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49, 우리말글학회, 2010, 254쪽.

300) 조현순, 「공적인 주장에서 욕망의 고백으로: 버틀러의 『안티고네』 다시 읽기」, 『비평과이론』 24(2), 한국비평이론학회, 2019, 75쪽.

301) 주디스 버틀러(2005d), 앞의 책, 145쪽.

버틀러는 안티고네를 대상을 떠나보내지 않고 자아 속에 합체한 우울증 환자로 읽어낸다. 그녀가 폴리네이케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빠의 죽음을 애도할 때, 그 호명은 호명자의 의도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그녀의 오빠는 어느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즉 안티고네의 애도 행위는 오빠로 불리어 질 수 없는 다른 오빠들에 대한 사랑을 우울증적으로 합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호, 「누가 안티고네를 두려워하는가: 안티고네를 둘러싼 비평적 쟁투」, 『누가 안티고네를 두려워 하는가: 성차

최은미의 소설 속 인물들에게서도 이러한 안티고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 주목할 부분이 「눈으로 만든 사람」의 윤희가 ‘씨탈정’을 복용하는 등 우울증을 앓고 살아가면서도 은밀한 욕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윤희는 피임을 걱정해야 하는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도, 마음 속 깊이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망을 안고 살아간다.

모든 걸 놓아버리고 몸을 쓰는 데에만 열중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다. 자신의 성격이나 직업이나 가치관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강윤희라는 여자의 몸 자체에 관심이 있는 남자. 강윤희는 그런 남자와의 원 없는 섹스를 꿈꾸었다. 그 남자는 백은호만은 아닌 어떤 남자였고, 강윤희에게 현실적인 피임의 문제는 오직 백은호하고만 관련이 있었으므로 피임을 안 해도 상관없을 것만 같은 그런 남자였다.(115-116)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때때로 윤희는 “모든 걸 놓아버리고 몸을 쓰는 데에만 열중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자신의 그 어떤 조건도 상관없는 남자와의 “원 없는 섹스”를 꿈꾼다. 이러한 윤희의 욕망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그녀를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내로 남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윤희가 원하는 것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섹스가 아니라, 행위 자체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섹스였는데 바로 이러한 윤희의 모습 속에서 친족법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는 젠더주체의 저항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소설에서 눈 여겨 볼만한 지점은 소설의 결말부로, 오랫동안 원망해온 중식의 아들이지만 그런 민서에게 위로받기도 했던 윤희는 민서가 떠난 이후 딱딱했던 눈사람이 녹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후 그녀는 남편 은호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느낌을 가지고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장면이 중요한 까닭은 적어도 여기서는 윤희에게 은호가 자신을 옹아냈던 가족 구성원 중 하나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녀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존재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희가 그토록 갈망했던 남자가 “백은호만은 아닌 어떤 남자였”다는 점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들이 맺은 정관계는 분명 이전의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소설은 윤희를 통해 “규범을 반복하지만 그 반복에서 일관성을 이탈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창출”³⁰²⁾하는 젠더주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운내」에서는 ‘나’와 승미가 안티고네와 같은 비순수한 젠더주체로 분석될 수 있는데 승미와 ‘나’의 일탈적 행위는 이 소녀들이 세계로부터 추방당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존 사회의 질서에 균열을 가하는 힘으로서 작동하기도 한다. 이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소녀들이 내뱉는 “깨어진 언어들”³⁰³⁾이다. 마찰음이나 파열음으로 구성된 이 말들은 소녀들의 발화에서 종종 파편적으로 튀어나오는데 이것은 폭력적인 세계로부터 이들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기존세계의 질서와 언어체계를 허무는 역할을 한다.

내게 그것이 와도 , 트웃이 와도, 누구도 알은체하지 않는다. (...)

트웃이 온 나를 쳐다보는 건 승미뿐이다. 나보다 한참 어린 내 동생도 내게 트웃이 올 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승미는 나를 본다. (...)

“트웃은 어떨 ㅏ 와?” “.....그냥 줌,돼할 ㅏ?” “트웃은 ㅇㅅ ㄱㅅㅇㅇ?” “ㄱㅅ 슌, 쓰리쓰리해.” “꼬스어 줄ㅏ?” “스ㅅ고.” “고수.”(169-170)

의 문화정치』, 문학동네, 2014, 72-73쪽 참조.)

302) 김미현, 앞의 글, 261쪽.

303) 강지희, 앞의 책, 278쪽.

위의 인용문은 ‘나’에게 통제할 수 없는 ‘트웃’이 찾아오는 순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승미를 만나기 전 가족을 비롯해 ‘나’ 관계 맺고 살아왔던 이들은 “내게 그것이 와도” “누구도 알은체하지 않”았다. 관습적인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온 사람들에게 ‘나’가 내뱉는 말들은 정상성에서 이탈한 존재의 언어,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저 스쳐지나가는 말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은 ‘나’의 깨어진 언어를 무시했지만 승미는 달랐다. 그녀는 ‘트웃’이 찾아온 ‘나’를 보면서 ‘함께’ 깨어진 언어를 사용한다. 반복과 인용 속에서 기존 언어의 관습이 구획되어왔다면, 이 소녀들의 말들은 ‘탈인용’의 효과를 만들어냄으로써 닫힌 내부의 전복을 일으킨다.

자크 데리다의 언어 이론을 참조하는 버틀러에 따르면 언어는 반복과 인용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수행적인데, 그러한 인용은 늘 동일하게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는 늘 재맥락화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닌다. 물론 언어 자체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리다와 달리 버틀러는 언어의 미끄러짐으로부터 불안정한 삶의 근거를 발견한다. 버틀러에 따르면 “알려져 있지 않은 맥락들을 개방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분명 불안의 근거”³⁰⁴⁾가 되는데, 이는 곧 남성 중심적인 세계에 대한 교란으로 연결된다. 가령 모든 것을 시각화해야 하는 「운내」의 공간에서 두 소녀의 언어는 기존 세계의 규범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 소녀들의 깨진 언어는 “소음인 여자와 사랑”하는 것이 꿈인, “후궁을 끼안는 사극을 보고” 소녀들에게 “당신의 눈을 가려보라” 말하는 군복 우와기 어른의 “ㄷㅎ”고 “ㄷ 쏘리”는 행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177)

나아가 이 소녀들의 접촉과 교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청혈과 사혈 장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의 등줄기를 긁어내리는 승미의 행위는 ‘나’의 피를 맑게 해주는 청혈 요법으로, 이 장면에서 폭력적인 현실 체제에 균열을 가하는 주체의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금기된 선을 과감하게 넘어서는 이 소녀들의 행위는 결국 승미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결말을 단순히 지배 체제에 맞서 싸운 개인의 실패로만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건 이후 산주님의 수련방은 폐쇄되었고 기와우리집은 문을 닫게 되었으며 ‘나’는 여전히 “트웃을 물리치지 못”하고, “엄마와 화해”하지도 않는다.(193) 무엇보다 소설은 그 시선을 남겨진 자, 즉 승미를 자신 속에 합체하고 살아가는 ‘나’에 두면서, 끊임없이 구성적 외부로 산출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속 미끄러지면서 세계와 불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바로 체제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의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3. 재현불가능한 ‘얼굴’과 ‘박탈’의 양가성

3.1. 동일성의 폭력과 타자의 비인간화

최은미의 『눈으로 만든 사람』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폭력과 위협에 노출된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소설 속 인물들에게 닥친 재난은 이들의 일상을 더 이상 평화롭게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언제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는 위기에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운 일기기에 이들의 삶은 늘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재난은 특정한 대상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미국의 9·11 사건은 강대국조차도 갑작스러운 공격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은

304) 주디스 버틀러, 『혐오 발언』, 유민석 역, 알렘, 2022e, 306쪽.

자신이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버틀러는 리버럴 이론가들이 강조해 온 자립적이고 강인하며 남성적인 개인은 ‘자연상태의 판타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버틀러는 “자율적인 자아라는 환상”³⁰⁵⁾을 비판하며 “‘나’라는 존재는 순수성과 동일성의 장이 아니라 타자성과 이질성의 장”³⁰⁶⁾임을 강조한다. 인간은 근대적 주체의 자율성이나 성찰성과는 무관한 취약한 몸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처해진 속박의 상태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때 버틀러가 끌어오는 개념은 바로 ‘박탈’로, 버틀러에 따르면 “우리가 여러 사회적 형태의 박탈에 취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호 의존성 때문”³⁰⁷⁾이다. 박탈은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거부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의존의 흔적을 지우면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살펴볼 만한 작품은 코로나19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여기 우리 마주」(2020)이다. 이 소설은 갑작스러운 재난에 의해 불안정하고 취약한 삶의 조건을 마주하게 된 인물들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공방을 운영하는 여성인 ‘나’는 “2020년 3월에 맞춰 구 년 만의 탈출 공방을 계획”한다. 그러나 공방 오픈 시기가 코로나 확산과 맞물리면서 “일을 벌였는데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그녀는 “여러모로 죄인이 된 기분”으로 가정에서 살아가게 된다.⁽⁵⁹⁾ 보통 우리 사회는 위기에 처했을 때 불행을 닦할 대상을 찾으려 하는데 대개 가정을 돌보는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청받는 기혼여성은 그 타깃이 된다. 예컨대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여성들의 외부적 접촉은 다른 가족 구성원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추어진다. 갑자기 들이닥친 재난으로 생긴 분노의 화살이 이 여성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여성들 역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또 다른 약자를 향한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이다. 나와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과 다른 집단을 향해 혐오의 말들을 뱉어낸다. 소설에서 이러한 지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실제 일어난 일이기도 한 ‘이태원 클럽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너네들이 클럽에서 쳐놀지만 않았어도.

너네들이. 너네들이!

맘 카페는 폭발했다.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아침 여섯시까지 놀다 온 기정시 53번 확진자, 그가 거주한다는 D 오피스텔이 어디인가. 그가 증상 발현 전에 들렀다는 K 편의점은 또 어디인가. 시청은 동선 공개를 이따위로 할 것인가? 정체를 숨긴 놈들이 지역 사회를 확보하고 있는데! 밤새 성토하고 찢고 찌르는 글들이 이어졌다.⁽⁷⁷⁻⁷⁸⁾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정상적으로 보내고자 했던 엄마들의 기대는 이태원 사건 이후 다시 강화된 방역 정책에 의해 무산된다.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여러 희생과 비난을 감수하고 애써왔던 이들에게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아침 여섯시까지 놀다 온 기정시 53번 확진자”는 이 사회에 위협과 해악을 안겨다 준 이로 비추어진다. 실제로 당시 코로나 확진자의

305)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252쪽.

306) 윤지영, 「자기 자신에 대한 역사화 작업은 자기 단언인가, 자기 제작인가」, 『미국사연구』 38, 한국미국사학회, 2013, 285쪽.

307) 주디스 버틀러·아네타 아타나시오우, 앞의 책, 24쪽.

동선이 공개될 때마다 확진자들을 향해 쏟아졌던 비난의 목소리를 떠올려본다면 소설 속 형상화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태원이 기점이 된 코로나의 재확산은 53번 확진자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범위에서 벗어나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강력한 혐오의 정서를 만들어냈다.

버틀러에 따르면 취약한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때때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자신과는 다른 집단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타자를 배제시키고 비난한다. 여기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동일성’의 폭력인데 나와 같지 않는 존재들, 즉 비인간으로 여겨지는 타자들은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체가 취약하지 않음을 증명해 줄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9·11 사건 이후 대중매체에서 오사마 빈라덴과 같은 얼굴이 ‘악인의 얼굴’로 재현될 때 그들의 얼굴에서는 인간적인 것이 제거된다. 이렇게 재현된 얼굴은 우리로 하여금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기제가 되는데, 이들의 얼굴은 “테러 자체의 얼굴, 기만의 얼굴, 폭군의 얼굴로 작동하면서 폭력의 조건”³⁰⁸⁾이 되어온 것이다. 버틀러는 이렇게 “적의 얼굴을 이미지화 하여 악을 인격화하는” 작업이 결국에는 “전쟁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대중에게 세뇌시키고, 전쟁을 끊임없이 선동한다고 비판한다.”³⁰⁹⁾

최은미의 인물들 역시 재현의 과정에서 비인간화되는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자신과는 다른 존재들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비단 이태원 사건뿐만 아니라, ‘나’가 다른 여성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는데 ‘나’의 고백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의 혈관 수치에 일희일비하며 야채주스를 갈아 바치는 여자들을” “오랫동안 혐오해왔다.”⁽⁷²⁾가 부장제의 폭력에 맞서 싸우지 않고 이에 공모하는 여자들, 그래서 일하는 자신을 나쁜 아내이자 엄마로 만드는 이들에게 혐오의 감정이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폭력의 연쇄작용은 정작 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권력의 실체를 은폐시킨 채 약자들의 내부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최은미의 소설은 이렇듯 “불평등에 대한 항의가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은밀하게 치환되는 국면”^{을310)}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 속에서 읽어낸 후 이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친족 성폭력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 「내게 내가 나일 그때」(2019)에서 성폭력의 피해자인 유정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소설 역시 ‘나’에게 가해진 폭력이 또 다른 폭력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소설에서 유정을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오랜 세월동안 ‘나’를 괴롭혀 온 인물인 ‘재상이 삼촌’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무해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또 다른 ‘삼촌’이자 친동생인 ‘유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늘 가학적인 태도로 그를 상대한다.

유정은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흩어지는 말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정은 그 말이 거기에 있는 사람 중 하나를 찌를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유태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유정이 스스로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유태는 이미 아는 것이다.

미산 내린천휴계소 사층의 삼각 창 옆에서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유정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이 유태를 얼마나 다치게 하고 싶어하는지. 유정은 유태를 피 흘리게 하고 싶었다. 울음도 나오

308)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인종의 젠더 계보학과 타자의 정치 윤리학」, 『인문학연구』 17,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0, 192쪽.

309) 김혜령, 앞의 책, 263쪽.

310) 김녕, 「다시, 부패된 조건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관리철학’의 역풍과 최근 소설들의 분투」, 『창작과비평』 47(2), 창작과비평, 2019, 417쪽.

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주고 싶었다. 자신이 마침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가장 힘들어할 사람이 유태이길 유태정은 바랐다.(261)

유태정은 유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내뱉음으로써 그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고 싶어 하며 살아왔다. 자신의 고통이 유태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유태정은 유태의 얼굴에서 자신에게 상처준 이들의 얼굴을 겹쳐보면서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을 또 다른 취약한 대상인 유태에게 그대로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즉, 자신과 자신의 딸을 다시 공격할지도 모르는 ‘적’의 얼굴을 유태에게서 읽어내고 있는 유태정은 폭력의 순환이라는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설은 폭력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그려냄으로써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 왜 고립되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유태정의 행위에 타인을 파괴하려는 공격성과 함께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태정은 다른 가족들에게 재상의 폭력을 직접 고백하는 대신 친족 성폭력에 관한 자신의 소설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간접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족들의 ‘침묵’이었다. 그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게 된 유태정에게 “두려운 것은 무언가를 체념한 채로 계속 가족들을 보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다시 혐오하게 되는 것이었다.”(264) 또한 폭력의 가해자인 삼촌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인 자신,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가족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 전체를 혐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 유태정은 결국 자신의 몸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없애버리”(269)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된다.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유태정은 자신을 구성하는 몸을 없애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유태정의 ‘죽음충동’이 발견되는데 버틀러에 따르면 이러한 죽음충동은 인간이 지닌 근본적 공격성으로부터 발생한다. 버틀러는 의존성과 취약성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근본적 공격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공격성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살핀다. 프로이트에게 ‘죽음충동’은 공격성의 한 갈래로 다루어지는데, “프로이트는 파괴가 다른 사람들에게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가해진다”는 점을 짚어내면서 이런 파괴가 “개인에게는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좀더 넓은 맥락에서는 사회가 유지되게 하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설명한다.³¹¹⁾ 세상을 향한 유태정의 증오심은 죄책감을 동반하는 초자아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그녀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아넣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최은미는 이렇게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공격성을 보이는 인물들을 제시함으로써 이 세계의 비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상호의존적 관계와 책임의 윤리

버틀러에 따르면 타자의 얼굴은 우리에게 살인 충동을 일으키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금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양가적이다.³¹²⁾ 갈등 속에서도 윤리적 노선을 택할 것을 요청하는 버틀러는 얼굴의 현현을 강조하는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을 참조하는데³¹³⁾ 레비나스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모든 선택 가능

311) 주디스 버틀러(2021a), 앞의 책, 204쪽.

312) 위의 책, 194쪽 참조.

313) 레비나스에게 “인간의 얼굴은 무엇보다도 고통과 죽음의 환기이고 상기이다. 인간의 얼굴은 허약

한 조건에 앞서” “그 조건을 마주하는 타자의 삶에 연루되어 있다.”³¹⁴⁾ 이러한 레비나스의 논의를 따라 버틀러는 삶의 조건으로서 ‘상호의존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타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실패’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버틀러가 보기에 인간적인 것은 얼굴에 의해 재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굴의 재현불가능성은 인간을 끊임없이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도록 만든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의 한계점에서 인간적인 것의 나타남과 사라짐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¹⁵⁾

최은미의 소설들은 계속적으로 얼굴의 재현이 실패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도 윤리적인 삶의 태도를 놓지 않음으로써 ‘책임의 윤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기 우리 마주」는 그 제목이 암시하듯, 지금까지 “‘여기 우리 마주’할 수 있었던 조건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동시에 앞으로도 여전히 ‘여기 우리 마주’할 수 있을까 하는 또 다른 (불)가능성의 물음을 새롭게 던”³¹⁶⁾진다는 점에서 버틀러의 문제의식과 일치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나’가 ‘수미’를 비롯한 공방 멤버들과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 얻는 ‘깨달음’이다. 이 여성들에게 ‘선생님’이기도 했던 ‘나’는 자신이 “어떻게 얼굴이 지워진 채로 다른 여자에게 다른 여자가 되어”(74)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로 묶였던 이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아닌 ‘적’의 얼굴로 나타났던 순간을 회상하며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를 생각한다.

이렇듯 잠재적 의심과 혐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의 얼굴은 온전히 재현되지 못한 채 모두를 고립시키지만, 중요한 것은 작가가 그러한 실패 속에서도 재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굴은 재현의 실패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능성으로부터 구성된다. 그것은 바로 ‘나’가 같은 딸아이의 엄마이자 미술 학원의 차량 기사인 ‘수미’라는 인물을 끝내 상실했음에도, 그녀와 함께 했던 기억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따금씩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었지만, 그 이상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던 수미는 ‘나’에게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재현되지도 않는 타자였는데 ‘나’는 이와 같은 재현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보건소에서 전화가 걸려오기 사 일 전은 2020년 5월 19일이었다. 나는 아마도 그날이 수미의 인생에서 많이 아픈 날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한다. 지우고 싶은 날 중 하나일 거라고도 생각한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지워주고 싶은 날일 거라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수미는 인생의 어떤 날보다도 그날에 대해, 그날의 접촉과 동선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수미가 그날의 세부를 어떻게 불러내고 어떻게 서술했을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84)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나’의 진술에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타자에 대한 자각과, 그럼에

함과 불행에 대한 준엄한 상기만큼이나 인간성의 흔적과 반영을 그 안에 지니고 있다.” 레비나스는 누군가가 죽을 때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인류 전체라고 이야기하며, “타자의 죽음이 야기하는 모든 슬픔에는 정지된 그 생명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미카엘 드 생 세롱, 『엠마누엘 레비나스와의 대담. 1992-1994』, 김웅권 역, 동문선, 2008, 36:63쪽)

314) 주디스 버틀러,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 양효실 역, 시대의창, 2016f, 88쪽.

315) 주디스 버틀러, 『위태로운 삶』, 윤조원 역, 동문선, 2022g, 215쪽.

316) 최정우, 앞의 글, 268쪽.

317) 주디스 버틀러(2022g), 앞의 책, 207쪽 참조.

도 그의 마음을 헤아려보려는 나의 시도가 모두 담겨 있다. 이 장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까닭은 ‘나’가 관계 속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취약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음에도, 누군가를 이해해보고자 했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타자의 얼굴을 재현하는 것이 실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소설은 그 실패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실패를 예견하고도 소설에서 시도되는 얼굴의 재현은 폭력적인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마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윤리적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내게 내가 나일 그때」는 재현의 실패 속에서 발견되는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비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폭력의 피해자였던 유정이 동생 유태에게 공격성을 드러낸 것처럼, 유정에게 무해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기억되었던 창용이 오빠는 자신의 아내인 디엔을 두고 “한국말 늘더니 한국 여자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어해서 큰일”(255)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이주 여성인 아내를 무시하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자각한 유정에게 창용의 아내 디엔이 건넨 위로는 의존성이라는 인간의 근본적 조건이 인간을 파괴하는 힘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보존하는 윤리로도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멜라니 클라인을 경유하여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근본적 공격성이 타인의 삶을 지켜내려는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버틀러는 클라인이 강조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공감의 감정에서 그 가능성을 읽어내고자 하는데³¹⁸⁾ ‘나’와 디엔의 관계에서 그러한 정서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 세상을 혐오했던 유정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봐준 것은 유정과 한번도 ‘우리’로 묶인 적이 없었던 디엔이었다.

갑자기 고함소리가 들리면서 눈앞이, 달려오려는 유태의 모습을 밀어버리면서 차 한 대가, 유정의 앞으로 다가와 유정을 낚아채 실었다.

누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화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유정은 더이상 어찌지 못한 채 차가 빠른 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고가를 돌기 시작하는 것을, 삼각 접시의 불빛이 까마득하게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교각 기둥이 점점 눈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야 유정은 차가 마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정은 디엔이 계속 베트남어로 흥분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쓰러지듯 눈을 감았다.(271-270)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죽음충동에 휩싸인 유정에게 달려온 인물은 바로 디엔이었다. 유정을 차에 싣고 ‘미산’으로 향하면서 디엔은 유정은 알아듣지 못하는 자신의 고국어로 흥분과 화를 표출한다. 디엔은 유정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녀가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통을 겪어 왔다는 것, 그리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취약한 몸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유정은 디엔과 창용의 집에서 하루를 머물고 떠나게 되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이들은 깊은 감정적 교류를 나누지는 않지만, 속눈썹 펴를 하러 다시 오겠다는 유정의 인사와 연락하겠다는 디엔의 대답 속에서 이들이 잠시나마 서로에 의해 위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삶의 고통 속에서 다른 이들과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고통을 응시함으로써 유정의 생명을 지켜냈던 디엔의 행위는 ‘죽음’을 ‘생존’으로, ‘위태로운 삶’을 ‘살 만한 삶’으로 전환시키는 비폭력의 실

318) 클라인은 나를 향한 공격의 형태인 ‘죄책감’이 “사회적 유대를 끊어내는 부정적 자기에”로 전환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에 관해 설명해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감정과 욕망을 우선시하는 감정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주디스 버틀러(2021a), 앞의 책, 127쪽.)

천으로 읽힐 수 있다. 이렇게 작가는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마주’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소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러한 이야기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4. 나가며

최은미의 인물들은 대부분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작가는 소설을 통해 그러한 삶이 사실은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임을 제시한다. 나는 정상일 것이라는 안일하고도 폭력적인 생각은 권력의 작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규범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굳어지는데, 그러한 규범이 반복적으로 인용될 때 바로 ‘구성적 외부’가 산출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배제의 메커니즘으로부터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 취약한 몸을 지닌 존재들로서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규범에 의문을 품을 수 있어야 하고, ‘나’와는 다른 존재로 여겨져 왔던 이들의 ‘얼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본고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눈으로 만든 사람』에 수록된 4편의 단편소설들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기혼여성의 삶을 다룬 소설 「눈으로 만든 사람」과 소녀들의 반(反)성장 서사를 보여주는 소설 「운내」를 분석했다. 두 소설은 모두 가부장제의 폭력에 의해 상처 입은 여성의 몸을 제시하면서도 이러한 몸을 지닌 인물들이 기존 세계의 질서를 탈맥락화하는 양상을 그려내고 있다. 한편 3장에서는 코로나 19 시대의 우리사회 모습을 반영한 소설 「여기 우리 마주」와 친족 성폭력이라는 아픔을 가진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내게 내가 나일 그때」를 살펴보았다. 두 소설에서 취약성에 노출된 인물들은 타인에 대한 불신과 적대를 안고 살아가며 이 세계와 불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소설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나’를 폭력에 노출시키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 속에서도 비폭력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버틀러의 이론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판받는 것처럼 최은미의 소설 역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그 힘이 약하게 느끼질 수도 있다. 최은미는 이 세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희미하게나마 제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문제 삼는 작업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막 지옥에서 지상으로 발을 내딛은 최은미에게는 어떻게 불안정한 삶을 기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작가는 실패한 ‘흔적’으로 남아있는 수행적 실천의 형상들을 발견하는 작업에 무엇보다 몰두한다. 작가는 그 흔적들 속에서 그것을 실패로 남게 만든 이 사회의 폭력성을 읽어내는 동시에 그렇다면 그로부터 어떻게 다시 ‘살 만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최은미, 『눈으로 만든 사람』, 문학동네, 2021.

1) 국내 서적

강영안 외, 『레비나스 철학의 맥락들』, 그린비, 2017.

강지희, 『파토스의 그림자』, 문학동네, 2022.

김형중, 『후르비네크의 혀』, 문학과지성사, 2016.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어연, 2006.

2) 번역서

미카엘 드 생 세롱, 『엠마누엘 레비나스와의 대담. 1992-1994』, 김응권 역, 동문선, 2008.

비키 커비, 『주디스 버틀러』, 조고은 역, 책세상, 2022.

주디스 버틀러, 『비폭력의 힘』, 김정아 역, 문학동네, 2021.

_____, 『안티고네의 주장: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친족 관계』, 조현순 역, 동문선, 2005.

_____, 『위태로운 삶』, 윤조원 역, 동문선, 2022.

_____,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김윤상 역, 인간사랑, 2003.

_____,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_____,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 양효실 역, 시대의창, 2016.

_____, 『혐오 발언』, 유민석 역, 알렘, 2022.

주디스 버틀러 · 아네타 아타나시오우, 『박탈』, 김응산 역, 자음과모음, 2016.

3. 논문 및 평론

강미라, 「친족과 국가 밖의 안티고네: 버틀러의 『안티고네 해석』」, 『철학과 문화』 20,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문화연구소, 2010.

고원, 「육체와 주체: 미셸 푸코에서 주디스 버틀러까지」, 『역사와 문화』 10, 문화사학회, 2005.

김녕, 「다시, 부패된 조건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관리철학’의 역풍과 최근 소설들의 분투」, 『창작과비평』 47(2), 창작과비평, 2019.

김미현, 「오정희 소설의 우울증적 여성언어: 『저녁의 게임』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49, 우리말글학회, 2010.

김수지 · 김미영, 「젠더지리학을 통해 본 소설의 공간과 장소: 최은미의 「근린」, 「백 일 동안」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83, 2020.

박동익 외, 「이 계절에 주목할 신간들」, 『창작과비평』 49(3), 창작과비평, 2021.

- 신수정, 「가시덤불 아래에서 : 최은미의 소설과 고딕 엄마」, 『문학동네』 28(3), 문학동네, 2021.
- 윤조원, 「“살 만한 삶”을 향해: 『젠더 트러블』에서 『비폭력의 힘』까지」, 『인문과학논총』 40(4),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 윤지영, 「자기 자신에 대한 역사화 작업은 자기 단언인가, 자기 제작인가」, 『미국사연구』 38, 한국미국사학회, 2013.
- 이명호, 「누가 안티고네를 두려워하는가: 안티고네를 둘러싼 비평적 쟁투」, 『누가 안티고네를 두려워 하는가: 성차의 문화정치』, 문학동네, 2014.
- 전승민, 「원한과 사랑 사이의 두 여자(들) :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과 함께 : 강화길, 『대불호텔의 유령』(문학동네, 2021)/최은미, 『눈으로 만든 사람』(문학동네, 2021)」, 『문학동네』, 문학동네, 2021.
- 조현순, 「공적인 주장에서 욕망의 고백으로: 버틀러의 『안티고네』 다시 읽기」, 『비평과 이론』 24(2), 한국비평이론학회, 2019.
-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의 인종의 젠더 계보학과 타자의 정치 윤리학」, 『인문학연구』 17,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0.
- 최정우, 「얼굴과 마스크, 상처와 가면들 : 최은미 「여기 우리 마주」의 (비)가시적 얼굴들, 정체성을 (탈)구성하는 이질성의 형상들」, 『문학들』 65, 심미안, 2021.



역사를 해체하는 말들과 수행성의 윤리

- 박솔피의 『미래 산책 연습』 319)을 중심으로

천 서 윤(현대소설 박사과정)

차례

1. 들어가며
2. 미래의 현재성과 모순적 발화의 파열성
3. 산책의 우연성과 비약적 발화의 개방성
4. 연습의 반복성과 예언적 발화의 탈인용성
5. 나가며

1. 들어가며

예술의 하나로서 소설은 언어를 그 재료로 한다. 그런 점에서 소설 쓰기는 언어화(言語化)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언어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언어화할 것인지는 소설 쓰기의 주체인 작가에게 달려 있지만, 소설의 재료가 언어, 즉 기호인 이상 그것은 언제나 의도한 바에 미치지 못하거나 의도한 바를 초과하여 독자에게 전달된다. 이것을 언어의 실패라고 한다면, 언어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언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의미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기호는 무수히 많은 또 다른 맥락들에 열려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³²⁰⁾ 그렇다면 실패하는 언어로 소설을 쓴다는 것은 언어의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하고 그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행위일 수 있다.

주디스 버틀러는 미끄러지는 말의 가능성을 포착하고 그로부터 언어의 재전유를 통한 저항적 실천을 주장한 철학자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발화(發話) 행위는 언제나 맥락을 벗어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발화의 주체는 발화 행위를 통해 수행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나간다. 이러한 그의 사유는 데리다의 ‘인용’ 개념으로부터 온 것이다. 데리다는 수행문이 반복적으로 인용됨으로써 “기존 맥락과의 단절 및 새로운 맥락을 떠맡는 능력”³²¹⁾을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³²²⁾ 그러나 버틀러 발화 수행성 개념은 기호학 차원에 머무른

319) 박솔피, 『미래 산책 연습』, 문학동네, 2021. 이하 이 책을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쪽수로 표기함.

320) “모든 기호는 인용될 수 있고 따옴표 사이에 놓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것은 주어진 모든 맥락과 결별할 수 있으며, 절대적으로 포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새로운 맥락을 무한하게 낳을 수 있다. 이것은 표시가 맥락 밖에서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떠한 절대적인 정박의 중심도 없이 맥락들만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자크 데리다, 김우리 옮김, 『서명 사건 맥락』, 『문화연구』 9(1), 한국문화연구학회, 2021, 88쪽.

321) 주디스 버틀러, 유민석 옮김, 『혐오 발언: 너와 나를 격분시키는 말, 그리고 수행성의 정치학』, 알렘, 2022, 281쪽.

322) 존 랭쇼 오스틴에 따르면 수행문(performatives)은 일반적인 진술문(constatives)과 구별된다. 수행문이란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 곧 그 행위를 하는 것인 문장을 의미한다. J. L. 오스틴, 김영진 옮김, 『말과 행위』, 서광사, 1992, 24-28쪽 참조.

데리다의 논의를 현실의 층위로, 정치적인 차원까지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사실 버틀러는 언어철학자라기보다 젠더 수행성 이론을 주창한 퀴어 이론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젠더 트러블』 등 초기 저작들을 통해 버틀러가 주장하고자 한 것은 ‘고정된 정체성이란 없다’, ‘행위 뒤의 행위자란 없다’와 같이 기존의 대문자적 주체가 상정하는 일의적이고 고정불변하는 주체 개념의 해체였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젠더 수행성이다. 기존의 주체 개념은 항상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 섹스와 젠더의 이분법, 이성애와 동성애의 이분법에 기대어 있다. 이러한 이분법은 언제나 담론 권력의 매트릭스 안에서 작동하는데, 권력은 그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안정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다양한 정체성들을 병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등 ‘주체’의 울타리 바깥으로 배제해버린다.³²³⁾ 이제 막 태중에서 나온 갓난아기를 안아 올리며 “여자 아이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인간은 날 때부터 특정한 방식으로 호명되며 이러한 언어적 행위들의 의례적인 반복을 통해 젠더화 되고 주체화 된다.³²⁴⁾

이와 같이 발화 행위를 통해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정체성에 대해 논하는 버틀러는 수행문을 ‘발언효과적(perlocutionary) 언어 행위로 이해한다.³²⁵⁾ 수행문은 ‘말해짐과 동시에’ 그것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수행하는 발언이 아니라, ‘말해진 후에’ 그 말의 내용과 반드시 같지는 않은 “일련의 결과들을 개시하는 발언”³²⁶⁾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효과적 언어 행위는 데리다가 말했듯 인용의 미끄러짐, 즉 탈-인용의 가능성을 담지한다. 버틀러는 이데올로기적 호명과 같이 인용의 관습적인 반복이 담론 권력을 공고하게 만드는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인용의 반복 가능성으로부터 “아직 오지 않은 맥락들을 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과거의 맥락들과 단절하는 변화”³²⁷⁾, 즉 인용의 미끄러짐을 통한 탈-인용의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고자 한다. 그래야만 언어 앞에 무력하지 않을 수 있고, 언어를 통해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버틀러의 사유는 혐오 발언에 맞서는 언어의 재맥락화, 즉 ‘대항 발언’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행성의 정치학’이라는 『혐오 발언』의 부제를 상기한다면 언어의 탈-인용적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발화 행위의 수행적 정치성을 밝히는 데 까지 나아갈 수 있다.

언어와 수행성에 대한 버틀러의 입장은 “정체성이 담론이나 언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323) 버틀러는 푸코의 지식에 관한 계보학적 접근법을 차용하여 페미니즘 계보학, 즉 페미니즘 주체를 생산하는 권력 담론의 형성과 작용을 탐구한다. 이때 계보학적 관심은 기원이 아닌 출발점을 찾는 데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계보학은 고정된 본질, 도달할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며 그러한 것이 있다고 믿어지는 현상과 그 이유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보학은 의미, 진리, 가치, 도덕, 선 등의 개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 감추어진 권력의 전략, 지배와 복종, 억압과 전투의 관계를 드러낸다. 즉, 지식의 담화, 추상적인 언술행위 속에 이루어진 권력의 개입과 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계보학적 실행의 효과이다.” 김은주, 「규범으로서의 젠더에서 장치로서의 젠더로: 버틀러의 젠더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131, 철학연구회, 2020, 110쪽.

324)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101쪽.

325) 발언효과적 언어 행위란 오스틴의 개념으로, 그는 어떤 발언이 실제로 효과적인 힘을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 그와 같이 말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전체적인 말의 상황’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 오스틴은 ‘발언내적(illocutionary) 언어 행위와 ‘발언효과적(perlocutionary) 언어 행위를 구별한다. 발언내적 언어 행위는 어떤 말이 그것이 말해짐과 ‘동시에’ 말의 내용이 가리키는 바로 그 행위를 수행하는 언어 행위를 가리킨다. 그럴 수 있는 까닭은 그 말이 관습의 맥락 안에서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반면 발언효과적 언어 행위는 어떤 말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효과가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다. J. L. 오스틴, 앞의 책, 139-140쪽 참조.

326)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43쪽.

327) 위의 책, 288쪽.

담론이나 언어가 정체성을 행하는 것”³²⁸⁾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주체가 어떠한 담론적 행위를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이 주체를 구성함을 의미한다. ‘나’라는 존재는 언어 바깥에서 구성될 수 없다.³²⁹⁾ 인용과 탈-인용의 무수한 반복을 통해 구성되는 ‘나’는 언제나 언어를 통해 변화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주체이다.

말과 말하는 주체의 관계에 대한 버틀러의 사유는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버틀러는 미셸 푸코의 후기 철학에 주목하며 파레시아(parrhesia),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말하기가 윤리적 실천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푸코에 따르면 진리 말하기는 고백을 통해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즉 자기-공표를 함으로써 그 공표된 외양의 양태에 자기 자신을 양도하는 행위이다.³³⁰⁾ 버틀러는 이러한 진리-말하기를 ‘탈아적(脫我的) 움직임’이라는 윤리적 실천으로 이해한다. 진리-말하기의 주체는 발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탈취당할 때 비로소 주체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발화 행위에 대한 버틀러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화 행위에 선행하는 발화 주체는 없으며, 발화 행위를 통해 발화 행위의 주체가 구성되어간다. 그리고 이때 발화 행위는 주체가 자신을 타자와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안으로 내던지는 윤리적 행위이다. 이러한 버틀러의 사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소설 분석의 유용한 방법론이 되어준다. 하나는 소설 속 ‘인물의 말’을 통해 그 인물의 수행적 정체성이 구성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가의 소설 쓰기를 일종의 발화 행위로 볼 때, ‘소설의 문체’를 통해 소설의 주제 역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근의 작가로 박솔피(1985~)를 꼽을 수 있다.

『그럼 무얼 부르지』, 『을』, 『백 행을 쓰고 싶다』 등 박솔피의 초기 작품들에 대한 주요 평론들은 “경험 없는 세대”의 “트라우마가 없다는 트라우마”³³¹⁾, “사라짐의 사상”을 기본 값으로 하는 “탈존주의(脫存主義)의 극장”³³²⁾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에서 알 수 있듯 박솔피 초기 소설 속의 인물들은 역사적 사건의 ‘미체험 세대’로서 처음부터 가진 적 없는 경험에 대해 상실감과 무력함을 느낀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저항의 (불)가능성을, 또는 “비잠재성의 잠재성”³³³⁾을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소설집 『우리의 사람들』의 인물들은 무력함에 침잠하거나 ‘무위적(無爲的) 저항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하지 않음을 하기’보다, 불완전하게나마 끊임없이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반복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이러한 인물들의 태도 변화는 미지의 시간인 과거를 속수무책으로 놔두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고자 하는 힘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불)가능성보다는 가능성으로, (비)잠재성보다는 수행성으로 분석될 여지가 있다.³³⁴⁾ 물론 이러한 인물들의 수행성은 과거의 사건을 지나간 그대로, 모르는 그대로의 상태

328) 사라 살리, 김정경 옮김,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앨피, 2007, 115쪽.

329) 임옥희, 『젠더의 조류와 우울의 철학: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63쪽.

330)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옮김,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2013, 198쪽.

331) 강지희, 「경험 없는 세대와 파토스의 영도(零度)」, 『세계의문학』 144, 민음사, 2012.

332) 김홍중, 「탈존주의(脫存主義)의 극장-박솔피 소설의 문학 사회학」, 『문학동네』 79, 문학동네, 2014.

333) 김미현, 「잠재성과 문학의 (불)가능성-박솔피, 김사과, 한유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45, 한국문예창작학회, 2019.

334) “언제나 복수의 ‘나’들 속에 자리하는 박솔피의 ‘나’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지금-여기 내 옆에 없는 이들의 존재를 실감할 수 있다.” 전승민, 「매일의 오늘 동안 걷다가 그만 극장을 사버림: 박솔

로 놔두지 않고 그 일을 다른 방식으로 끊임없이 그려봄으로써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사람들 곁으로 가보려는 작가의 수행적 글쓰기와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³⁵⁾

이때 수행성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버틀러의 ‘문화 번역’을 함께 참조하고자 한다.³³⁶⁾ 문화 번역은 “특수한 담론을 초월한 공통 언어를 발견하려는 노력”³³⁷⁾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편성의 해체와 재의미화를 통해 불완전하게나마 도달할 수 있는 윤리적 실천이다. 이와 관련하여 버틀러에게 참조점이 되어준 벤야민의 역사철학 또한 『미래 산책 연습』의 분석틀이 될 수 있다. 벤야민은 신화적 폭력에 대항하는 신적 폭력, 즉 ‘메시아적인 것’을 설명한다. 법정립적이고 법보존적인 신화적 폭력은 인간을 억압하고 처벌하는 기제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섬광’과도 같은 기억은 법 파괴적인 힘을 지닌다.³³⁸⁾ 이러한 벤야민의 사유를 따라 버틀러는 동질적 역사를 파열하는 ‘지금 시간(kairos)’에 주목함으로써 획일성과 진보의 역사를 탈피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고는 박솔피의 장편소설 『미래 산책 연습』을 살펴보고자 한다.³³⁹⁾ 주요 방법론은 버틀러의 발화 수행성 개념으로, 소설 속 인물의 발화를 수사학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것이 인물의 수행적 정체성을 구성해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작품의 주요 소재로 실제 한국에서 1982년에 있었던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다뤄진다는 점에 주목해 ‘보편적 역사’의 폭력성과 그것을 극복하는 수행성의 윤리를 문화 번역의 개념을 통해 볼 것이다. 따라서 본론의 각 장에서는 소설의 문체적 특징으로 드러나는 인물들의 발화 양상을 ‘모순적 발화’, ‘비약적 발화’, ‘예언적 발화’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것들이 각각 미래의 현재성, 산책의 우연성, 연습의 반복성이라는 수행성의 윤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미래의 현재성과 모순적 발화의 파열성

『미래 산책 연습』은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하 부미방 사건)을 소재로 하는데, 부미방 사건은 1982년 3월 18일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이 부산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방화의 이유는 5·18 문제를 사실상 묵인한 미국 정부에 대한 반감이라고 알려져 있다.

피, 『우리의 사람들』, 『자음과모음』 49, 자음과모음, 2021; “박솔피의 소설은 주인공 모를 비석들이 누운 자리를 배회하며 그것들을 보고 만지는 행위/무위를 반복하는 문학적 발라드” 유운성, 「구르는 공의 감축-박솔피, 『우리의 사람들』(창비, 2021)」, 『문학과사회』 134, 문학과지성사, 2021.

335) “정확히 말하면 그보다는 내가 멀리 가보고 더듬어보고 모르는 사람 먼 곳에 있는 사람으로 그것을 반복해가며 매번 새롭게 만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인 것 같다. (……) 이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를 짐작하는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합하고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런 식으로 시간과의 접점을 찾아나가는 일은 계속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에 응하는 방법이 내게는 소설 쓰기이고 그래서 나는 소설을 많이 쓸 것이다.” 박솔피, “5·18에 대해 쓰기”, 『창비주간논평』, 2022. 5. 17.

336) 번역은 정치윤리학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는 버틀러의 후기 이론에서 주로 강조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젠더 트러블』의 개정판 서문을 통해 버틀러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처음부터 그의 작업은 일종의 ‘문화 번역’을 시도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문학동네, 2008, 46쪽.

337)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옮김, 『주디스 버틀러,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 시대의창, 2016, 26쪽.

338) 위의 책, 쪽.

339) 작가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은 기존의 단편 「매일 산책 연습」을 바탕으로 쓰였다. 두 작품은 시공간적 배경과 주요 인물 등의 기본 설정을 공유하지만, 형식상 단편이 장편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인물과 사건들이 추가되었고 플롯의 구조 역시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미래 산책 연습』을 개별 작품으로 보고 연구 대상을 해당 작품에 한정한다.

소설 속에서 이 사건은 최명환이라는 인물이 젊은 시절에 직접 겪은 사건으로 그려진다. 최명환은 ‘나’가 부산의 한 목욕탕에 갔을 때 우연한 계기로 친해지게 된 중년의 여성이다. 그녀는 ‘나’에게 부산의 월세 아파트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언제나 먹고 마실 것들을 흔쾌히 대접하는 인물이다. 무엇보다 최명환은 ‘나’에게 부미방 사건에 대한 기억을 들려준다. 한편 ‘나’와 최명환의 이야기인 중심 플롯과 별개로 중학생 수미와 수미의 이모인 ‘윤미 언니’의 이야기를 다루는 보조 플롯이 제시되는데 이 이야기에서 윤미 언니는 부미방 사건에 가담한 인물로 등장한다. 두 개의 이야기가 형식상, 내용상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미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윤미 언니는 최명환이 기억하는 김은숙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미래 산책 연습』은 서로 다른 플롯을 교차하는 서술 방식을 통해 부미방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기억하는 인물들을 겹쳐보아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 또한 재배치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흐르는 선형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물리적인 시간의 불가역성은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미래를 미지의 상태로 남겨둔다. 따라서 시간 안에서 사는 존재의 필연적인 한계는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들, 즉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언어를 통해 시간을 구부러볼 수는 있다. 『미래 산책 연습』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시제(時制)의 혼용은 그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선후 관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데, 이것이 같은 문장 또는 같은 문단 안에서 일관되게 쓰이지 않아 매끄러운 의미 전달을 방해한다.

82년에 반복하여 그러본 88년도와 88올림픽을 생각했다. (……)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한국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고 냉전의 시대를 지나 평화를 상징하는 모범적인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화합과 전진(harmony and progress)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쳤고 지금도 치고 있고 호돌이는 웃고 있고 굴렁쇠는 굴러가고 그 뒤로 비둘기는 날아가는데.

82년에 미문화원을 방화한 이들이 반복한 88올림픽을 떠올려보니 모두가 이는 성공적인 88올림픽은 실제로 모두가 보고 겪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다른 누군가가 반복해서 만들어낸 다른 세계의 미래처럼 여겨졌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고 미문화원을 방화한 이들이 반복한 88올림픽이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이자 미래였고 모두가 이는 올림픽은 ‘88 서울 올림픽’이라는 게임 같았다.(97, 인용자 밑줄)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미래 산책 연습』에는 시제가 혼용되는 문장이 자주 서술된다.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1988년도에 있었던 서울 올림픽은 실제로 ‘나’에게는 먼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하고 있고’를 사용함으로써 개막식의 장면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서술한다. 이처럼 역사적 과거인 88 서울 올림픽을 서술하는 ‘나’의 언어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함께 씌으로써 선형적이고 일방향적인 시간에 착종을 일으킨다. 88 서울 올림픽에서 한국은 전례 없던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세계적으로도 88 서울 올림픽은 냉전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화합과 전진”의 기념비적 사건이 “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편적 역사에 기록된 88 서울 올림픽의 의미이다.

보편적 역사로서의 88 서울 올림픽에 대항하는 것은 1982년으로부터 멀지 않은 ‘미래’였을, 그러나 자신에게는 먼 과거인 1988년도를 상상하는 ‘나’의 언어이다. ‘나’는 “82년에 미문화원을 방화한 이들이 반복한” ‘88 서울 올림픽’을 현재 시제로 서술한다. 서울 올림픽 개막식의 장면은 ‘나’의 상상에 의해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있고” 호돌이는 “웃고 있고” 굴렁쇠는 “굴러가고” 비둘기는 “날아가는” 현재의 상황으로 묘사된다. 그럼으로써 과거 시제

와 현재 시제가 동시에 사용되는 모순적 발화의 양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한 문장 안에서, 연속성을 지니는 한 문단 내에서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적 발화는 역사의 보편성을 파열하는 발언효과적 언어 행위가 된다. 시제가 뒤섞인 비문(非文)은 1980년 광주와 1982년 부산을 가까운 과거의 일로 기억하고 있는 1988년도의 사람들, 특히 “미문화원을 방화한 이들”이 88 서울 올림픽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상상하는 ‘나’의 노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88 서울 올림픽이 ‘화합과 전진’을 의미하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하고 “모두가 아는 올림픽”과는 다른 올림픽을 떠올려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언어는 “성공적인 88올림픽”은 보편적 역사에 기록된 88 서울 올림픽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그 역사가 “다른 누군가가 반복해서 만들어낸 다른 세계의 미래”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요컨대 보편적 역사라는 ‘과거’의 시간을 그보다 더 먼 과거의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미래’로 감각하는 ‘나’의 언어는 시제를 혼용하는 모순적 발화를 통해 수행적 윤리성을 확보한다.

80년 5월 27일 이후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빗자루를 들고 나서면 피가 거리에 흐를 것이다. 그 냄새와 공기와 광경을 모르고 모르고 모른다. 사람들은 청소를 하고 또 하고 거리는 서서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회사로 돌아가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80년 6월은 80년 4월과 같은 곳인가 가망 없고 백치 같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시체를 찾으러 다니고 조사를 받고 끌려가고 빈 옆자리를 보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친구들을 찾아다니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제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것들을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떠오르고 시간은 흐를 리 없고 흐르지 않는 시간은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흐르고 80년 6월이 80년 7월이 8월이 81년이 82년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81년의 82년의 시간이 광주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80년 5월 이후에도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살아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 부산 미문화원에 불을 붙인 이들을 참을 수 없게 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동시에 이 역시 착각일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창밖을 보면 열차는 목적지가 없고 열차는 끝없이 달릴 것 같고 끝없이가 과장이라면 열아홉 시간쯤 달릴 것 같다.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달릴 것 같다.(192-193, 인용자 밑줄)

‘나’는 자신이 과거에 보았던 1980년 5월 광주의 사진을 떠올리며 그 과거를 현재로 불러온다. “사람들은 시체를 찾으러 다니고 조사를 받고 끌려가고 빈 옆자리를 보고 (……)”에서 나열되는 서술어들은 모두 현재 시제로 서술된다. 또한 이 부분은 첩표나 마침표 등의 문장 부호 없이 긴 호흡으로 서술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서술 방식은 1980년 5월 18일 직후의 광주를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장면처럼 제시한다. 이와 같이 과거의 어느 한 시간을 현재화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한 사건을 현재로 불러들여 그 사건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그 과거의 시간을 살았던 이들, 즉 ‘나’의 과거를 현재로 체험한 이들이 견뎌냈을 시간, 그들이 그려보았을 미래를 성실하게 “짐작”하고 겸손하게 “착각”하는 “미래 기억”(153)의 윤리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발터 벤야민에 따르면 ‘초월적 보편’이라는 명목 하에 배제된 존재들, 동질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소외된 존재들은 역사적 폭력에 의한 피억압자들이다. 벤야민은 피억압자들의 구원이 ‘메시아적인 것’, 즉 역사의 연속성을 중단시키는, 섬광 속에서 등장하는 ‘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메시아적인 것은 “시간을 종식하고 ‘사건의 중지’를 구성”³⁴⁰하기 때

문이다. 이때 역사적 시간의 중단이 중요한 까닭은 피억압자들의 잊힌 역사가 기존의 역사, 선형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메시아적 순간은 역사적 동질성을 와해함으로써 현재의 시간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벤야민의 논의를 참조하면, 『미래 산책 연습』의 서술상의 특징은 단순히 과거의 시간을 현재로 소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미래’의 시간, 즉 아직 오지 않은(未來) 시간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시제의 혼용은 ‘역사의 현재화’가 아닌 ‘미래의 현재화’에 가깝다.

요컨대 『미래 산책 연습』에서 88 서울 올림픽, 광주 민주화 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사건들은 시제를 혼용하는 ‘나’의 발화를 통해 모순적으로 재구성된다. 그러나 이 모순적 말하기는 알 수 없는 과거의 시간을 과거인 채로 놔두지 않고 불일치하는 시제를 통해 선형적 시간관을 해체함으로써 ‘보편성’이라는 역사적 폭력을 파열시키는 말하기로서 발화 수행성을 보여준다.

3. 산책의 우연성과 비약적 발화의 개방성

『미래 산책 연습』에서 ‘나’는 부산의 곳곳을 산책하는데, 이 산책에는 뚜렷한 목적이나 목적지가 없으며 단지 ‘나’의 발길이 닿는 대로 즉흥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산책의 즉흥성, 우연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할 수 없는 ‘나’의 파편적이고 비약적인 언어와 나란히 진행된다. ‘나’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곳에 당도하게 되는 것처럼 개연성 없는 생각의 전개에 따라 예상치 못한 욕구와 감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소설에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나’의 비약적인 발화로 나타난다.

소설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인물들은 부산, 광주, 도쿄, 서울 등의 도시를 걸으며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거나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알게 된다. 특히 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산책은 ‘나’의 부산 산책이다. ‘나’는 1982년의 최명환이 매일같이 지나다녔을 거리를 걸어보지만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다만 ‘나’는 계속해서 걸으며 1982년의 최명환을 상상한다. 예컨대 ‘나’는 “남포동을 걷다가 중앙성당 앞에 섰을 때 문득 성당 안으로 들어가보고 싶어져”(111) 성당에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는다. 이때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을 인물의 내적 발화, 즉 말하기의 일종이라고 볼 때,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해 들어오는 빛, 동으로 만들어진 피에타상,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를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다분히 파편적으로 제시된다.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잠시 생각하다 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나 잠시 다른 사람이 된다면 부산에서 살며 이 근처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중앙성당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 사람은 당신처럼 아이가 없고 남편이 없고 일을 하며 혼자 살고 큰 희망은 없지만 큰 불만도 없다. 그러나 당신보다 일을 많이 할 것이며 신을 믿을 것이고 어떤 중요한 순간에 타인에게 헌신적일 것이고 그들을 도우려 할 것이다. (……) 나는 나와 비슷하지만 어딘가는 무척 다른 그가 이제는 볼 수 없는 친구처럼 그리웠다. 서울을 걷는 동안 그런 존재들이 나를 찾아온다고 느낄 때는 드물었지만, 부산에서는 그런 이들이 어딘가 몇 명쯤 살고 있을 것이라고 등뒤에서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그들을 생생하게 느낄 때가 있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을 때 오후의 태양은 선명했고 아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

340) 주디스 버틀러(2016), 앞의 책, 195쪽.

선생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그의 세례명은 마르타라고 하였다. 음식을 차려주는 성녀 남을 먹이는 성녀라고. 나는 그가 먹인 칼국수와 빵과 여러 잔의 커피, 튀긴 새우와 오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또 무얼 먹었더라. 웬지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은 먹을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먹일 것이고 우리는 더 많은 식탁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왜인지 그런 것이 보였다. 다음에는 내가 먹을 것을 맛있는 것을 우리고 먹이고 키울 것을 사야지 생각하며 걸었다.(112-113, 인용자 밑줄)

막상 성당에 들어와서 다른 이들처럼 기도를 해보려고 하지만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그 대신에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그런데 이때 ‘나’의 상상 속 “그 사람”은 최명환을 암시한다. 최명환 역시 아이도 남편도 없고 일을 많이 하며 신앙을 가진 사람,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언제나 모자람 없이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가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 대신에 “잠시 다른 사람이 된다면”을 상상해보는 것은 최명환이 되어보는 일이며, 이러한 ‘나’의 행위는 내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타인의 삶, 타인이 지나온 과거를 헤아리는 윤리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버틀러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적 관계 안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순수한 자기로의 회귀가 불가능한 존재이다. 이러한 한계를 안고 있는 주체는 “나는 너와 나의 관계(I am my relation to you)라는 것을 인정”³⁴¹⁾함으로써 윤리적인 포스트-주체, 즉 포스트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내가 최명환이 되어본다면’을 가정하는 ‘나’는 주어로서의 나(I)가 아니라 목적어로서의 나(me)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타자의 윤리를 보여준다.

그런데 최명환이 되어보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노력에 의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들어간 성당에서 기도하듯 눈을 감고 앉아 보는 우연한 행동들의 연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의도나 의지를 갖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타인의 삶을 상상해봄으로써 ‘나’는 “나와 비슷하지만 어딘가는 무척 다른 그”를 그리워하며 부산의 거리를 산책할 때마다 “그들을 생생하게” 감각한다. 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 이어지는 대목에서 ‘나’의 의식의 흐름은 ‘최명환과의 대화→최명환의 세례명과 그 의미→최명환이 대접한 음식들→앞으로도 지속될 최명환과의 관계’로 이어진다. 최명환이라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련의 생각은 여전히 비약적으로 전개된다. ‘나’는 최명환의 세례명이 음식을 차려주고 남을 먹이는 성녀에게서 따온 것임을 “떠올리고” 최명환이 먹인 많은 음식들을 열거한 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최명환과 함께한 식사보다 더 많은 식사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예감한다. “그 순간 왜인지 그런 것이 보였다”라는 ‘나’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낙관적인 예감(豫感)에는 근거가 없다.

위의 인용한 부분에서 ‘나’는 최명환에 대한 생각을 ‘떠올린다.’ 심지어 ‘나’는 최명환과 자신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돈독해질 것임을 “알았다”고 확신할 때조차 어떤 근거도 없이 그것을 ‘그냥’ 안다. 여기에 “웬지”와 “왜인지”가 연이은 두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까지 아울러 보면, ‘나’의 의식의 흐름은 매끄러운 연속성에 따른 것이 아닌 산발적이고 비약적인 단상들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나? 일단은 쓰고 있는 것을 열심히 쓰겠다고 생각했다. 천천히 걸어 다시 미문화원 앞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은 지나가고 가끔 긴 파마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블라우스에 팔 토시를 한 최명환이 이곳을 멀리서 보고 있다고 옷에서 나는 탄 냄새를 맡으며 한밤중 불

341) 주디스 버틀러(2013), 앞의 책, 236쪽.

이 낫던 건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이미 여러 번 읽은 부산 근대역사관의 과거를 읽었다. 전시된 사진 속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의 키는 시원하게 컸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창을 통해 보이는 옆 건물의 간판을 한참 바라보다 나왔다.(155-156)

위의 인용문에서 ‘나’는 부산 산책을 하며 이미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 그러나 한 번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향했던 적은 없는 옛 미문화원 앞의 벤치에 앉아있다. 이때 ‘나’는 행인들 사이로 환시를 보듯이 1982년 부미방 사건 당시의 최명환을 본다. 당시의 미문화원은 이제 부산 근대역사관으로 그 모습을 바꾸었지만, 지금 ‘나’가 앉아있는 자리는 과거에 최명환이 “불이 낫던 건물을 보고 있”던 바로 그 자리이다. ‘나’는 최명환이 있었던 자리에서 최명환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림으로써 과거의 최명환과 조우한다. 1982년의 최명환의 모습은 ‘나’가 실제로 본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억이라기보다는 상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벤야민이 ‘무의지적 기억’이라는 개념을 통해 강조했듯이, 기억이란 “기억하는 주체가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떠올리는 이미지”³⁴²⁾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긴 파마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블라우스에 팔토시를 한 최명환”의 모습 역시 ‘나’가 산책을 통해 슬하게 그려보았던 최명환에 대한 ‘기억’인 것이다.

산책하는 주인공의 비약적인 발화는 수미와 윤미 언니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수미는 윤미 언니를 따라 광주에 가는데, 그곳에서 광주 터미널, 서점, 제과점, 대학 캠퍼스 등을 걸어 다닌다. 윤미 언니가 동명이인인 “광주의 조윤미”(79)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서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수미는 이 낯선 도시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상한다. 중요한 것은 수미가 이러한 상상을 하는 데는 아무런 계기가 없다는 점이다. 두려움을 유발하는, 제어할 수 없이 갑자기 떠오르는 상상은 수미의 비약적 발화를 통해 드러난다. 예컨대 수미는 누가 자신에게 “네가 누구의 가족이며 누구의 자식인지 무엇을 잘못했고 네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고 한편 그럼에도 너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78)를 물어온다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력감을 느낀다. 이것은 어린 수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던, 그러나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독재정권 시기의 사회적 공포감과 관련된다. “서점에서 책을 보며 나는 어리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그런데 어딘가에 들어갈 수 없다고 수미는 생각했다.”(78), “책장의 글씨들은 무엇이든 읽어야 할 것 같았지만 수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하지만 가끔은 너무나 완전히 이해를 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책장은 그저 떠다니는 글자들 같기만 했다.”(78)와 같은 부분들은 “경험이 부재하는 것을 스스로 재인식하는 세대”³⁴³⁾의 감각을 보여준다.

몇 해가 지난 뒤 수미는 뉴스를 통해 ‘광주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에 자신이 만났던 광주의 조윤미를 떠올린다. 청문회에서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자신의 눈앞에서 누가 죽었는지를 말”(82)하는 조윤미는 수미가 만났던 조윤미와 나이도 얼굴도 다르지만 섬광과도 같은 기억을 통해 소환된다.³⁴⁴⁾ 수미의 비약적인 발화는 1980년에 광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어

342) 김민지,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발터 벤야민의 기억 개념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2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22, 11쪽.

343) 강지희, 앞의 글, 419쪽.

344) 벤야민은 법정립적이고 범보존적인 신화적 폭력은 인간을 억압하고 처벌하는 기제가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섬광’과도 같은 기억은 범 파괴적인 힘을 지닌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인 것’의 의미이다. 일순간 섬광처럼 나타나는 기억은 망각을 통해 피억압자들의 시간을 지워버리는 신화적 폭력, 즉 진보적 역사관에 대항할 만한 힘을 지닌다. 주디스 버틀러 (2016), 앞의 책, 199쪽.

떠난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미문화원에 불을 지른 “부산의 대학생 조윤미”(74)와 그런 그녀에게 편지를 썼던 “광주의 고등학생 조윤미”(74)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는 ‘지금시간’의 언어이다. 지금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은 역사적으로 흐르고 있는 시간의 어느 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정지된 한 순간을 의미한다.³⁴⁵⁾ 어떤 형태로도 구체화되지 않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찰나를 가리킨다. 최명환을 떠올리는 ‘나’와 ‘조윤미들’을 떠올리는 수미의 언어는 계속해서 단절을 일으키는 비약적 발화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는 과거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타자를 향해서 열려 있는 수행적 언어의 개방성을 보여준다.

4. 연습의 반복성과 예언적 발화의 탈인용성

테리다가 수행문의 반복 가능성으로부터 언어의 탈인용성을 사유한 것은 고정된 의미망에 포획되지 않는, 정해진 그대로 현실화되지 않는 언어의 가능성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벤야민은 번역 개념을 통해 “경험적·역사적 언어들의 ‘다수성’은 인간의 상호 이해에 장애가 되는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된다”³⁴⁶⁾는 것을 강조한다. 즉, 테리다가 말하는 수행문의 ‘탈인용성’과 벤야민이 말하는 언어의 ‘다수성’은 언어가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것이라는 믿음에 반(反)한다는 공통된 사유의 지점을 보여준다. 이들 모두에게 영향을 받은 베틀러는 반복을 통해 계속해서 겹쳐지고 덧씌워지는 언어로부터 수행적 정치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래 산책 연습』에서 언어의 반복성은 여러 인물의 말이 겹쳐지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부분을 읽다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와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금에서 그것을 지치지 않고 찾아내는 사람들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시간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와야 할 것들에 몰두하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이들은 와야 할 것이라 믿는 것들을 이미 연습을 통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어떤 시간들은 뭉쳐지고 합해지고 늘어나고 누워 있고 미래는 꼭 다음에 일어날 것이 아니고 과거는 꼭 지나간 시간은 아니예요. (……) 그들이 반복한 것은 그때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면이 아니라 그때 그곳에 누군가 있었다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미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미래를 연습하였을지는 알 수 없었다. 불을 붙인 이후의 시간을 미래라 생각하였을지도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들은 그런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어땠을지는 알 수 없지만 끝을 내고 매듭을 지어 버리는 일,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왜인지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스스로 믿고 살아내어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 반복하여왔을 것이라는 짐작은 계속되었다.(91-92, 인용자 밑줄)

‘나’는 『밥 딜런 평전』에 실린 밥 딜런에 관한 일화에 주목하는데(91) 이 부분 뒤에는 차례대로 “미문화원을 방화한 이들이 부산 시내에 뿌린 성명서”(92), 그리고 고신대학 총학

345) 벤야민은 역사 비평의 관점에 대한 그의 철학을 전개하면서 크로노스(chronos)의 시간과 구별되는 카이로스(kairos)의 시간관을 강조한다. 크로노스가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되는 선형적인 시간관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카이로스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는 한 지점, 한 순간의 때를 의미하는 질적 개념의 시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벤야민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금시간(jetztzeit)’이라고 표현하며, 역사를 “지금시간으로 충만된 시간”으로 바라보는 메시아적 역사관을 주장한다.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발터 벤야민 선집 5: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 길, 2012, 345쪽.

346) 최성만, 『발터 벤야민 기억의 정치학』, 길, 2014, 67쪽.

생회장의 성명서가 인용된다.(95) 밥 딜런은 스스로 “나는 저항곡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의 초연을 들은 청중들은 그의 노래가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곡이라고 생각하고, 실제가 그 곡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쿠바에서 미사일이 발견되자, 대중들은 그 노래를 분명한 저항곡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 일화가 실린 밥 딜런 평전을 읽으면서 책을 번역한 사람이 미문화원에 불을 붙인 젊은 여성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부분에서 저항곡을 쓰지는 않지만 평화를 노래하는 밥 딜런의 말과 미문화원을 방화한 이들이 적어 내려간 성명서 속 예언적인 언어와 대응된다.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나’는 밥 딜런과 미문화원에 방화한 이들, 성명서를 쓰고 뿌린 이들이 “이미 미래를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미래를 산다는 것은 미래를 연습한다는 말로도 표현된다. 그렇다면 예언적 발화는 미래를 선취하는 언어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예언적 발화를 통해 역사적 언어의 탈인용을 꾀한다. “고신대학 36년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고신인들을 사랑하셨음을 확신합니다.”(95)로 시작하여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고신인들은 겸손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으며 이번 교훈을 통하여 조금의 동요도 없이 학문과 신앙에 더욱 매진하여야겠습니다”(95)로 끝맺음되는 고신대학교 학생회장의 성명서는 예언적 어조를 띤다. 이는 예수를 믿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을 길렀던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옆집에서 들려오는 예언 같은 말씀을 들었다. 만약 이곳 감옥이고 나는 갇혀 있다면 책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들리는 것이 오직 저 방송이라면 그리하여 내게 저 음성이 빛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자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중요한 예언처럼 들렸다. (……) 그리고 찬송가는 이어지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창에서 나를 향해 빛이 내려와 내 왼쪽 몸을 비추고 이 빛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인가 벽 너머로 예언처럼 들려오는 설교를 들으며 아주 잠시 그대로 믿어버렸다.(86)

겸손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반복하는 천국의 미래와 기도의 시간은 두 미래는 다른 곳에 존재하며 사람들은 두 세계를 오갈 수 없다. 하지만 천국의 미래를 그리는 자들이기에 민족의 장래를 그렸을지도 모르겠다.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미래를 연습하는 훈련을 거치겠다는 것과 아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래를 누구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각오일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만지고 반복한 미래는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생각하다가 그것을 묻고 되묻고 답하고 다시 묻는다면 끌어온 미래도 이미 일어난 과거로 혹은 지금 살아가는 현재로 믿을 수 있는가.(96, 인용자 강조)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나’는 옆집에서 흘러나오는 설교 방송을 들으며 목사의 종교적 예언이 아파트 창가로 들어오는 빛을 받고 있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묘하게 겹친다고 생각한다. 주의를 기울인 적 없었던 다른 이의 발화로부터 묵시론적 예언은 현실의 감각과 혼합된다. 또한 그것은 부미방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고 재판을 받았던 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필 ‘나’가 자신을 수감자의 상황에 대입해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나’는 자신이 지금 설교 방송을 들으며 “갑자기 솟구치는 뭔가 좋은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 어딘가로 들어가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86)을 느끼는 것처럼 한때 수감됐었을 이들 또한 “천국의 미래를 그리는” 신앙인들이 그러하듯 비관적이기보다는 낙관적인 예언자의 마음으로 과거의 시간을 견뎌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딘다는 것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 사는 것과 같다. 성명서를 작성하고 뿌린 1982년의 청년들은 “새로운 세계를 스스로 믿고 살아내어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 반복”하는 일을 통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未來)의 시간을 ‘연습’한 것이다. 즉 연습이란 경험하지 않은 사건, 알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나타내며 “미래를 연습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은 “묻고 되묻고 답하고 다시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행적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미래를 연습한다는 것은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기를 반복하는 것이며 이는 예언적 발화를 통해 ‘다른 미래들’을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예언적 발화는 “묵시론적인 관점에서 흐르지 못하고 있는 과거를 현재로 범람시키게”³⁴⁷⁾ 만드는 언어로서 이때 발화의 수행성은 과거를, 현재와 다른 과거의 다른 어떠한 미래를 상상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억하기의 수행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투명한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벤야민은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처럼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 ‘더 많은 번역의 언어들’을 긍정했는데, 그렇다면 ‘미래 산책’을 ‘연습’하는 것이 역사를 번역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주지하듯 버틀러는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수행적 정체성, 즉 수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구성되어가는 ‘과정 중의 주체’를 설명한다. 『미래 산책 연습』에서 부미방 사건이라는 과거, 그러나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한 시간을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상상해 봄으로써 다른 역사를 그려보는 ‘나’는 역사를 번역하는 번역가이자, 버틀러적인 의미에서 수행적 윤리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본고는 『미래 산책 연습』은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미래, 산책, 연습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역사를 해체하는 발화의 수행적 윤리를 살펴보았다. 미래, 산책, 연습의 의미와 수행적 발화의 양상은 본론의 각 장에서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소설에 나타나는 ‘미래’의 의미를 중심으로 소설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현재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미래’란 기준이 되는 시점에 따라 다른 시간을 가리킬 수 있다. 미문화원에 화염병을 던지고 성명서를 뿌리던 대학생들이 연습했던 ‘미래’는 ‘나’의 ‘과거’이듯이, 역사 속의 누군가가 타진했을 미래는 현재의 내가 상상해보는 과거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시제의 혼용을 통해 모순적인 발화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소설 속에서 ‘나’는 같은 문장과 문단 안에서 시제를 바꾸어가며 표면상 모순적으로 보이는 발화를 통해 선형적 시간관을 탈피하고 동질적 역사를 파열하는 수행적 윤리를 보여준다.

3장은 ‘산책’의 우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특히 부산과 광주에서의 인물들의 목적 없는 산책의 과정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제시되는 인물들의 내적 발화와 병렬적으로 배치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흥적으로 전개되는 산책의 우연성은 인물의 비약적 발화를 통해 구체화된다. “떠오르다”라는 동사의 반복적 활용, “왜인지”와 같은 불분명한 인관관계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사용 등은 ‘나’의 비약적인 발화가 서사적 단절과 마찰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섬광 같은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역사에서 배제된 타자들에 대한 개방성의 윤리를 보여준다.

4장에서는 소설 속에서 미래를 산책하는 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습’의 반복성을

347) 김진영, 『희망은 과거에서 온다』, 포스트카드, 2019, 331쪽.

통해 탈인용성의 수행적 정치성을 떠나는 점을 확인하였다.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르면 '1982년의 미래'는 1982년과 현재 사이의 어떤 시기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현재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1982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은 지나가버린 과거나 곧 과거가 될 현재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소설 속 '나'와 인물들이 보여준 것처럼, 1982년의 미래를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통해 과거는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때 연습은 성명서의 예언적 어조나 라디오 방송의 설교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데 '나'에게서 이러한 발화의 반복은 역사를 번역하는 산책자들의 '예언', '연습', '믿음'으로 의미화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미래 산책 연습』이 다루는 주제, 즉 동질적 역사가 지워버린 피억압자들의 기억에 주목하고 '미래 산책 연습'이라는 수행적 행위가 역사를 번역하는 것임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본고는 미래 산책 연습의 수행성이 인물의 말, 소설의 문체를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각각 미래의 현재성을 드러내는 '모순적 발화', 산책의 우연성을 담지하는 '비약적 발화', 연습의 반복성을 보여주는 '예언적 발화'의 구체적 예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버틀러는 행위 주체의 수행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발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발화 행위는 "주체의 계속되는 정치적 투쟁과 재형성에 핵심 요소"³⁴⁸⁾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나'의 발화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본 소설 속 인물의 발화 행위는 지나간 역사, 직접 체험하지 못한 역사를 상상하는 구체적 방법이자 역사를 살아가는 주체, 동질적 역사를 끊임없이 번역하고 심판을 붙잡고자 하는 주체의 수행적 윤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박솔피, 『미래 산책 연습』, 문학동네, 2021.

2. 단행본

(1) 국내 논저

김진영, 『희망은 과거에서 온다』, 포스트카드, 2019.

임옥희,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최성만, 『기억의 정치학』, 길, 2014.

(2) 국외 논저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발터 벤야민 선집 5: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 길, 2012.

사라 살리, 김정경 옮김,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엘피, 2007.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문학동네, 2008.

_____, 양효실 옮김,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348) 주디스 버틀러(2013), 앞의 책, 302쪽.

2013.

_____, 양효실 옮김, 『주디스 버틀러,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 시대의 창, 2016.

_____, 유민석 옮김, 『혐오 발언: 너와 나를 격분시키는 말, 그리고 수행성의 정치학』, 알렙, 2022.

J. L. 오스틴, 김영진 옮김, 『말과 행위』, 서광사, 1992.

3. 논문 및 평론

강지희, 「경험 없는 세대와 파토스의 영도(零度)」, 『세계의문학』 144, 민음사, 2012.

김미현, 「잠재성과 문학의 (불)가능성-박솔피, 김사과, 한유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45, 국문예창작학회, 2019.

김민지,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발터 벤야민의 기억 개념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2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2.

김은주, 「규범으로서의 젠더에서 장치로서의 젠더로: 버틀러의 젠더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131, 철학연구회, 2020.

김홍중, 「탈존주의(脫存主義)의 극장-박솔피 소설의 문학 사회학」, 『문학동네』 79, 문학동네, 2014.

박솔피, “5·18에 대해 쓰기”, 『창비주간논평』, 2022. 5. 17.

유운성, 「구르는 공의 감축-박솔피, 『우리의 사람들』(창비, 2021)」, 『문학과사회』 134, 문학과지성사, 2021.

자크 데리다, 김우리 옮김, 「서명 사건 맥락」, 『문화연구』 9(1), 한국문화연구학회, 2019.

전승민, 「매일의 오늘 동안 걷다가 그만 극장을 사버림-박솔피, 『우리의 사람들』」, 『자음과모음』 49, 자음과모음, 2021.



1960~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식모 표상의 변화와 가족의 균열

- 손창섭과 최일남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 지 연(현대비평 박사수료)

차례

1. 들어가며
2. 1960~70년대 가족 담론과 식모의 존재성
3. 식모에서 가정부로: 소설에 재현된 식모 표상과 그 변화
 - 3.1. 가족 정체성의 다층적 수행과 위협의 잔존: 『인간교실』(1963~1964)
 - 3.2. 객관적 시선의 확보와 갈등의 성급한 해소: 「춘자의 사계」(1979)
4.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글은 1960~70년대 한국의 산업화 시기와 맞물려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가정’ 담론의 지형을 살피고, 그 가운데 ‘식모’라는 가족 내부의 타자가 갖는 존재성을 논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주도의 개발과 발전의 도식으로 압축될 수 있는 박정화 정권의 경제개발 프로젝트는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획득하였고, 그 영향은 한국 사회의 제반 주체들에게 다기하고 복잡한 ‘근대화’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즉 독재정권의 정치적 과행과 그에 맞선 저항의 움직임, 급속한 경제 성장과 대중문화의 폭발적인 확장 속에서 일상생활과 문화를 구성하는 지표와 욕망의 체계가 전면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가족은 새로운 가치 체계로서 근대를 상상하는 방식, 그리고 근대의 기획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구성하기 때문이다.³⁴⁹⁾ 산업화·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가정’을 둘러싼 담론의 변화는 그러한 가족의 상상적 경계가 새롭게 구획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바람직한 가족의 형태가 끊임없이 상상됨에 따라 개별 주체는 자신의 욕망을 지배 담론이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에 절합시키면서 생산 및 추동해 나간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중산층 담론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자리를 점유하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이 입증하듯이 한국 사회의 중산층 모델은 한편으로는 경제개발 프로젝트가 견인한 ‘주체화’ 전략의 일환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일상적 멘탈리티 차원에서 폭넓게 호출되었다.³⁵⁰⁾ 중산층의 확대가 곧 사회의 발전으로 받아들여졌던 개발주의하에서 특정 소수만이 중산층이 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지만, 화폐 소유 경쟁에 뛰어들든 모든 개인에게

349)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16쪽.

350)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32,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4쪽.

중산층은 일상적으로 공유되는 ‘성공’의 표준이었다. 그것이 중간 정도의 재산을 가진 계층을 지시하면서도 “단순한 중간이 아니라 다수 하층민이 가진 상승 욕망의 일차적 대상”³⁵¹⁾을 의미하는 용어가 된 것은 그러한 맥락을 전제한다. 이때 신문 및 잡지 등 매체를 통해 모범적인 것으로 유포되었던 중산층 가정의 라이프 스타일은 가계(家計)를 현명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주부’를 호명함으로써 구성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성 담론의 보수화와 성별 분업의 강화, 사적 영역으로서 가정의 신화화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거니와 현명한 가정주부라는 이상적 여성상은 이 시기 여성에게 할당된 유일한 국민-주체의 자리이자 대중이 욕망하(도록 구성되는) ‘행복’의 표상이었다. 근대화 사업이란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스위트홈’의 이상을 통해, 근대 국가와 가정 그리고 여성을 상호 연결하면서 진행되었던 것이다.³⁵²⁾

당대 공론장은 이러한 지배 담론과 긴밀히 조응하며 ‘행복한 중산층 가정’ 모델을 꾸려나갈 주체로서 여성을 지목하고, 그것이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이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였다. 그러나 행복이 “세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형식”이며 “다른 가치 있는 것들에 그 가치를 부여하는”³⁵³⁾ 것으로서 특정한 규범과 이상을 작동하게 만든다는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무엇보다 낭만적 사랑과 결혼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여성의 행복에 대하여 재고해볼 여지가 생긴다. 이를 위해서는 담론적으로 구성된 ‘스위트홈’의 이상이 실제 여성들에게 실효를 거두며 현실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때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 ‘식모’의 존재였다. 주지하듯 1960~70년대 식모(食母)는 주로 가정에 입주하여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미혼 여성을 일컫는 말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많은 가정이 식모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66년 기준 “서울의 10가구당 2.2가구가 식모 또는 고용인을 쓰고 있다”³⁵⁴⁾는 조사 결과나 전체 가구의 31.4%이 식모(가정부)를 두고 있으며 그 숫자가 24만 6천명에 달한다는 1972년의 통계³⁵⁵⁾는 당시의 ‘가정’ 구성에서 식모가 갖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자료이다.

요컨대 현실의 차원에서 1960~70년대 한국의 가정은 식모라는 내부의 이질적 존재와 공생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다. ‘근대화’한 가정의 표상으로 현모양처의 미덕과 현명한 가계 운영 능력을 갖춘 가정주부가 호명될 때 식모는 여전히 그 역할과 위상 자체로 전근대성을 의미하는 한편³⁵⁶⁾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의 동질성을 위협하는 타자로서 가정 내부에 존재했다. 이들은 여공이나 버스안내양 등과 더불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도시의 하위계층에 속했지만, 국가는 이들을 공식적인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³⁵⁷⁾ 식모의

351) 황병주, 「1970년대 중산층의 소유 욕망과 불안」, 노지승 외,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인간의 재구성』, 후마니타스, 2018, 150쪽.

352) 김은하, 「중산층 가정소설과 불안의 상상력: 강신재의 장편 연재소설을 대상으로」, 『대중서사연구』 22, 대중서사학회, 2009, 119~120쪽.

353) 사라 아메드, 『행복의 약속』, 김정혜·이경란 역, 후마니타스, 2021, 32쪽.

354) 「식모신상조사」, 『조선일보』, 1966.3.27.

355)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이매진, 2006, 134쪽.

356) 1968년 직업 사전에서 ‘식모’는 ‘하녀’라는 봉건적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개인 가정에서 집안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 제공하고 설거지를 하고 기타의 가사 업무를 수행한다 (...) 전화를 받거나 손님이나 외래인이 오면 문을 여닫거나 애완동물을 관리하며 식료품 및 일상용품을 구입하기도 한다.”(김정화, 「1960년대 여성노동-식모와 버스안내양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1, 역사학연구소, 2002, 84쪽.

357) 이는 가사노동이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중심의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여겨졌던 당대의 통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김정화, 위의 글 참조). 나아가 식모 집단은 가사노동의 ‘사유화’

존재성은 공적인 사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 내에서, 혈연 가족은 아니지만 때때로 그만큼의 유대감을 지니기도 했던 가족 구성원들과의 모호한 관계 속에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가사노동의 주된 담당자로 호명된 주부와 식모의 관계는 ‘스위트홈’이라는 중산층 가정 판타지를 현실대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조율되어야 했다. 가사와 양육이라는 모범적 여성의 기능과 역할을 식모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당대 가정 담론이 품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부각하면서 ‘스위트홈’의 불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비록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그 흔적이 점차 사라지지만, 1960~70년대 식모는 현재까지 이어져 온 ‘근대적 가족’ 형태의 동질성과 마지막까지 길항하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제반 영역이 국가 주도의 ‘근대화’와 경제개발로 수렴되었던 1960년대를 거쳐, 경제 성장의 여파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된 1970년대 변화하는 가정 담론의 양상과 그 내부의 이질성으로서 식모의 존재에 주목하고자 한다. 식모를 둘러싼 당시 주변부 노동 담론에 천착한 김원(2004)의 연구는 특기할 만한데, 그는 식모를 비롯한 도시의 하층 여성들이 ‘잠재적 범죄자’ 또는 ‘잠재적 윤락 여성’으로 간주되며 사회적 위험 인자로 타자화되었다는 점을 도출해낸다.³⁵⁸⁾ 실제로 이 시기 대중매체는 식모를 주로 범죄의 무력한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재현하며 ‘가난한 농촌 여성의 상경→식모→버스안내양→(공장 노동자)→윤락 여성’이라는 도식을 계열화했다. 1970년대 도시 여성 하위주체의 ‘비극적인’ 삶을 형상화하며 인기를 누렸던 ‘호스티스 문학’은 그러한 도식을 적극적으로 재현하고 유포함으로써 식모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동의를 얻어낸 경우이다. 당대의 많은 문화 텍스트에서 식모는 이렇듯 언제든 ‘건전한 중산층 가정’과 그것을 모델 삼아 형성된 사회 질서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곤 했다.³⁵⁹⁾

중요한 것은 ‘식모’와 ‘위험’이 결부될 때 그 사이에서 은폐되는 식모들의 욕망과 그들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재현 주체들의 공포다. 마사 너스바움은 주체가 자신의 불완전성과 취약성을 인식하고 겪게 되는 수치심을 타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성으로 전환할 때 낙인(stigma)의 기제가 작동한다고 설명한다.³⁶⁰⁾ 전술하였듯 1960~70년대 식모의 존재는 ‘스위트홈’으로 수렴되어야 했던 근대적 가정의 상상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내부의 이질성을 의미했다. 그들이 공적 담론을 통해 유괴, 절도, 살인, 폭행 등의 ‘범죄’로 해석되거나 잠재적 위험성을 지닌 요보호 집단으로 낙인찍힐 때, 그러한 양상은 역으로 모범 가정이라는 동일성의 환상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취약한 것인지 방증하게 되는 셈이다. 동일성에 대한 판타지는 차이와 그 차이의 부인(否認)을 동시에 인식하는 모순적인 재현 양식으로서³⁶¹⁾ 언제나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 분열의 위기를 ‘균열’의 가능성으로 포착해내는 작업은 동시대 소설 속 ‘가정’과 ‘식모’의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식모 표상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은 도시 하층민으로서 식모가 재현되는 양상과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가령 손운권(2007)은 최일남, 조선작, 전상국 등

를 촉진시켰고 이는 1970년대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었다. 관련 내용은 신경아, 「산업화 이후 일-가족 문제의 담론적 지형과 변화」, 『한국여성학』 23(2), 한국여성학회, 2007; 강이수,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페미니즘연구』 7(2), 한국여성연구소, 2007 참고.

358) 김원, 앞의 책, 145~154쪽 참조.

359) 이외에도 수많은 영화가 식모가 불러일으키는 성적 판타지를 소재로 삼았다. (권경미, 「1970년대 여성노동자 담론과 비노동자로서의 가정부」,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11쪽 참조.)

360)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역, 민음사, 2015, 399~400쪽.

361)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12, 177~178쪽.

의 소설에서 남성들의 성폭력 및 노동 착취의 피해자로 묘사되는 식모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 그들이 처한 현실을 문제적으로 그려내고 있어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린다.³⁶²⁾ 오창은(2013)은 근대의 불안과 중산층의 허위인식을 폭로하는 ‘이야기꾼’ 식모의 형상을 최일남, 전상국, 박완서의 소설에서 발견해내며³⁶³⁾ 권경미(2016)는 ‘식모’라는 호칭이 ‘가정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차하고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담론들을 점검하고, 이전과는 다른 가정부 담론을 반영하는 최일남의 「춘자의 사계」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수행한다.³⁶⁴⁾ 권경미의 연구는 1970년대 가정 내부에서 가사 노동을 담당했던 인물에 대한 호칭이 식모에서 가정부로 변이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본고는 앞선 연구성과들을 이어받는 동시에, 두 편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식모’와 ‘가정부’의 위치를 분석하고 이들의 표상이 소위 근대적 가족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길항해 왔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식모가 가족에 속하지 않는 타인이면서도 가족으로서 생활하며 전근대적 가족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모호하고도 불편한 존재였다면, ‘가정부’라는 명칭에는 법률적 고용계약으로 맺어진 완전한 타인이되 고용인과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본고는 우선 ‘식모’라는 기표화된 존재가 1960~70년대 유포된 지배적 가정 담론 안에서 차지하였던 위상과 그 변화를 살펴본다. 이어 손창섭의 『인간고실』(1963)과 최일남의 「춘자의 사계」(1979)에 나타난 식모 또는 가정부의 형상과 그들이 ‘가족’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일으킨 균열의 흔적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2. 1960~70년대 가족 담론과 식모의 존재성

이 장에서는 당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유포된 가족 담론과 이를 위한 조건으로서 ‘주부’의 형성, 그 과정에서 옮겨지고 달라지는 ‘식모’의 존재 양상을 논구한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의 가정에서 식모의 존재는 ‘다소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주부의 능력에는 식모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포함되어 있었다. 1960년 조선일보 기사 「식모도 가족이다」는 그 제목부터 ‘가족’의 구성원으로 식모를 인정하며 주부로 하여금 “원만한 가정 평화를 위하여 식모 다루는 법을 연구해야”³⁶⁵⁾ 한다고 제안한다. 식모를 제대로 다루려면 주부가 식모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고, 살림살이를 식모보다 더 잘 알아야 하며, 식모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고치도록 지도하고 장점을 칭찬해주어야 한다는 등 주부를 위한 총 다섯 개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그 밖에도 식모가 처한 열악한 환경이나 고용인에 대한 식모들의 요구를 담론화하면서 식모들의 처우 개선을 논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이는 대가족이라는 가족 형태와 개량되지 않은 부역 설비로 인해 가사노동을 분담할 필요가 있었던 주부들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타난 논의로 보인다.

1960년대 초 대가족 제도하에서 식모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한 짧은 논쟁에서 확인된다. 1962년 경향신문에 실린 「식모를 두지말자」³⁶⁶⁾는 식모를 두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 식모가 가계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가정의 분위기 및 가정 교육을 해치며, 낭비를

362) 손윤권, 「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식모의 양상」, 『인문과학연구』 17, 강원대인문과학연구소, 2007.

363) 오창은, 「도시의 불안과 여성하위주체- 1970년대 ‘식모’ 형상화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364) 권경미, 앞의 글.

365) 「식모도 가족이다」, 『조선일보』, 1960.1.13.

366) 「식모를 두지말자」, 『경향신문』, 1962.11.27.

일삼는다는 점을 꼽는다. 그러자 이에 대해 많은 주부들이 반박 편지를 보냈는데, 다수의 공통된 반응은 식모 두기를 반대하는 앞선 기사가 “미혼녀의 속단”³⁶⁷⁾이라는 것이었다. 주부들의 반발을 소개하고 있는 이 기사에 따르면 식모 몇 명의 잘못으로 식모 전체를 부정할 수 없으며, 식모는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동정해야 하는 존재이자 고맙고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이 주부들의 주된 의견이다. 이 논쟁은 「식모를 두지말자」의 논자가 주부들이 식모를 두지 않고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건전한 사고방식”³⁶⁸⁾을 가져야 한다는 글을 다시 한번 실으면서 일단락되지만, 식모에 대한 당시 주부들의 의견과 그것을 소개하는 기사를 통해 가정 내 식모의 존재를 주부들이 대체로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진다. 식모 없이 살림을 꾸려나가는 주부가 이상적인 주부임을 주장하는 담론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출되었던 것이다. 이는 여성의 위치를 가정 내부에 불박아 두려 했던 담론장의 성적 보수화와 같은 결을 지닌다. 식모 없는 살림이 당대의 ‘신생활운동’과 결부되어 ‘근대적인’ 생활의 양태로 제안되기도 했는데³⁶⁹⁾ ‘근검절약’의 풍조와 함께 가계(家計)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주부에게 요구되면서 식모의 월급으로 나가는 돈을 아껴 저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1967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신가정경영학」 시리즈는 “올해의 신혼부부를 위한 아들딸을 위한… 「스위트홈 설계」”³⁷⁰⁾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 ‘근대화된 신(新)가정’의 이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식모 없는 살림’이 여섯 번째 덕목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논자는 주부가 “식모매너리즘”에 걸려 제 역할을 모두 떠넘기고 나태해졌기에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그 결과 주부의 치맛바람, 젓바람, 춤바람이라는 ‘사회 혼란’이 발생했다는 기사도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기사가 1967년 경향신문의 「식모 폐지론」³⁷¹⁾ 이다. 서울대 사범대 교수였던 진원중은 가정에 식모를 두는 일이 주부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청소년 문화를 악화시키므로 식모를 없애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 식모를 둠=낭비, 식모를 두지 않음=절약이라는 등식이 강조되며 가정 운영을 주부가 오롯이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³⁷²⁾ 가사 노동을 식모가 담당하는 가정은 ‘스위트홈’의 기준에 맞지 않으며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책임은 주부의 나태함에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초반까지 식모는 여전히 많은 가정에 존재하지만, ‘모범 가정’과 그러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모범 주부’라면 응당 피해야 하는 존재로 언급되었다. 식모를 두어 여가 시간이 늘어난 주부들이 “몸과 마음의 고삐를 풀어놓아 외부 세계로 즐달음치게 된 것”³⁷³⁾이라는 진단이나 주부들의 나들이가 “자칫 잘못하다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폐가망신’하는 사태가 생기기도”³⁷⁴⁾ 한다는 지적은 식모를 두는 주

367) 「주부들의 식모시비」, 『경향신문』, 1962.12.4.

368) 「허식 버리고 실리주의로 부엌 고쳐 생활개선 찬성 보내준 남성들에 감사」, 『경향신문』, 1962.12.15.

369) 「황실수설」. 『동아일보』, 1964.6.29.

370) 「신가정경영학(3)-식모없는 살림」, 『조선일보』, 1967.1.15.

371) 「식모 폐지론」, 『경향신문』, 1967.1.28.

372) 「실속없는 서울의 중류가정, 빛 가불로 전시효과만」, 『동아일보』, 1968.11.14.; 「알뜰한 살림」, 『경향신문』, 1968.4.22.; 「주부부재」, 『동아일보』, 1968.8.8.; 「70년대에 맞을 '모던 리빙'의 자세」, 『경향신문』, 1969.1.1.; 「부모상」, 『동아일보』, 1969.9.9.; 「가정부재」, 『조선일보』, 1969.9.25.

373) 「“의욕 살려 만능 주부로” 여성을 위한 두가지 문제점」, 『매일경제』, 1970.2.24.

부들에게 ‘불건전’의 혐의를 덧씌워 ‘모범 주부’의 이상을 여성들에게 강요하려는 전략을 보여준다. 모범적인 주부를 표창하고 상을 주는 ‘알뜰살뜰부인대회’(YWCA 주최)나 ‘알뜰한 주부상’(여성저축생활중앙회 주최) 등 수상자들의 공통점이 식모를 두지 않고 스스로 가사 노동과 가계의 총책임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음은 우연의 일치라 아닌 것이다.³⁷⁵⁾

식모를 둘러싼 사회 각계의 우려와 경고가 등장하면서, 1966년경 YWCA는 ‘가정부’ 운동을 시작한다. 식모라는 기존의 명칭을 가정부로 바꿈으로써 가정부의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면서 독립적인 직업의 개념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 운동은 꽤 효과적이어서 1972년에서 1973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기점으로 신문기사 등에서 ‘식모’보다 ‘가정부’라는 명칭의 사용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³⁷⁶⁾ 그러한 명칭 개선이 식모를 둘러싼 사회적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다음의 기사를 보자.

식모를 시체말로 가정부라 부른다. 처녀일 경우 ‘부’ 자가 이상스레 느껴지기도 하지만 간호부도 있고, ‘모’ 자를 붙일 때보다는 저항감이 덜하다. 식모라고 하면 봉건시대의 종 같은 어감이 풍기지만 가정부라고 부르면 현대적 직업의 일종으로서 월급장이의 냄새를 풍긴다. 식모건 가정부건 간에 요즘은 사람을 구하기 힘든 형편이다.³⁷⁷⁾

요컨대 ‘식모’에서 ‘가정부’로의 명칭 변경에는 현대적인 직업관의 확립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셈이다. 아울러 YWCA는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는 입주 가정부(이전의 식모)가 아니라 YWCA에 등록된 시간제 가정부 또는 파출 가정부를 고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부터 신문기사에서도 입주 가정부보다 시간제 가정부가 더욱 경제적이고 가정 내의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장점이 많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된다. 눈에 띄는 것은 ‘아파트’라는 기술화된 근(현)대적 주거 환경으로의 변화와 식모가 아닌 시간제 가정부를 두는 생활이 겹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집이 한 건물에 모여 사는 아파트 생활의 특성상 출퇴근하는 가정부를 함께 고용하면 고용비를 절약할 수 있어 실리적이라는 주장³⁷⁸⁾이 그렇거니와, 시간제 가정부 또는 파출 가정부는 식모와 비교했을 때 물리적·정신적 비용을 덜 치러도 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효율적인 존재로 여겨졌다.³⁷⁹⁾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경제 성장과 중산층의 확대는 ‘근대화’의 효율성을 식모가 아닌 파출 가정부를 두는 생활 조건의 변화에서도 발견하도록 했던 것이다.

시간제 가정부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YWCA 이외에도 가사원, 주부교실 등 여성 단체와 서울시 부녀과 등 공공기관에서도 나서서 파출 가정부의 교육 훈련과 직업 알선을 담당하게 되었다.³⁸⁰⁾ 이들의 특징은 기존의 식모 집단과 달리 30~40대 기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신문기사에서 ‘시간제 가정부’나 ‘파출 가정부’라는 명칭이 서서히 ‘파출부’로 변화하며, 그 명칭이 가정부 대신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374) 「폐습 (7) 식모살림」, 『동아일보』, 1972.3.27.

375) 「식모없는 살림을」, 『매일경제』, 1972.2.25.; 「사는재미는 저축에, 알뜰한 주부상 수상자를 통해 본 살림」, 1972.3.11.

376) 권경미, 앞의 글, 14~15쪽 참조. 권경미는 YWCA의 ‘가정부 운동’이 여성의 가사 노동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이며 비공식적인 업무로 분류하는 데 일조했으며, 가정부의 고용 책임을 중산층 여성이 도맡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여성 내 계급 분할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377) 「만물상」, 『조선일보』, 1973.9.7.

378) 「실리있는 아파트 생활…」, 『경향신문』, 1973.12.14.

379) 「시간제가정부를 더 원한다」, 『동아일보』, 1976.1.16.

380) 「다양해진 여성 직업 훈련」, 『조선일보』, 1978.3.30.

현재까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식모는 가정부로, 출퇴근하는 시간제 가정부는 파출부로 명칭이 나누어진 셈인데, 이 시기의 기사들은 가정부의 범죄 사실과 파출부의 장점을 말하는 데 치중하면서 따라서 가정부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식자층의 조언을 끊임없이 전달한다.³⁸¹⁾ 이는 가정부가 여전히 근대화를 이룬 ‘스위트홈’에서는 피해야 할 존재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필요악’으로서 가정부와 가족, 특히 주부와와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다음의 기사는 특기할 만하다.

적당한 휴식과 자유시간도 주어야하며, 특히 민감한 사춘기의 가정부일 경우 자기의 사춘기 자녀나 마찬가지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따뜻한 인간으로서의 대우, 내딸로 여기는 가족적인 보살핌 가운데 가정부라는 자신의 처지를 열등하게 느껴 비굴해하지 않도록 가정부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직업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면 책임있게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선 고용자-피고용자의 관계를 떠나 자신들보다 연장자이며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는 주인들에 대해 아버지처럼 여기며 그 가족 속에 동화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주부에게 서로 원하는 것을 터놓고 말하며 불만을 누적시키지 않도록 대화를 트는 것이 서로에게 건전하다.³⁸²⁾

요컨대 생활 및 보수까지도 주인집에 기탁하는 식모와 달리 가정부란 정당한 보수를 받고 고용된 ‘직업인’이기에 가정부 스스로도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를 고용한 주부 역시 가정부가 하나의 직업이라는 전제하에 가정부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의 식모에게는 요구된 적 없었던 “가족 속에 동화되려는 노력”, 즉 자신을 고용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의하고 그만큼의 책임을 느낄 것이 가정부에게 요구된다. 가족의 외부인이면서 내부인이기도 했던 식모가 지나치게 유사-가족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거리 두기가 필요한 존재였다면, 가정부라는 명칭은 독립된 전문 직종으로서 오히려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지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식모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1960년대 초중반의 담론들이 주로 식모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 등과 결부되어 있었던 반면, 1970년대 가정부에게 요구된 ‘직업인’으로서의 인격은 계약 관계상 피고용인인 동시에 고용인 가족이 “나의 집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이란 생각”³⁸³⁾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한다면 더욱 뚜렷해진다.

3. 식모에서 가정부로: 소설에 재현된 식모 표상과 그 변화

주지하듯 1960~70년대 식모 표상의 변화는 가정 내 그들이 차지하는 위상과 고용인 가족과 맺는 관계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식모에 대한 당대의 문학적 재현은 ‘호스티스 문학’과 같이 하층 여성이 겪는 불행이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전형성을 피하기 위해 두 편의 소설을 선정하여 식모 또는 가정부 표상의 재현 양상을 탐구한다. 먼저 손창섭의 장편 연재소설 『인간

381) 동아일보의 「가정부없이 살수있다면」(1977.7.26.)처럼 1970년대 후반에도 가정부에 대한 주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사가 있었다. 실제 가정부를 둔 주부로서 논자는 여성 단체의 ‘가정부 안두기 운동’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무턱대고 가정부를 두지 말자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사회구조와 국민소득이 모두 함께 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부에게 집중되어 있는 가사 노동이 과중함을 꼬집는 이러한 의견은 주부가 가사를 전담해야 한다는 대다수의 담론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만, 그 숫자는 매우 소수에 그친다.

382) 「주부와 가정부」, 『조선일보』, 1977.4.7.

383) 「가정부를 가족같이... 따뜻한 보살핌을」, 『조선일보』, 1977.9.7.

교실』(1963.4.22.~1964.1.10)³⁸⁴⁾은 1960년대 식모를 둔 중산층 가정과 가족과의 관계를 비교적 선명하게 다루고 있으며, 최일남의 「춘자의 사계」(1979)는 ‘직업’ 가정부로 명칭이 바뀐 후 식모의 달라진 위상을 꺾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3.1. 가족 정체성의 다층적 수행과 위협의 잔존: 『인간교실』(1963.4.22.~1964.1.10.)

손창섭의 『인간교실』은 1963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향신문에 연재된 장편 연재소설이다. 『인간교실』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작품에 나타나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주목하며 이루어졌다. 류동규(2009)는 주인공인 주인감의 인물형과 작품의 결말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작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아내 찾기’ 서사가 절반의 실패로서 가부장이 되고자 하는 남성 인물의 욕망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보았다.³⁸⁵⁾ 박찬효(2015)는 주인감과 남혜경의 부부관계가 기존의 ‘스위트홈’ 및 ‘양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음에 주목하는데,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비판과 양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지 않는 여성들을 통해 가부장제 담론에 균열을 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³⁸⁶⁾ 한편 김문정(2015)은 황 여인에 대한 주인감의 끌림을 가부장적 권위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남성 주체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 따라서 귀농이라는 결말은 위협적인 여성성의 배제 및 남성성의 자기보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⁸⁷⁾ 이는 강유진(2012)이 작품의 결말을 대안적 가족 공동체의 탄생으로 읽어내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엇갈리는 지점이기도 하다.³⁸⁸⁾

앞선 연구성과들을 유념하면서,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식모 ‘보순’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보순은 작품에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며 소설이 문제시하는 가부장제 담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하지만, 결말에서는 주인감의 딸인 광숙을 제외하고 그와 함께 귀농하는 유일한 인물로서 주목을 요한다. 그녀는 시종일관 주인감을 사랑하는 듯 보이면서도 자신의 애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거나 발화하지 않기에 주인감에게는 도통 ‘알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명확히 알 수 없는 보순의 모호한 정체성은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보순이 수행하는 역할이 식모를 넘어 아내, 어머니, 딸을 넘나들며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비롯된다. 먼저 보순은 주인감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 광숙을 살뜰히 보살피며 무한한 애정을 주는 인물이다. 주인감은 가정보다 바깥일에 더 바쁜 아내 남혜경에게 보순을 거론하면서, 혜경이 보순처럼 광숙을 잘 돌봐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보순은 주인감에게 더욱 전처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며, 주인감은 전처에게서 부부애보다는 ‘모성애’를 느꼈으므로 보순은 광숙에게도, 주인감에게도 모성을 상기시키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주인감은 나이가 어린 보순을 딸 혹은 조카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한다. 요컨대 주인감의 가정 내에서 식모인 보순은 어머니와 아내, 딸의 자리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가족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층적

384) 손창섭, 「인간교실(1~225)」, 『경향신문』, 1963.4.22.~1964.1.10. 이후 본문의 인용 출처는 괄호 속 회차로 표기한다.

385) 류동규, 「1960년대 손창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문화와 융합』 31, 한국문화융합학회, 2009.

386) 박찬효, 「손창섭의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양처 이데올로기의 균열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387) 김문정,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젠더 표상 - 『부부』와 『인간교실』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65, 동악어문학회, 2015.

388) 강유진, 「손창섭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인 보순의 정체성은 가족 내부와 외부 경계의 공고함을 의문에 부칠 뿐 아니라 가부장적 가족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뒤흔든다. 우선 주인갑에 대한 보순의 사랑은 다분히 성(性)적인 끌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친상간적 욕망을 대변하기에 위협적이다. 주인갑을 사랑하는 보순과 그녀의 마음을 단호히 거부하지도 않는 주인갑 사이의 모호한 관계가 불러올 위험성은 아내 혜경의 태도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데, 혜경은 주인갑과의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외도를 상호 묵인하면서도 유독 보순에게만은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주인갑이 미스 윤이나 다른 여성과 애정 관계를 맺으려 하더라도 간섭하지 않으나, 보순과 관련된 일에는 주인갑의 성적 관심과 욕망을 과도하게 조롱하며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그녀가 보순과 주인갑의 관계에서 “부부생활의 파국을 가져올 위험”(200화)을 감지했기 때문인데, 이 위험이란 가족이면서 가족이 아닌 보순이 얼마든지 주인갑의 근친상간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런데 보순은 근친상간적 욕망의 대상일 뿐 아니라 그러한 욕망을 스스로 추동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교실』의 식모와 주인집 남성 가부장의 관계는 ‘호스티스 문학’에서 일방적인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그려지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보순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주인갑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할 수 있으며, 그것이 주인갑으로 하여금 “단순한 난봉 이상의 이성 교제”(200화)로 나아가는 기로가 되리라는 불안이야말로, 아내 혜경이 느끼는 ‘위험’의 핵심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제도적 ‘가족’의 외양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는 불안과 관련된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보순은 주인갑의 집에서 기거하는 ‘미스터 안’의 아이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한 좌절감과 주인갑에 대한 사랑을 유서로 작성한 뒤 한강변에서 몸을 던진다. 그런데 유서의 내용을 보면, 보순의 자살 시도가 결코 주인갑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행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저씨, 정말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는지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안 선생을 미워해도 소용 없어요. 그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니까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저 자신이 어리석었어요. 안 선생을 자꾸만 아저씨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안 선생과 둘이만 있을 때는, 꼭 아저씨와 둘이 있는 것 같았고, 안 선생 말을 들을 땐, 꼭 아저씨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안 선생은 아저씨 아니었어요. 남이에요. 아저씨 제 맘을 하나도 모르셔요. 모르는 체 하셨어요. 너무해요. (203화)

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순이 미스터 안과 관계를 맺은 것은 그를 주인갑과 겹쳐 보았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보순이 “안 선생은 아저씨 아니었어요”라고 하다가도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남이에요”라는 문장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미스터 안이 주인갑과 달리 ‘남’이었다는 것은, 보순에게 주인갑은 남이 아닌 사람, 즉 한 가족임과 동시에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보순은 자신의 욕망이 ‘남이 아닌’ 유사-가족을 향한 것임을 직시하고 있기에 더욱 문제적인 인물이며, 그러한 보순이 그대로 소설에서 퇴장하는 대신 무사히 구조되어 다시 주인갑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말은 의미심장하다. 항상 집안 식구들에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보순으로 인해 모두에게 아이 아버지라는 의심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주인갑은 보순을 “조금도 증오하지 않고, 또 증오하고 싶지 않다”(206화)고 느낀다. 근대적 가족 형태의 경계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보순의 존재를 소거하지도, 악마화하지도 않으려는 소설의 모호한 태도가 주인공인 주인갑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마음 상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순에 대한 미묘한 마음을 유지한 채 그는 결국 혜경과의 이혼을 결심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혼 절차가 끝난 뒤에도 보순을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고집하는 혜경의 태도이다. 부부생활의 위기가 올까 봐 보순과 주인감의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고 꺼려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부생활이 모두 끝났음에도 그들이 함께 지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혜경의 주장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본고는 이 장면이 가족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인, 식모이자 유사-딸이면서 유사-아내이기도 한 보순의 모호하고 경계적인 정체성이 담보하는 위협을, 나아가 그러한 위협을 중단시키는 대신 지속시키기로 한 소설의 선택을 보여준다고 본다. 결국 보순이 혜경에게서 몰래 빠져나와 주인감을 따라 귀농을 선택함으로써 그녀가 근대 가족 질서에 가하는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잔존하리라는 것이 암시된다. 보순은 이후에도 주인감과 결혼을 통한 '부부'의 형태로 결합하지 않으면서 그를 향한 (규정할 수 없는) 욕망을 지속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후 주인감이 새로이 맺을 가족 질서에 언제든 균열을 낼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

3.2. 객관적 시선의 확보와 갈등의 성급한 해소: 「춘자의 사계」(1979)

이 절에서는 최일남의 「춘자의 사계」³⁸⁹⁾에 나타난 목격자이자 폭로자로서의 가정부와 그러한 가정부의 존재를 담론화하는 소설의 서술방식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앞 절에서 탐색한 식모의 재현 양상과 달라진 소설 속 가정부 표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춘자의 사계」는 식모라는 명칭이 가정부로 바뀐에 따라 그 역할과 위상 역시 상당 부분 변화한 시기인 1970년대 후반에 발표되었는데, 소설의 주인공인 춘자 역시 직업적 가정부의 면모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가정부인 춘자는 자신이 일하는 중산층 가정의 가장 내밀한 부분과 '스위트홈' 판타지의 허위를 폭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따르면 "근대화 가족 담론을 해체하면서 그 실상을 폭로하는 화자"³⁹⁰⁾로 기능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춘자가 감행하는 폭로가 당대의 가족 담론을 궁극적으로 '해체'하고 있는지는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³⁹¹⁾

먼저 가정부가 중산층 가정 중심으로 유포되는 스위트홈의 이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이었는지를 고발함으로써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고용한 가정 및 가족과 일정 이상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 존재 자체가 유사-가족으로서 가족 내부의 타인이었던, '가족이면서 가족이 아닌' 모호한 위치에 있었던 식모와 달리, 일정한 보수를 대가로 정해진 가사노동만을 담당하는 가정부는 고용주 가족과는 분리된 완벽한 외부인이지만

389) 최일남, 『春子の 四季 : 崔一南小説集』, 문학과지성사, 1979. 이후 본문의 인용 출처는 괄호 속 쪽수로 표기한다.

390) 김영삼, 「'객관적 폭력'의 비가시성과 폐제되는 식모들의 목소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47쪽.

391) 김영삼은 위의 논문에서 최일남의 「너무 큰 나무」(1977)와 「춘자의 사계」(1979)에서 가정부가 어떻게 중산층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설이 "식모를 화자로 내세우면서 해체의 서사를 보여주"(47)는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식모 화자들이 중산층 가정의 허위를 고발하는 동시에 그것을 추동하는 '근대적' 가정 담론의 논리를 재생산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김영삼에 따르면 이러한 모순은 그들이 "중산층 여성들의 과소비 행태와 소시민적 모습을 비판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근대적 가정담론을 강화하는 데 복무"(49~50)한다는 데서 뚜렷이 관찰된다. 본고는 최일남 소설의 '모순'에 대한 김영삼의 지적을 수용하는 한편으로, 소설 속 식모 화자가 보여주는 이중성은 그가 더 이상 식모가 아닌 '가정부'의 위치에 놓이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본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1960년대 초중반의 식모와 1970년대 말 가정부는 여전히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가정 내 외부인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위상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일만은 ‘내 가족의 일처럼’ 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춘자의 사계」에서 춘자와 그녀가 전전하는 가정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친밀성이 소거되어 있으며, 춘자가 목격자로서 확보하는 객관적 시선은 그러한 ‘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인간교실』의 보순이 식모이면서 딸, 아내, 어머니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하는 다층적인 정체성을 지녔다면, 춘자는 그야말로 주로 주부와와의 엄연한 계약 관계를 통해 ‘고용된’ 자로서 완전한 외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춘자의 사계」에는 그러한 가정 내 피고용인으로서 가정부, 즉 이전의 식모와 다른 위상을 갖게 된 여성들이 등장한다. 예컨대 가정부로 들어간 첫 번째 집에서 춘자는 ‘이집 할머니’가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완전한 타인으로, 순전히 할아버지의 시중만을 듣기 위해 고용된 사람”(110쪽)임을 알게 된다. 가족 중 차매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보살피 줄 사람이 없어 가족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고용한 노동자였던 것이다. 결코 유사-가족의 위치를 점할 여지가 없는 할머니나 춘자와 같은 존재는 자신과 그들 사이 그어진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정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리와 시선을 확보하게 된다. 할아버지에게 내내 무관심하다가도 사람들 앞에서는 극진히 모시는 척하여 결국 나라에서 ‘효자효부 표창’까지 받아내는 주인집 부부를 향해,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117쪽)라고 탄식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그 예이다. 가정부가 ‘목격자’로서 가정이라는 내밀한 공간의 비밀을 담보한 자이자 텍스트 바깥으로 그것을 발화할 수 있는 서술 위치를 부여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인 것이다.

춘자 역시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일했던 집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한다. 그녀의 폭로는 고위 공무원, 이혼녀, 지식인, 대기업 사장, 일본인의 한국인 첩 등 각계각층의 가정들을 전전하면서 ‘직업’으로서 가정부의 면모가 더욱 뚜렷해져 가는 과정과 겹쳐진다.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지식인 계층의 부부가 사는 집일 경우 주인 아주머니는 춘자를 불러 지켜야 할 사항들을 일러준다.

첫날 이집 아주머니, 아니 사모님은 나를 불러 세우고 시시콜콜이 묻고 다짐하고 그랬습니다. 본격적지, 나이, 질병의 유무, 이집에서의 취침과 기상시간, 내가 해야 할 일과 안해야 할 일 등에 대해 줄줄이 설명하고는 일장의 혼시가 있었습니다.

『우리집에 있는 동안은 첫째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다른건 다 용서해도 거짓말하는 것만은 용서 못해, 알았지? 둘째, 마음도 깨끗해야 하거니와 몸도 깨끗해야 된다. 특히 속옷 같은 것도 자주 빨아 입도록 해야 돼. 셋째, 안방은 물론 아이들 방도 필요한 일이 없을 때는 함부로 드나들지 말고, 네 방에서만 생활을 해야 돼. (...) 가급적 마갈사람과 전화질 같은 건 안하는 게 좋아. 알았지? 다섯째…….』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짐하듯 엮어 내려가는데, 그 주의사항의 항목이 럭키 세븐, 일곱 가지나 되었습니다. (137쪽)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가족들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두는 등 일곱 가지의 주의사항은 지식인-중산층 여성이 가정부인 춘자에게 요구하는 “직업인으로서의 가정부가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이자 자세”³⁹²⁾라는 점에서 춘자와 고용주 가족 사이의 거리감을 더욱 부각시킨다. 한편 춘자는 아주머니가 텔레비전 방송에서 하는 강연의 내용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2장에서 살펴본 지식인 담론장의 어조를 그대로 담고 있어 흥미롭다. “가정부 자신이나 가정부에게 일을 시

392) 권경미, 앞의 글, 29쪽.

키는 주인이나 양자가 먼저 상대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이끌어가야 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 처음 만난 남남끼리라 하더라도 그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여, 정신적인 면에서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147쪽) 이 말을 들은 춘자는 망설임 없이 그것이 ‘사기’라고 생각한다. 늘 자신을 이유 없이 의심하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아주머니의 태도와 ‘뚝뚝한 직업인’으로 대우받아야 할 가정부의 인격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그녀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정부의 이중적 위치를 드러내는 아주머니의 모순적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선을 춘자가 확보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후 대기업 사장의 집에서 아예 ‘종업원’의 위치에 놓이게 된 춘자는 고용주인 ‘주인 내외’와 말조차 섞어보지 못한다. 이 집에서는 “명색 한술밥을 먹는 식구로서 같은 지붕 밑에 사는”(152쪽) 사람이더라도 고용인과 피고용인, 그리고 심지어 피고용인 사이에도 명확한 위계가 나뉘어 있다. 따라서 이 집에서 일종의 계급적 하층에 속하는 춘자는 가정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으로 고발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당대 민족/민중문학의 발흥과 함께 문단의 주요한 경향으로 떠오른 ‘민중성’의 영향이 발견된다. 애초에 가정부인 춘자를 1인칭 서술자로 설정하여 중산층 가정의 위선과 허위를 폭로하려 하는 소설의 서술방식이 그러하거니와, 작품의 중간중간 팍팍한 도시 생활과 달리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시골 생활에 대한 춘자의 회상과 다소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판소리 형식 역시 그러한 색채를 짙게 한다. 중산층 소시민이 아닌 하층 계급, 도시가 아닌 농촌 생활을 옹호하며 ‘민중’을 위한 문학 장르로서 판소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³⁹³⁾ 이러한 관점에서 「춘자의 사계」는 중산층 가정의 모순과 허위를 발견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민중의 형상을 가정부 춘자에게 투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가정부가 민중이라는 범주로 쉽게 환원되면서 정작 ‘가정부’로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는 소거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춘추동 열 번 바뀌도록 한테밥만 처먹던 춘자년이 한번 돌아보는다..... 가진 사람 별것 없고, 배운 사람 별것 없고, 가재 따로 게 따로, 사내 따로 계집 따로, 이리 이용 저리 이용, 먹고 먹히우고, 오만가지 낫도깨비 이리 폴짝 저리 폴짝, 불것없고 쓸 것 없다야. 사람을 볼작시면 마음부터 볼 것이로되, 그 마음 만나기가 이리도 더디구나(얼찌구 그렇고말고). 허나 있기는 있더라. 오장육부 제대로 박힌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 (199쪽)

소설의 결말에서 춘자는 별안간 지금까지의 인생역정을 판소리 ‘박타령’으로 바꾸어 부르면서 이야기를 마친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정부로 살면서 춘자가 겪은 부당한 일들이나 그에 대한 분노, 또는 잠깐 등장했던 춘자의 심리와 욕망 등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즉 판소리의 한 대목으로 가정부의 삶이 요약되면서 이제껏 소설에서 포착했던 삶의 구체적인 국면

393) 익히 알려져 있듯이 1970년대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문학장에서 저항적 민족문학론이 대두될 때, ‘민중’은 피지배층을 광범위하게 가리키는 일반 용어를 넘어서서 민족문학의 주체이자 변혁의 주체로 호명되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피지배 집단 및 계층을, 경제적으로는 노동자와 농민 등 생산 수단으로부터 소외된 계급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했다. 민중을 둘러싼 1970-80년대 지식인들의 기획은 민족주의 구호를 내걸고 군사정부가 추진했던 ‘근대화’프로젝트에 맞서 그에 대한 비판의식을 지닌 저항적 집단을 역사 발전의 새로운 주체로 불러내는 것이었고, 그러한 경향은 문학에도 반영되었다. 저항적 주체로서 ‘민중’과 1970년대 민족문학론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송은영, 「민중문학이라는 쟁쟁아-1970년대 『창작과비평』의 민중론과 민족주의」, 『상허학보』, 상허학회, 2016, 533-538쪽 참조.

들이 다소 성급하게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오장육부 제대로 박힌 사람”에 속하는 마지막 집 주인인 맛별이 부부는 유일하게 춘자를 ‘가족처럼’ 받아들여 준 사람들이는데, 춘자는 주인 ‘언니’의 소개로 한 남자와의 약혼을 앞두고 있다가 그들 부부의 어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죽음에 이른 아이와 슬퍼하는 부부를 지켜보며 춘자 또한 공감과 연민의 눈물을 흘린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의 문장이다. “물론 그 눈물 속에는 그동안 살아온 내 처지가 서러워서 나오는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197쪽) 즉 춘자의 눈물에는 주인집 부부의 처지에 대한 동정뿐만 아니라 가정부로 살아오면서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한 슬픔과 서러움이 함께 서려 있다. 그러나 소설의 결말에서 스치듯 돌출했던 이러한 감정들은 소설의 결말에서 ‘마음씨 좋은’ 주인집 부부의 처사로 해결되고, 오히려 전자의 정당성만이 극대화된다.

요컨대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이 소설은 가정부 춘자를 통해 중산층 가정을 비판하겠다는 포부로 시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상황을 판단할 객관적 시선을 지닌 ‘완전한 외부인’인 가정부는 가족제도 자체의 경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둘째로 지배층을 비판하는 서술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부 서술자는 이른바 ‘민중’의 대표성을 지닌 인물로 환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부의 개별적 경험과 다양한 갈등의 흔적들은 성급하게 은폐된다. 상술한 식모의 경우 중층적인 정체성 수행을 통해 근대적 가족 형태의 성립 자체를 문제 삼았다면, 가정부는 그러한 수행의 기회가 박탈된 위치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중산층의 위선을 고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과 폭로는 비로소 좋은 인품의 주인을 만나게 된 춘자가 자신의 고달픈 삶을 웃음으로 회상하며 마무리하는 결말로 봉합되고 만다. 가정부 서술자의 비판적 시선이 근대적 가족 담론의 당위에 도전하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고 승인하는 형태로 전환될 때, 그것이 갖는 균열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아들 동수를 잃은 주인집 언니 부부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춘자는 “피를 나누어 갖지 않은 타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마음과 마음을 서로 진심으로 나누어 가졌을 때”(196쪽)의 감동을 새삼 확인한다. 이러한 감동은 그들이 춘자를 ‘가족처럼’ 대해 주었고, 춘자 역시 주인집 가족이 ‘내 가족인 것처럼’ 진심을 다해 일했으며, 불가능해 보였던 ‘행복한 가족’을 춘자 역시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배가되는 감정이다. 하지만 결국 춘자는 이들 가족과의 관계에서 유사-가족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 춘자가 결혼하지 않고 아들을 잃은 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하자 언니는 “쓸데없는 소리”(197쪽)라며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이때 춘자가 자신만의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언니의 주장을 소설은 ‘지혜로움’으로 묘사한다. 즉 ‘아직 주부가 되지 않은’ 가정부와 그러한 가정부를 둔 주인집 가족의 형태는 스위트홈의 미달태로서 가족의 이상적 구조를 성취할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담론장에서 유포되는 근대적 가족의 경계는 오히려 공고해진다.

5. 나오며

지금까지 1960~70년대 담론장에서 ‘식모’가 갖는 존재성과 그 변화를 탐색하고, 변화하는 식모의 표상이 당대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당시 식모는 가사노동의 부담이 과중했던 주부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신문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배적 담론들은 식모를 없애고 주부들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전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식모 폐지론’은 ‘모범 주부’의 이상을 여성들에게 강요하고 여성의 위치를 가정 내부에 국한하려는 성 담론의 보수화와 발맞추어 제출된 것으로, 식모의 존재를 주

부들의 탈선과 연결지으며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따라서 근대화된 가정 즉 '스위트홈'의 조건은 식모 없이 주부가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하는 가족 형태로 정립되었다.

이에 YWCA 등 여성 단체에서는 식모의 명칭을 '가정부'로 개선하고 독립적인 직업으로 인정하자는 운동을 펼쳤는데, 이때 새롭게 등장한 집단이 '시간제 가정부'였다. 이후 '파출부'로 불리게 된 기혼 여성 위주의 시간제 가정부들과 달리 미혼 여성 중심이었던 기존의 식모들은 가정부라는 이름을 단 채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숙식하며 보수를 받고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다만 1960년대 식모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열악한 노동 환경, 비인간적인 처우 등과 관련하여 법적 고용 관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제기되었다면, 1970년대 이후 가정부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직업인'으로서 오히려 고용주 가족의 일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식모와 가정부 담론이 각각 반영되어 있는 손창섭의 장편 연재소설 『인간교실』과 최일남의 「춘자의 사계」를 살펴본 결과, 두 경우 모두 '근대적 가족'의 이상으로 일컬어지는 스위트홈 담론에 도전하고 있었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교실』의 식모 보순은 스스로 유사-아내, 딸, 어머니의 위치를 오가면서 중층적인 정체성 수행을 통해 근대적 가족 형태에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등장하였다. 소설의 마지막까지 주인공인 주인공에게 대한 유사-근친상간적 관계를 포기하거나 텍스트 바깥으로 퇴장하지 않는 보순의 존재는 그러한 위협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한편 「춘자의 사계」에서 가정부 춘자는 식모와 달리 고용주(주로 가정의 주부)와 계약 관계를 통해 일정 보수를 받고 정해진 일을 담당하는 외부인으로서, 자신을 고용한 가족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여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스위트홈 담론의 허위를 폭로하는 화자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폭로의 효과가 가족제도 자체에 균열을 일으킬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는데, 결국 가정부가 스스로 완전한 외부인임을 인정하고 향후 새로운 가정의 주부가 될 것을 희망함으로써 근대적 가족의 경계를 다시 공고히 하는 결말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춘자라는 가정부 서술자는 '민중'의 비판적 시선을 대변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정부의 삶과 경험의 구체적인 결들이 폐기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1960년대 가정의 근대화 문제와 맞물려 적극적으로 담론화되었던 식모가 1970년대를 거치며 가정부라는 새로운 명칭과 위상을 갖게 될 때, 이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담론 역시 변화하는 주거 환경과 가족 형태를 아우르며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이 글은 그러한 변화의 양상을 당시의 소설에 반영된 식모 및 가정부 표상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식모와 가정부 표상의 문학적 재현 문제에 관하여 더욱 폭넓게 다루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손창섭, 「인간교실(1~225)」, 『경향신문』, 1963.4.22.~1964.1.10.

최일남, 『春子の 四季 : 崔一南小説集』, 문학과지성사, 1979.

2. 논문 및 단행본

강유진, 「손창섭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강이수,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페미니즘연구』 7(2), 한국여성연구소, 2007.

권경미, 「1970년대 여성노동자 담론과 비노동자로서의 가정부」,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김문정,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젠더 표상 - 『부부』와 『인간교실』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65, 동악어문학회, 2015.

김영삼, 「'객관적 폭력'의 비가시성과 폐제되는 식모들의 목소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32,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이매진, 2006.

김은하, 「중산층 가정소설과 불안의 상상력: 강신제의 장편 연재소설을 대상으로」, 『대중서사연구』 22, 대중서사학회, 2009.

김정화, 「1960년대 여성노동-식모와 머스안대양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1, 역사학연구소, 2002.

류동규, 「1960년대 손창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문화와 융합』 31, 한국문화융합학회, 2009.

박찬효, 「손창섭의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양치 이데올로기의 균열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_____, 『한국의 가족과 여성혐오, 1950~2020』, 책과함께, 2020.

손윤권, 「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식모의 양상」, 『인문과학연구』 17, 강원대인문과학연구소, 2007.

송은영, 「민족문학이라는 쌍생아-1970년대 『창작과비평』의 민중론과 민족주의」, 『상허학보』, 상허학회, 2016.

신경아, 「산업화 이후 일-가족 문제의 담론적 지형과 변화」, 『한국여성학』 23(2), 한국여성학회, 2007.

오창은, 「도시의 불안과 여성하위주체- 1970년대 '식모' 형상화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황병주, 「1970년대 중산층의 소유 욕망과 불안」, 노지승 외,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인간의 재구성』, 후마니타스, 2018.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역, 민음사, 2015.

사라 아메드, 『행복의 약속』, 성정혜·이경란 역, 후마니타스, 2021.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12.

3. 기타 자료

「식모를 두지말자」, 『경향신문』, 1962.11.27.

「주부들의 식모시비」, 『경향신문』, 1962.12.4.

「허식 버리고 실리주의로 부엌 고쳐 생활개선 찬성 보내준 남성들에 감사」, 『경향신문』, 1962.12.15.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4.6.29.

「식모신상조사」, 『조선일보』, 1966.3.27.

「신가정경영학(3)-식모없는 살림」, 『조선일보』, 1967.1.15.

「식모 폐지론」, 『경향신문』, 1967.1.28.

「알뜰한 살림」, 『경향신문』, 1968.4.22.

「주부부재」, 『동아일보』, 1968.8.8.

「실속없는 서울의 중류가정, 빛 가불로 전서효과만」, 『동아일보』, 1968.11.14.

「70년대에 맞을 '모던 리빙'의 자세」, 『경향신문』, 1969.1.1.

「부모상」, 『동아일보』, 1969.9.9.

「가정부재」, 『조선일보』, 1969.9.25.

「“의욕 살려 만능 주부로” 여성을 위한 두가지 문제점」, 『매일경제』, 1970.2.24.

「식모없는 살림을」, 『매일경제』, 1972.2.25.

「사는재미는 저축에, 알뜰한 주부상 수상자를 통해 본 살림」, 1972.3.11.

「폐습 (7) 식모살림」, 『동아일보』, 1972.3.27.

「만물상」, 『조선일보』, 1973.9.7.

「실리있는 아파트 생활…」, 『경향신문』, 1973.12.14.

「시간제가정부를 더 원한다」, 『동아일보』, 1976.1.16.

「주부와 가정부」, 『조선일보』, 1977.4.7.

「가정부없이 살수있다면」, 『동아일보』, 1977.7.26.

「다양해진 여성 직업 훈련」, 『조선일보』, 1978.3.30.



‘가족’이라는 윤리의 폭력성과 전복의 정당성

- 황정은의 「파묘」(2019)와 강화길의 「음복(飲福)」(2019)을 중심으로

공 라 현(현대비평 박사과정)

차례

1. 들어가며
2. 타자지향적 공감의 부재와 소외로부터의 이탈: 황정은의 「파묘」
 - 2.1. 가족 내 ‘내부적 외부인’과 애도의 좌절
 - 2.2. 무의지적 관계성의 자각과 공거(共居)의 지향
3. 일방적 이해의 강요와 폭력의 환치: 강화길의 「음복(飲福)」
 - 3.1. ‘악역’의 출현과 피해-가해의 역전
 - 3.2. 불화의 내파와 상호의존적 연대의 모색
4. 나가며

1. 들어가며

역사적 산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원(起源)이자 최후의 근거지로 상정되는 ‘가족’은 보편적으로 다른 사회 조직이나 관계에서는 얻기 힘든 정서적 만족과 유대, 안전함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실체로 정의된다.³⁹⁴⁾ 가족은 생물학적 재생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이고 자연적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사실 가족은 구체적인 사회 현실과의 상호작용과 역학 관계를 통해 정치적으로 만들어지고 ‘구성’된다.³⁹⁵⁾ 그래서 ‘가족’은 동시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긴밀하게 조응하며 “계급 배치의 강력한 기관이자 젠더 불평등을 생산하고 전수하는 유효한 메커니즘”³⁹⁶⁾으로 기능한다.

또한,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족 내에서 하나의 윤리적 규범 준칙이자 집단적 에토스³⁹⁷⁾로 작용하여 “개인의 가치와 행위규범의 강력한 준거 틀”³⁹⁸⁾로 기능한다. 가족생활의 에토스는 가족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성을 억압하고 통일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³⁹⁹⁾ 때문에 ‘보편성’을 내세우는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족이라는 배타적 영역으로의 ‘포섭’과 ‘배제’라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가족 구성원에게 공통의 윤리를 따를 것을 요구한다. 이때, 가족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가치 준거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규범은 하나의 ‘윤리적 폭력’으로 작동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윤리적 폭력을 “자기-동일성을 표명하고 유지해야 하며 타자들 역시 그래야 한다고 요구하는 폭력”⁴⁰⁰⁾이라고 정의한다. 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한

394) 권명아,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21, 14-15쪽 참조.

395) 위의 책, 14쪽 참조.

396) 미셸 바렛·메리 맥킨토시, 『반사회적 가족』, 김혜경·배은경 역, 나뭇잎스, 2019, 65쪽.

397) ‘에토스(ethos)’는 성격, 관습을 뜻하는 옛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철학 용어로, 일반적으로 인간의 윤리적 성상(性狀)을 가리킨다. 즉, 에토스는 육화된 윤리로서, 인간을 내면으로부터 일정한 행동 양식으로 이끌어내는 실천적인 추진력을 의미하며, 어떤 시대나 어떤 민족의 지배적 의식 형태를 지칭하기도 한다. 철학사전편찬위원회 편, 『철학사전』, 중원문화, 2012.

398) 김혜영, 앞의 글, 4쪽.

399)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양효실 역, 인간사랑, 2013, 12쪽 참조.

윤리적 폭력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타자‘들’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완벽한 일관성”⁴⁰¹⁾만을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가족 공동체가 자기 동일성의 기준에 따른 집단적 규범 준칙을 개별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 되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는 이러한 윤리적 폭력에 맞서 ‘우리’라고 말하는 정체성이 우리를 포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타자들의 불투명성을 기꺼이 승인할 때, 그 윤리적 실패로부터 새로운 의미의 윤리를 출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⁰²⁾ 인간은 근원적으로 취약성을 지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자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상호의존할 수밖에 없다.⁴⁰³⁾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존재론적 한계를 자각함으로써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시키지 않는 윤리, 타자를 살리는 윤리”⁴⁰⁴⁾로 나아가는 “타자와의 공거(共居, cohabitation)”⁴⁰⁵⁾와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고 버틀러는 역설한다.

이러한 이론적 전제하에 본고는 황정은의 「파묘」⁴⁰⁶⁾와 강화길의 「음복(飲福)」⁴⁰⁷⁾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2005년 「경향신문」에 「마더」가 당선되며 등단한 황정은(1976~)은 주로 세계의 폭력에 의해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는 ‘하찮은 존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작가로 평가된다. 황정은의 「파묘」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건형·김녕·이지은·한설의 짧은 계간평으로 구성된 「예민한 소설들, 그 미세한 기율기」에서는 「파묘」에 대한 각기 다른 단상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탈조선’을 실행하고 있는 한만수가 엄마 이순일에게 위대한 모성을 거론하며 하사하듯 말한 행동에 주목하며, 반권위 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청년(한만수)조차 여전히 젠더화된 권력을 가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성묘가 가족주의를 나타내는 상징이라면, 파묘는 가족주의의 해체를 나타내는 신호”⁴⁰⁸⁾라고 보고 있는 한설의 단평은 유의미하다. 그는 이 소설이 “갈수록 불측해지는 가부장주의”⁴⁰⁹⁾에 맞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한다고 해석한다. 이와는 다르게 박윤영은 ‘돌봄 노동’이라는 주제 의식에 집중하여 “포기와 순응, 인내와 희생으로 점철된 과거 우리 ‘어머니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⁴¹⁰⁾는 이순일의 삶을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윤국희는 이순일의 할아버지에 대한 애도가 남편에게는 부정되고 아들에게는 무리하는 일로 치부되고 있는 장면을 거론하며 이것이야말로 윤리적 폭력의 한 형태라고 지적한다.⁴¹¹⁾ 이와 같은 윤국희의 주장은 본고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폭력에 맞서는 여성-

400) 위의 책, 75쪽.

401) 위의 책, 같은 쪽.

402) 위의 책, 76-77쪽 참조.

403) 주디스 버틀러, 『위태로운 삶』, 윤조원 역, 펠로소픽, 2021a, 62쪽 참조.

404) 전해은, 「근대적 주체 이후의 행위성: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성 이론」, 『영미문화페미니즘』 19(2), 한국영미문화페미니즘학회, 2011, 163쪽.

405) 주디스 버틀러,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 양효실 역, 시대의창, 2016, 52쪽.

406) 황정은, 「파묘」, 윤성희 외, 『2019 김승옥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19. 「파묘」는 『창작과 비평』(2019년 봄호)에 처음 발표되었다. 그러나 본고의 인용은 이 책의 표기를 따르고 괄호 안 쪽수로 표기할 것이다.

407) 강화길, 「음복(飲福)」, 강화길 외, 『2020년 제11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21. 「음복」은 『문학동네』(2019년 가을호)에 처음 발표되었다. 그러나 본고의 인용은 이 책의 표기를 따르고 괄호 안 쪽수로 표기할 것이다.

408) 김건형 외, 「예민한 소설들, 그 미세한 기율기」, 『문학동네』 26(2), 문학동네, 2019, 12쪽.

409) 위의 글, 13쪽.

410) 박윤영, 「엄마의 자리에 서서 : 돌봄과 자기윤리 - 황정은, 김유담, 김초엽의 소설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137, 실천문학사, 2020, 186쪽.

411) 윤국희, 「황정은 소설에 나타난 ‘윤리적 폭력’ 비판」, 『한국근대문학연구』 20(2), 한국근대문학

타자의 저항적 시도에 대해 보다 더 확장된 논의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음으로, 2012년 「경향신문」에 단편소설 「방」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한 강화길(1986~)은 “한국문학에서 심리 스릴러의 장르적 문법을 가장 잘 차용”⁴¹²⁾하는 작가라고 알려져 있다. 강화길의 「음복(飮福)」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숙영은 가부장적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아온 윗세대의 여성들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차세대 여성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여성들의 공모를 통해 남성들은 자신이 착취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 주장한다.⁴¹³⁾ 여성 작가로서의 당사자성으로 살피고 있는 선우은실 역시 세나의 ‘앓’과 정우의 ‘무지’는 서로 비견된다고 분석한다. 특히 그는 여성의 ‘앓’이란 “몰라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세계의 젠더 윤리로 공고하게 자리한 권력의 비대칭성에 의한 것”⁴¹⁴⁾임을 폭로한다. 끝으로 오은교는 가부장제가 만연한 사회에서 앓은 젠더화되고, 분노와 고통이 난무하는 가내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의 ‘무지’는 곧 권력이 된다고 설파한다. 그러나 앓과 무지라는 권력의 작동법을 알게 된 집행자로서 여성은 앞으로 이 법의 내용과 해석체계를 바꿔나가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오은교의 주장은 여성이 전복의 야망을 품고 있음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앞의 두 논의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⁴¹⁵⁾

이처럼 「음복(飮福)」에 대한 기존 연구는 공통적으로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들의 희생에 대해 ‘모름’으로 일관하는 남성의 ‘무지’를 하나의 권력으로 보고, 그에 따른 남녀 차별적인 성별분업과 수직적인 위계 구조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러나 본고는 남성, 즉 정우의 ‘무지’가 가부장제의 작동방식뿐만 아니라 그의 ‘출생의 비밀’과 긴밀하게 관련된다고 봄으로써 이 무지를 둘러싼 가족 내 윤리적 폭력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폭력은 마침내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역전시킨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다.

이에 본고는 황정은의 「파묘」와 강화길의 「음복(飮福)」을 중심으로 가부장적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폭력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폭력에 노출된 인물들이 폭력에 대항하여 수행하는 전복적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황정은의 「파묘」를 분석할 2장에서는 여성-타자를 향한 공감과 이해가 ‘부재’하는 가부장적 가족 안에서 외부의 ‘인정’을 얻지 못한 여성이 결국 구성적 외부로 소외되는 폭력을 다룬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타자의 고통을 대면하고 타자를 수용하는 공거의 윤리를 통해 폭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저항적 시도에 대해 논한다. 강화길의 「음복(飮福)」을 다룬 3장에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윤리를 내세워 여성에게 일방적인 이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윤리적 폭력에 대해 분석한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인 여성들이 상호의존적인 연대를 맺음으로써 가부장제가 행사하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전도하는 수행적 행위에 대해 고찰한다.

회, 2019, 328쪽 참조.

412) 강지희, 「2020 제11회 젊은 작가상 심사평」, 『2020 제11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20, 281쪽 참조.

413) 강숙영, 「오래된 세계에서 벗어나기 - 강화길 「음복」, 권효진 「내 생애 처음 파티」, 최은영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문학/사학/철학』 62, 2020, 125-126쪽 참조.

414) 선우은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 말할 때 필요한 것 - ‘당사자성’을 중심으로」, 『문학들』 64, 심미안, 2021, 53쪽.

415) 오은교, 「여성주의 가족 스릴러」, 『2020 제11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20, 44-49쪽 참조.

2. 타자지향적 공감의 부재와 소외로부터의 이탈: 황정은의 「파묘」

2.1. 가족 내 '내부적 외부인'과 애도의 좌절

황정은의 「파묘」는 장녀인 한영진의 시가(媳家) 재산인 “오층 단독 빌라”에 살며 일흔들의 나이에 황혼 육아와 돌봄 노동에 시달리는 이순일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아내이자 어머니인 이순일은 워킹맘인 한영진의 집(5층)과 자기 집(4층)을 오르내리며 힘들게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하지만, 그의 고된 노동과 피로감에 대해 알아주는 가족은 아무도 없다.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인 한중언과 장녀 부부의 아침을 챙기고, 사위의 눈치를 보며 손주들의 어린이집 등원을 돕는 등 조금의 쉴 틈도 없이 두 집 가사를 돌보느라 온종일 바쁘다. 이순일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지만,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 고통과 자기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영유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상실감에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이순일의 노동을 당연시하며 그가 느끼고 있는 피로움에 대해 무감각하다. 나아가 가족들은 어머니인 이순일의 취약함을 외면하고, 이순일에게 가족 내 주체로서의 합당한 ‘인정’을 제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① (...) 이 나이에 사위 집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 줄은 몰랐다고 이순일은 한탄했다. 그런 얘기를 이순일은 한세진에게만 했다. 한영진에게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한만수는 너무 멀리 있었다. 한세진은 가끔 이순일의 피로에 책임을 느꼈지만, 그 집 구석구석에 쌓이고 있는 엄마의 피로와 엄마의 후줄근한 크룩스 샌들 같은 것이 자기의 무능 닷 같은 순간도 있었지만, 대개는 그 이야기들을 그냥 들었다. 그래 엄마, 그래요, 하면서. (159)(밑줄 인용자)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순일은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가족들에게 호소하고 그 고통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그는 가족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한다. 남편인 한중언을 포함하여 장녀인 한영진이나 막내인 한만수는 이순일의 돌봄 노동을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응당 해야 할 자연스러운 책임으로만 치부했고, 그의 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사적(私的)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가족의 이러한 인식 속에는 이순일이 가족 내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당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체가 내재해있다. 이순일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차녀인 한세진조차 “그래 엄마, 그래요.”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흘려듣는다. 가족들에게 이순일이라는 존재는 “후줄근한 크룩스 샌들 같은 것”처럼 보잘것없이 허름하고 하찮은 존재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순일이라는 개별자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인정’을 얻지 못해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부인되고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인정’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틀’이자 ‘주체화의 양식’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적 인정을 통해서만 주체로서 사회적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인정을 얻지 못하는 개인의 삶은 비가시화되거나 정상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한에서만 가시화된다.⁴¹⁶⁾ 이순일은 가족으로부터 합당한 인정을 얻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에 드리워진 고통은 지속적으로 비가시화되고 그의 욕망 또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가족들은 이순일의 희생적인 돌봄 노동이 있었기에 자신들의 안정적인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고 평화롭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다. 이들은 또한 이순일의 삶에 대해 무관심과 몰이해로 일관하며,

416) 조주영, 「‘취약성’ 개념을 통한 상호주관적 인정관계의 재구성」, 『한국여성철학』 30, 한국여성철학회, 2018, 36쪽 참조.

이순일의 슬픔에 공감하지 않고, 그와의 의사소통에서도 단절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한만수의 태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② 당신은 위대하다.

한세진은 그 메시지를 듣고 처음엔 어리둥절했는데 그 다음엔 미간에 살짝 뺨이 돌는 느낌으로 화가 났고, 그게 뭐였는지, 왜 그것이 모욕감과 닮았는지, 자기가 왜 그런 걸 느꼈는지를 나중에 생각해보았다. 아마도 한만수의 한국어 때문인 것 같다고 한세진은 생각했다. 한만수는 그것을 영어로 들었을 텐데 그래서인지 말투가 좀 영어였지, 홀을 권 왕이 그것을 하사하듯 그애는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지.

그날 이순일은 부엌과 거실 사이를 오가며 그즈음 어느 때보다도 생기로웠고 그 자리에 모인 누구보다도 분주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 이순일이 자주 불을 붙히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한만수가 전한 메시지를 되새기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굴 것 같은 상태라는 것 한세진은 알았다. (168)(밑줄 인용자)

한만수는 어머니인 이순일에게 뉴질랜드의 백인 할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어머니는 위대하다. 당신은 위대하다”(167)라는 ‘프레젠티 메시지’를 들려준다. ‘당신은 위대하다’는 이 발언은 이순일에 대한 외부의 ‘인정’을 함의한다. 그러나 한만수는 왕이 아랫사람에게 하달하는 듯한 목소리와 억양으로 이 언술을 발화하여 메시지가 가진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전도시킨다. 그는 시혜적인 말투로 어머니에게 그의 ‘인정’을 하사품처럼 수여하는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지켜보는 한세진이 모욕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것은 이순일에 대한 한만수의 ‘인정’이 희화화되고 부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순일은 아들에게 정당한 주체로 존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구 반대편의 완전한 타인인 백인 할아버지가 행한 ‘당신은 위대하다’라는 ‘인정’은 이순일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그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순일의 인정에 대한 결핍이 그의 가족이 아니라 그를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으로부터 충족되고 있는 것은 이순일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더욱 부각시킨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이순일은 ‘애도의 행위’에서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만다. 애도는 “주체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슬픔을 넘어서 타자에 무게를 두고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해나가는 공격적인 행위”⁴¹⁷⁾로, 주체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애도하는 행위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⁴¹⁸⁾ 그러나 가족으로부터 상호 인정을 얻지 못한 이순일은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주체적 지위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그의 애도가 가족과 타인에 의해 반복적으로 좌절될 뿐만 아니라, 애도라는 윤리적 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③ 어릴 때부터 그 사진이 걸린 공간에서 그것을 멍하니 혹은 골똘히 올려다보며 살아서인지, 한세진에게 그는 여러 번 만난 사람 같았다. 매년 그에게 간단한 안부를 묻는 정도의 심정으로 성묘길에 동행했다. 한세진이 같이 가기 전에는 이순일이 몇 번이고 버스를 갈아타며 혼자 그 길을 다녔다. 한영진이나 한중언은 그럴 생각이 없어서, 한중언의 장남이자 한씨 집안의 막내인 한만수는 너무 어리거나 길을 몰라서, 그 길에 동행한 적이 없었다.

한영진과 한중언은 거기 뭐가 있다고 매년 기를 쓰고 가느냐는 입장이었다. (155)(밑줄 인용자)

④ (...) 지금처럼 여기로 편하게 올라오는 길도 없어서 능선을 타고 이리저리 돌아서 마침내 묘에 다다랐는데, 절할 때 보니 네 아버지가 저만큼 떨어져서 뒷짐을 진 채 굳이 돌아서 있더라,

417) 박지원, 「애도의 페다고지 : 주디스 버틀러의 ‘취약성’과 ‘공거의 윤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78쪽.

418) 위의 글, 82쪽 참조.

그래 어처구니가 없어서, 거기서 뭘 하느냐고 이리 와서 질 올리라고 말했더니 처가 쪽 산소엔 별초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 잡소리를 하기에 너무 당혹스럽고 열받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얼른 질 올리라고 역정을 냈는데 그걸 듣고도 뒷집지고 서 있더라며 그뒤로 야속하고 징그러워 같이 오자고 하지 않았다고, 네 아버지와 동행한 것은 그것 딱 한 번으로 그쳤다고 이순일을 말했다. (162-163)(밑줄 인용자)

이순일에게 ‘할아버지의 묘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뿌리’가 존재하는 곳이자 기대어 의지할 수 있는 ‘친정’ 같은 소중한 곳이다. 그래서 이순일이 매년 할아버지의 묘에 성묘하러 가는 것은 친정을 방문하는 행위이자 할아버지를 애도하는 윤리적 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순일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가족들은 “처가 쪽 산소엔 별초도 하지 않는 법”이라며 등을 돌려 멸시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거나, “거기 뭐가 있다고 매년 기를 쓰고 가느냐”고 타박한다. 심지어 가족들은 이순일의 산행을 “무리”라고 칭하며 이순일의 애도 행위를 가볍게 여긴다. 가족의 이러한 비협조와 무관심으로 인해 이순일의 애도 행위, 나아가 이순일에 대한 ‘인정’은 계속해서 좌절되고 부정된다. 이것은 이순일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이해의 부족, 이순일을 향한 타자지향적 공감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곧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순일에게 가해지는 ‘윤리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부정과 소외의 폭력으로 인해 이순일은 그의 가족으로부터 일종의 ‘구성적 외부’⁴¹⁹⁾의 영역으로 배제된다.

주디스 버틀러는 “상호주관적 인정 관계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구성적 외부로서 인정 관계 밖에 놓이게 되는 타자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⁴²⁰⁾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족 공동체의 인정을 결여한 이순일은 가족 내에서 ‘주체’로 정립하지 못하며, 구성원들에게 있어 이순일은 언제나 구성적 외부로 쫓겨난 ‘타자’이자 ‘비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윤리적 폭력은 타자의 취약함과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타자를 주체의 내부에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무한하고 해석 불가능한 타자는 가족이라는 억압의 윤리로 묶이고, 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동일자적 욕망에 의해 구성적 외부로 밀려나 그의 타자성은 훼손되고 만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장 취약한 타자로 존재하는 이순일은 이해받지도, 인정을 얻지도 못하는 ‘내부적 외부인’으로 전락하고, 그의 애도는 폭력적 권력과 결탁한 가족들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끝끝내 제대로 완결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과묘」의 인물들이 남편, 엄마, 딸, 아들 등의 관계적 호칭이 아니라 한중언, 한영진, 한세진, 한만수, 그리고 이순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의도적인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가는 이를 통해 가부장적 가족 내에서 제대로 된 호명(呼名), 즉 ‘인정’을 받지 못하는 타자 이순일의 개인적 서사를 객관화하고 그의 소외를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이름의 제시는 이순일이 ‘한 씨’로 통일되는 ‘가족’으로부터 분리 및 배제되고 있으며, 그가 가족 내에서 ‘내부적 외부인’으로 위치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복선적 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19)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담론은 반복의 시간적 효과를 통해 물질성의 경계를 표면화하고 응고시킨다. 담론을 통해 구성된 동일성은 스스로를 구축하고 확립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것과 배제 혹은 폐제되어야 할 것을 생산하는데, 이때 배제된 것들, 즉 구성적인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틈과 균열들, 혹은 규범을 벗어나거나 넘어선 것을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라고 부른다. 주디스 버틀러,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김윤성 역, 인간사랑, 2003, 33-40쪽 참조.

420) 조주영, 앞의 글, 42쪽.

2.2. 무의지적 관계성의 자각과 공거(共居)의 지향

한세진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이순일을 챙기며 함께 산을 오르는 인물이다. 그도 처음에는 엄마인 이순일의 이야기를 흘러듣고 그의 아픔을 외면했었다. 그러나 이순일과 함께 성묘를 다니고 파묘를 지켜본 한세진은 점차 이순일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엄마의 얼굴을 응시하며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가족의 윤리적 폭력으로 인해 내부적 외부인이 되어버린 이순일을 상처받은 '얼굴'로 지각하고 그의 취약성을 수용하게 된다. 이순일에게서 취약한 타자의 얼굴을 접하고 강한 감정을 느끼는 행위를 통해 한세진은 이순일과의 무의지적 관계성과 무선택적 근접성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①한만수는 질색을 하면서도 엄마답다고 한참 웃은 뒤 누나가 수고했다. 수고가 많다고 말했다. 그래도 누나, 너무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지는 마. 그런 거 아냐. 너무 효도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어. 효? 그것은 아니라고 한세진은 답했다. 그것은 아니라고 한세진은 생각했다. 할아버지한테 이제 인사하라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라고 권하는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았다면 누구라도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언제나 다만 그거였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174)(강조 및 밑줄 인용자)

한만수는 이순일의 파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그는 엄마인 이순일이 하자는 대로 산에 함께 오른 누나의 행위는 그저 효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린다. 그러면서 너무 효도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점잖게 충고를 한다. 그의 말속에는 한세진의 행동이 걸치레에 가까운 행위일 뿐이라는 전제가 내재해있다. 그러나 한만수가 간과한 것은 이순일의 내면에 존재하는 '애도를 향한 강한 욕망'과 '의지'이다. 한만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가족의 폭력에 의해 배척되어 버린 이순일의 본질적인 아픔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한세진은 한만수의 말을 부정하며 자기 행동이 단지 '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그는 "마지막으로 인사하라고 권하는 엄마의 웃는 얼굴"을 마주하고, 그로부터 강한 연민, 아픔, 혹은 슬픔 같기도 한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 이때 한세진에게 다가온 이순일의 얼굴은 타자의 '얼굴'로 현현하는 '말 걸기'⁴²¹⁾에 해당한다. 이순일은 현재 가족 내 윤리적 폭

421) 주디스 버틀러는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얼굴의 윤리'를 전유하여 타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덕적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에게 도덕적 명령을 제시하는지 설명하고자 했다. 먼저 레비나스는 타자를 재현하는 대신 타자가 어떻게 재현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달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얼굴(face)을 인용한다. '얼굴'은 직설법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한 존재가 우리와 접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타자는 우리에게 얼굴로 나타나 우리를 바라보고 호소하며 스스로를 표현한다. 특히 레비나스는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제시하여, 그 얼굴이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다가온다고 말한다. 얼굴은 언어의 작용으로 표현될 수 없다.

주디스 버틀러에 의하면, 얼굴은 우리에게 다른 지각 있는 존재의 고통을 알려주는 무엇이다. 얼굴은 고통을 체현한다. 그것은 다른 삶 속의 불확실한 그 무엇, 혹은 오히려 삶 자체의 불확실함에 깨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얼굴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그 고통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타자의 불확실한 얼굴은 우리에게 재현불가능한 방식으로 나타나 고통에 반응하기를 요청한다. 또한, 타자의 얼굴은 나의 예상과 계획을 넘어 갑작스럽게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구성한다. 말 걸기의 대상이 될 때 타자는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 이 요구는 '우리의 의무를 표명하며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요구'가 된다. 타자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고통에 너의 책임이 있다고 타자는 주체로서의 나에게 호소하며, 이 호소는 내 안에서 균열을 생산한다. 즉, 타자는 말 걸기의 구조 속에서 나에게 응답을 요구하며 나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선현, 「주디스 버틀러의 <불확실한 삶>에 나타난 제1세계 지식인의 자기 제한적 실천으로서의 문화 번역」, 『비평과

력으로 인해 구성적 배제의 영역으로 내몰려 주체성이 거부된 절대적 타자에 속한다.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부여받지 못하고 합당한 애도마저 좌절된 그의 얼굴은 실존적 고통과 슬픔으로 손상되어 있다. 그러나 이 상처 입은 얼굴은 한세진에게 이순일이라는 타자를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것을 강제하는 강한 윤리적 명령으로 다가온다. 연민인지 슬픔인지 모를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을 경험하면서 한세진은 곧 자기 자신의 내부에 이순일이라는 타자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윤리적 책무’를 깨닫게 된다. 한세진이 느끼고 있는 ‘아픔’이라는 감정은 타자의 얼굴의 출현에 대한 ‘감응’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버틀러는 레비나스의 이론을 전유하여 ‘나’에 선행하는 타자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타자(the Other)는 ‘나’가 주체로서 확립되기 이전에 나를 마주하게 되고 수동적 관계 속에서 나의 전사(前史)를 구성하며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무의지적인 동시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박해적’이다.⁴²²⁾ 즉, 나는 “내가 완전히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타자에게 양도되어 있”⁴²³⁾으며, 나와 접합하는 타자는 무의지적 관계성으로 ‘나’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라는 주체는 타자와 필연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한세진은 이순일의 얼굴을 접하며 바로 이 타자와의 근원적인 상호의존성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한세진은 이순일의 고뇌와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로부터 타자의 위태로움을 인지한다. 그러나 이때 이순일이라는 타자에 대한 앎과 연민은 모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개별자와 개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존재론적 성찰에 가깝다. 한세진은 이순일이라는 취약한 타자를 발견한 후, 그를 ‘인정’하고, 그의 고통에 공감하며, 자신의 내부에 그를 수용하고자 한다. 한세진은 이순일의 말 걸기에 이러한 윤리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주체와 타자, 이성과 비이성, 보편과 특수의 다양하면서도 이질적인 목소리가 공존하는 공동거주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⁴²⁴⁾, 즉 공거(共居)로 나아가고자 한다.

② 그들은 산자락에서 아까시나무 **군락**을 만났다. 아직 어린나무들이었다. 한 그루 한 그루 연필처럼 곧고, 얇은 가지에 괴상할 정도로 큼직하게 돋은 가지들은 **강철 같은 색**을 띠고 있었다. 이순일은 질색했지만 **한세진은 그게 아름다워서 잠시 낫을 잃고 보았다.** 어느 쉼씨 좋은 손이 흑연을 사용해 **공들여 그린 그림** 같았고 어딘가 다른 차원과의 경계를 알리는 **복잡한 무늬** 같기도 했다. (171)(강조 및 밑줄 인용자)

③ 뭘 하니 너는 지금. **이순일이 혀를 차며 앞으로 나섰다.** 이순일은 앞서 가면서 방해가 되는 가지들을 손으로 잡았다가 놓았는데 그때마다 **뒤편을 따르는 한세진의** 이마며 눈언저리를 향해 가느다란 가지들이 회초리처럼 날아왔다. (171)(강조 및 밑줄 인용자)

타자와의 공거를 지향하고자 하는 한세진의 변화는 인용문 ②의 아까시나무의 “군락”을 바라보는 모습에서도 감지된다. 한세진은 아까시나무의 ‘군락’을 아름답다고 느끼며, 이것이 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한 무늬”같다고 생각한다. 이때 ‘군락’과 ‘복잡한 무늬’는 타자와의 얽힘, 즉, 타자와의 공존과 공거를 시사하는 메타포로서 기능한다. 이를 통해 한세진

이론』 27(2), 한국비평이론학회, 2022, 130-131쪽 참조; 주디스 버틀러(2021a), 앞의 책, 186-209쪽 참조.

422) 주디스 버틀러(2019), 앞의 책, 154쪽 참조.

423) 위의 책, 147쪽.

424) 문홍술, 「타자지향적인 새로운 윤리적 주체의 정립을 위하여」, 『구보학보』 26, 구보학회, 2020, 742쪽.

은 폭력적 동일성으로 구축되는 ‘하나’가 아니라, 나와 다른 타자를 배제하지 않으며 다성적(多聲的)으로 “‘함께 존재함’을 추구하는 공동체”⁴²⁵⁾로 나아갈 것임을 선포한다. 한세진은 이러한 공존과 공감의 윤리가 “공들여 그린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여긴다.

이것은 또한 인용문 ③에서처럼 한세진이 앞서가는 이순일의 길을 뒤따르는 방식인 ‘동행’이라는 메타포로도 재현되고 있다. 황정은은 이순일이 가는 길을 함께 하는 한세진의 모습을 묘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아까시나무의 군락의 이미지를 통해 타자를 수용하는 공거의 모습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연대의 탄생을 희망적으로 제시한다. 작가가 이순일과 한세진의 공거를 통해 주장하는 것은 ‘타자를 배척하지 말 것,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 것, 타자의 슬픔에 무감각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④차로 돌아가는 길에 이순일이 신은 등산화 밑창이 진흙 바닥에 들러붙어 떨어져 나갔다. 그로부터 몇 걸음 더 건지 않아 나머지 한 짝의 밑창도 떨어져나갔다. 한세진과 이순일은 황당해 신발의 상태를 살피다가 딱 한 번 사용하고 내버려두어 걸보기엔 새것 같았지만 고무창이며 접착된 부분이 이미 삭았다는 것을 알았다. 흙바닥에 깊이 박혀 떼어내기도 어려워 보였으므로 그들은 밑창 두 개를 그대로 두고 서둘러 그 장소를 떠났다. (174)(밑줄 인용자)

그래서 작품의 전체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파묘’의 상징성은 “이순일이 신은 등산화 밑창”이라는 기표를 통해 전복적으로 재의미화되고 재정식화된다. 먼저 할아버지의 묘가 이순일의 친정으로 기능했으며, 그의 성묘는 할아버지를 향한 애도 행위였다는 점에서 ‘묘(墓)’는 이순일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순일의 성묘는 가족들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때문에 이순일의 성묘 행위는 곧 이순일이 가족 공동체 내에서 ‘배척’을 당해 가족 내 ‘폭력’에 노출된 상황을 상징한다. 이것은 또한 이순일에 대한 ‘불인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타자로 호명되는 이순일이 ‘파묘’를 진행하는 것은 이러한 소외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하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파묘(破墓)는 이순일이 ‘타자’라는 정체성을 깨뜨리는 행위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흙바닥에 깊이 박혀” “밑창 두 개”를 그대로 두고 온 행위 표상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낡은 등산화의 밑창은 말 그대로 이순일을 괴롭혔던 가족의 인습적 폭력을 의미하며, 그는 이 신발 밑창을 ‘버리고’ 옴으로써 그 폭력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황정은은 이러한 전복적 기표를 사용하여 마침내 이순일이 소외와 배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세진과 함께 진정한 이해와 공감의 연대로 향하고 있음을 재현한다.

3. 일방적 이해의 강요와 폭력의 환치: 강화길의 「음복(飲福)」

3.1. ‘악역’의 출현과 피해-가해의 역전

강화길은 2012년 등단한 이후, 젊은 세대의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다성적이고 중층적인 글쓰기를 통해 여성의 억압적 현실을 폭로하는 작품을 주로 발표해왔다. 텍스트의 생산 행위가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담론을 반영하는 상호텍스트성을 지닌 채 생산되는 것이라 할 때, 강화길의 문학은 이 시대의 당면한 여성 현실을 혼종적으로 재구성하는 변혁적 글쓰기를 실천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음복」은 ‘아버지의 법’에 관해 의문을

425) 이미나, 「황정은 소설에 나타난 ‘공감’의 사유와 ‘공존(共存)’하는 연대의 가능성」, 『인문과학연구』 42, 대구카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19쪽.

제기하는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있어, 표면적 서사 너머에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이중적으로 제시해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의도가 쉽게 드러난다고 생각되지만, 동시에 발화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를 감추어 두고 이를 통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전한 ‘여성 억압적 현실’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①결혼 후 첫 제사였다. (...) 그리고 76부작짜리 중국 드라마를 봤겠지. 후궁들의 암투를 그린 청나라 배경의 사극이었는데, 주인공을 함정에 빠뜨린 악역의 계략이 한창 밝혀지던 중이었다. 남편과 나는 그 드라마를 좋아했다. 주인공이 악역 못지않게 악독했던 것이다. 심지어 그녀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황제의 아이로 속이기까지 했다. 아주 능숙하고 대담하게 그 에피소드를 보고 우리는 매우 흥분했다. 와, 이제 다른 후궁들은 끝났다.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아주 처참하게 몰락할 것이다. 그런데 아이의 정체는 밝혀질까. (10쪽) (밀줄 인용자)

강화길의 「음복(飲福)」은 서사의 첫 부분에 76부작짜리 중국 드라마의 내용을 복선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 중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후궁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황제의 아이로 속이기까지” 한다. 이러한 서사 구성은 「음복(飲福)」 역시 ‘출생의 비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비밀스럽지만, 전혀 은밀하지 않은’ 궁중 암투 혹은 치정극과 비슷하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 작가는 화자인 세나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이의 출생에 관한 사실을 가족 구성원에게 숨기고 또 그들을 속이는 것과 관련될 것임을 독자에게 예고하는 것이다.

악독한 후궁이 자신의 혼외자를 황제의 아이로 속이는 중국 드라마의 서사를 인용하였다는 점(10), 세나의 남편인 정우의 얼굴이 시할머니가 착각할 만큼 시할아버지의 얼굴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닮았다는 점(24), 정우가 시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이국적인 음식을 똑같이 좋아하고 즐긴다는 점(25) 등은 정우가 시할아버지의 혼외자임을 암시한다. 그래서 ‘음복’이라는 제목이 환기하듯 이 소설에서 보이는 가족의 모든 불화는 ‘가부장’인 시할아버지가 그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의도로 얻은 아들인 정우를 자신의 손자로 입적시킨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가족 내부의 갈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폭력은 혼외자인 정우를 가족으로 편입시켜 집안의 대(代)를 잇고자 했던 시할아버지의 가부장적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시할아버지’는 가족 성원에 대한 위계질서와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를 관장하는 ‘가부장’을 의미한다. 가족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가부장인 시할아버지의 강압적 명령에 의해 정우는 혼외자임에도 남성, 즉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항 없이 가족의 내부에 편입된다. 나아가 이 혼외자는 ‘장자(長子)’이기에 제사의 중심축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정우가 집안의 장자가 되는 과정에서 시할머니, 어머니, 고모 등 집안 여성들의 반대 의사는 묵살되고, 이로 인해 집안의 여성들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점은 집안의 ‘악역’이라는 기표를 통해 드러난다.

②그러니 말해보자면, 고모가 그 집의 악역이었다. 집안마다 한 명씩 있는 그런 사람 말이다. (...)

아기 말이야, 아기 안 낳아?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이구나. 다른 식구들의 신경을 긁어대는 인간. 미움받을 소리를 잔뜩 늘어놓고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못돼처먹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 그래, 바로 그녀였다. (9, 11-12쪽)(밀줄 인용자)

“가족은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어머니-자식이라는 유기체적 완결성

과 가부장의 중심에 따라 배열되는 유기체적 질서에 의해 완전성을 획득한다”⁴²⁶⁾는 점에서 ‘가족’은 무결한 신화적 위상을 부여받는다. 신성화된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족만의 배타적인 경계를 구축하게 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을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시할아버지인 가부장은 그가 내세우는 ‘가족’이라는 완전한 자기 동일성에 구성원들을 강제로 포섭한다.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작동하는 보편성의 준칙, 동일성의 에토스는 서로 다른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삶의 제거를 정당화한다. 특히 이 희생자들은 주로 여성들이다.

인용문에서 강화길은 ‘악역’이라는 기표를 통해 가족 내에서의 여성 억압을 가시화한다. 고모는 시할아버지의 사생아이자 외부인인 정우가 가족으로 편입되는 것을 묵묵히 수용해야 했으며, 이것을 가족의 ‘비밀’로 유지할 것을 강요받았다. 시할아버지의 외도는 그 자체로 시할머니, 고모 등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폭력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의 진정한 합의와 화해의 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우를 용인하고 허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 역시 가부장적 권력에 의한 폭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음복’으로 상징되는 가부장제의 윤리적 폭력은 역(逆)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도 한다. 고모는 시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정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 폭력은 정우의 삶 내내 지속된다. 정우는 고모의 적대적인 시선, 무례한 질문, 신경질적인 대답과 같이 날카로운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일상적 폭력에 노출되어야 했다. 또한, 고모의 폭력은 세나에게까지 이어진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이해의 강요’가 고모에게 커다란 윤리적 폭력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피해자였던 고모는 그로 인한 분노를 다른 타자에게 표출함으로써 집안의 ‘악역’이 된다. 요컨대 ‘악역’의 출현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가정 내 폭력의 희생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기제가 된다.

③네 부모님이 고모의 그런 성질머리를 내버려둔 건 할머니 때문이었다. 함께 사는 건 아들이었지만, 할머니가 의지하는 사람은 딸이었기 때문이다. 하소연하고, 짜증을 내고, 온갖 말을 다 쏟아내는 그런 사람. 그녀의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 만일 내가 알게 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말하려나. 그래, 고모가 아니면 누가 할머니를 이해하겠어. 고모가 할머니를 이해해줘야지. (33쪽)(밑줄 인용자)

④할머니를 빨리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는 시아버지의 목소리, 거기서부터 제대로 기억난다. 고모가 시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고모는 엄마는 조금 흥분한 것뿐이라고 방에 혼자 두면 더 심해질 거라고 덧붙였다. 시아버지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네가 같이 있으면 되잖아.” 고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28쪽)(밑줄 인용자)

일방적인 이해의 강요로 작동되는 가족 내 윤리적 폭력은 인용문과 같은 경우로도 나타난다. 고모는 ‘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구성원의 공격성과 부정성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며 그것의 해소에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고모가 아니면 누가 할머니를 이해하겠어. 고모가 할머니를 이해해줘야지”와 “네가 같이 있으면 되잖아.”로 대표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압력은 때때로 가부장적 권력과 공모하며

426) 권명아, 앞의 책, 59쪽.

여성-타자들에게 폭력적인 박탈을 가하기도 한다. 가부장적 폭력은 집안의 온갖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처리하는 감정 노동과 돌봄이 언제나 여성인 딸들의 책무인 것처럼 전제하며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지만, 여성들의 노동과 희생은 은폐되어 비가시화되어 버린다.

⑤아마 그때였을 것이다. 처음으로 나는 고모가 짜증나지 않았다. 그 대화, 한 명은 계속 말을 빙빙 돌려가며 공격하고 다른 한 명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쾌활하게 웃는 그 **기괴한** 대화가 이들 사이에 아주 여러 번 반복되어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고모는 내 남편을 미워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몰랐다. (19쪽)(강조 및 밑줄 인용자)

⑥할머니는 일 년 전 돌아가셨다. 이후 시어머니는 제사를 더 열심히 챙긴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엄마는 영원한 미스터리일 거야.”(31쪽)(강조 및 밑줄 인용자)

가부장적 가족이 행하는 윤리적 폭력은 ‘남성’ 역시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세나의 남편인 정우는 가부장제의 특권적 질서 속에 저항 없이 편입되어 가족 관계에서 고통과 분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남성’이라는 권력을 누릴 수 있었다. 기존 논의에서 정우는 여성 구성원들의 고통을 ‘모름’으로 일관함으로써 가족 내 폭력의 가해자로 평가된다. 하지만, 사실 그는 가족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태생적 비밀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우는 고모의 폭력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마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양,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양 ‘무지(無知)를 연기(演技)’하는 “기괴한” 방식으로 견뎌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고모의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시선”(18)을 한평생 받아왔음에도 세나에게 고모를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부분(12), 시할머니가 정우를 알아보는 장면에서 울컥하는 부분(35), 그리고 ⑤의 인용문처럼 아는 듯 모르는 듯 기괴한 대화를 이어가는 부분은 정우가 자신의 출생에 관한 비밀, 나아가 집안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⑥인용문의 “나에게 엄마는 영원한 미스터리일 거야.”라는 언술은 정우가 평생을 자신의 생모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지 않으며, 궁금해해서도 안 되는 아픔을 안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설사 정우가 그의 출생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정우가 자기 자신의 출생에 대해 ‘무지’하게 되는 것은 가부장적 권력에 의해 설계된 일종의 ‘폭력’에 해당한다. 정우는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진실에 접근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우는 시할아버지를 중심으로 구축된 폭력의 희생자로 재의미화된다.

또한, 정우와 마찬가지로 ‘남성’인 시아버지 역시 시할아버지가 행하는 가부장적 폭력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피해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시어머니가 세나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시어머니는 남편의 배다른 동생 정우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대신 ①자신의 시어머니(정우의 할머니)를 모시며 함께 산다는 것, ②시댁 제사를 열심히 챙기겠다는 것, ③시아버지는 아들이 된 정우의 삶에 어떤 상관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건다.(32-33쪽) 시아버지가 ‘아들의 삶에 어떤 상관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시아버지가 정우의 아버지로서, 나아가 ‘사회적 아버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시아버지에게 부여된 ‘권위’가 그 권위의 재배치로 인해 공적 자리에서 무시되고 삭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가 ‘여성-타자’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억압적 기제와 윤리적 폭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유의미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3.2. 불화의 내파와 상호의존적 연대의 모색

‘음복’이라는 기표로 의미화되는 가부장제는 남아선호, 제사, 대물림 등과 같은 인습과 규율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적인 종속과 지배를 지속해서 생산한다. 가부장이 행사하는 권력은 가족 내 구성원에게 암묵적인 희생과 무의식적으로 체화된 복종을 강요하며 동일성으로 환원된 가족 윤리를 따를 것을 은밀하게 요구한다. 그와 같은 구조화된 권력의 지배에는 언제나 피지배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윤리적 폭력이 동반된다.⁴²⁷⁾ 이 과정에서 가족 공동체는 교묘하게 작동하는 가부장제의 폭력으로 인해 조금씩 와해되고,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을 양산한다.

소설 속에서도 정우를 포함한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부장제를 따라 작동되는 윤리적 폭력에 의해 고통을 받으며 상처를 입고 취약해진다. 주디스 버틀러에 의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취약성’은 인간이 연약하고 통제 불가능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타인에게 내맡겨진 존재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존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폭력이나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⁴²⁸⁾ 동시에 몸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공공성의 장소’이기 때문에 인간은 ‘관계적 속성’으로서의 취약성 또한 지닌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가능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타자, 환경, 사회 구조와 그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관계’에 의해 언제든지 붕괴되고 상실할 수 있는 것이다.⁴²⁹⁾ 정우의 가족 구성원은 바로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타자에 의한 폭력에 노출되고, 반복해서 취약해진다. 즉, 시할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연루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충돌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시할머니, 고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정우, 그리고 세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은 고통을 받는 취약성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성은 역설적으로 세나와 다른 여성 희생자인 시어머니를 묶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취약하기에 상처 입은 인간들은 타인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상호의존성’을 깨달으면서, 서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각자의 삶보다 먼저 있으면서 각자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키려 노력한다.⁴³⁰⁾ 다시 말하면 취약성은 폭력에 의해 취약해진 희생자들을 연결하고 상호의존적인 연대를 실행할 수 있는 동력(動力)이 되는 것이다.

①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말이다. 이를테면 시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며 함께 살고, 제사를 열심히 챙기기로 한 대신 시아버지는 너의 삶에 어떤 상관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 약속에는 나의 삶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머느리인 내게만 말해주기로 역시 약속했다는 것.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볼까. 나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내용이 담긴 장문의 문자를 받았다. 시어머니는 글 말미에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사에 오지 않아도 된단다.’

그녀는 강조했다.

‘정우는 다 모르게 해줘.’ (32~33쪽)(강조 및 밑줄 인용자)

시어머니는 세나에게 장문의 “약속” 문자를 보내 세나와 연대를 맺는다. ‘약속’은 시어머니와 세나가 맺은 연대를 함의하며, 이 약속에는 ‘앞으로 제사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

427) 강숙영, 앞의 글, 123쪽 참조.

428) 주디스 버틀러(2021a), 앞의 책, 55-56, 62-63쪽 참조.

429) 주디스 버틀러, 『비폭력의 힘』, 김정아 역, 문학동네, 2021b, 65-70쪽 참조.

430) 위의 책, 123-124쪽 참조.

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에는 아들 내외가 제사에 참석했다가 혹 태생의 비밀을 알게 될 경우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내재해있다.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심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는 의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정우는 다 모르게 해줘.”라는 대사에서 보다 분명히 확인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약속에는 며느리인 세나의 불참을 통해 며느리에게 가부장적 폭력으로 상징되는 제사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이 약속에 세나의 “삶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며, 세나 역시 보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가족의 공고한 윤리적 질서로 내려오던 제사를 시어머니인 여성이 주체적으로 단절하고 있다는 점은 시어머니가 더 이상 희생되고 고통받는 여성-타자가 아니라 여성-주체로서 불화를 내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약속의 세습을 자신의 대(代)에서 단절하겠다는 시어머니의 실천은 가부장제의 폭력에 맞서려는 저항의 수행으로 번역된다.

② 왜냐하면 너는 아마 영원히 모를 테니까 뭔가를 모르는 너, 누군가를 미워해본 적도 없고, 미움 받는다는 것을 알아챈 적도 없는 사람.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너는 코스모스를 꺾은 이유가 사실 당신 때문이라는 걸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나를 이해해주는 외침을 언젠가 돌려주고 말겠다는 비릿한 증오를 품은 사람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지.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네가 진짜 악역이라는 것을. (38쪽)(밀줄 인용자)

③ 과연 그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나는 계속 그날을 떠올린다. 이 이야기를 계속 중얼거린다. 너. 너와 나로 인한 너. 무심코 생각하면 나를 닮은 모습으로 불쑥 떠오르는 너. 그래서 나를 겁나게 했던 너. 어떤 계획도 세우고 싶지 않게 만들었던 너. 하지만 나는 늘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부디 너를 위해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그래. 그래서 나는 그날 대답했던 거야. 이것이 너의 드라마, 복(福)이 되길 바라며. (39쪽)(강조 및 밀줄 인용자)

세나 역시 시어머니와의 연대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실천적 수행을 진행하게 된다. 「과묘」에서의 한제진과 마찬가지로 세나 역시 정우라는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 세나가 느끼는 사랑과 책임감은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감각이자, 타자의 연약함을 깨닫고 무의지적으로 타자를 책임지게 만드는 행위의 전제가 된다.⁴³¹⁾ 이 책임감은 세나와 정우가 취약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황 그 자체를 떠맡고,⁴³²⁾ 철저히 선택과 무관한 ‘진존재론적인 민감성’으로 작용하여 세나의 행동을 촉구하게 만드는 ‘윤리적 명령’이 된다.⁴³³⁾ 그래서 세나는 ③의 인용문에서처럼 그의 행동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나가 실천하는 수행은 바로 정우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다. 비밀을 둘러싼 폭력에서 철저히 약자이고 타자일 수밖에 없는 정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세나는 정우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출생의 비밀을 알면서도 함구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래서 세나는 그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분리시키고자 한다. 이 수행은 동시에 세나의 미래의 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음복(飮福)」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나는 “너. 너와 나로 인한 너. 무심코 생각하면 나를

431) 주디스 버틀러(2019), 앞의 책, 154쪽 참조.

432) 김은주, 앞의 글, 78쪽 참조.

433) 주디스 버틀러(2019), 앞의 책, 154쪽 참조.

얇은 모습으로 불쑥 떠오르는 너.”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진술에서 ‘너’는 세나의 미래의 딸을 의미한다. 이 장면은 세나가 미래 세대의 여성인 ‘세나의 딸’을 위해 폭력의 대물림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동시에 이것은 ‘시어머니’로 대표되는 과거 세대의 여성과 현세대의 여성인 세나와 미래 세대의 여성인 ‘세나의 딸’이 상호의존적으로 연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가부장제 사회에서 배제되고 고립되었던 여성-타자‘들이 주체적으로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연대는 ‘여성’ 스스로 인식하고 기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적 의지의 발화로 해석되기도 한다.

나아가 세나는 가족의 폭력을 상징하는 ‘음복’을 정반대의 의미로 환치하고 새롭게 재의미화한다. 시할아버지는 혼외자의 수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부장적 권력을 내세워 ‘가족’의 윤리를 소환하고, ‘음복’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내세워 정우를 장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강제로 규정된 ‘아버지의 법’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면서 갈등을 심화하고 가족 내 폭력을 재생산한다. 그래서 ‘음복’은 가족 간 위기와 고통, 그리고 되풀이되는 윤리적 폭력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세나는 “이것이 너의 드라마, 복(福)이 되길 바라며”라고 말하며 제사에 불참할 것을 결심하고 정우와 미래의 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방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전까지 부계(父系)로부터 이어지는 ‘폭력의 반복’일 뿐이었던 ‘음복’은 이제 세나의 실천으로 인해 모계(母系)로부터 전수된 진정한 “복(福)”으로 새롭게 전환된다. 또한, 음복은 미래의 딸에게까지 닿아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연대를 함의하는 기표로 재의미화된다.

4. 나가며

지금까지 본고는 황정은의 「과묘」와 강화길의 「음복(飲福)」에서 재현된 가족 내 윤리적 폭력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전복적 실천과 수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황정은의 「과묘」를 분석한 2장에서는 가부장적 가족의 구성원들로부터 ‘인정’과 공감을 얻지 못해 구성적 외부로 소외되는 폭력에 대해 고찰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타자의 자리를 주체의 내부에 마련하는 공거의 윤리를 통해 폭력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여성-타자의 실천에 대해 논하였다. 강화길의 「음복(飲福)」을 분석한 3장에서는 가족이라는 자기 동일성의 윤리를 내세워 여성 구성원에게 강압적인 이해를 강요하는 윤리적 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이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시에 취약성을 가진 여성-타자들이 상호의존적인 연대를 맺음으로써 가부장적 폭력에서 비롯된 불화를 스스로 내파하는 저항적 수행에 대해 논하였다.

황정은과 강화길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가족 내의 윤리적 폭력에 주목한다. 하나는 동일화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폭력이며, 다른 하나는 동일화의 과정을 강제하여 구성원을 ‘포섭’하는 형태의 폭력이다. 황정은의 「과묘」는 전자에, 강화길의 「음복(飲福)」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황정은은 타자의 슬픔이라는 감정에 응답하는 윤리와 타자를 수용하는 ‘공거’를 강조하는 반면, 강화길은 복수적 타자가 수행하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상호의존적 ‘연대’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타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윤리적 호소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타자와의 공존이 ‘윤리적 폭력’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황정은의 「과묘」와 강화길의 「음복」은 가부장적 가족 구조에서 여성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폭력, 권력 불평등의 체제를 확증하거나, 억압적 가족 이데올로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이러한 부

정의 증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들 간의 공거와 연대를 목적한다. 또한, 가족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보편성과 동일성의 폭력을 오히려 여성들의 새로운 윤리적 저항의 수단으로 전복시키고 재의미화함으로써 “불안정성의 한가운데에서 출현하는 수행적인 정치적 행위의 가능성”⁴³⁴⁾을 모색한다. 이는 곧 여성들이 여성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의 변화를 시도하는 ‘수행적 주체’가 되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동시에 행위하고 있다는 동시성”⁴³⁵⁾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황정은·강화길 소설은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공적 사회가 정형화한 ‘여성성’을 정치화하고 문제 삼는 수행적인 행위를 통해 전복의 정당성을 획득한다. 황정은·강화길의 발화법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부재’와 ‘공백’의 기표로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일관성과 진리를 전복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을 심문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하여 황정은·강화길 문학은 이 시대의 ‘여성’의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타자 지향적인 문학의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434) 주디스 버틀러,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김웅산·양효실 옮김, 창비, 2020, 207쪽.

435) 위의 책, 221쪽.



